경기도 역사여행 [사건 편]

경기도의 형성

경기의 첫 시작

조선 건국과 경기의 변화

근대의 경기도

현대 경기도의 변화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경기도의 대몽 항쟁

경기도의 양난 극복

경기도의 국권 수호 운동

경기도의 독립 운동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경기도가 주도한 조선후기 문화발전

근대 교육의 산실 경기도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미래산업의 중심, 경기도



9 788999 901560 53910

ISBN 978-89-999-0156-0 53910(비매품)

중학교 자유학년제 활용 교재

경기도 역사여행

【사건 편-교사용지도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경기도 역사와의 만남!

2016년은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해 입니다.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현재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자유학기제를 설계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찾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미리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 천년에 즈음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찾아보는 기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인물들이 살아온 경기도는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집필진은 모두 경기도의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인물, 문화유산, 사건 등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역사를 공부한 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1학년을 지나 2학년부터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연계하여 공부할 교육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자유학년제에 적용 가능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대주제 중에서 이 책은 '경기도의 사건 편'입니다. 사건 편에서는 경기도라는 지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경기도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아보고, 경기도의 국난극복과 문화 발전 모습, 평화와 미래를 이끄는 경기도의 모습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그 속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의 사건은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경기도의 형성,
둘째는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셋째는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넷째는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재학 중인 중학교 학생들이 본 교재를 활용하여 경기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 모두 이 교재를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차 례

1단원 경기도의 형성

1차시
경기의 첫 시작 …… 12

2차시
조선 건국과 경기의 변화 …… 23

3차시
근대의 경기도 …… 41

4차시
현대 경기도의 변화 …… 68

2단원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5차시
경기도의 대몽 항쟁 …… 82

6차시
경기도의 양난 극복 ……104

7차시
경기도의 국권 수호 운동 …… 130

8차시
경기도의 독립 운동 …… 162

3단원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9차시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 184

10차시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 208

11차시
경기도가 주도한 조선후기 문화발전 …… 219

12차시
근대 교육의 산실 경기도 …… 243

4단원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

13차시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 278

14차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 298

15차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 344

16차시
미래산업의 중심, 경기도 …… 364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전체 구성은 연표, 생각 열기, 역사 속으로, 생각 나누기, 생각 더하기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 연표

이야기 속 경기도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을 함께 제시하여 각 사건들이 개별적인 사건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생각 열기

학생들이 경기도의 사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와 글로 구성하였습니다. 생각 열기의 내용은 사건과 관련된 경기도의 인물, 행사, 지역, 문화유산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역사 속으로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개 단원 16개의 이야기를 연대기적 구성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설정된 4개의 주제를 통해 각 사건들을 주제별로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건별로 인물이나 문화유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와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나누기

경기도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논술과 토론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생각 더하기

경기도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1단원

경기도의 형성

1차시
경기의 첫 시작

2차시
조선 건국과 경기의 변화

3차시
근대의 경기도

4차시
현대 경기도의 변화



1차시

경기의 첫 시작

1. 고려의 건국 과정

가. 고려의 건국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 시대의 분열을 마감한 사람이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송악 지방의 호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송악(개성) 지방은 예성강을 끼고 있어 문물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왕건의 집안은 신라 말 해상 세력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왕건의 조상 이야기에는 유달리 바다와 관계된 내용이 많습니다. 왕건의 할아버지는 중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서해 용왕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잡았습니다. 용왕의 답례로 왕건의 할아버지는 용왕의 딸인 용녀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왕건의 할아버지가 중국에 간 것은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용왕은 당시 서해에서 이름을 떨치던 세력가를 뜻합니다. 해상 세력과 손잡고 왕건 가문은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 그 세력이 송악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왕건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궁예에게 투항했고 왕건은 궁예의 신하로 성장했습니다. 왕건은 한강 유역을 점령하는 등 후고구려의 영토를 넓히는 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수군을 이끌고 빛나는 공훈을 세웠습니다. 궁예의 명령을 받아 서남 해안의 중심지인 나주 지방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큰 공을 세운 결과 왕건은 시중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후고구려의 정치적 실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궁예는 집권 후반기에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미륵 관심법을 내세워 많은 사람을 탄압했습니다. 어느 날 궁예는 왕건을 추궁합니다. "경이 어젯밤에 여러 사람을 모아 반역을 꾀한 것은 무슨 까닭인고?" 왕건은 "신이 사실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옵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 궁예는 웃었습니다. 자신이 남의 마음을 꿰뚫어본다는 것이 여러 신하들 앞에서 증명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은 매우 정직하도다." 이 말로 왕건은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신하들은 점점 늘어갔고, 궁예의 잘못된 정치에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드디어 마군 장군 홍유·배현경·신숭겸·복지겸 등이 궁예를 내몰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네 명의 장군은 지도자로 왕건을 내세웠습니다. 왕건은 호족적인 기반을 갖추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륜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궁예를 내몰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왕건이 의기를 들었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뛰쳐나와 궁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왕건을 환영했습니다. 백성의 물결에 놀란 궁예는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이로써 궁예의 전제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왕건은 918년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은 '고려'라 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이죠. 이 점은 궁예의 '후고구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송악(개경)으로 옮겼습니다. 송악은 왕건의 고향이며 자신의 세력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그 뒤 국가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자 민심을 수습하는 데 힘썼습니다.

[출처 : 고려의 건국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2009. 2. 5., (주)신원문화사)]

나. 고려의 행정구역

고려의 행정구역

고려시대 지방행정구역은 904년(태조 23)에 주·부·군·현의 명칭으로 존재하였다. 지방행정은 지방의 호족들이 거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상주시키지 못하고 임시 출장관인 금유(今有)·조장(租藏)·전운사(轉運使) 등이 수시로 순회하며 조세수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불과하였다. 983년(성종 2)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호족의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즉, 고려의 지방행정은 12목제를 중심으로 정착되어 갔으나 995년(성종 14)에는 지방을 10도로 나누고 12주에는 각각 절도사를 두고 10도에는 580여 개의 주현을 두었다. 1011년(현종 2)에는 12주 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 75도 안무사를 두었다.

1018년에는 도의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 8목, 56주군, 28진, 20현을 두었으나 개편을 거듭하여 5도(道)·양계(兩界)·4도호(都護)·8목(牧)·15부(府)·129군(郡)·335현·29진(鎭) 및 3경(京)제도를 확립하였다. 지방행정구역에 상주하는 지방관으로 절도사·병마사·유수·부사·목사·지사·현령·현감·진장·진사 등이 있었다. 지방향리들에게는 향직이 주어졌는데, 향리의 장을 호장(戶長)이라 하고 병사를 통솔하는 자를 장교라 하였다. 품계는 중앙의 것을 모방하여 3중대신·중대신(1품)부터 군윤(軍尹)·중윤(中尹, 9품) 등을 두었다.

특히 고려 태조는 지방 토착세력의 회유와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심관제(事審官制)를 실시하였다. 지방의 토호나 향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기인제(其人制)가 있었다. 고려 후기도 전기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도를 확장하여 좌·우도로 나누고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를 두어 관장하게 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고려의 도성

고려 태조 왕건은 건국한 다음 해인 태조 2년(919) 도읍을 철원(鐵原)으로부터 송악(松嶽)의 남쪽으로 옮기면서, 본래 고구려의 부소갑(扶蘇岬)이었던 송악군과 고구려의 동비홀(冬比忽)이었던 개성군(開城郡), 2군의 땅에 도읍을 정하여 궁궐을 창건하고, 시전(市廛)을 세우며, 방리(坊里)를 가려 5부(部)로 나누었다. 이 개경은 북으로 송악(松岳)이 둘러 있고, 남으로 용백산(龍帕山)을 바라보는 분지에 자리 잡았다.



궁성(宮城)과 황성(皇城)은 태조 2년(919)에 송악산 아래의 만월대(滿月臺)와 그 남쪽에 쌓았는데, 이곳에는 이미 신라 효소왕 3년(694)에 축성한 성이 있었고, 이 성에 잇대어 송악산의 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남쪽의 만월대터[滿月臺址] 일대를 돌아 다시 송악산의 북성문까지 연결시킨 발어참성(勃禦塹城)이 있었다.

이 발어참성은 진성여왕 10년(896) 궁예(弓裔)가 왕건(태조)으로 하여금 쌓게 했던 성이다. 발어참성의 중간쯤을 가로막아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 하반부를 황성으로 삼고, 황성벽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만월대(滿月臺)를 조성하고, 궁궐을 세우고 궁성을 쌓았다.

궁성의 둘레는 2,170m, 동서 길이 375m, 남북 길이 725m이고 넓이는 250,000㎡이다. 이를 둘러싼 황성은 전체 둘레 4,700m, 동서 길이 1,125m, 남북 길이 1,150m이고, 넓이는 1,250,000㎡이다.

[출처 : 한국건축사, 2006. 9. 15., 고려대학교출판부]

라. 5도양계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에 의하면 남쪽에는 양광도(楊廣道)와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서해도(西海道)·교주도(交州道) 등 5도, 북쪽에는 서북계(西北界)와 동북계(東北界)의 양계로 구성되어있었다. 즉, 고려의 5도양계라는 지방구획은 남쪽의 일반행적구역과 북쪽의 군사지역의 이원적 구성이었던 것이다.

그 밑의 도호부(都護府)·목(牧) 및 군(郡)·현(縣)·진(鎭)을 처음부터 소속시키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급행정구역으로서의 5도 양계는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도제(道制)는 995년(성종 14)에 관내도(關內道)·영남도(嶺南道) 등의 10도를 제정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이때 제정한 10도는 행정단위로서는 의미가 없고 다만 중앙집권화를 굳히려는 목적에서 시행한 보조적 조처였다. 이후에 지방제도가 많이 변화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도의 명칭도 달라지며, 6도 내지는 7도·8도 등으로도 변화하였는데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예종(睿宗) 때(1106~1122)이다. 이때에 비로소 5도의 장관인 안찰사(按察使)가 설치되는데, 이들은 각 도의 주현을 순안(巡按)하면서 ① 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는일, ② 민생의 질고(疾苦)를 묻는 일, ③ 형옥의 심치(審治), ④ 조부(租賦)의 수납, ⑤ 군사적 기능 등을 맡아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임으로서의 외관직(外官職)이 아닌 사명지임(使命之任)으로 경직(京職)을 가진 채로 차사(差使)되었고, 5품 내지 6품의 미관(微官)이었다는 점 등 한계가 있었다.

한편 양계 지역은 변경지대인 까닭에 외관제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병마사(兵馬使)가 설치되고 그 아래의 행정구역인 방어주(防禦州) 및 진(鎭)에도 방어사(防禦使)와 진사(鎭使)·진장(鎭將) 등이 파견되고 있었다. 양계의 설치는 성종 2년의 지방관이 처음 설치된 것과 궤를 같이하며 성종 14년과 현종 9년 등에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대략 같은 과정을 밟았다. 특히 양계의 장관인 병마사는 성종 8년에 그 존재가 확인되며 현종조에는 양계의 병마사가 외직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가 등장한다. 확언하기는 힘들지만 5도제보다는 양계제도가 먼저 자리잡았다는 점은 확실한 듯 싶다. 이는 양계가 국경지대라는 특수지역이었던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5도의 안찰사보다 양계의 병마사의 지위가 높았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양계지역은 원(元)의 불법점탈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원나라의 쇠망으로 다시 부활되기는 하지만 군사적인 성격을 지닌 방어주·진이 일반행정구역인 주현(州縣)으로 개편되고, 양계에도 5도와 같이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었다. 고려의 지방통치구조는 5도양계의 이원적 구조에서 고려말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원화 되었던 것이다.

[출처 : 두산백과]

마. 경기의 역사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데서 기원한다.

1)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왕도의 외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해 왕도의 보위를 도모했던 것은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경의 일이다. 그 영역은 대체로 고려 초의 경주대도독부 관내와 일치하였다.

이곳에는 육정(六停)의 군사집단과 각종의 성(城)·별궁(別宮)·문역(門驛) 등이 설치되었으며, 일부 향(鄕)·성(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왕도의 외곽지역을 '경기'라 부르지 않았으며, 외곽지역 자체가 왕도의 일부였다는 이설도 있다.

2) 고려시대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라 칭한 것은 1018년(현종 9)의 일이다. 995년(성종 14)에 설치된 개경 주변의 6적현과 7기현 중 왕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현을 묶어 '경기'라 부르고, 주현(主縣)인 개성현과 장단현(長湍縣)의 현령(縣令)으로 하여금 분할 통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지방행정조직으로 편제하였다.

성종 때의 적현·기현, 특히 역대 여러 왕·왕후의 능이 소재한 적현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려는 의도에서 설

치된 것이었다.

반면 현종 때의 경기는 왕실 경비의 일부를 지용(支用)하는 궁원전(宮院田)과 중앙관청의 공해전(公廨田) 등을 개성 주위에 집중시키고, 공신전(功臣田)·양반전(兩班田) 등의 사전(私田)을 외방 주현(州縣)에 둠으로써 왕실과 관청의 경비를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권귀(權貴)주 01)는 외방에 지급된 사전에서 전조(田租)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농민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등 폐단이 야기되었다. 이에 사전의 경기 내 지급과 이를 위한 경기의 확대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는 1069년(문종 23)에 양광(楊廣)·교주(交州)·서해도(西海道)로부터 39현을 이입해 원경기(原京畿) 13현과 합해 총 52현을 관할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전의 경기 내 지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의 영역도 현종대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그 뒤 무신집권기와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권귀의 사전 확대는 경기와 외방을 막론하고 일반화되었다.

사전을 경기 내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원종대에 녹과전제(祿科田制)의 실시로 나타났다. 부족한 관원의 녹봉을 보충해주기 위해 지급된 녹과전은 경기 8현의 토지로 국한되었다. 또, 이러한 전통은 고려 말에 단행된 사전개혁에도 계승되어 과전법(科田法)에 반영되었다.

1390년(공양왕 2)경기는 문종 때 확대되었던 영역과 비슷한 규모로 재편되어 총 44현을 통할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도(道) 단위의 지방조직으로 변모했고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설치되었다.

당시의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나뉘어 통치되었다. 영역은 개성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남경(南京)·당성(唐城)·금주(衿州)·과주(果州), 서로는 안주(安州)·연안(延安), 동으로는 철원과 포주(抱州), 북으로는 곡주(谷州)·수안에 이르는 범위로, 통할하는 현(縣)의 수는 문종 때보다 적으나 실제 영역은 그보다 확대된 규모였다.

이러한 경기의 재확대는 1391년의 과전법 실시를 위한 선결조처의 하나로서, 과전을 비롯한 각종의 사전 지급을 경기 토지로 한정시키기 위해서 였다. 이와 같은 사전 지급지로서의 경기의 의미는 과전법이 직전법(職田法)으로 바뀌고, 다시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상실되었으나, 이에 대신해 왕실의 궁방전(宮房田)과 양반관료의 거대한 사유지가 설치되었다.

3) 조선시대

한편, 왕도 보위지역으로서의 경기의 의의는 고려 이래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조선 초에 단행된 경기의 재편과 인조 이후 설치된 사유수부제(四留守府制)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려 말의 경기 좌·우도는 태조·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다시 '경기'로 합칭되었고, 수안·곡주·연안 등 이전 경기의 서북지역이 풍해도(豊海道)로 환속되고, 광주(廣州)·수원·여주·안성을 비롯한 동남지역이 경기로 이속되는 등, 한양을 중심으로 한 재편이 이루어져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신 왕도인 한양을 보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행된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병자호란과 이괄(李适)의 난 등을 겪은 인조대 이후, 경기의 네 요충지인 개성·광주·수원·강화에는 유수부와 함께 관리영(管理營)·수어청(守禦廳)·총리영(摠理營)·진무영(鎭撫營) 등의 군영이 설치되어 왕도와 왕실의 보위를 담당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의 경기는 고려시대와 같이 역대 여러 왕과 왕비의 능이 위치하는 등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곳이었다.

이와 같이 고려·조선의 양시대에 걸쳐 왕도와 왕실의 보위기능을 지닌 경기였지만, 타지역보다 우대받지는 못하였다. 고려의 경우,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 관내에도 수령이 파견되지 못한 속현(屬縣)이 있었으며, 경기의 주현(主縣)에 파견된 수령의 관품도 타도 수령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요역(徭役)·과렴(科斂)·조세의 부과라는 면에서 경기민(京畿民)에게는 타도민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지워졌다. 궁궐과 성곽의 축조 등 각종의 역사에 경기민은 우선적으로 징발되었으며, 상공(上貢)에 필요한 물품 및 재원을 마련할 때에도 경기민에 대한 과렴은 1차적으로, 그리고 과중하게 책정되었다.

또 경기에는 각종의 사전이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경작하는 경기민은 사전주(私田主)에 의해 과다한 조세를 수취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곧 경기의 피폐를 가져왔으므로, 중앙정부는 때때로 경기민에 대해 면세·면역 및 각종 진휼의 혜택을 베풀기도 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바.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 고려 성종(成宗) 14년 을미에【곧 송(宋)나라 태종(太宗) 지도(至道) 원년(元年).】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적현(赤縣) 6, 기현(畿縣) 7을 관할하게 하다가,【고사(古史)에 다만 현(縣)의 수만 기록하고 이름을 적지 아니해서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현종(顯宗) 9년 무오에【곧 송나라 진종(眞宗) 대중상부(大中祥符) 11년.】개성부를 파하고 개성 현령(開城縣令)으로써 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의 3현을 관할하게 하고, 장단 현령(長湍縣令)으로써 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兎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하게 하고,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일렀다. 문종(文宗) 16년 임인에【곧 송나라 인종(仁宗) 가우(嘉祐) 7년.】다시 개성부로 승격시켜 도성(都省)에서 관장하던 11현을 모두 붙이고, 또 서해도(西海道)의 평주(平州)022) 임내(任內)인 우봉군(牛峯郡)을 떼어 이에 붙였으며, 그 후 다시 개성 현령을 두어 개성부에 붙이었다.【연대는 알 수 없다.】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에【곧 명나라 태조 고황제 홍무(洪武) 23년.】경기(京畿)를 갈라 좌·우도(左右道)로 하여,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좌도(左道)로,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을 우도(右道)로 하고, 또 경기(京畿)를 더 넓혀서 양광도(楊廣道)의 한양(漢陽)·남양부(南陽府)·인주(仁州)·안산군(安山郡)·교하(交河)·양천(陽川)·금천(衿川)·과주(果州)·포주(抱州)·서원(瑞原)·고봉현(高峯縣)과 교주도(交州道)의 철원부(鐵原府)·영평(永平)·이천(伊川)·안협(安峽)·연주(漣州)·삭녕(朔寧)으로써 좌도(左道)에 붙이고, 양광도의 부평(富平)·강화부(江華府)·교동(喬桐)·김포(金浦)·통진현(通津縣)과 서해도(西海道)의 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배주(白州)·곡주(谷州)·수안군(遂安郡)·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현(俠溪縣)으로써 우도(右道)에 붙이고, 각기 도관찰 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고 수령관(首領

官)으로써 돕게 하다가, 【4품 이상은 경력(經歷)을 삼고, 5품 이하는 도사(都事)를 삼았다.】 우리 태조(太祖) 3년 갑술에 【곧 홍무 27년.】 도읍을 한양부에 정하게 되매, 그 이듬해 을해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는 새 서울[新都]에 가는 길이 멀므로 도로 서해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광주(廣州)·수원부(水原府)·양근군(楊根郡)·쌍부(雙阜)·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현(砥平縣)을 갖다 이에 붙이고, 광주·수원의 관할인 군(郡)·현(縣)을 갈라서 좌도(左道)로 하고, 양주·부평·철원·연안의 관할인 군·현을 우도(右道)로 하고, 7년[戊寅]에 또 충청도(忠淸道)의 진위현(振威縣)을 떼어서 좌도에 붙이었다가, 태종(太宗) 2년 임오에 【곧 홍무 35년.】 두 도(道)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성관찰사(省觀察使)·수령관(首領官)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 【곧 명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영락(永樂) 11년.】 사방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延安)·배주(白州)·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해도(豐海道)에, 이천(伊川)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驪興府)·안성군(安城郡)·양지(陽知)·양성(陽城)·음죽현(陰竹縣)과 강원도의 가평현(加平縣)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라 일컫고 사(司)를 수원(水原)에 두었다. 동쪽은 강원도 춘천(春川)과 원주(原州)에 이르고, 서쪽은 황해도 강음(江陰)과 배천(白川)에 이르며, 남쪽은 충청도 죽산(竹山)과 직산(稷山)에 이르고, 북쪽은 황해도의 토산(兎山)과 강원도 이천(伊川)에 이르러서, 동서가 2백 64리요, 남북이 3백 64리가 된다.

목(牧)이 1이요, 도호부(都護府)가 8이요, 군(郡)이 6이요, 현(縣)이 26이다.

2.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의 첫 시작			
학습 목표	1. 경기의 의미를 안다. 2. 경기의 제도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경기600년과 경기100년의 의미를 알아본다.		
전 개	1. 경기란 무엇일까? (15분)	경기의 개념을 알고 경기를 선포한 1018년을 시작으로 경기1000년이라 부르게 된 것을 이해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고려의 건국과 수도 개경(15분)	후삼국시대 후고구려의 수도였다가 철원으로 천도한 뒤, 918년 왕건의 고려 건국 이후 다시 개경으로 천도한 과정을 알아본다.	
	3. 경기의 변화(15분)	1018년 경기 선포 이후 고려시대 경기의 의미와 영역의 변화를 살펴본다. .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20분)	- 경기제 실시의 배경을 이해한다. - 경기제의 변천 과정을 알고 이를 확인한다.	
	함께 해봅시다(20분)	자신이 생각하는 경기도 사람에 대해 논거를 찾아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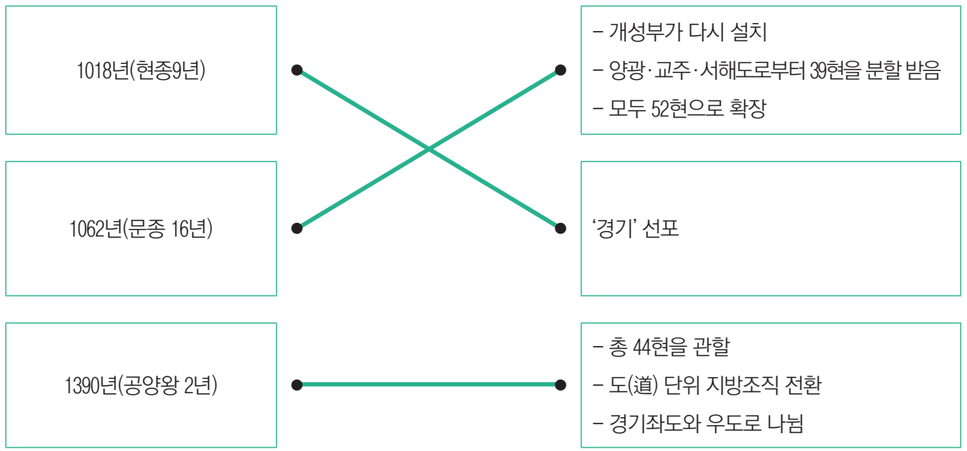
3.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1018년(현종 9년)에 '경기' 실시의 배경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1018년(현종 9년)에 지방행정조직을 크게 개편하게 됩니다. 현종 이전까지는 중앙의 행정력이 국가 전체를 관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건국이후 지속된 노력의 하나로 1018년에야 비로소 군 · 현급(오늘날 시,군,구)의 행정 단위까지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2. 다음은 경기 제도의 변천입니다. 같은 것끼리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생각 더하기]

경기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경기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논거를 제시하여 글을 써 보세요.

경기도 사람은	1.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2. 경기도 사람은 혁신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1.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자라 경기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야말로 경기도 사람인 것이다....(중략) 2. 경기는 지방이면서도 중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의 지식과 정보를 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인 것이다. 등

4.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8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경기도박물관, 『조선 근본의 땅, 경기』, 경기도 박물관, 2014

경기문화재단, 『경기, 천년의 문화사-고려전기』, 경기그레이트북스, 2018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1』, 휴머니스트, 2012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 사료 (http://db.history.go.kr/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동영상]

[신문기사]

장덕호, 「1018년, 왕실 보좌·독립적 지방행정조직 '경기' 탄생」, 중앙일보 2015. 03. 16. https://news.joins.com/article/17359397

2차시

조선건국과 경기의 변화

1. 조선건국과 한양천도

가. 한양 천도의 필요성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양 받은 이성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도평의사사에 한양으로의 천도를 명하였다. 실제로 한양천도가 최종 확정되고 현실화되기까지는 2년여의 기간이 더 걸렸지만 조선건국초기부터 한양은 새로운 도읍지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천도를 서두른 이유는 고려의 지배층이 엄존하고 있는 개성을 떠남으로써 구지배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것이 조선왕조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속히 떠나려고 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한양으로서의 천도를 추진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한양천도에는 신라 말이래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마다 대두되었던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컸다. 개성의 지덕(地德)이 이미 다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논리인데, 한양은 언제나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천도를 정당화시키고 대내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성격이 컸다. 한양을 도읍지로 선택하게 된 가장 실질적인 요인은 한양이 갖추고 있는 인문 지리적 조건이었다.

하나의 왕조가 도읍지를 선택하는 데는 무엇보다 인문 지리적 요인이 중시 되지 않을 수 없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데다가 서쪽이 바다요,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어 무엇보다 군사적인 방어에 유리한 지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인 이점에 더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교통의 편리함이었다.

당시는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농업생산물이 국가재정의 기반이었다. 정부는 조세곡(租稅穀)을 거두어 수도로 운반해 오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육상교통은 극히 빈약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 곡물을 운반하는 것은 매우 곤란했고, 조세곡의 대량수송은 수상교통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의 도읍지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조세운반이 편리한 곳에 자리잡아야 했다. 이 점에서 한강 유역에 위치한 한양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점을 갖추고 있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지로 점찍은 것도 바로 교통 조건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이 한양의 형세에 대해 말하기를 "조운(漕運)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이 이수(里數)도 고르니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것"이라고 하였

다. 조선후기의 지리서인 『택리지』에서도 “한강변의 강촌들은 모두가 서해의 이점을 이용하여 팔도의 배가 모이는 곳”이라 하여 수운의 편리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강은 서해의 바닷길을 서울까지 이어주는 내륙수로였던 것이다.

한양은 외적방어를 위해서도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한양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이 평탄한 분지지형인데다가, 남쪽으로 한강이 감싸고 흘러 외적을 방어하기에 좋았다. 한강은 수로로서는 교통로의 역할을 하지만, 육로의 측면에서 보면 육로를 끊는 일종의 장애물이었다. 이 점은 방어의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유리함에 바탕 하여 한양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선택되었다. 1394년 10월, 드디어 조선왕조는 새 도읍지인 한양으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서울은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으로서 본격적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한양은 조선왕조 5백여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무대가 되었으며, 조선왕조가 멸망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그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수도가 한강 유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한강은 명실상부하게 한반도의 역사적 삶을 응축하는 상징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건국과 한양천도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강 생활문화),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나.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한양천도

“무슨 물건으로 점을 칠까?” (태종)

“종묘 안에서 척전(擲錢)할 수 없으니, 시초(蓍草)로 점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첨)

“시초가 없고, 또 요사이 세상에는 하지 않는 것이므로 알기가 쉽지 않으니, 길흉(吉凶)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태종)

“점괘의 글은 의심나는 것이 많으므로, 가히 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김과)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알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 또한 척전은 속된 일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있었다. 고려 태조가 도읍을 정할 때 무슨 물건으로 하였는가?”

“역시 척전을 썼습니다.” (조준)

“그와 같다면, 지금도 척전이 좋겠다.” (태종)

(『태종실록』 4년 6월 10일)

척전과 시초는 모두 점을 치는 방법입니다. 척전은 동전 던지기, 시초는 풀을 뽑아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1404년, 조선이 건국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수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이성계가 1394년 한양 천도를 강행했지만, 불과 5년만에 정종이 다시 개경으로 뒤집었습니다. 태종도 개경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개경파와 한양파의 대립은 계속됐고, 태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척전을 선택했습니다.

점을 치기에 앞서 태종은 주위를 돌아보며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종묘에 들어가 송도(松都, 개경)와 신도(新都, 서울)와 무악(毋岳, 오늘날 서울 신촌 연세대 일대)을 고(告)하고, 그 길흉을 점쳐 길(吉)한 데 따라 도읍을 정하겠다. 도읍을 정한 뒤에는 비록 재변(災變)이 있더라도 이의(異議)가 있을 수 없다.”(『태종실록』 4년 6월 10일)

그 결과, 신도는 ‘2길(吉) 1흉(凶)’이었고, 송경과 무악은 모두 ‘2흉 1길’. 600년 수도 한양의 탄생 순간입니다. 그리고 태종이 공언한대로 이 논란은 영원히 종식됐습니다. 신생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했던 태종은 후세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긴 것 같습니다.

건국 시조의 강력한 의지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한양의 운명은 툭하면 기로에 놓였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왕과 일부 최고위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관료는 고려시대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몸은 한양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옛 수도인 개경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500년 가까이 수도였던 개경이 이제 막 수도로 건설된 한양보다 인프라가 풍부한데다 자신들의 인적·물적 기반이 남아있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새 왕조 역시 여전히 국가 제1 도시인 개경의 어지러운 민심을 수습해야 했기에 적당한 ‘회유책’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조선은 한양을 수도, 개경을 제2수도인 부도(副都)로 하는 양경제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국제무역항 벽란도가 인접하고 경제 인프라가 발달한 개경은 상업 중심지로, 궁궐과 종묘사직을 둔 한양은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개념이 이때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이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되돌리자 분위기는 개경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 버립니다. 정종이 개경 환도를 주장했을 때 조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경이 수도가 되자, 한양은 거꾸로 제2수도인 부도(府都)가 됐습니다.

심지어 한때 부도로서의 존재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제례 의식 때마다 종묘·사직을 찾아 한양을 오가는 것이 불편했던 태종은 개경에 종묘와 사직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모든 조건이 앞서는 개경이 조선의 수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겠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개국공신 세력의 리더격인 조준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양은 태조가 창건한 도읍지이고 개성은 인민의 생업이 안정된 땅이므로, 양경(兩京)을 폐지할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후 최영 세력을 숙청할 때 죄목으로 꺼내든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양 천도’라는 점입니다. 천도를 추진해 민심을 뒤흔들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당시 한양 천도설을 놓고 개경의 민심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쿠데타 세력인 이성계는 한양 천도의 ‘수괴’를 처단해 민심을 얻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6년 후 이성계야말로 한양 천도를 강행하는 ‘수괴’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 개성 주민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한양 천도 논의는 이성계 세력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격동의 시기였던 고려 말에 한양 천도설이 계속 등장한 것은 이른바 『도선비기』에 전해진다는 ‘삼경순어설(三京

巡御說)' 때문입니다. 왕이 세 곳의 수도에서 고르게 정무를 보면 국운이 트인다는 설입니다. 곳의 지기(地氣)가 모두 소진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고르게 받으라는 것인데, 전형적인 '풍수지리+농경문화'의 사고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3포식 농업도 지력을 소진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요. 어찌됐든 고려의 창업과 개성 도읍을 점지한 것으로 알려진 도선의 영향력은 고려 내내 강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의 입지로는 개성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한양을 추천하며 서운관 관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한양은 개성 다음으로 좋은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도전조차 "(수도 자격을 갖춘 곳은) 동경(경주)·서경(평양)·완산(전주)·송경(개경)이 있다"며 한양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조선의 새 수도로 추천된 한양·무악·계룡이 하나같이 개경 이남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14세기 이후 논농사가 발전하면서 그 중심인 충청·경상·전라, 소위 하삼도 지역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했습니다. 하삼도의 농업경제발전으로 이 지역 지배층이 신진 세력으로 부상하는 기미가 보였고, 새 도읍도 남쪽으로 향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를 바꾸는 천도는 늘 저항이 뒤따랐습니다.

고려 공민왕이나 우왕의 한양 천도도 시도에 그쳤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철저하게 궤멸됐습니다. 조선 시대에 천도 시도는 광해군의 교하 천도가 유일합니다. 이 또한 절대적 지지세력인 북인이 집권했음에도 무위에 그치고 맙니다. 오직 무력을 독점했던 이성계만 가까스로 성공시켰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천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수도가 단순히 정치·행정의 중심지 역할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도는 단지 왕궁을 옮기고 지배층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물자 유통과 방위체계 등 여러 사회적 시스템을 다시 재편하는 커다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강력한 왕권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천도는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수도 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조적 수도를 별탈없이 운영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3경제가 대표적입니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수도인 개경 외에도 평양을 서경, 경주를 동경으로 지정했습니다. 서경은 고구려의 계승의지를, 동경은 패망한 신라의 민심 회유를 위한 정치적 고려였습니다.

조선도 한동안 양경제를 유지했습니다. 태종 이후 세조·성종도 개성에 머무르며 정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성종 때 완성한 『경국대전』에서 인사를 다룬 이전(吏典)에 따르면, 개성의 관료는 지방직인 외관(外官)이 아니라 중앙직인 경관(京官)이었습니다. 개성은 종2품 유수(留守)를 둔 특별 행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구요. 정조가 건설한 화성행궁도 천도가 아니라 제2 수도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조가 화성행궁을 건설하며 한 번도 천도를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정조가 순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화성행궁에 머물며 상왕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화성행궁 건물의 하나인 낙남헌(洛南軒)도 제2 수도를 염두에 뒀다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이 명칭은 한나라 고조가 양경(兩京)의 하나였던 낙양에서 주연을 베풀었던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동전 던지기로 결정된 한양 천도

다. 경기좌도와 우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경기도를 분할하여 설치하였던 행정구역이다. '기(畿)'는 중국의 주나라에서 왕성을 중심으로 500리 이내의 땅을 뜻하였으며, 서울을 에워싼 문지방이라는 뜻이다.

1018년(현종 9)정주·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 등 여러 고을을 상서도성(尙書都城)의 직할이 되게 하여 처음으로 '경기'라 하였다. 1106년(예종 1) 10도를 고쳐서 1경(京)·5도(道)·양계(兩界)로 할 때 이 일대는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 양주·광주·충주·청주의 머리글자를 합한 이름)로 하였다가 충숙왕 때 양광도(楊廣道)로 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 처음으로 경기를 갈라 좌도·우도로 나누고 도성에서 바라볼 때 경기의 왼쪽 지방을 경기좌도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운의 편리를 위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도를 위아래로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강화·광주·수원·여주·부평·남양·이천·인천·안성·김포·양근·안산·용인·진위·양천·지평·과천·시흥·음죽·양성 등이 속하였다. 1413년(태종 13) 좌도·우도를 합하여 경기도로 하고 관찰사를 두었으며, 따로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와 구도개성유후사(舊都開城留後司)를 두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기좌도 [京畿左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 조선의 지방행정구역 8도

조선의 지방 통치 제도로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고을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였다. 작은 군현은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 특수 행정구역이었던 향·소·부곡은 폐지되어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였다. 또한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어 중앙 집권제가 완성되었다. 관찰사는 8도에 파견한 최고의 지방관으로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고 민생 파악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모든 군현에 파견되었으며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 고려 시대 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의 모든 군현에 관리가 파견 되지 못하였으므로 향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어 세력이 약화되었다. 군현 아래 설치하였고 다섯집을 통으로 편성하고 향민 중 책임자를 선임하여 수령의 명을 받아 인구를 파악하고 부역을 징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향소(향청)는 지방 양반 사족들이 구성한 향촌 자치적 성격을 갖는 기구로 좌수와 별감을 선출하여 자율적 규약을 제정하고 향회를 소집하여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일을 하였다.

관찰사는 국왕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내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직임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군사 지휘권까지 갖고 있었다. 특히 관찰사는 권한의 향상에 상응하여 중앙 정부의 장관인 판서(6조의 장관)와 거의 맞먹는 종2품으로 임명하였다. 관찰사 또한 30개월(뒤에 60개월)의 임기를 정해둠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과 정실의 소지를 막으려 하였다.

1406년(태종6)에 전반적으로 군현의 이름을 고치고 등급을 매겼다. 군현의 크기와 군사 관계, 생산력과 인구에 따라 대도호부, 목, 도호부, 현으로 나누어 그 책임자로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현감을 두었다. 이들을 관찰사인 방백(方伯)과 구분하여 수령이라 하였다. 이 가운데 부사는 군사적 성격을 띄는 직임이었다. 지방 행정의 핵심을 이룬 수령 역시 일반 행정은 물론 형벌권까지 행사하였다. 수령은 해당 지역의 크기에 따라 종2품 이하의 벼슬아치가 임명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방관의 지위가 격상된 것과 더불어, 고려 시기까지 존재하던 속현이 소멸되어 모든 군현에 관리가 파견되게 되었다. 또한, 종래의 특수 행정 구역으로의 향·부곡·소 등은 혁파하여 주현에 소속시키거나, 수령을 파견함으로 군현제 조직을 완성하였다.

한편 수령을 보조하는 기구를 중앙정부 조직을 축소한 형태로 만들어 이전의 향리 세력들을 아전(서리)직으로 묶어 말단 행정 관리로 활용하였다. 이들은 수령의 지시에 따라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부역을 매기고 공물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건국초기의 아전의 등장은 고려 시대이래로 지방 행정을 쥐고 있던 호족 세력(향리)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이족(吏族)이 호족을 대신하여 지방 행정을 담당한 것이다.

특히, 유향소와 경재소는 지방 제도의 중앙 집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선 시대 각 군현에는 토착 양반인 유향품관들로 구성된 자치 기구인 유향소(향청)가 설치되어 수령의 보좌와 풍속의 교정 및 향리의 규찰 등의 임무를 맡음으로 수령 및 향리 세력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감시, 지배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편, 지방에 파견된 수령은 향리를 잘 통솔해야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방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유향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향소의 독자 세력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중앙 관리들로 구성된 경재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의 유향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서울과 지방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태종 때에는 수령권 침탈 등 토호적 성향에 따라 1406년 혁파되었다. 1488년 성종대에 다시 부활됨. 이때의 유향소는 수령에 의해 장악된 관 주도의 기구로 변질됨)

또한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하도록 하는 경저리와 감영에는 영저리를 두었다. 이러한 유향소·경재소·경저리의 제도는 모두 지방의 양반과 향리들의 협조를 얻어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여 중앙 집권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로 파악될 수 있다.

군현 아래에는 하부 지역 조직인 면과 리가 있었다. 이에는 이정(里正), 이장 등이 있고 면에는 권농관, 풍헌, 훈장(訓長, 성당의 훈장과는 다름) 등이 있어 농사를 권장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수령과 서리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수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방 제도의 정비는 결국 전국을 하나의 명령계통으로 묶음으로 고려 시대의 이원적이고 미숙한 지방 제도에 비해 효과적인 중앙 집권적 통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 행정 조직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마. 나라의 근본이 되는 땅, 경기도

'근본지(根本地)' '근본지지(根本之地)'는 '뿌리가 되는 곳' 또는 그렇게 여겨지는 곳을 가리킨다. '원래의 땅' 혹은 '본고장' 정도를 이르는 '본지(本地)', 또는 '중요한 곳'을 보다 강조한 말이다. 그곳은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물론 그 집단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개인에게는 고향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성씨집단에게는 '본관지(本貫地)' '관향지(貫鄕地)'를 가리킬 수 있다.

즉 사회적 집단에게는 오래전부터 그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장소로 기억된다. 여기에는 역사성, 정치성, 사회성, 문화성, 기능성 등등의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근본의 땅'이란 중요한 곳, 특히 정치성이 바탕이 되고 사회성, 문화성 등의 측면에서 "나라 전체를 지지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곳"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려 사회에서 평양(서경)은 그곳에서 발생했던 묘청의 역모를 의식해 '반역지지(叛逆之地)'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고려 사직 500년동안 최대 길지(吉地, 명당)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중시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태조 왕건 이래 고려왕실 '근본의 땅(根本之地)'으로 여겨진 것이다. '고려사'를 편찬한 사신(史臣)은 태조가 여러 차례 서경에 행차해 그곳을 고려 근본의 땅으로 삼은 것을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가 멸망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로까지 해석했다. 한편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경 또한 고려의 '근본지'였다. 1361년(고려 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11월 엄동설한에 국왕이 남쪽 안동으로 쫓겨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 이때 15세의 이숭인(1347~1392)은 곧 전쟁의 승리로 응당 국왕이 '근본의 땅'인 송도(松都, 개경)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연한 의지를 시로 읊조렸다.

두 자료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서경과 관련한 '근본의 땅'이란 이해가 고려 왕실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개경과 관련한 그 이해는 고려 사직과 관련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같은 뜻이다. '근본의 땅'이란 의미에는 밑바닥 깊숙하게 뿌리가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스며있다. 이런 점에서 함경도 일대의 동북면(東北面)은 조선 왕업의 터전을 닦은 근본지였고, 서거정(1420~1488)이 '경기전(慶基殿)'이란 시에서 읊고 있듯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었던 전주 또한 조선의 근본지였다.

더 나아가 '근본의 땅'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됐다. 중종 때 영의정 윤은보 등은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 경상·전라 양도를 '우리나라(我國) 근본의 땅(根本之地)'이라 해 산업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고, 명종 때 강화도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근본의 땅으로 설명됐다. 다른 측면에서의 용례 역시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경기(京畿)'와 관련해 '근본의 땅'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조선 건국 바로 직전인 1391년(공양왕 3년)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던 노역(勞役)의 징발에 대한 폐단을 조치하기 위해 염문사(廉問使)를 파견하는 기록에서이다. 이것은 직전에 있었던 과전법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면서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던 과전(科田)과 각종 사전(私田)의 지급대상 토지를 경기제(京畿制)로 한정한 조치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편제됐다. 국왕이 펼치는 시정(施政)의 우선 대상지역이라는 뜻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

경기 좌·우도의 편제는 신왕조 개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중에 하나였다. 이후 '경기제'는 좌·우도의 양도 체제로 1414년까지 24여 년 남짓 운용됐다. 아직 개성에 머물고 있을 때인 1392년 9월11일 태조 이성계는 경기좌도 좌간의대부 이문화와 경기우도의 삼사좌승인 이고에게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경기(京畿)는 왕실에 매우 가까우니 그 은덕을 선포하는 데는 마땅히 사방(四方)보다 먼저 해야 한다. 이에 그 대들을 보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니 나의 정치에 부합하게 하라. …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들이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해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신왕조를 건국했지만 안정된 정국을 운용하지 못했던 건국세력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불안한 민심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왕실과 지근에 있는 경기 백성(京畿人)들에게 그 은덕이 우선 미치게 해 새로운 정치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경기를 '국가 근본의 땅'이라고 규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1394년 한양으로의 정도(定都)는 이후 '경기'의 공간적인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도(國都)의 위치가 남쪽 한양으로 내려와 '경기'의 규모와 범위가 보다 확대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동이 불가피했다.

신왕조의 건국과 한양에서의 새로운 도읍 건설은 단순히 국왕과 왕실이 남쪽으로 옮겨졌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몇해전 국가의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고자 했을 때 십여년 넘게 사회적 논의와 진통을 겪었고, 이와 관련한 SOC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십여년 이상 계속될 것이다. 고려 말 한양 천도 논의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조선의 한양건설은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고려의 남경 운영으로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기반을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정치의 대상, 산업 체계, 문화 내용, 교통망 등 국가의 모든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다. 우선 경기우도에 속해있던 현재 황해도 일대의 배주·연안·강음·우봉·토산 등은 풍해도로 옮겨졌고, 충청도였던 여흥·음죽·양지·안성·양성과 강원도였던 가평 등을 경기좌도로 옮겼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414년(조선 태종 14년) 1월18일 관제(官制)를 개편하면서 경기 좌·우도를 고쳐 다만 '경기(京畿)'라고 해 현재의 공간과 지리적으로 비슷한 경기가 출발했다. 이것은 이후 조선왕실의 모든 기반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1895년 경기의 폐지와 1896년 경기도의 설치가 이뤄질 때까지 영역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480여년동안 경기는 광역지방행정단위인 도(道)에 속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국도(國都)인 한양과 도(道)를 연결하며 배후에서 지지하는 '근본의 땅'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경기는 왕화(王化)의 우선 지역이자,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의 사대부문화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던 곳이었다.

'국가 근본의 땅'으로서 경기는 왕의 교화(教化)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다른 지역의 '근본의 땅'이라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때문에 경기 백성들은 곤궁해서 안 됐다. 그러나 사정은 달랐다. '경기' 곳곳에는 고위 관료의 별업(別業)이 많아 백성들에게 그 폐단은 빈번해졌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이 검토됐는데, '왕화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에서 실행된 제반 조치들은 그만큼의 시행착오도 거듭될 수밖에 없었고, 경기인들은 이를 감내해야만 했다. "경기는 바로 왕도(王都)에 딸린 지역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번거로움이 다른 도에 비교할 바 아니니 조세의 납부에서 모두 한 등급씩을 낮추도록 하자"는 세종 때 호조의 건의는 이런 사정을 보여준다.

'경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경기인(京畿人), 기전인민(畿甸人民), 기내인(畿內人) 등으로 불렸다. 그들은 다른 도의 백성들보다 많은 조세와 부역을 담당해야 했다. 경기 일대의 왕릉 조성과 수리, 매년 이런 저런 왕의 행차에 따른 부담 때문이었다. 중국 사신이 오는 경우에 그 부담도 지어야 했다. 성종 때 대사헌이었던 이극돈(1435~1503)은 '경기인들의 부역(賦役)이 번거롭고 무거운데다가 자질구레한 일도 다른 도의 10배나 된다'고 했다. 거기에는 1446년(세종 28년) 토지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차등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貢法)의 시험적인 운용에서 드러나듯이 새로운 법의 실험적인 운용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의 수용 역시 경기인의 몫이었다. 대동법으로의 세제 개혁에 물꼬를 튼 이원익(1547~1634)은 근본의 땅인 경기의 백성들은 특별히 굶주리지 않도록 휼민(恤民)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잘못된 시정 운용으로 인한 경기인의 곤핍은 바로 조선왕실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됐다. "국고(國庫)가 부실한 이유는 경기의 토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데 있다"고 인식됐다.

조선시대에 '경기'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곳(國家根本之地)'으로 규정됐다. 경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나라의 바탕, 뿌리, 근원'이라는 것이다.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의 인식이었다. 여기서의 국가는 왕실이 자리하고 있는 경도(京都, 한양)와 일정부분 통한다. 왕조 사회에서 왕실이 있는 경사(京師)는 국가 자체로 이해됐다. 즉 한양과 경기의 관계는 나무의 줄기와 뿌리의 관계였다. 한양을 나무·물에 비유한다면, 경기는 뿌리·샘과 같은 근원이었다. 1540년(중종 35년)에 국왕은 경기관찰사 임백령(? ~1546)에게 "나라에 경기가 있음은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에 샘이 있음과 같다. 경기의 정치가 잘되고 못됨은 나라 전체의 무게와 관계된다"고 하며 관찰사로서의 충실한 임무 수행을 다독였다. 유진동(1497~1561), 조사석(1632~1693), 이징명(1648~1699), 서문유(1651~1707), 이언강(1648~1716) 등 경기관찰사들을 임용할 때마다 국왕은 교서를 내려 '경기가 국가 근본의 땅'임을 잊지 말도록 명했다. 왜냐하면 '경기'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곧 나라의 쇠멸을 의미했다. 새겨볼만한 말이다. 경기인을 교화시키려면 인화(人和)가 필수였다. 그래야 '국가 근본의 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천년을 앞두고 역시 새겨야 한다.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바. 유수부

고려·조선시대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관서를 유수부라 한다. 유수부제도는 당·송의 옛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옛 도읍지인 서경·동경·남경 등지에 설치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옛 도읍지인 개성, 태조의 어향인 전주 및 강화·광주(廣州)·수원 등지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유수부조직은 3품 이상의 유수, 4품 이상의 부유수 각 1인을 두었으며, 이밖에 6품 이상의 판관, 7품 이상의 사록(司錄) 혹은 참조사(參早事), 장서기(掌書記) 각 1인이었으나 서경만은 판관·사록이 각각 2인이었다. 여기에 8품 이상의 법조(法曹), 9품 이상의 의사·문사 각 1인을 두었으나 서경에는 없었으며 유수관은 외직으로 처리되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된 개성부에는 종2품의 유수 2인이었으나 1인은 경기도관찰사가 겸하였으며, 종4품의 경력(經歷), 종5품의 도사(都事)가 각 1인씩 있었고, 부민(府民)의 교육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교수 1인을 두었으며, 이 밑에 경아전(京衙前)으로 서리(胥吏) 4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조선 후기에는 수도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하

여 강화와 광주, 그리고 수원에도 유수부를 두었으나 이들은 군사적인 행정이 주임무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수부 [留守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 개성유수부

조선 초기에 설치된 개성 부에는 종2품의 유수 2인이었으나 1인은 경기도 관찰사가 겸하였다. 그리고 종4품의 경력(經歷), 종 5품의 도사(都事)가 각 1인씩 있었고, 부민(府民)의 교육과 향촌의 교화를 위하여 교수 1인을 두었으며, 이 밑에 경아전(京衙前)으로 서리(胥吏) 40인으로 구성되었다.

(2) 강화유수부

강화도는 서해에서 한강을 통해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왕실과 조정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으며,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어서 육로로 침입한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은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고려는 이곳으로 천도하여 대몽 항쟁을 펼쳤다. 1627년 청나라가 침입하였을 때, 인조와 중신들이 일시 여기에 피난하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인조 5년(1627) 유수부를 설치하고 그 휘하에 18352명의 군졸을 두었다. 그리고 강화도의 방비시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숙종 17년(1691) 외성(外城)을 축조하였고, 1742년 파괴된 외성을 벽돌로 다시 개축하여 1744년 완공하였다.

(3) 광주유수부

백제의 고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남한산성의 수성(修城)이 시작된 것은 광해군 13년(1621년)이며, 본격적인 축성작업은 1626년 인조대이다. 인조는 남한산성을 개축하고 성안에 수어청을 설치하여 요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백관을 거느리고 이곳에 들어와 후금과 싸웠다. 그 후 숙종 9년(1683)에 광주 유수부를 설치하고 광주유수는 수어사를 겸하였으며 휘하에 6000명 가량의 병력을 두었다. 그리고 북한산성의 수축도 시작하였다. 숙종37년 (1711년)에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하였다. 북한산성의 수축은 유사시 도성을 외적에게 내주지 않으려는 수도외곽방위 차원에서였다. 북한산성의 총괄은 총융청에서 담당하였다.

(4) 수원유수부

정조 17년(1793)에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켜 정조가 설치한 국왕 호위 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의 외영(外營)을 주둔시켰다. 당쟁으로 인해 희생된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근대적인 신도시인 화성을 축성하는 과정에서 수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왕권 강화차원에서 유수부가 설치되었다.

[문화콘텐츠닷컴] 유수부

2.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조선건국과 경기의 변화			
학습 목표	1. 조선의 건국과 한양천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유수부 체제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6분) : '태종의 척전 던지기'이야기를 통해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전 개	1. 조선건국과 한양천도 (15분)	새로운 나라의 건국과 함께 새 도읍지인 한양으로 천도와 천도가 가져오는 경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8도체제의 정비(10분)	8도 체제로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국가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서의 경기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파악한다.	
	3. 4유수부 체제로의 변화(15분)	개성, 강화, 광주, 수원에 유수부가 설치된 이유를 파악하고, 유수부의 정치적, 군사적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한양천도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 한 나라의 수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수도방어를 위한 유수부의 설치 이유를 파악하기	
	함께 해봅시다(30분)	–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어떻게 건설하고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통일 한국의 수도와 그 요건 이야기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오늘의 경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선건국과 한양천도를 통해 알아본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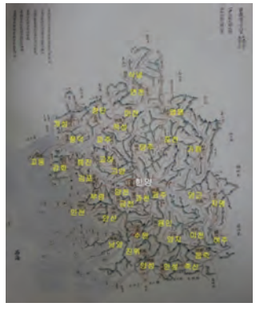
3.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조선시대에 경기도는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되어 8도 중 하나였지만 다른 지역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떤 혜택과 불리함이 있었을까요?

혜택	불리한 점
앞선 제도의 시행	많은 조세와 부역을 담당 여러 제도의 실험적인 수용에서 오는 폐해

2. 경기도에 4군데의 유수부를 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도에 4곳의 유수부와 한양에 색칠을 하고 그 까닭을 적어봅시다.



조선후기 여지도

4군데의 유수부를 둔 까닭은 무엇인가요?
도읍지의 한양을 방어하고, 전쟁 등 유사시에 왕이 피난을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곳

[생각 더하기]

1. 대한민국은 수도권(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인구와 시설을 분산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정부청사나 세종행정수도가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한 도시에 집중될 필요없이 수도의 기능을 갖춘 부서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도시로 분산하여 건설

2. 국가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교통이 편리하여 각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

2.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의 수도는 어디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 수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논해서 적어보세요

▶ 수도는 어디가 좋을까요?

개성

▶ 그 곳을 수도로 정한 이유와 갖추어야 할 시설을 적어보세요.

해상교통 및 육로교통이 편리하고, 개발이 더 필요한 북한 지역에 행정수도를 설치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한다.

4. 교사 참고자료

가. 태종 이방원

조선 제3대 왕 태종(太宗, 1367~1422, 재위: 1400~1418)은 새 왕조 개창기에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도전 등에 의해서 견제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재기에 성공한 그는, 그러나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나 왕위에 오른 뒤 계속된 피의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그는 500년 조선조 국가 운영의 밑그림을 완성한 군왕이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기운이 느껴지던 어느 날, 이방원과 정몽주(鄭夢周, 1337~1392)가 술상을 앞에 놓고 자리하였다. 자신의 야망 실현에 걸림돌이 되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이방원은 먼저 시 한 수를 읊었다. 우리네 세상살이 중간중간에 부딪치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시를 잠깐 짬을 내어 감상해보자.

>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 년까지 누리리라

이른바 '하여가(何如歌)'라고 하는 것이다. 정몽주에게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굽힐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뜻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방원다운 솔직하고도 직설적인 표현이다. 그러자 정몽주가 이방원이 따라 주는 술 한 잔을 받아 들고는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丹心歌)'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시구를 통해 정몽주의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전부터 정몽주의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방원이었기에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방원은 심복 조영규를 통해 선지교(후에 선죽교로 이름이 바뀜)에서 정몽주를 살해하며, 이로써 새로운 왕조의 건국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방원. 그는 대대로 무장을 배출한 이성계 가문의 유일한 문과 급제자로 어려서부터 부친의 희망이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처치하는 거사가 성공한 뒤 남은·정도전·조준 등 52인과 이성계의 추대를 협의하고, 공민왕비 안씨를 움직여 수창궁에서 즉위하게 하였다.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연 것이다. 새 왕조를 여는 데 있어 이방원은 중요한 고비마다 그 중심에 있었다.

새 왕조를 개창한 뒤, 아마도 이방원은 부왕의 등극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중망으로 보아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좌절의 아픔을 주었다.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좌절은 태조 초에 이루어진 개국공신의 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개국공신의 선정을 주도한 태조는 아들의 공은 인정하되 친자(親子)라는 이유로 공신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왕자 신분이 되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을 것이지만, 개국공신의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볼 때 이방원에게는 서운한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이 즉위한 뒤, 그는 자신을 비롯해 방의·방간 두 형을 개국 1등 공신에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방원은 이후에도 계속 정치에서 소외되며 정도전 등에 의해 견제되었다. 새 왕조가 들어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392년 8월, 정도전 등이 중심이 되어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1396)의 막내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할 당시 배극렴은 "시국이 평온할 때에는 적자를 세우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먼저 공 있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여, 이방원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이방원은 세자 책봉에서 소외되었다. 더하여 정도전은 중국의 예를 들어 모든 왕자를 각도에 나누어 보내자고 청하기도 하였고, 명나라와 외교적이 마찰이 생기자 진법 훈련을 실시하면서 왕자 및 공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혁파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방원을 비롯한 정적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력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차원이었다.

좌절의 순간은 그러나 그리 길지 않았다. 제1차 왕자의 난(1398년)으로 그야말로 이방원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는 그냥 오지 않는 것,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다. 이방원과 그 주위 사람들은 좌절의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재기의 순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먼저 본인과 부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사병을 육성하거나 후일을 도모할 준비를 하였고, 여기에 당대 최고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하륜(何崙, 1347~1416)과의 만남은 이방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륜을 통해서 의형제를 맺은 이숙번(李叔蕃, 1373~1440)과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권력의 대세는 이방원에게로 옮겨갔다. 이방원으로서도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 정도전 등의 제거가 권력욕으로만 비추어진다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방원은 일단 당시 생존하고 있던 형들 가운데 맏형인 영안대군 방과(제일 맏형은 진안대군 방우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임)에게 왕위를 양보하니, 그가 조선의 제2대 왕인 정종(定宗, 1357~1419, 재위: 1398~1400)이었다. 영안대군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음에도 적장자가 없었으니, 이는 이방원에게 후일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정종 즉위 후 방원은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고, 정종이 재위 2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이방원이 차지하게 되니, 그가 바로 태종이었다.

태종은 왕세제 시절 사병을 혁파하였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려고 할 때 반발하던 그가 왕위에 올라서는 이를 혁파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병은 왕권에 위협이 되는 요소였으므로, 태종도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혁파해야만 하였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조 국가에 맞는 여러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국가

의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6조 중심의 행정체계를 완성하여 자신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오늘날 지방제도의 근간이 되는 8도 체제를 정비하였고, 서얼의 관직 진출 등을 제한하는 서얼차대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 운영의 필수인 인구나 군적 파악을 위해 호적법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후 조선조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다.

태종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또는 도전할 소지가 있는 세력들을 하나둘 축출하였다. 가장 먼저 태종의 눈엣가시가 되었던 인물은 이거이(李居易, 1348~1412)였다. 태조 대(代)의 무장으로, 그리고 태종과 혼인 관계로 맺어져 영의정까지 지냈던 이거이였으나 사병 혁파에 반대했다는 이유에서 제거되었다. 그는 당대 가장 많은 사병을 거느렸던 인물이었다.

이어 태종의 화살은 자신을 그토록 도왔던 원경왕후(元敬王后, 1365~1420) 민씨의 집안으로 겨냥되었다. 외척으로서, 그리고 태종을 도와 그가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운 이들이었기에 그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 그러나 1406년(태종 6년)과 1409년 두 차례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전위 표명 과정과 1415년을 거치면서 결국 원경왕후 집안의 4형제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다. 세자를 끼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연속이었다.

태종은 생전인 1418년(태종 18년) 8월에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태종은 아버지로서 비장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왕위를 물려주기 2개월 전에 있었던 일로, 장자인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 1394~1462)을 폐위시키고, 대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던 것이었다. 당시 의정부를 비롯해 6조 등 조정의 많은 관원들이 양녕대군의 잘못을 논하면서 "만세(萬世)의 대계(大計)"를 위해 폐위시키기를 요청하였다. 어렵게 세운 왕조의 수성을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관리들이 세자의 폐위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국왕과 교감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왕세자의 폐위에 대해 태종은 천명임을 강조하면서, 후계자를 어진 이로 삼는 것은 고금의 대의라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그 일이 비록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아비 되는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실록에서는 당시 태종의 심정을 "임금이 통곡하여 흐느끼다가 목이 메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이 상황에서 심적인 동요가 없을 수 없었으리라.

조선 개국의 물꼬를 튼 정몽주의 저격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종은 때로는 비정하게까지 느껴진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흘린 눈물은 그동안 자신 때문에 흘렸던 피에 대한 사죄의 눈물이 아닐까? 그러나 재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의 확립은 이후 조선왕조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태종은 새롭게 출발한 왕조의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린 임금이라 하겠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종 이방원 [太宗]-새 왕조 조선의 밑그림을 완성한 군주 (인물한국사)

나. 조선의 군사조직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병역제(兵役制)를 정비하고 군사조직을 강화하여 국방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군역은 양인개병(良人皆兵)과 병농일치(兵農一致)를 원칙으로 하였다. 즉, 16세 이상 60세에 이르는 양인(良人)의 장정들은 누구나 군역을 부담하여 현역군인인 정병(正兵)이 되거나 군인의 비용을 충당하는 보인(保人)이 되어야 했다. 노비(奴婢)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가 없었으나 필요에 따라 특수군으로 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에는 통수기관(統帥機關)으로 중앙에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두고 거기에 10위를 속하게 하였으나, 세조 때에 삼군부를 5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편하여 중앙군인 5위를 지휘하게 하였다.

5위는 의흥위(義興衛 : 中衛)·용양위(龍驤衛 : 左衛)·호분위(虎賁衛 : 右衛)·충좌위(忠佐衛 : 前衛)·충무위(忠武衛 : 後衛)로 궁궐수비와 서울 방비를 담당하였다. 각 위(衛)는 또 5부(部)로 나뉘었고, 각 부는 4통(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밑에 여(旅)·대(隊)·오(伍)가 있었다.

지방에는 각 도(道)에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이 있어서 육군과 수군을 통할하였고, 그 밑에 여러 진(鎭)·포(浦)·보(堡)가 있다. 이들 부대에 복무하는 지방군은 양인 계층의 농민으로서 교대로 입번(立番)하고, 하번(下番) 때에는 농사에 종사하였다.

군제는 세조 때에 전국 군·현을 지역단위의 방위체제로 편성하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실시되면서 중앙군과 지방군이 진(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따라서, 평시에는 농사짓다가, 징발되면 서울에 번상하여 시위하거나, 지방요새지로 나아가 부방(赴防)하였다.

한편, 정규군 이외에 잡색군(雜色軍)이라는 예비군이 있어서 전직관료·서리·향리·교생(校生)·노비 등 각계각층의 장정들로 하여금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고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맡게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는 군사적인 긴급사태를 중앙에 급히 알리기 위하여 봉수제(烽燧制)가 있었고, 그 내용을 문서로 알리기 위하여 역마제(驛馬制)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대가를 받고 군역을 대신 치르는 대역자가 생겨나거나 군역의무자로부터 면포를 거두어 이것으로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가 나타나는 등 군역제가 문란해짐에 따라 진관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 중엽 이후 제승방략체제가 등장하였다.

제승방략이란 유사시에 각 읍의 수령들이 소속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지정된 방위지역으로 가서 서울에서 파견된 장수나 그 도의 병 수사를 기다려 지휘를 받는 전술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방지역에 군사가 없어 일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를 막을 방도가 없었으므로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 전기의 군사조직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무력함이 드러나자 5군영으로 개편되었다. 즉, 선조 때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총을 쏘는 포수(砲手), 활을 쏘는 사수(射手), 창·칼을 쓰는 살수(殺手)의 3수병(三手兵)으로 편제하였는데, 이들은 모병제(募兵制)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중앙의 핵심군영이었다.

이어서 인조 때에 이괄(李适)의 난을 계기로 어영청(御營廳), 경기 일대의 방위를 위하여 총융청(摠戎廳), 남한산성의 수비를 위하여 수어청(守禦廳), 그리고 숙종 때에 수도방어를 위해 금위영(禁衛營)이 설치됨으로써 5군영

으로 정비되어, 초기의 5위체제를 대신하였다. 한편, 지방군에서도 조선 후기에는 속오군(束伍軍) 체제를 취하여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속오군으로 편제하고 유사시에 대처하게 하였다.

그후 조선의 군제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3군부(三軍府)의 기능이 부활되기도 하였으나, 곧 5군영으로 복구되고 다시 1881년(고종 18)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의 2영으로 개편되고 아울러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여 근대적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어서 을미개혁(乙未改革) 때 중앙에는 친위대(親衛隊)를, 지방에는 진위대(鎭衛隊)를 두었으나, 1907년 일제의 강요로 해산되었고, 구한국군의 대부분은 지방에 흩어져 항일의 병으로 활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의 군사조직 (두산백과)

5.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조선 근본의 땅, 경기』, 경기도 박물관, 2014

3차시

근대의 경기

근대 이후의 지방행정제도

1894년의 이른바 갑오개혁 때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1895년 5월 26일에 대대적인 지방행정구역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조선 초기 이래의 8도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23부제(府制)를 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종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방행정구역을 총 337개의 군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23부(府) 아래에 분속시켰다.

1차 갑오개혁 시기의 지방행정제도 개혁

군국기무처는 중앙정부의 정치·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데 치중함과 동시에 소규모의 지방제도 개혁도 단행하였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각 면 인민들이 유능한 대표자 한 사람씩을 선거(圈選)하여 읍단위의 향회를 조직하고 이향회로 하여금 정부의 명령사항과 醫療등 지방행정사업을 평의하고 공동으로 결정케 하는 일종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키로 결의한 것이다.

이외에도 漢城府와 監理署의 직권을 재조정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성부의 경우, 종래의 한성부 判尹(정2품)과 그 밑의 左·右尹(종2품)직을 감하하고 그 대신 少尹을 漢城府尹(칙임 3품관)으로 개칭하고 "都下의 지방인민을 관할하고 각국 상민과의 소송을 掌理"케 하였다. 이때 한성부가 종래 행사하고 있던 도민에 대한 경찰·사법권은 경무청 혹은 사법기관으로 이관하되 濬川司만은 여전히 한성부 소관으로 남겼다.

군국기무처는 3항 감리서의 기능을 중시하여 감리의 직위를 지방장관과동격인 3품으로 격상시키고 동시에 지방관이 감리직을 겸임하던 관례를 중지시켰다. 또 각급 지방관의 임용규정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監留·梱師이하 郡縣및 履歷僉使까지를 포함하는 지방관과 한성부 부윤 및 3항 감리를 임명할 때에는 총리대신이 각 아문 대신·(의정부)찬성 및 도헌 등과 협의하여 공거 처리하고, 2품 이상의 경우에는 국왕에게 備望奏聞하여 取旨點用하고, 3품 이하의 경우에는 單方奏聞하여 差遣토록 하였다. 그리고 中軍·虞候를 임용할 때에는 道帥臣이 자벽한 뒤 開單呈送하여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奏聞케하고, 그 외에 察訪은 工務대신이, 監牧官은 내무대신이, 鎭堡官은 군무대신이, 그리고 감리서의 판임관 이하 관원은 감리가 각각 內職의 판임관 選任例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차 갑오개혁 시기의 지방행정제도 개혁

박영효가 내부대신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추진했던 괄목할 만한 업적 중의 하나는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이었다. 8道를 기본으로 5개의 留守府, 3개의 監理署 그리고 牧·郡·縣 등으로 편제된 종래의 지방행정체제는 매우 번잡하고 비능률적이었다. 지방행정 관리들은 국왕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이들의 권한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이 1894년 이전의 지방행정조직은 매관·매직 등 부패의 온상이었다. 따라서 내부대신 박영효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신이 구상한 대개혁을 밀어줄 인물들을 지방행정기 구의 요직에 부식할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려 하였다. 그는 1895년 1월초에 지방행정제도를 개혁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이노우에공사에 의해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했던 1895년 6월에 그는 드디어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1895년 6월 18일에 공포된 지방제도개혁에 관한 조칙 및 칙령에 의하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大구역주의인 8도제를 폐지하고 소구역주의에 입각하여 漢城府·仁川府·忠州府 등의 23府로 편제하였으며, 종래번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부·목·군·현 등을 모두 郡으로 단일화하여 총337군을 23부 아래로 분속시켰다. 이와 아울러 인천·부산·원산 등 3항의 감리서도 폐지하였다.

한편 종래 문란했던 지방관 인사행정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인물을 등용하려는 취지에서 지방관리 임용제도의 개혁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각부에 觀察使 1인, 參書官 1인, 主事 약간 명, 警務官 1인, 警務官補 1인, 巡士 2인 이상 등을 배치하였으며, 군에는 郡守 1인만을 두고 여타 직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관찰사는 내부대신으로부터, 군수는 관찰사로부터 각각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명령계통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근대적 중앙집권국가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각부에 경무관 등을 두어 지방경찰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종래 군사권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방경찰업무를 분리시켰다. 또한 〈社還條例〉를 실시하면서 지방관이 還政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관의 수세권 행사를 제한하였으며, 지방재판소를 개설하면서 지방관의 권한에서 行刑權을 분리시켰다.

예상대로, 박영효는 6월 26일에 23부에 관찰사를 새로 임명함으로써 지방관제를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만들어 나갔다. 23명의 신임 관찰사 중 6명만이 전직 관찰사이거나 지방관이었고, 그 나머지는 박영효의 추천을 받은 인사이거나 박영효의 측근들이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주도하에 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던 셈이다.

3차 갑오개혁 시기의 지방행정제도 개혁

갑오파는 박영효가 1895년 6월 18일에 개시했던 23부제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1895년 10월 25일에는 지방제도의 급격한 실시로 말미암아 군·현간의 병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郡에 대한 확실한 파악과 그 효율적 행정운영을 도모하려는 조치가 취했졌다. 이어 12월 12일에 갑오파는 〈鄕會條規〉와 〈鄕約辦務規程〉을 발포함으로써 초보적인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鄕會는 里會·面會·郡會의 3급으로 구성되며, 각 향회의 회원은 里의 尊位, 면의 執綱, 군의 郡守 등 관리·속리와 각급 단위구역에서 公擧한 자로 충원하였다. 또한 각급 향회에서는 ① 교육, ② 호적과 지적, ③ 위생, ④ 사창, ⑤ 도로교량, ⑥ 식산흥업, ⑦ 공공산림과 堤堰伏港, ⑧ 제반 稅目과 납세, ⑨ 歉荒과 환난의 구휼, ⑩ 公共服役, ⑪ 제반 契會및 ⑫ 新式令飭등에 관한 사항을 公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향약판무규정〉을 살펴보면, 종래 지방의 하급행정에 관여했던 風憲·約正·勸農·洞長·里正 등 명목들을 폐지하고, 그 대신 리 혹은 촌과 동에는 존위와 書記·頭民·下有司 각 1인을, 그리고 면에는 집강과 서기·하유사·面主人각 1인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또 존위와 집강을 "관에서 차정하던 예를 폐지"하는 대신 존위의 경우에는 "매년 정월에 該里人이 회의하야 班常을 拘치 勿하고 圈選한 후" 본 면·군에 보고하고, 집강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권선하여 본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운영되는 향회에서는 해당 각 리의 호적·인구 및 산업에 관한 문부의 작성 및 보고와 부·군·면에 할당되는 '공동의 役'을 분담하며, 該里내의 "종래無名雜歛하는 폐를 금지"하는 역할 등을 담당케 하였다.

이 향회 및 향약 규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방행정조직을 시의에 맞게 변통·활용하려 했던 개혁기도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면이라는 최하급 행정단위에서 지방민의 '권선'과 '공동회의' 등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제를 조장·실시하려 했던 징표로서 의의가 있다. 요컨대, 갑오개화파 관료들은 전국 규모의 의회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지만, 지방에 향회를 개설·보급함으로써 리·면 수준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점진적으로 보급·실시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1. 23부 체제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郡)[1] 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다.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413년부터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시행한 지 불과 1년2개월도 지나지 않은 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23부제는 일본제국 메이지 유신의 폐번치현을 본떠서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 중에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실시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부(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개요

1895년 6월 18일(음력 5월 26일) 전국 8도의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 폐지에 관한 건(監營按撫營並留守府廢止에關한件, 개국 504년 칙령 제97호)과 전국을 23개 부로 구획하고 종래의 부(府), 목(牧), 군(郡), 현(縣)으로 구분되어 있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地方制度改正에關한件, 개국 504년 칙령 제98호)이 반포되었다.

나. 부

전국을 23개의 행정 구획으로 나누고 이를 부(府)라고 불렀다. 부의 장관은 관찰사(觀察使)고, 그외 참서관(參書官) 1명과 주사(主事) 등의 직원을 두었다. 경무청이 설치되어있던 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에는 경무관을 두고 경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관찰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다. 군

오랫동안 사용하던 부, 유수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현 등을 모두 폐지하고 고을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하고 군의 장관을 군수(郡守)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337군[1] 이었고, 가평군이 폐지되고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이 신설되면서 339군이 되었다.

모든 고을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했으나, 구역을 변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의 차이가 심하여 각 군에 1등부터 5등까지 등급을 매겨 군수의 봉급에 차이를 두었다. 단, 한성군과 제주군에는 군수를 임명하지 않고 관찰사가 겸임했기 때문에 등급이 없었다.

라. 지사서

이십삼부가 설치되면서 감리서가 폐지되고 외국과의 통상사무는 관찰사가 담당했다. 그러나 덕원군(원산항)이나 경흥군 등은 부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1896년 1월 18일에 부청소재지가 아닌 개항장과 통상구에 지사서(知事署)를 설치하여 통상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지사서의 지사는 해당 지역의 군수를 겸임하며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관찰사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

마.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

1) 한성부

현 서울특별시 일부 및 경기도 북부 지역

한성군(漢城郡, 부청소재지) : 서울 한강 이북 대부분 성내(城內) : 종로구(부암동, 신영동, 구기동, 평창동, 홍지동, 숭인동, 창신동 제외), 중구(황학동, 신당동 제외)

성저십리(城底十里) : 용산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북구, 은평구(진관동 제외), 성동구, 마포구 일대, 광진구 중곡동, 군자동, 능동, 화양동, 자양동 일부(구 노유동), 중랑구 면목동[3], 종로구 부암동, 신영동, 구기동, 평창동, 홍지동, 숭인동, 창신동, 중구 황학동, 신당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고양시 북한동, 효자동

양주군(楊州郡) : 서울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면목동 제외),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광진구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일부, 은평구 진관동(구파발), 강북구 우이동 일부, 경기 양주시(남면 제외)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조안면, 수동면 입석리, 외방리, 내방리 제외), 구리시, 연천군 전곡읍, 청산면, 포천시 신북면 남청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기산리, 고양시 지축동, 오금동

광주군(廣州郡) : 서울 강동구, 송파구(잠실동, 신천동 제외), 강남구, 서초구 염곡동, 신원동, 내곡동, 경기 광주시(남종면 제외),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안산시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반월동, 군포시 대야동, 수원시 입북동, 당수동, 남양주시 조안면

적성군(積城郡)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백학면

연천군(漣川郡) : 경기 연천군 연천읍, 군남면, 중면

고양군(高陽郡) : 경기 고양시(지축동, 오금동, 북한동 제외)

파주군(坡州郡) : 경기 파주시 대부분(교하동, 운정동, 금촌동, 탄현면, 적성면 제외)

교하군(交河郡) : 경기 파주시 교하동, 운정동, 금촌동, 탄현면

포천군(抱川郡) : 경기 포천시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신북면(남청산 제외), 군내면, 가산면, 내촌면, 화현면

영평군(永平郡) :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동면, 영중면, 영북면, 창수면

가평군(加平郡) : 경기 가평군(설악면 제외),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외방리, 내방리

2) 인천부

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서남부 및 경기도 서부 지역

인천군(仁川郡, 부청소재지 : 제물포[4]) :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십정동, 경기 부천시 계수동, 옥길동, 광명시 옥길동,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신현동, 매화동, 옹진군 덕적면

김포군(金浦郡) : 경기 김포시 동 지역(구래동, 마산동 제외), 고촌읍,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부평군(富平郡) : 인천 서구(검단동 제외), 부평구(십정동 제외), 계양구, 경기 부천시(계수동, 옥길동 제외), 서울 구로구 오류동, 고척동, 개봉동, 온수동, 천왕동, 궁동, 항동, 강서구 오곡동, 오쇠동

양천군(陽川郡) :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공항동, 화곡동,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양천구, 영등포구 양화동

시흥군(始興郡) : 서울 영등포구(양화동, 여의도동 제외), 금천구,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동작구

신대방동, 상도동, 대방동,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경기 광명시(옥길동 제외),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산군(安山郡) : 경기 안산시(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건건동, 사사동, 대부동동·북동·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시흥시 목감동, 군자동, 정왕동, 연성동, 능곡동

과천군(果川郡) : 서울 동작구(대방동, 신대방동, 상도동 제외), 경기 과천시, 서울 관악구 남현동,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우면동, 잠원동, 양재동, 원지동, 안양시(석수동, 박달동 제외), 군포시(둔대동·속달동·대야미동·도마교동 제외)

수원군(水原郡) : 경기 수원시(하동, 이의동, 입북동, 당수동 제외), 오산시 (갈곶동, 고현동, 청호동 제외), 화성시 동 지역(새솔동 제외), 봉담읍, 향남읍 (구문천리, 상신리, 하길리 제외), 정남면, 매송면, 양감면, 정남면, 평택시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고덕면 당현리·두릉리·문곡리·동청리

남양군(南陽郡)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우정읍, 향남읍 구문천리·상신리·하길리,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안산시 대부도, 풍도, 옹진군 영흥면, 자월면

강화군(江華郡) : 인천 강화군 대부분, 옹진군 북도면

교동군(喬桐郡)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서도면, 삼산면 상리, 하리

통진군(通津郡) : 경기 김포시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마산동

3) 충주부

현 충청북도 북동부,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서남부 지역(20개군 관할)

충주군(忠州郡, 부청소재지) : 충북 충주시, 음성군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괴산군 불정면, 감물면

음성군(陰城郡)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 삼성면

연풍군(延豊郡)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연풍면

괴산군(槐山郡)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칠성면, 문광면, 소수면

제천군(堤川郡) : 충북 제천시 시내 동지구, 봉양읍, 송학면

청풍군(淸風郡) :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한수면, 수산면, 덕산면

영춘군(永春郡)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어상천면, 매포읍, 가곡면

단양군(丹陽郡) : 충북 단양군 적성면, 단성면, 단양읍

진천군(鎭川郡) : 충북 진천군

청안군(淸安郡)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사리면, 증평군

여주군(驪州郡) : 경기 여주시, 양평군 개군면

용인군(龍仁郡)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모현읍, 이동읍, 포곡읍, 남사면 및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죽산군(竹山郡) :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보개면 남풍리·동평리·북가현리 및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암면

음죽군(陰竹郡)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일부, 생극면 팔성리

이천군(利川郡) : 경기 이천시 시내 동 지구, 부발읍,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대월면, 백사면, 신둔면

양지군(陽智郡)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및 동부동, 안성시 고삼면

원주군(原州郡) : 강원 원주시, 영월군 주천면

정선군(旌善郡) : 강원 정선군 정선읍,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남면, 여량면 (구절리, 남곡리 제외)

평창군(平昌郡) : 강원 평창군 평창읍, 미탄면, 정선군 신동읍

영월군(寧越郡)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김삿갓면, 중동면

23부에 해당하는 군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府名	郡數	府名	郡數	府名	郡數	府名	郡數
漢城	11	南原	15	安東	17	義州	13
仁川	12	羅州	16	江陵	9	甲山	2
忠州	20	淸州	3	春川	13	江界	6
洪州	22	晉州	21	開城	13	咸興	11
公州	27	東萊	10	海州	16	鎭城	10
全州	20	大邱	22	平壤	22		

이와 같은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의 한국 근대화과정에서 새로운 지방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조선사회에 오랫동안 존속되어오던 지방제도는 19세기 말의 새로운 한국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즉, 종래의 지방제도는 봉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관찰사와 수령은 관할지역내의 행정·군사·사법 등의 모든 권한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였다.

일찍이 정약용(丁若鏞)이 그의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의 직책이 옛날의 제후(諸侯)와 같다고 한 데에서 당시 지방제도의 성격을 잘 엿볼 수 있다. 1895년 지방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봉건적 성격의 지방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종래의 지방제도는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번잡하게 설정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정약용도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부·목·군·현의 개정, 군현의 병합 등의 지방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1895년 지방제도 개정의 국왕 조칙에서도 종래 지방제도의 그러한 제도적 결함이 지적되었다.

셋째,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고 있던 이서층(吏胥層)에 관한 문제의 해결이 요망되고 있었다. 종래의 지방제도에서는 지방 이서들은 일정한 정원이 없어서 불필요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며, 또 이서들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수가 전혀 없어 그로 인한 민폐가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시정도 필요하게 되었다.

넷째, 종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관계없이 다시 지방행정은 극도로 문란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종래의 지방행정체제로서도 지방행정을 잘 운용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지방행정상에도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다. 요컨대, 종래의 지방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 본래의 봉건성과 당시의 극도로 문란했던 지방행정의 실상이 새로운 근대적인 지방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했던 것이다.

1895년에 새로이 공포, 실시된 지방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부에는 칙임(勅任) 3등 이하 주임(奏任) 2등 이상의 관찰사 1인, 주임 4등 이하의 참서관(參書官) 1인, 판임(判任)의 주사(主事) 약간 명을 두고, 각 군에는 주임관인 군수 1인씩을 두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종래의 지방행정은 모두 국왕 직속으로 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관찰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감독 아래 두고,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대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관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다. 군사권·조세징수권·재판권 등은 그에 관한 새로운 기구를 두고, 지방관의 권한에서 이들을 제외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이서들에 대해서도 직접 행정력을 발휘해 각 군의 이서의 수를 정하는 한편, 보수지급규정도 새로 마련하였다.

2. 13도 체제

십삼도제(十三道制,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직전년도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선 팔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었다.

1895년의 23부제는 일본 제국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 있었던 폐번치현을 본떠서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 중에 시행 1년이 조금 넘은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시행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부(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13도제는 건양 원년 칙령 제36호가 반포된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대한제국 및 일제 강점기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어 현재 지방행정체계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도명과 관할 군의 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道名	首府	郡數	道名	首府	郡數
京畿道	水原	34	黃海道	海州	23
忠淸北道	忠州	17	平安南道	平壤	23
忠淸南道	公州	37	平安北道	定州	21
全羅北道	全州	26	江原道	春川	26
全羅南道	光州	32	咸鏡南道	咸興	14
慶尙北道	大邱	41	咸鏡北道	鏡城	9
慶尙南道	晉州	29			

한편, 13도제에서는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8개의 부(府)와 1개의 목(牧)을 따로 두어, 모두 13도·8부·1목·332군으로 편성되었다.

13도제의 개편은 옛날 도제로 복귀하고 부와 목을 다시 두었다는 점에서 23부제와 차이가 있으나, 8도를 13도로 세분해 행정의 능률을 꾀하고, 군 단일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갑오개혁기의 개혁방향을 계승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관원의 임용절차와 보수 규정, 면리(面里)의 운영 등에 있어서 23부제에 비해 달라진 것이 많았으나, 관찰사를 내부대신의 감독 아래 두게 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기본정신에는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광무개혁기의 13도제는 옛날의 도제(道制)에 토대를 두되 그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봉건적 성격을 탈피하고, 근대적 성격의 중앙집권적 지방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다시 경기도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 수부는 수원이었다. 당시 경기도의 여러 지역을 1등군부터 4등군으로 편성되어 4부 34군 체제로 개편되었다. 1등군으로는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인천부, 2등군으로는 수원군, 3ㄷ으군으로 여주군, 양주군, 장단군, 통진군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4등군으로 편성되었다. 4등군 지역은 파주군, 이천군, 부평군, 남양군, 풍덕군, 포천군, 죽산군, 양근군, 안산군, 삭녕군, 안성군, 고양군, 김포군, 영평군, 마전군, 교하군, 가평군, 용인군, 음죽군, 진위군, 양천군, 시흥군, 지평군, 적성군, 과천군, 연천군, 양지군, 양성군, 교동군이다. 그리고 초대관찰사는 오익수였다.

3. 지방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각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세력의 역학적인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주게 된다. 이는 각 지역에 자치 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지방자치정책 및 지방자치의 실체는 근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치 영역의 확대와 근대화의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아래로부터의 근대국가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자치 영역의 소멸을 동반하는 근대화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이고 위로부터의 성격이 강한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의 성장, 향약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자치기구의 형성, 지방행정기구의 부패로 인한 봉건정부의 위기 등을 고려하면 조선후기, 한말의 시기는 자치의 성장과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는 지방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일반민과 상인층 등 새로이 성장하는 계층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다. 민의 성장은 기존의 '향약질서'나 '수령이향체제'에 대신한 새로운 지방정치 중심세력의 형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미 조선후기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지방정치의 주도층들은 향회 등의 조직을 통해 새로운 지방정치구조를 창출해 내고 있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전횡, 삼정문란 등의 부패에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들을 지방정치의 중심에 두려고 기도하였다. 이는 사족중심의 질서에 편입하려는 鄕戰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중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가 전제된 아래로부터의 자치라는 측면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말의 지방자치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중앙정부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측면이다. 한말 중앙정부는 재정구조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개혁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운영위기에 대한 타개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사회의 내부구조를 충분히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거론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일본의 작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꿈꾸며 그 하나의 조건으로 지방사회의 장악을 초기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마침 일본은 메이지유신의 마지막 과제로서 지방제도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고 조선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일본의 지배기반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었다. 일제의 지방제도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은 1894년 6월 일본 공사 오도리 가이스케(大鳥圭介)가 조선정부에 제시한 내정개혁 세목강령이었다. 이 강령을 통해 이미 일제는 조선 지방사회의 효과적인 통제, 그리고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방제도 개편의 구상을 제시하였다. 1906년 地方制度調査所의 활동으로 귀결되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말의 지방자치론과 지방자치 그 자체를 규정하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였다.

한말의 지방자치는 자치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중앙정부의 자치정책, 그리고 일본의 간여라는 세 방향의 힘의 합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결국 힘의 합력은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그것도 심하게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후기 한말 수준의 자치조차도 유지하지 못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한말 자치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각 요소들의 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대체로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에 의해 자치의 발전이 저지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말 지방자치정책은 189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이 소강상태였던 시기에 단행된 갑오개혁은 행정·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지방제도의 개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894년 7월에 공포된 군국기무처의 〈鄕會에 관한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제도 개혁에서 군현 및 면의 자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였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道臣으로 하여금 地方官에 飭하여 鄕會를 設立하되 各面人民들이 綜明老鍊한 자 각 1인을 圈選하여 鄕會員으로 삼고 本邑公堂에 모여 무릇 發令, 醫療등에 관한 事項으로 마땅히 本邑에서 施行할 일의 可否를 評議하여 公同으로 決定한 後施行 하도록 한다(《舊韓國官報》, 1894년 7월 12일, 〈군국기무처 의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향회로 규정하고 향회에 '총명'하고 '노련'한 인물들을 선발하여 자치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향회는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향약질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커다란 차이는 기존의 향약이 재지사족의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향회는 재지사족의 지방 지배력이 약화되고 요호부민 등 새로이 성장하는 계층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1862년 농민전쟁시에 향회는 이미 지방정치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향회조직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이것이 정치적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1894년 중앙정부는 향회를 지방자치의 공식 기관으로 추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땅히 本邑에서 施行할 일의 可否를 評議하여 公同으로 決定한 後施行하도록"한 것은 민의수렴기구로서의 향회의 기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1894년 9월의 〈結戶錢捧納章程〉의 기사를 보면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1. 結政은 守令이 實結을 좇아 作夫하고 帳簿를 만들어 鄕員에게 移送할 것(중략).
4. 한 고을의 公錢과 公穀은 다시는 守令과 吏胥層의 손을 거치지 않게 할 것.
5. 한 고을에 鄕會를 設置하여 兼幹人을 公擧하여 文·陰·武·生·進·幼學 등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鄕員이라고 부른다. 鄕員은 大邑에 3명, 中邑에 2명, 小邑에 1명을 둔다.
6. 각 面에서도 역시 兼幹人을 選出하여 面鄕員이라고 부른다. 面鄕員은 公貨를 檢納하고 邑鄕員이 委託한 일을 處理하며 (세금은) 邑에 갖다 내거나 銀行에輸送한다(중략).
9. 鄕員은 公錢을 檢納한 후 度支衙門에서 파견한 差員의 公文을 기다려 中央機關, 銀行에 公錢을 收納하거나 各面이 직접 銀行에 收納하면 憑票를 받아서 施行할 것(하략)(《公文編案》 제4책, 奎18154, 〈함경도 고원군수에게 보낸 훈령〉).

중앙정부는 앞서 말한 대로 향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자치요구를 수용하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향회를 통해 그 동안 국가운영의 핵심적 문제가 되었던 재정운영구조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하였다. "한

고을의 公錢과 公穀은 다시는 守令과 吏胥層의 손을 거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수령과 이서층을 재정운영구조에서 제거하고 이에 대신하는 기구로 향회를 이용하려 하였다. 중앙정부는 '탁지아문－향회의 향원－면회의 면향원'으로 이어지는 조세 수입의 계통을 새롭게 확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자치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원의 계층구성의 관한 것이다. "文·陰·武·生·進·幼學 등에 구애받지 말고"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제 향회는 재지사족이나 신향, 토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분제 해체 이후의 유동적 계층이동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말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큰 가닥을 잡은 중앙정부는 8월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에 향회를 설치하라는 훈령을 내림으로써 향회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러한 갑오개혁 초기의 방향은 동년 10월 일본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공사가 서울에 들어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김홍집 내각은 1895년 3월〈內閣官制〉를 반포하여 군주권을 약화시킨 뒤 내부대신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을 단행해 갔다. 이시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자치조직의 재정 간여를 배제하고 일제의 통제권 아래 있는 재무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후,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던 지방자치정책을 일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1895년 3월과 4월에 각각 공포된 〈關稅司及徵稅署章程〉·〈各邑賦稅所章程〉·〈수입조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말해주는 제도적 표현이었다. 이들규정에 의해 각 도에는 관세사가, 군에는 징세서와 부세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결국 이전의 향회가 담당하고 있었던 지방재정관계 기능은 이제 도의 관세사와 군수 및 징세서의 징세주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물론 재정문제와 관련된 신설기관들을 일제가 장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향회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선향원의 역할을 박탈하고 다시 군수 및 징세주사나 납세 총대인에게 징세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치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바로 직후인 5월에는 23府制가 실시되어 오랜 세월 유지되었던 8도제가 폐지되었다. 23부제는 종래의 大구역제인 8도를 한성·인천·충주·동래 등 22개의 府域으로 세분하고 각 부 밑에 군을 소속시키는 소구역제도였다. 이 지방행정구획제도의 개편 역시 일본인 고문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일본의 3부 72縣制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 개편에도 다른 목적이 내재하여 있었다. 23부제 시행 직후 9월에는 관세사·징세서가 개설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징세서 및 각 읍 부 세소 장정의 시행을 정지하고 군수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모두 전담시키는 제도를 복원하게 된다. 이에 의해 각 군에는 세무과가 설치되고 세무주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운영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3부제를 시행토록 한 일제는 이제 각 부 및 군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군의 세무과를 장악함으로써 보다 일원화된 지배체제를 구축해 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1895년 11월 3일 〈鄕會條規〉와 〈鄕約辦務規程〉이 공포되었다. 1894년이래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던 지방자치제도는 이로써 그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두 법령은 1894년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던 향회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대로 일제의 작용에 의해 재정운영의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법제화라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었다.

향회는 군·면·동리의 지역단위별로 大會·中會·小會라는 三級향회로 나뉘어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다. 소회는 尊位와 해당 里內 매호 1인으로 구성하고, 중회는 執綱과 해당 면 소속 각 리의 존위와 각 리에서 임시로 선출한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회는 군수와 각 면 집강, 그리고 각 면의 公擧人각 2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각급 향회는 교육·호적·지적·위생·社倉·도로·교량·식산흥업·공공산림·堤堰洑港·기타 제반 세목과 납세·환난의 구휼·공공복역·제반 稧會·新式令飭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 논의사항은 향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재결권은 면집강과 군수·관찰사에게 부여하였다. 향회의 수석은 존위·집강·군수가 맡으며 차석은 부역을 많이 담당하는 上等戶民이 맡도록 하였다.

〈향약판무규정〉에서는 면·리任의 직능과 명칭·보수 등을 규정하였다. 즉 리에는 존위·서기·頭民·下有司 각 1인을 두고, 면에는 집강·서기·하유사·面主人 각 1인을 두어 면리의 호구·산업조사의 임무를 맡게 하고 그 경비지출은 面里內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존위는 소회에서 반상에 관계없이 선출되어 1년 임기로 리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는 소회원이 회동하여 이유를 두민에게 고하고 상급 면에 보고한 후 임기에 상관없이 경질할 수 있었다. 서기는 존위의 명을 받아 리의 장부기록과 보고문건을 관장하였다. 서기 역시 존위와 마찬가지로 1년 임기로 리회원이 공동으로 정하되 임무에 위배되었을 때는 경질할 수 있었다. 두민은 里內에서 나이가 들고 세상일에 밝은 사람으로 정하고 존위 유고시에 그 사무를 대신 담당하였다. 그리고 리내 사무상 고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면집강은 군수의 명을 받아 면의 대소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존위들을 감독하였다. 1년 임기로 면내 各里존위와 공거인이 공동 회의하여 반상에 관계없이 선출하였다.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는 해당 면리의 존위와 공거인이 회의하여 군에 보고한 후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선임할 수 있었다. 서기 역시 그 기능과 권한은 리의 서기와 동일하였다. 면주인은 군과 소속 각리에 공문을 발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1895년 11월 단계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은 이상과 같이 향회의 조직구성이라는 점에서는 구체적 제도정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정확하게 의미해석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정책은 1894년 7월의 정책과는 여러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대로 1895년 11월의 제도는 1년 여간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치성이 상당히 후퇴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특히 대회의 장을 군수가 겸직한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갑오개혁 초기의 정책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일본이 자치기구를 관제화하려는 강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각급 향회에 여러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구의 장을 보좌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향약질서' 하에서도 수령과 별도로 좌수·별감이 존재하였고 이들의 이원화된 구조가 지방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그 나름으로 역할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대회의 장을 군수가 겸직한다는 것은 향회의 자치성을 부정하고 행정기구의 보좌역할로서 '자치기구'를 설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회조규〉·〈향약판무규정〉은 관제자치기구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면 이하의 단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면과 동리의 경우 향회의 長을 곧 해당지역의 행정 수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향회라는 자치기구의 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면 행정기구로서의 집강·서기·下有司, 동리 행정기구로서의 존위·서기가 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회와 소회는 이들 집강과 존위의 자문기구로서밖에 역할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집강과 존위가 각각 행정기구화하는 전단계였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1894년 7월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재정구조 안정화라는 중앙정부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일본의 간여, 갑오농민전쟁의 패퇴, 중앙정부의 점차적 보수화로 인하여 관제자치기구의 형성을 예고하는 〈향회규칙〉·〈향약판무규정〉 체제로 정착되어 가고 말았다. 이러한 귀결은 이후에도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한말의 자치제가 외세에 의해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큰 물결속에 휘말려 가는 전주곡과도 같은 것이었다.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김홍집내각이 무너짐으로써 정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기 시작하였다. 2월 11일에 내려진 고종의 조칙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새로이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정책의 기본을 舊本新參에 두고 있었던 이 시기정책의 기저는 지방제도의 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정부는 1896년 8월우선 23부제를 폐지하고 전통적인 8도제에 기본하는 13도제를 시행하였다.

13도제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성·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경흥에는 따로 府를 두었고 제주에는 牧을 설치하여, 총 13도 8부1목 332군의 지방행정구역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지방제도 정비는 행정구획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앙 파견 지방관의 상하명령체계를 체계화하는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도에는 勅任 3등 이하의 관찰사 1인, 부에는 奏任인 부윤 1인(한성부만 칙임 3등 이하의 판윤),목에는 주임의 牧使 1인, 군에는 주임의 군수 1인을 두게 하였고,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감독을 받고 다시 군수를 감독하는 상하 명령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23부제의 시행 및 관세사의 설치로 행정·재정의 이원화 등 복잡하였던 행정체계가 일원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향회조규체제를 그대로 둔 채 그 성격상의 변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변화가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시기의 정책은 구본신참을 기저로 하면서 중앙집권적 근대화의 추진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구본신참은 역시 구래의 자치기구의 기본성격을 어느정도 살리는 것이었다. 갑오개혁기의 향회조규체제는 향회를 제도화한 반면 그것을 관제자치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 구래의 자치기구와는 달리 행정기관의 장이 자치기구의 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회조규〉의 기본틀은 그대로 두면서 향회의 장을 별치하는 방식으로 자치제도 문제를 풀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군단위에 새로이 향장이라는 직을 두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896년 8월 〈地方官吏職制〉를 반포하고 여기에 향장의 직을규정하였다. 향장은 지방자치기구의 장으로서 한성부를 제외한 각 부와 군에 1명씩을 두도록 하였다. 향장을 포함한 군단위의 직제를 표로 정리하면아래와 같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향장은 군수를 비롯한 다른 행정관리와는 달리 일종의 활동비로 여겨지는 월 6원의 월봉을 받는 특수한 직책이었다. 중앙정부는 행정기구의 계통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향회 조규체제에서는 군수가 겸하게 되어있던 향회의 수장을 향장이라는 직명으로 새로이 독립시켰던 것이다. 이는 자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향회조규체제보다는 다시 일보진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본신참을 내세우면서 구래의 질서를 일정부분 체제내로 포섭해 내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잘 표출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표 1〉 1896년 각 군 등급별 인원수와 연봉

(단위 : 元)

구분	1등군		2등군		3등군		4등군		5등군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郡 守	1	1000	1	900	1	800	1	700	1	600
鄕 長	1	72	1	72	1	72	1	72	0	0
巡 校	6	288	6	240	5	240	4	192	2	96
首書記	1	96	1	84	1	84	1	84	1	84
書 記	8	576	7	504	7	504	6	360	4	240
通 引	3	108	3	72	2	72	2	72	2	72
使 令	8	288	8	216	6	216	6	216	4	144
使 傔	4	144	4	72	2	72	2	72	2	72
使 僮	3	108	3	72	2	72	2	72	1	36
客舍直	1	12	1	12	1	12	1	12	1	12
鄕校直	1	12	1	12	1	12	1	12	1	12

* 김태웅, 《개항전후~대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73쪽.
《議奏》 64책, 건양 원년 7월 24일, 〈地方制度에 關한 請議書〉.

이러한 점은 향장이 조선시대 향약의 좌수와 같은 존재이며 좌수·별감이있던 향청에서 집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아래 자료의 문맥에서도 잘 나타난다.鄕長은 前의 座首라 郡守를 補佐하고 郡民을 總代하여 官民間에 一切公務를承接하고 現在는 郵遞事務를 兼任하니 鄕長의 職權이 甚要할뿐더러 各項慣例와關係한 民邑의 일을 悉由座首하여 郡守에게 建白도 하며 인민에게 佈議도 하는고로 各郡郡衙의 次에 原來鄕廳이 있으니 즉 鄕長의 執務의

場所라(《地方制度調査》, 국립중앙도서관, 한－31－62).

위의 표현은, 향회조규체제에서 군민을 총대하는 역할이 행정 수장인 군수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좌수와 같은 인물을 명칭만 향장으로 바꾸어 구본을 살리고 자치성을 제고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나아가 향장으로 하여금 군민을 대표하여 민간의 일체의 공무를 처리하고 군수에게 민의를 전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체사무까지 겸하게 하여 그 직권을 강화시켰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장의 자격은 해당구역 내에서 土民과 吏額에 관계없이 7년 이상 거주자로서 聲望과 才譋가 있는 자였고, 해당 지역민들이 회의·투표를 통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최종 임명하도록 하였다.

各郡鄕長은 該郡區域內土民과 吏額을 勿拘하고 聲望과 才譋가 素著한 人으로 郡守가 選擇하되 該郡大小民이 會議投票하여 다수를 從하되 本郡에 入籍居住한지 未滿七年한 人은 應選치 못함(《日省錄》, 건양 원년 6월 28일).

구본을 따르되 갑오개혁 이래 이미 반상에 구애되지 말도록 하는 신분철폐의 원칙과 대소민의 회의·투표로 향장을 택하게 하는 선출원칙은 근대화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1896년 단계에서의 지방자치정책이 자치기구의 자치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 아래 전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향장을 별치함으로써 군수가자치기구의 장을 겸직하였던 제도를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향장은 군의 직제에 포함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별정직 공무원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시대 좌수·별감과 같이 독립성과 지역성이 강한 존재는 아니었다. 중앙정부는 구본에 따라 자치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향장 자체를 지방행정기관의 관리로 만듦으로써 향장의 장악, 향장을 통한 자치기구의 장악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민의 추천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군수가 향장을 임명하게 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정책의 방향성은 면리 단위에서도 관철되고 있었다.

一. 面長(혹은 執綱이라 부름)은 該面內聲望解事理하는 士族中老成人으로 本郡守가 選定하고 該面內各洞民人이 聚會하여 圈點選定도 함.

一. 面任(또는 風憲이라 함)은 郡守의 命令을 이어 所管面內各洞長에게 指揮하며 凡係徭役賦稅등 事項으로 各洞長洞任을 率率董飭하며(중략)

一. 該面內民人의 家座成冊과 戶口帳籍을 面任이 官令으로 各洞長에게 轉飭하면 各洞長은 各民人에게 知委하여 洞長이 面任에게 거두어 給하고 面任은 모두 모아 官에 냄(《地方制度調査》, 국립중앙도서관, 한－31－62).

《지방제도조사》에 나타난 면·동리 관련기사를 보면 우선 면에는 면장을, 동에는 동장을 두게 함과 동시에 면임·동임을 두어 조세·호적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케 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행정의 체계를 이전에 비해 계통적으로 정리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도 면장·동장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한 위에 행정조직의 계통 역시 면임·동임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내부－관찰사－군수－면임－동임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지방행정계통이 확립되었고, 또한 면·동리 단위에서의 자치제도 역시 이전보다는 안정된 제도적 기반위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1896년 단계에서의 지방자치정책은 기존의 동리·면·군 단위의 향회조직을 그대로 살리면서 향회의 수장을 동장·면장·향장으로 독립시키는 대신 이들을 행정관리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갑오개혁시의 지방자치정책과 비교해 볼 때 이 시기의 정책은 자치성의 부분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진전된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광무정권이 추구하였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구축이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방자치정책의 성격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의 체계화라는 과제와 자치제의 발달이라는 측면이 서로 길항하면서 발전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후술하는 통감부 시기의 정책기저와 비교한다면 아래로부터의 근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남기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감정치에 들어가기 직전인 1905년 단계의 일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金星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측면은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지방사회 운영의 근간을 향약에서 구하면서 군과 면·동리에 향약을 설치하고 군향약에는 도약장 1인을, 면향약에는 면약장 1인과 면임 1인을, 리향약에는 두민 1인과 존위 1인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회와 都鄕會, 大鄕會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기구에 대한 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구상도제출하였다. 여기서 향회는 도약장과 각면 약장이 회동하는 會를, 도향회는 도약장과 각리의 두민·존위가 회동하는 회를, 대향회에는 도약장과 각면 약장과 각리의 두민·존위 및 각리 해사인이 모두 회동하는 회를 의미한다.

이 향회는 중앙정부가 취한 지방자치정책보다 자치성을 더욱 가미한 것으로 군수와 수서기 등의 지방관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김성규가 시행한 〈民弊民瘼矯革章程〉을 보면 도약장과 각면 약장은 향회를 열어 군수와 서기, 수교 등의 위법을 관에 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도 시정이 안될 때에는 대향회를 열어 이를 다시 관에 고할 수 있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관찰사와 내부, 평리원까지 상소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수의 향회에 대한 관여를 애초부터 봉쇄하여 민의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말한 〈향회조규〉는 물론 향장제를 실시한 1896년 단계의 자치정책과 비교해보아도 일보진전된 것으로 평가해 모자라지 않다. 또한 대향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광무개혁 이후 1906년까지의 지방자치가 중앙의 집권적 지배체제구축 정책 지방의 자치 확대를 향한 힘이 길

항하는 과정이었다면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는 일제에 의한 지방자치의 파괴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 침략을 꾀하면서 초기부터 지방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직접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의도는 이미 갑오개혁 후기의 지방자치정책에서 표출된 바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서의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한 일제는 지방사회의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 4월 7일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하에 地方制度調査所가 설치되고 이들 활동의 결과로 지방자치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 지방제도 조사소에는 내무국장 崔錫敏, 탁지부 사세국장 李建榮, 기타 유길준의 동생이자 내부 경찰국장 이었던 兪星濬등이 참여하였고 일본인 가메야마(龜山理平太) 警視와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 통역관이 촉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8월 중순에 기본적인 조사 작업을 종결하고 그 조사·정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행정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개편, 지방자치의 실시, 군수 적임자 선발과 이서층의 정리, 지방세제의실시 등이 건의되어 있었다.

近日郡守之貪虐은 多半鄕人이 爲之嚆矢也라 地方情弊가 旣如此則郡守만選擇할 뿐 아니라 鄕長을 尤可注意니 鄕弊를 欲矯면 郡守의 賣任을 痛禁하고鄕長을 欲擇이면 人民의 選擧를 可許니 地方事務는 專在於鄕長之得人如何耳라鄕長을 得人然後에 鄕約規程과 鄕會條規를 如何擧辨而人民自治之權이 將於是乎生矣리니(《地方制度調査》, 국립중앙도서관, 한－31－62).

지방제도조사소의 건의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전의 자치제도를 그대로 살리되 특히 향장 등 자치기구의 장을 잘 선택하여 그간의 폐해를 막는 데 주안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06년 9월 이후의 지방자치정책에서는 이러한 조선인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일제는 메이지유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지방통치에 관한 구상을 행정지배를 통한 지방사회의 직접적 장악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인 위원들의 청의는 받아들여 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가 선택하였던 제도는 향장제를 폐지하고 郡主事를 설치하는 한편 향회를 해체하고 이에 대신하여 지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었다. 1906년 9월 〈地方官官制〉가 발포되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향장의 직이 없어지고 이에 대신하여 군주사가 설치되었다.

언뜻 보아서는 이름만 향장에서 군주사로 바뀐 것 같지만 광무개혁시의 향장이 민선이었던 데에 비해 군주사는 완전한 임명직 행정관료 라는 점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별된다. 아래 〈郡主事銘心規則〉에서 기존의 좌수나 별감과 같은 자치기구의 장과는 구별되는 군주사의 행동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자치성을 일소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잘 말해준다.

郡主事銘心規則

郡主事는 郡守를 補佐하되 持心을 勤愼히 하고 處事를 公平히 하여 政務의刷新하는 主旨를 認眞實踐할 지며

前日에 座首와 鄕長의 鄙陋한 心法과 行動을一切革祛할 事(《訓令謄錄》3책, 奎古4255－10, 훈령 238호).

일본은 이전의 자치 기구를 관제화 하려는 경향에 더하여 이제는 군단위 자치기구의 역할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대신 군주사와 같은 행정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향장에 이어 군주사에 儒鄕층이 오르기도 하였으나 점차 향회 추천 등의 과정 없이 통감부가 일방적으로 임면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갔다. 1908년부터는 타도나 타군 출신의 군주사가 임용되기 시작하였고 1909년부터는 일본인이 군주사로 임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일제는 자치기구를 무력화하고 행정지배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해 갔다.

일제는 이렇게 기존의 자치기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이후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07년 5월 13일 일본인 재무관과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 재정고문이 초안한 〈地方委員會規則〉이 공포되고 11월까지 각 지역에 지방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기존의 자치기구는제도적으로 완전히 부정되게 된다. 일제는 '自治制의 創始·母體·前身','文明國의 代議機關' 등의 미사여구를 쓰면서 지방위원회를 발전된 자치기구의 형태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필요한 것은 재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따라서 위원회는 탁지부에 소속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지방위원회를 기존의 자치기구를 폐지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궁극의 목적을 징세기구의 장악에 두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의 훈령에 따라 일본인 재무관리와 한국인 세무관이각 군을 순회하면서 각지에서 '신용·자산·지식'을 가진 자를 선발하였고, 이로써 일제의 지방지배를 매개할 친일적 인사들이 지방위원회를 채우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지방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는 한편 기존의 자치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괴 정책을 구사하였다. 장성·임실·한산·고령 등지의 자치기구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던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한편 같은 해 10월에는 〈租稅徵收規程〉에 징세기구로서 면장을 규정함으로써 면단위에 면장을 두는 면장제를 법제화하였다. 면장제는 이전의 집강을 면장으로 바꾸고 면장에게 징세의 업무를 담당케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면단위 자치기구를 보다 명확한 하급행정조직으로 만들려는 조치였다. 세무서에서 지세·호세의 총액을 면장에게 부과하면 면장은 면내 다액납세자로 구성된 5명의 임원과 함께 최종 납부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에 의해 公田領收員이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면단위 자치기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면장－공전영수원으로 이어지는 징세기구의 하부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선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행정실무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면장에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이 취임하기를 꺼려하였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면장의 질적인 저급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 일제가 기존의 자치기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면장제도를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면단위 지역 운영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각 면에서는 일제에 의해 임명된 면장과는 달리 지역 유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운영의 관행이 강하게 존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제는 면장제의 개선을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面長職制

勅令案〉을 제출하였다. 1909년 2월에 제출된 이 안은 면장을 판임관대우로 한다는 내용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었다. 면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 대우를 판임관으로 하는 대신 급료를 국고에서가 아니라 면민이 부담케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면단위 자치기구를 무력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선인의 반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의 대우를 개선하고 면장에 유력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일종의 고육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제가 근원적으로 조선에서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극단적인 집권적 지배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통감부의 정책방향은 식민지지배 전기간동안 계속되었고 이를 둘러싼 조선인과 일제와의 대립 길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 설치 직후에 공포된 〈面에 關한 規定〉과 1917년의 〈面制〉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인 제도로 확립시켜 가는 과정이었다.

조선후기·한말의 지방자치를 둘러싼 동향은 아래로부터의 자치성장을 일정부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동반하는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갑오개혁·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집권화 정책과 자치성의 확대 움직임이 서로 길항하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간여는 지방자치와 집권적 행정체계 형성간의 균형을 깨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군·면·동리단위의 자치기구는 일제에 의해 제도적으로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제의 조선강점은 지배정당성을 결여한 이민족 지배였을 뿐 아니라 조선사회의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근원에서차단하고 기형적인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강요하는 과정이었다.

4. 경성부의 확대

경성부(京城府) 또는 게이조 부(일본어: 京城府 게이조후[*])는 일제 강점기 때에 존재했던 행정 구역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해당한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 지배의 행정 중심지로서 경성부로 불리게 되었고, 경기도에 편입되어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1936년에는 고양군·시흥군·김포군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시켜 면적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보다 4배로 확장된 133.94km2가 되었고, 용산·영등포·동부출장소를 두었다. 1943년 6월 10일, 인구 증가에 따라 구가 설치되었다.[1]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잠시 경성으로 불렸으나, 1946년 9월 28일 미군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분리해 서울특별자유시(--特別自由市)가 되었다.[2][3] 이후 대한민국 정부출범 다음 해인 1949년 8월 15일에 서울특별시가 되었다.

가. 행정구역 변천

1910년 10월 1일 시행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에 따라 한성부는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고, 경기도에 편입되었다.[4] 1911년 4월 1일부터 5부 8면제를 실시하여 종전대로 성내(城內)는 5부로 구분하고, 성밖(城外)은 용산·서강·숭신·두모(豆毛)·인창(仁昌)·은평·연희·한지(漢芝)의 8면(面)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14년 4월 1일에 용산·숭인·인창·한지·두모면의 일부만 경성부에 두고 8면의 나머지 지역(성저십리 대부분 지역)은 모두 고양군에 편입되어 5부 8면제는 폐지되었다.[1][5] 또, 이 날부터 한성부 방·계·동 제도는 폐지되었고,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186개 동(洞)으로 하여 경성부가 직할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었다.

1914년 9월 27일부터 경성부에 동부·서부·북부·용산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출장소 제도는 설치된 지 겨우 1년 2개월 후인 1915년 6월 17일 용산출장소만 남기고 폐지되었다. 1936년 3월 23일,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32호에 따라 경성부의 행정구역의 명칭이 기존의 "~동"(洞)에서 "~정(町)"으로 개칭되었고,[7] 같은 해 4월 1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용강·연희·한지면, 시흥군 영등포읍·북면,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8] 등이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개편 전	개편 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아현정
고양군 용강면 여울리(汝栗里)	영등포출장소 여의도정(汝矣島町)
고양군 연희면 대현리, 노고산리, 창천리, 동세교리, 신촌리, 봉원리, 북아현리, 연희리	대현정, 노고산정, 창천정, 동교정, 신촌정, 봉원정, 북아현정, 연희정
고양군 은평면 홍제내리, 부암리, 홍지리, 신영리	홍제정, 부암정, 홍지정, 신영정
고양군 숭인면(崇仁面) 돈암리(敦岩里), 성북리(城北里), 안암리(安岩里), 종암리(鐘岩里), 제기리, 신설리, 청량리	돈암정(敦岩町), 성북정(城北町), 안암정(安岩町), 종암정(鐘岩町), 제기정, 신설정, 청량리정
고양군 한지면 상왕십리, 하왕십리, 마장리, 사근리, 행당리, 신당리 등	상왕십리정, 하왕십리정, 마장정, 사근정, 행당정, 신당정 등
시흥군 북면 도림리 일부(현재의 도림동, 문래동)·신길리·본동리(本洞里)·노량진리·흑석리·동작리·번대방리	영등포출장소 도림정·신길정·본동정·노량진정(鷺梁津町)·흑석정·동작정·번대방정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	영등포출장소 영등포정·당산정·양평정
시흥군 동면 상도리	영등포출장소 상도정
김포군 양동면(楊東面) 양화리	영등포출장소 양화정

1936년 7월 23일 동부출장소(東部出張所)와 영등포출장소(永登浦出張所)가 설치되었고, 1940년 7월 1일 서부출장소가 설치되어 4개의 출장소가 경성부 하부관아로서 경성부 업무를 보조하였다.[5] 1943년 6월 10일, 인구 증가에 따라 출장소 제도가 폐지되고 구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도성 내에 종로구(鍾路區)와 중구(中區)를 신설하고, 동부출장소를 분할하여 동대문구(東大門區)와 성동구(城東區)로, 서부출장소를 서대문구(西大門區)로, 용산출장소를 용산구(龍山區)로, 영등포출장소를 영등포구(永登浦區)로 하여 7개구를 설치하고, 행정기구로 구역소(区役所)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시가지 확장

1919년, 경성의 인구는 48만8천명이었다. 이후, 일본인들의 이주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일본인 주택지가 새로 조성되었다. 남산 북사면(北斜面) 일대의 필동·남산동·인현동·쌍림동·장충동·회현동과 남대문 밖 서울역 부근의 후암동·청파동·효창동·용문동·원효로 등 용산 방면에 일본인 주택지가 생겨 일본식 목조가옥이 늘어서게 되었다. 또한, 을지로와 명동·충무로에 일본인 상가도 형성되었던 것이다.

경성부는 종로·남대문로·태평로를 중심으로 번화한 도심지가 형성되어 갔고, 청량리·마포·돈암동·영천(靈泉)·영등포 등의 전차 종점과 전차 노선 부근도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나, 그 주변은 근교 농촌이었다. 그 밖에 아현동 일대와 숭인동·신설동 등에는 조선인 주택지가 조성되어 갔다.

일제는 시가지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1913년에 성벽을 헐어 도로를 만들고 시가지를 확장하여 경성부는 성곽 도시의 면모를 잃게 되었다. 또한 1914년에 경성부 외곽이었던 옛 성저십리 지역을 고양군에 편입하여 경성부 면적을 축소하였다. 1936년 고양군으로 넘어간 한지면, 용강면 일대와 연희면 및 숭인면 일부가 경성부로 재편입되었고 시흥군 영등포읍 일대와 북면 일부,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가 신규 편입됨으로써 경성부 행정구역이 확장되었다.

1939년에는 남대문에서 종로·을지로·퇴계로 등 도심부는 상업 지역, 영등포·용산에서 마포·서강 일대와 청계천 하류의 답십리 일대는 공업 지역, 그 밖은 주택지구로 정하는 지역제(地域制)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은 점차 근대적 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1939년 조선총독부는 병참기지화의 일환으로 이른바 '제2차 대경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인천(경인선) 권역의 경성부 편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당시 편입이 검토된 지역으로는 경기도 시흥군 동면(현 서울 금천구, 구로구 동부, 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신대방동, 관악구 대부분), 서면 일부(현 경기 광명시 일부), 부천군 소사면/부내면/오정면(현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서부, 인천 부평구, 계양구 남부), 계양면(현 인천 계양구 북부), 서곶면(현 인천 서구), 김포군 양서면/양동면(현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이 있었다.

1937년 경성부 지도	경성부 혼마치
	

5.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근대의 경기			
학습 목표	1. 근대시기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근대 시기 우리 저역의 변화 과정을 열거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는 일제시대에도 ○○시였는지 질문한다.		
전 개	1. 8도 체제에서 23부 체제의 변화(15분)	조선시대 성립된 8도 체제가 후기로 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 문제점을 드러내자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23부 체제에서 13도 체제로의 변화(15분)	불과 1년 만에 다시 23부 체제에서 13도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이 체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이어진다.	
	3. 경성부의 변화과정 (10분)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성부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경기도에 소속된 하나의 부로 전락한다. 일제가 이러한 정책을 펼친 이유를 살펴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정리해 본다.	
	함께 해봅시다(30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경기도의 31개 시, 군이 표시된 백지도에 각 지역을 지도에 색깔별로 표시하여 본다. 이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다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만큼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 과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6.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 하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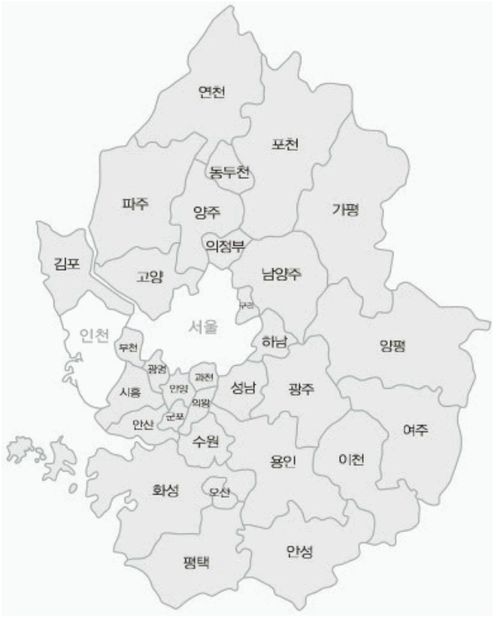
8도 체제	23부 체제	13도 체제
경기도 안산군	인천부	경기도 시흥군

[생각더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색깔별로 구분해 볼까요?







7.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8. 교사 참고자료



경기감영은 경기관찰사가 행정 사무를 보던 관청이다. 경기감영에서는 민정, 군정 및 사법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관하의 수령을 지휘 감독하였다. 이곳은 태조 2년(1393)에 설치되어 건양 원년(1896)에 수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좌도(左道)와 우도로 분리되어 있던 경기는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편으로 합쳐져 경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8도의 감영(監營)에는 총 책임자로 관찰사가 있었고, 도사(都事)와 판관(判官) 같은 수령관(首領官)이 배치되어 관찰사의 업무를 보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장(裨將)이 있어 군사, 치안 관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으로 이루어진 영아전(營衙前)이 있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금의 종로구 평동 164번지 서울적십자병원 일대에 있었다.



9.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44편)』-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2000
정광섭, 「23부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소고」, 한일관계사연구 41집, 2012
김익한,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93)
조세호, 「경성부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공원녹지의 계획 양상」,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준식,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향토서울 제69호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역사학보 105, 1985

영화, 「밀정」, 감독 김지운, 주연 송강호, 공유
영상으로 기록하는 경기감영·경기도청, 경기도 멀티미디어자료, https://vimeo.com/263098976

4차시

현대의 경기

1.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화[1)]

경기도는 20세기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공간에 있었고, 분단의 역사를 거치면서 도의 일부가 북한에 속하게 되는 등 행정 지명이 급격하게 변한 지역이다. 특히 위치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고 산업화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자주 이루어져 지명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경기도의 정치·전략적 중요성은 백제의 시조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면서(B.C 18) 시작되었다. 이후 고려 왕조의 성립은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995년(고려 성종 14)에 수도를 개성부로 개칭하고, 이 일대의 지역을 수도의 직할지로 삼아 중앙의 고위 관리가 다스리게 함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 때 한강 유역은 관내도의 광주(廣州)와 양주(楊州)에 속하였다.

경기 지명은 1018년(고려 현종 9)부터 불리기 시작하였다. 995년(고려 성종 14) 개경 주변에 6개 적현(赤縣)과 7개 기현(畿縣)을 설치하였는데 1018년에 이들 적현과 기현을 묶어서 왕도의 외곽지역으로 '경기'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경기도라는 행정단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경(京)은 '천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기(畿)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오백리 이내의 땅'을 의미한다. 경사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다.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 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과 기현으로 나누어 통치한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강화 천도로 경기제도에 변화가 있었으나 이후 1270년(고려 원종 1) 개경으로 환도한 후 경기제도는 복구되어 고려의 왕실과 왕경을 보위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1360년 경기는 왜구의 방어를 맡는 경기병마도통사를 둔 것을 시작으로 왕경인 개성부와 구분되어 도의 형태가 되었으나 경기 지역이 하나의 행정단위로서의 도(道)가 된 것은 1390년 (고려 공양왕 2)의 일이다. 이때 경기도는 경기좌우도로 구분되었다.

조선왕조의 창업과 한양 천도는 경기도의 윤곽을 오늘날과 유사하게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태종과 세종은 연백을 황해도로, 이천(伊川)과 안협(安峽)을 강원도로 이관시키고, 여주·양지(陽智)·양성(陽城)·음죽(陰竹)·가평(加平)을 경기도에 편입시켰다. 1895년(고종 32) 23부제(府制)의 실시 결과 경기도는 3부(한성·인천·개성) 34군으로 분리되었고, 경기도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1896년의 13도제 실시에 따라 다시 경기도로 부활되었으며, 1910년 중앙 직할지였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래의 4부 34군이 2부 20군이 되었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일부지역이 각각 평택군과 이천군에 편입되었다(아래 표 참조).

1945년 경성부는 서울시로 개칭되었고, 1946년 서울특별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1949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와 개성부는 시로 개칭되었으며, 수원읍이 수원시로,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은 수복되었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개풍군·장단군·옹진군·연백군의 5개 시·군 중 옹진군의 2개 면을 제외하고 수복되지 않음으로써 관할 구역의 지명 조정이 대폭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63년에는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고, 행정구역이 일부 조정되었다. 1967년에는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되고 1971년 광주군의 4개 면을 중심으로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에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되었다. 1979년 양주군 미금면, 평택군 팽성면, 고양군 원당면, 광주군 광주면, 연천군 연천면, 포천군 포천면, 양평군 양평면, 용인군 용인면, 김포군 김포면, 시흥군 서면(뒤의 소하읍)·남면(지금의 군포읍) 등 총 11개 면이 읍으로 되었다. 그리고 화성군 반월면을 중심으로 시흥군 일부를 합쳐 반월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어 1980년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남북의 양주군이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었다.

1981년에는 인구증가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으며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되었다. 1982년 시흥군 과천면에 과천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3년에는 옹진군 자월면·김포군 통진면·포천군 화현면의 3개 면을 신설했으며, 파주군 주내읍을 파주읍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에는 양주군 회천면, 화성군 태안면, 고양군 지도면과 화전출장소, 연천군 전곡면, 용인군 기흥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6년에 구리읍·평택읍·과천출장소·반월출장소가 각각 구리시·평택시·과천시·안산시로 승격되고, 1989년에 6개 시가 새로 생겼다. 1992년에는 고양군이 고양시로, 1995년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되는 등 시·군의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아울러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1996년에 용인군·파주군·이천군이 시로 승격되고, 1998년에는 김포군과 안성군이 시로 승격되었다.

2. 한국전쟁과 경기도의 변화[2)]

38선 부근에서는 미·소 양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충돌의 기운이 점차 무르익고 있었다.1949년에서 1950년 한국전쟁 직전까지 벌어진 남과 북의 충돌은 소규모 전투자원을 넘어서는 규모였고 쌍방

1)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화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2008. 12. 국토지리정보원)

2) 경기도사

의 피해도 막심했다. 남한의 발표에 의하면 1949년 1월에서 10월까지 북측은 총 7만여 명이 560회에 걸쳐 38선을 침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로 인해 북측 약 4,000명, 남측 약 300명이 전사하였다. 무력충돌이 많이 발생한 곳이 경기도 옹진과 개성 강원도 고성이었는데 특히 개성에서는 연대급에 달하는 병력이 교전하는 등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남북간의 38선 충돌은 1949년 말을 기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큰 규모의 전투는 없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옹진을 시작으로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고, 3년 동안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6월 28일 서울을 접령하고 계속 남진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파병하였고 유엔은 유엔군의 참가를 결정하였다.

경기도는 38선 접경지대 및 서울로의 연계도로가 많아 전쟁 초반 격전지가 되었다.7월 5일미 24사단 소속의 기동대가 오산에서 북한군과 처음으로 맞닥뜨렸으나 전차부대에 밀려 패퇴하였다. 결국 미국 및 유엔군의 침전에도 불구하고 8월 15 일 낙동강 이남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즈음 미군과 유엔군은 속속 병력을 집결하여 반격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지상병력을 제외한 해·공군에서 미군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한편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병참선의 연장과 전투지역의 확대 등으로 보급품과 병력보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1950년 9월 15일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10월1일에는 드디어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하여 순식간에 한·중 국경부근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10월 19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전쟁은 북한과 중·소를 한편으로 하고 남한과 미국 및 유엔군을 한편으로 하는 동·서 양 진영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중국·북한군은 그해 겨울 북한 전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1951년 1월에는 서울까지 재점령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시도 4월경에는 지금의 휴전선 부근으로 전선이 형성되어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951년 6월 소련이 미국에게 휴전을 제의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판문점아反門店)에서 양측은 휴전협상에 들어갔다. 이후 2년여 간의 지리한협상이 진행되었고, 그사이 양측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접적지역에서 전투를 계속 벌였다.

경기도 북부는 이때의 교전으로 초토화되었고 주민들 역시 심한 고통을 받이야만 했다. 결국1953년 7월23일 158번째 회담을 마지막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이 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뜻이며 적대행위의 완전한 종식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결괴는 엄청났다.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했다. 최소한 250만 명이 사망했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산업시설은 거의 잿더미가 되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12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 인명과 2,000만채 이상의 가옥·건물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큰 것은 양측의 주 공격선이 경기도를 통과하고 전선의 교착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인공업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내의 산업기반은 거의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붕괴하였다.

전쟁 후 경기도에는 난민 수용소 등 전쟁피해자 구호를 위한 각종 시설이 생겨났고,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하게 된다.

한국전쟁은 인적·물적 피해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동족간의 팝직한 상잔이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행해진 참혹한 전쟁이었다. 경기도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에 의한 양민학살이 상당수 자행되었다. 무분별한 이념 대결의 처참한 결과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쟁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더욱 심화되어 분단의식·적대의식으로 뿌리내려지고, 이후 남북정권이 서로 적대적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는 분단의 형벌을 받은 땅이자 남북통일의 희망을 간직한 곳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사항이 교차되는 곳이 되었다. 전쟁의 상흔을 씻고 민족적 대단결과 통일시대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절실하며 경기도는 이러한 과제를 선도할 중심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3. 서해안과 경기도

경기도를 이해하는데 서해와 경기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역사에서 고대와 고려시대에는 바다가 열려 있었다. 이 시기 당항성과 벽란도 등 경기도 항구들은 중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해금 정책이 실시되면서 바다는 닫혔다. 19세기 중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바다는 강제로 열렸다. 이 때 바다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양호사건이 그것이다. 인천항 등 개항장은 근대 물결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침략 전진기지가 되었다.

1945년 분단 이후 대륙 국가였던 한국은 섬 아닌 섬이 되었다. 1945년 북한이,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한국의 대륙 진출은 막혔다. 한국의 선택은 동진(東進)정책 밖에 없었다.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그리고 가까운 일본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앞 바다인 서해의 경기만은 수자원(水資源)의 보고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다시 대륙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서해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동해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의 평택항은 중국과 교류하는 중요한 항구가 되었다. 한국이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 시작되면서 서해의 중요성, 이를 끼고 있는 경기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통일 이후 경기도는 북한 지역육로를 통한 진출 못지 않게 서해를 활용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이다.

바다가 열려 있었을 때 경기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바다가 닫혔을 때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은 떨어졌다. 외세에 의해 강제로 바다가 열렸을 때, 경기도는 전쟁터가 되었고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 아시아 대륙이 한국의 중요한 교류 대상이 되면서 경기도와 서해안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해안의 관계는 경기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키워드이다.

4.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현대의 경기			
학습 목표	1. 경기도의 행정구역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미래 모습을 말해 볼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6분) : 경기도의 행정 구역 변천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느껴본다. 경기도의 과거를 아시나요 (https://vimeo.com/229086712)		
전 개	1. 해방 후 경기도 행정구역의 변화(15분)	해방 이후 경기도 행정 구역의 변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지방자치제도와 경기도(10분)	지방 자치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경기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을 파악한다.	
	3. 통일을 준비하는 경기도(15분)	분단으로 갈라진 경기도의 현재 모습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경기도 사람들의 노력을 알아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경기도의 행정 구역 변화 파악하기 - 지방 자치 제도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하기	
	함께 해봅시다(30분)	비무장 지대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모둠 별로 의견을 제시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해방 이후 경기도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미래 경기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5.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해방 이후 경기도의 행정 구역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을 시대별로 적어 봅시다.

해방 직후	6.25 전쟁 전후	1960년대
서울이 특별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휴전선 이북의 경기도 지역이 북한에 편입되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옮겨졌다.

2.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의 인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1980년대 말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을 신도시로 개발하여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든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3. '이야기 둘'을 잘 읽고 다음 문제의 답을 적어 봅시다.

3-1. 1961년 지방 자치 제도 중단의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다.

3-2. 노태우 정부 시기에 지방 자치 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유를 적어 봅시다.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가 터져 나오면서 민주적인 지방 행정제도로 다시 시행되었다.

4. 경기도가 추진하는 '통일경제특구'가 실현된다면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을지 적어 봅시다.

9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7만 명이 새로 고용되는 효과가 있다.

[생각 더하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모둠별로 토론을 해봅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6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보았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8.9.13.)

1-1. 비무장지대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크고 밑부분이 뾰족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1-2. 이러한 생김새를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랫부분이 서로 맞물리게 하면서 옆의 이빨이나 옥수수알, 성돌이 빠지더라도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음은 토지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시대별 밥 공기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현대 한국인이 고구려 사람보다 밥을 적게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예전에는 밥 이외 반찬이 간장이나 야채절임 등으로 매우 적고 영양소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반찬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보다 몸을 쓰는 일을 훨씬 적게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두끼만 먹었지만 요즘은 세끼를 먹고 간식도 먹기 때문이다.

6.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7. 교사 참고자료

가. 여운형

본관은 함양(咸陽), 호는 몽양(夢陽)이다. 1886년 5월 25일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서면(楊西面) 신원리(新院里) 묘곡(妙谷)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 여규신(呂圭信)과 종조부 여규덕(呂圭德)은 동학에 가담하였는데 몽양에게 끼친 영향이 컸다. 하지만 부친 여정현(呂鼎鉉)은 조부와 달리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계급주의를 신봉했으며 몽양은 이러한 부친을 자신의 성장기에 반면교사(反面教師)로서 회고하였다. 몽양은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촌 관계였던 족숙(族叔) 여병현(呂炳鉉)의 도움으로 서울로 갔으며 1900년 배재학당(培材學堂)에서 기독교를 접했고, 흥화학교(興化學校)를 거쳐 관립 우무학당(郵務學堂)에서 전신(電信)기술을 공부하여 통신원 기술자가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통신원이 일본 소유로 넘어가자 취업을 거부하였다. 1906년 부친이 사망하자 집안의 노비를 모두 불러모아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워 그들을 해방시켰다.

1907년부터 서울 종로에 있었던 승동교회(勝洞教會)에서 선교사 보조원 생활을 했었고 같은해 양평 고향집에 기독교 광동학교(光東學校)를 세워 향리의 청년들을 계몽하는데 앞장섰다. 1910년 선교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강릉에 초당의숙(草堂義塾)을 세워 평등사상과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전념하였다. 하지만 총독부에 의해 학교는 1년만에 폐쇄되고 말았다. 국권이 피탈되고 학교가 폐쇄되자 승동교회로 돌아와 평양신학교를 다녔다. 또한 그는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팀인 YMCA 야구부(황성기독교청년회 베이스 볼 팀)의 주장으로 활약한 것으로 추측되며 1912년 11월 2일 와세다대학의 초청을 받아 일본까지 원정경기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직접 목격한 신문물과 조선유학생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깨우치고 선교사 클라크를 따라 서간도(西間島: 퉁화)의 신흥학교(新興學校)를 견학하였고 이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1914년 겨울 중국으로 건너갔다.

언더우드 선교사로 부터 추천장을 받아 장로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난징[南京] 진링대학[金陵大學]에서 3년간(28~30세) 영문학과 철학을 공부하였다(1915. 2~1917. 1). 몽양이 당시 선진국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퇴락하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유학은 그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16년 상하이[上海]로 가 협화서국 서점(Shanghai Mission Bookstore)에 취업 하였으며 선교사, 인성학교 교사, 여행대행업 등을 했다. 1918년 상하이에서 장덕수(張德秀)를 만나면서 여운형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몽양은 정치와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김규식(金奎植)을 파리평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고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을 발기하였다. 이 일은 국내 독립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이 되었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자치운동(自治運動)으로 회유하고자 그 해 11월 그를 도쿄[東京]로 초청하였으나 오히려 장덕수(張德秀)를 통역관으로 삼아 일본의 조야(朝野) 인사들에게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1920년 5월 상하이에서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에 가입하였는데, 국제공산당 위원인 보이틴스키(Grigorii Voitinsky)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제안에 공산당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볼셰비키정부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제공한 자금을 이동휘, 김립이 가로채 독단적인 처리하자 고려공산당은 분파되어 와해되고 말았다. 1921년 이르쿠츠크(Irkutsk)에서 열릴예정이었던 원동(遠東)피압박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비사막을 횡단하고, 바이칼호수를 건너는 고난한 여행으로 도착하였으나 대회 장소는 모스크바로 변경되었다. 1922년 1월 7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났으며 조선의 사정을 논의하였다. 중국 상하이로 돌아와 쑨원과 중국공산당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1925년부터는 중국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1927년 장개석(蔣介石)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 축출로 몽양이 믿었던 소련의 지원과 국공합작체계의 정치적 모델이 무너지고 말았다. 낙담한 그는 체육부 코치로 생활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인삼사업을 모색하다 1929년 7월 10일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혐의로 상하이 주재 일본영사관 경찰부에 체포되었다.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국내로 압송되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의 압송이 대서특필되었으며 중국에서 실패한 공산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허망한 날을 보냈으나 국내에서는 일약 유명인이 되었다. 재판 결과 독립운동을 전개한 죄목으로 4년간 복역하였다. 1933년 출옥하자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되었고 조선중앙일보사(朝鮮中央日報社) 사장에 취임하였는데 경영난으로 어려웠던 신문사는 그의 명성에 힘입어 번창하였다. 하지만 베를린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1936년 신문이 일제에 의하여 폐간되자 사임한 후 1944년 비밀결사인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8·15 광복을 맞아 안재홍(安在鴻), 정백(鄭栢) 등과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사들과 대립되었고 건준위 조직 내부 박헌영이 주도하는 극좌익세력과 정치투쟁 내분에 휩쌓였다.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우익진영의 반대와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패하였다. 12월 조선인민당을 창당, 1946년 29개의 좌익단체를 규합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을 결성하였으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못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반대파 좌익세력에게 밀려 탈퇴하였다. 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韓智根)에 의하여 1947년 암살되었다.

덴마크체조를 국내에 보급한 체육인이기도 하였으며, 광복 후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 제11대(1946~1947) 회장을 지냈다. 2005년 3·1절에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이 추서된 데 이어 2008년 2월 2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이 추서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운형 [呂運亨] (두산백과)

나. 안재홍

본관 순흥(順興), 호 민세(民世). 경기 평택(平澤)에서 출생했다. 1914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정경과를 졸업하고, 1916년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여 신채호(申采浩) 등과 함께 활약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중앙고보(中央高普) 교감을 지내며 3·1 운동 당시 시위를 지도하였고, 이어 대한청년 외교단(外交團)을 조직하여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다가 붙잡혀 3년간 복역했다.

1923년 《시대일보(時代日報)》 창간에 참여, 이사와 논설위원을 지내고, 조선일보사 사장 겸 주필로 10년간 재직하면서, 물산장려회(物産奬勵會) 이사를 겸임, 국산품 장려운동을 벌였다. 신간회(新幹會) 총무로 활약하다 투옥되어 8개월 후 풀려났고, 1936년 임시정부와의 내통이 발각되어 2년간 복역하고, 1942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 사건으로 다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신채호의 영향을 받고 조국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정기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 국사(國史)를 깊이 연구하였는데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고대사(古代史) 연구에 몰두, 일제 관학자(官學者)들의 식민사관(植民史觀)을 극복하고자 애썼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민족을 구성하는 여러 사회계층 상호간의 대립반목을 해소하고 외적으로는 타민족에 대하여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신민족주의론(新民族主義論)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8·15 광복 직후 여운형(呂運亨)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 그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곧 탈퇴,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중앙위원을 지내고, 1946년 한성일보사(漢城日報社) 사장, 비상국민회의 의원, 민주의원 의원, 좌우합작위원회 의원,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1947년 미군정청 민정장관(民政長官)을 지내고 1950년 9월 6·25전쟁 때 납북되어, 1965년 평양에서 사망하였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다. 한반도 DMZ

DMZ 일원은 통상적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DMZ,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통선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합니다. 길이 103km(총 248km의 41.5%, 이 중 강원도가 145km), 넓이 153㎢(남측 453㎢의 33.8%, 이 중 강원도가 300㎢)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MZ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습니다. 한국전쟁이 종전(終戰)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고 육상의 군사분계선인 MDL(Military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동해안인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km,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국제법상의 제도인 DMZ는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 공간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격리 배치, 감시기구 설치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반도 DMZ와 그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통선지역

민통선(민간인통제선, CCL : Civillian Control Line)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0km밖에 설정된 경계선을 말합니다. 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 10km에 이르는 공간은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민통선지역 또는 민북지역이라고 합니다. 본래 민간인의 농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귀농한계선으로 설정했던 것인데 국군의 임무가 휴전선 방어로 바뀌면서 허가받은 출입 영농과 입주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민간인의 출입은 군 초소에서 여전히 통제하며, 실질적인 경계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남북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 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군사적 접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말합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DMZ 또는 NLL과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지역 중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한 시군, DMZ 내 집단취락지역을 가리킵니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화천군)의 1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한강하구중립지역

육상 DMZ 이외에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 말도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중립지역(Neutral Zone, Hangang River Estuary)으로서 남북 공용의 특수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NLL(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8월 30일 동해와 서해에 남한의 해군 · 공군 초계 활동을 한정 짓기 위한 군사통제선으로 북방한계선인 NLL을 설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동해는 지상 군사분계선의 연장으로, 서해는 서해 5도(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와 북한지역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8. 참고문헌

[도서 및 논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경기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경기연구원, 「2018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6.25 전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운형」, 『두산백과』.

「안재홍」, 『두산백과』.

강진갑, 「분단시대 경기문화의 성격,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의 길목으로」, 『경기지역의 역사와 지역문화』, 북코리아, 2007,

[사이트]

경기도 DMZ, (http://dmz.gg.go.kr/)

직썰(http://www.ziksir.com/ziksir/view/3058) '깡촌 영동에서 강남스타일까지 강남개발사'(2016. 03. 09.)

[동영상]

경기도의 과거를 아시나요(https://vimeo.com/229086712)

[신문기사]

인천일보,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부푼꿈」, 2018. 04. 26.

연합뉴스, 「성년맞은 지방자치의 빛과 그늘」, 2015. 06. 01.

연합뉴스, 「정의용 "남북,육해공 적대행위금지 · 서해평화수역설치 구체협의」, 2018. 09. 13

2단원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5차시
경기도의 대몽 항쟁

6차시
경기도의 양난 극복

7차시
경기도의 국권 수호 운동

8차시
경기도의 독립 운동

5차시

경기도의 몽골 항쟁

1. 몽골의 침입과 경기도민의 항쟁[1)]

고려의 대외관계 는 13세기에 들어와 커다란 변동을 겪게 되었다. 즉 몽골 세력의 흥기와 침입이었다. 원래 몽골족은 금나라의 세력 밑에 있었는데, 13세기 초 테무친(鐵鎭)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206년 칸(퓨)의 지위 에 올랐으니. 그가 곧 칭기즈칸滅吉思규이다 그때부터 몽골은 사방으로 정복사업을 전개해 영토를 확장하고 북중국에 자리잡은 금나라를 침략해 그 세력이 강성해졌고, 마침내 고려와도 충돌을 하게 된 것이다.

고려가 몽골과 접촉을 가진 것은 1219년 강동성에 웅거한 거란족을 몽골과 함께 공략해 함락시키면서 비롯되었다. 처음 금나라에 복속되었던 거란족은 금나라의 국세가 약화되자 독립했다가 몽골군에 쫓겨 고려 영토로 밀려와 강동성에 들어왔고, 이때 고려·몽골군의 협공으로 괴멸되었다. 몽골은 거란을 토벌한 뒤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특히 1221년 사신으로 온 저고여(著古與)는 황태자의 지시라고 하여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였고. 오만불손한 태도로 고려 군신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던 중 1225년 압록강가에서 귀국하던 저고여가 피살된 사건이 일어났다.

고종 12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양국 간에 불균형하게 지속되던 평화관계는 깨져버렸다. 이후 수년간 몽골군이 고려에 침입해 오기까지는 불안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저고여 피살사건은 몽골군이 고려를 침입할 때 그 명분으로 되풀이 이용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의 발생은 인근에 출몰하던 다른 세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무력 개입을 초래하는 모험을 고려정부 스스로 자초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몽골군이 침략의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 그 가해자가 실제 누구였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몽골의 고려 침략은 동아시아 대륙에 대한 정복전쟁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예정된 절차에 의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몽골군의 침입은 고종 18년(1231) 이후 동왕 46년에 이르는 사이에 도합 11차례에 이르렀다. 고종 22년부터 26년까지 이어진 당고(唐古)의 침입을 하나의 전쟁으로 처리하고. 고종 41년부터 46년까지 벌어진 차라대(車羅大)에 의한 전쟁 역시 하나의 전쟁으로 처리하면 총 6번의 침입이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3권 고려, 경기도

전 쟁	연 도	적 장	경기도 내 전투지
제1차 침입	고종 18년(1231)~19년	撒礼塔	광주
제2차 침입	고종 19년(1232)	撒礼塔	광주, 처인성
제3차 침입	고종 22년(1235)~고종 26년(1239)	唐古	
①	고종 22년		지평
②	고종 23~24년		죽주
③	고종 25~26년		
제4차 침입	고종 34년(1247)~고종 35년(1248)	阿母侃	
제5차 침입	고종 40년(1253)~고종 41년(1254)	也窟	
제6차 침입	고종 41년(1254)~고종 46년(1259)	車羅大	
①	고종 41년~42년		
②	고종 42년~43년		교하, 인주(인천)
③	고종 44년		
④	고종 45년~46년		

몽골군은 6차에 걸친 침략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였다. 몽골 침략전쟁에서 경기도는 최종 침략지는 아니었고, 내침 과정에서 지나는 곳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경기도에서 전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처인성 등의 전투에서는 적의 지휘관을 사살하여 침략을 저지시키기도 하였다.

2. 몽골의 1차 침입과 경기도민의 항쟁

몽골의 제 1차 침입은 고종 18년(1231) 8월부터였다 몽골의 장군 살리타이가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북계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개경 근처에 이르렀다. 당시 몽골군은 국경 부근을 공략하는 한편, 다른 병력을 빠른 속도로 남진시켜 서울을 공격하였다. 이에 고려 정부는 9월초에 출정 을 결정하였다 개경에서 파견된 고려의 중OJ군이 몽골군과 처음으로 부딪친 것은 9월 하순 황주의 동선역(洞仙羅…)에서였는데, 이 첫 싸움에서 고려의 3군은 몽골병 8천의 기습을 받아 고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록이 참조된다.

> 아군이 동선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마침 해가 저물었고 척후병의 보고에도 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3군이 안장을 풀고 쉬고 있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 "몽골병이 온다"며 소리치니 군사들이 크게 놀라 다 도망하였다' 몽골병 8천여 명이 돌연 닥치매 이자성(李子展)과 장군 이숭자(李承子) 노탄 등 5~6인이 죽기로 막아 싸우다가 이자성은 화살에 맞고 노탄은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으나, 군사가 이를 구하여 겨우 죽음을 변하였다. 3군이 비로소 집결하여 더불어 싸우니 몽골병이 조금 물러갔다가 다시 와 우리 우군(右軍)을 치거

늘 산원(散員) 이지무, 이인식 등 4~5명이 이를 막아 싸우는데. 마산(馬山)의 초적으로 종군(從軍)한자 2명이 몽골병을 쏘니 시윗줄을 따라 엎어지는지 라 관군(官軍)이 이 틈을 타 쳐서 도주(逃走)하게하였다. (「고려사」 권 103. 열전 16 이자성).

몽골은 기병을 주축으로 한 기동력으로 불시에 고려군을 기습하여 허를 찔렀다. 9월 하순 고려의 3군이 황주의 동선역에 이르렀을 때 8천 몽골군의 돌연한 기습을 받아 이자성이 화살에 맞는 등 고려의 방어군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마산 초적으로 종군한 자 2인이 몽골병을 쏘아 넘어뜨림으로써 관군이 그 기세를 타고 적을 격퇴시켰다는 것이다 비록 황해도에서의 전투이지만 경기도 파주의 초적들이 참전한 것이다.

다음의 두 사료 역시 초적들이 이 당시 전투에 참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① 고종 18년 몽골이 크게 일어나 침입하였으므로 왕이 삼군올 보내 이를 막게 하였다 마산(馬山)의 초적(草戰)의 괴수가 스스로 항복하고 최이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바라건대 정병(精兵) 5,000인으로써 공격을 돕겠습니다" 하니 최이가 크게 기뻐하여 후하게 상을 주고 융관과 금환자(金環子)를 만들어 입는 것을 허락하여 이를 위로하였다. (「고려사」권129. 열전42 최이)

② 최우가 사람을 보내어 광주 관악산의 초적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 적의 괴수 5명과 정예 50명올 유치하여 우군에 편입시켰다 (「고려사절요」권 16. 고종 18년 9월)

위의 기록으로 보아 초적들은 실제 고려의 방어군에 편성되고 또 대몽전에도 투입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고려군이 몽골군과 처음으로 접전한 동선역 전투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곧 ①의 기록은 몽골의 고려 침략직후인 고종 18년(1231) 9월에 마산(馬山, 파주)의초적 괴수 2명이 최우에게 나아가 정예 5천으로 몽골군의 격퇴를 돕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시 집정자 최우는 이 들 뿐만 아니라 ②에서와 같이 광주 관악산 초적의 둔소에 사람을 파견하여 지휘자급 5인과 정예 50인을 유치하여 우군에 편입시켰다.

마산 초적의 경우 자진해서 몽골과의 전투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도움을 받은 최우는 이후 자진해서 초적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특히 이 전투에서 경기 지방의 초적들이 참여한 것은 비록 그들이 무신정권 성립 이후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워왔던 농민들이었지만, 외세의 침략이라는 대외적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부와 손을 맞잡고 대몽전에 임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몽골의 1차 침략에 대한 고려의 방어전에서는 소위 초적으로 지칭된 유이농민 집단이 적극적으로 항몽전선에 참여하였다. '초적'이라 불리는 이들은 12세기 이래 고려 기층사회의 피폐를 배경으로 널리 출현하게 된 집단으로서, 특히 무신정권 초기 일반 농민·노비와 함께 민란의 주체가 되었던 세력이다

이들은 정규군인 우군에 편성되어 몽골의 군병에 대적하였으며 전투력은 정규군 못지 않았다. 동선역에서와 같이 초적으로 종군한 자 2인이 몽골병을 죽임으로써 전세를 반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규모도 매우 커서 마산 초적의 경우는 최우에게 정병 5천을 제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몽골과의 전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의 기록은 1차 몽골의 침입 때 광주 민(民)들이 몽골병과 싸워 그들을 격퇴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조서를 내리기를, '광주는 신묘 임진년에 오랑캐의 군사가 에워싸고 공격하였을 때에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요역이나 잡공을 면제하라고 하였다. (「고려사절요」 권 16 , 고종 22년 5월)

위의 내용은 몽골의 2차 침입 때 광주성 전투에서 승전한 광주 민들에 대한 요역과 잡공의 면제에 대한 기사이지만. 신묘년인 고종 18년(1 23 1)과 임진년인 고종 19년에 광주성을 지켰다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으로 전투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몽골과의 전투에서 성을 지킨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경기도민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기 지 방은 몽골군에 유린당하였다. "몽골군사가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등지로 향하는데, 지나는 곳마다 잔멸(殘滅)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려사절요』 권 16 , 고종 18년 12월)."는 기록은 이를 잘 말하여 준다.

경기도를 거쳐 충주에 침입하였던 몽골군은 현지의 임시 방어조직으로 편성된 노군(如軍) , 잡류별초에게 격퇴되었고 화의 진전에 따라 충주에서 일단 군사적 움직임이 저지되었다. 곧 몽골의 1차 침략은 고종 18년 12월 충주성 전투를 끝으로 이듬해 정월 고려의 화의요청에 따라 일단 종료되었다

몽골의 1차 침입 후 최우는 강화천도를 감행하였다. 최우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결정된 강화천도는 최씨정권이 적극적인 대몽항쟁을 통하여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몽골의 침입과 농민항쟁을 피하여 자신의 권익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자구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경민으로서는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경제생활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문제이므로 백성들의 동요는 심각했다.

3. 몽골의 2차 침략과 광주성.처인성 전투

몽골군은 고종 19년 정월 고려와의 화의에 의해 철수하였지만 72인의 다루가치를 개경과 지방에 배치하였다. 그들은 1차 침입 이후 다루가치의 설치, 친몽골파의 영합에 힘입어 북계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의 서북부지역을 점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 정부는 강화천도를 전후하여 몽골에 대한 적개심을 잃지 않았다. 이렇듯 고려의 강화천도와 몽골세력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리타이에 의한 몽골의 두 번째 침입이 개시되었다. 몽골군의 2차 침입은 대략 고종 19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지속되었다.

1) 광주성 전투

몽골의 살리타이는 침략 초기 안북부에 장기간 주둔하며 북계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강도정부와의 교섭을 벌이다가 대략 10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인다. 몽골군의 주력은 개경을 거쳐 한양산성을 공취하고, 이어 광주를 거쳐 처인성에 이른다. 그들은 아마도 경기, 충청도를 경유하여 경상도 방면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같다. 처인성에 이르는 중도, 광주에서 살리타이군은 저항하는 광주민과 일대 접전을 벌였다.

> (고종 19년) 이 해 여름 정부가 오랑캐의 침략으로 인하여 도읍을 옮기게 되었는데 광주는 중도(中道)의 커다란 진(鎭)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 적임자를 논하고 이세화(李世華)를 파견하여 나아가 지키게 하였다. 11월에 몽골의 대병력이 수십 겹으로 에워싸고 온갖 계략으로 여러 달 동안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세화는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며 상황에 따라 대처하되 기이한 계책을 내어 혹은 사로잡고 죽인 것이 심히 많으니 오랑캐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광주는 남로(南路)의 요충지에 해당하며 이 성이 함락된다면 나머지는 가히 알 만한 일이라' …… 그대는 이를 죽기로 지켜 능히 함락을 면했고, 마침내 몸도 보전하고 성도 보전하여 만인을 살렸으니 그 공렬(功烈은훨씬 뛰어나다고 하겠다. (『조선금석총람』 상. 이세화묘지명 ; 동국이상국집」 후 12. 이세화묘지명) .

위의 기록은 당시 광주성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광주의 군사적 위치와 몽골전에서의 숭전이다. 곧 광주가 국가 안보상 중도의 거점이요 남로의 요충지였다는 사실과 몽골과의 전쟁 중 보기 드문 승전지(勝戰地)라는 사실이다 전략상몽골군은거점인광주를점령해야만남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광주성을 공격했던 몽골군의 부대명과 인원수 등은 나타나지 않지만, 십여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군이었고, 이를 지휘하는 장수도 주력 부대의 장수인 살리타이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몽골군이 광주의 끈질긴 저항으로 인하여 점령을 포기하고 처인성으로 내려가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과 광주성의 공격이 11월 중이었고,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전사한 날은 12월 16일이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또한 몽골의 공격이수 개월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전력을 소모했음을 말해 주고, 이세화의 임기응변과 계략으로 사로잡거나 죽인 것이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 역시 몽골군에 치명타를 준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처인성에서의 숭첩은 이러한 광주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몽골군이 전력을 크게 상실하였음에 기인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광주에서의 승전은 단지 국지전적인 승전이 아니라 몽골의 남하에 큰 타격을 준 쾌거였다

둘째 . 광주에서의 싸움은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전투를 벌인 성은 현재의 남한산성임에 틀림없다. 광주에는 남한산성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산성이 존재하지 않고, 남한산성이 고대로부터 국방상의 요충에 해당하여 산성의 증개축(增改築)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적군을 막아내기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또한 몽골군의 다음 목적지가 남한산성의 아래인 용인이었던 점은 이 를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셋째, 이 당시 광주성에 입보해 몽골병과 싸운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세화는 고종 19년(1232) 여름 예빈소경(禮賓少卿) 어사잡단으로 광주에 나아가 외직인 광주부사의 직책을 가지고 전쟁 에 임하였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이세화의 전공만이 나온다. 그를 당나라 안녹산의 난 때 장순과 비교하면서, 장순은 의열은 있으나 결국 자신도 죽고 성도 함락됨으로써 많은 백성을 죽였지만, 이에 비해 이세화는 성도 지키고 자신의 목숨은 물론 백성들의 생명도 지켰다고 극찬하고 있다. 곧 광주에서의 승전은 이세화 개인의 뛰어난 계략만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성 전투는 성격상 정규 군인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성을 지키는 전투에서는 으레 그곳에서 거주하는 백성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였으며, 실제로 대몽항전 기간 중에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광주는 신묘·임진년에 오랑캐의 군사가 에워싸고 공격하였을 때에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요역이나 잡공(雜責)을 면제하라 "고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준다. 신묘·임진년에 광주가 몽골군을 격파하였으므로 정부에서 그 주민들에게 요역이나 잡공 등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처를 취한 것이다. 신묘년과 임진년은 고종 18년(1231)과 19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시 오랑캐의 공격이란 살리타이를 주력으로 하는 몽골의 제 1차, 2차 침략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이세화 개인만이 아닌 주민 모두에게 일정한 조세를 면제하는 집단적인 포상조치를 취했는가. 이는 그만큼 몽골과의 전투에서 광주민의 전공이 컸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곧 광주성에서의 전투는 지휘자인 이세화뿐만 아니라 광주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전투에서 잘 단결하여 큰 공을 세운 광주민에게 집단적으로 포상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2) 처인성 전투

처인성은 광주성 전투 직후 2차 침략의 몽골군이 남진과정 에서 경유하게 된 처인부곡(處仁部曲)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처인성은 현재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의 구롱에 위치한 소규모의 토성으로서 당시 처인부곡의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19년 12월 몽골군이 육박해 오자 처인 부곡민들은 이 작은 성에 입보하였고 살리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과 공방전을 벌였다. 그 결과 백현원의 승려 김윤후(金允候)의 활약으로 적장 살리타이가 사살됨으로써 몽골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전투는 막강한 몽골침략군의 사령관을 사살하였으므로, 여·몽전쟁 중 고려가 거둔 가장 큰 승리로 알려져 있다.

전투의 상세한 기록이나 관련 자료는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다음의 기록들이 참조된다.

> ① 김윤후는 고종 때 사람으로 일찍이 중이 되어 백현원에 있었다. 몽골의 군사가 이르자 김윤후가 난을 피해서 처인성으로 갔는데 몽골의 원수 살리타이가 와서 성을 치자 윤후가 이를 사살하였다. 왕이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上將軍)을 제수하였으나 김윤후가 공을 타인에게 양보하여 말하기를, "싸울 때를 당하여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헛되이 무거운 상을 받으리오."하고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는지라 이에 섭낭장으로 고쳐 제수하였다. (『고려사」 권 103 , 열전 16 김윤후)

② 태종 4년 8월 다시 살리타이(撒里台)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를 정벌케 하였는데 그는 왕경 남쪽에 이르러 처인성을 공격하는 중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원사』 권 208 , 외이(外夷) 고려전)

③ 고려 고종 때에 도읍을 강화로 옮겼는데, 원(元)나라 황제가 노하여 군사를 보내 힐문하였다. 원나라 원수 살알이 어사잡단(倒史雜端) 설신을 군중(軍中)에 잡아두고 송경(松京)에 와서 강을 건너 남하하고자 하였다. 신(愼)이 살알에게 "우리나라에 이국대관(異國大官)으로 남강(南江)을 건너는 자는 불길하다고 전해오는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살알이 듣지 않았다. 한양산성으로 가서 함락시킨 다음, 처인성에 갔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원나라 군사는 송경에 돌아와서 설신이 식견있다 하여 강화에 들여보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10권 경기 5. 용인현 고적 처인성)

①의 기록에 따르면 숭려 김윤후가 몽골의 군사가 처인성에 이르자 난을 피하여 처인성에 들어가 살리타이를 사살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②의 기록은 살리타이가 처인성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③은 살리타이가 포로가 된 어사잡단 설신으로부터 남강을 넘어가면 불길하다는 말을 무시하고 처인성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다.

위 자료에서와 같이 처인성에서의 구체적인 전투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투의 성격상 관군은 없었으며, 김윤후의 지휘 하에 항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후의 경우 몽골의 5차 침략 때인 고종 40년(1 253)충주산성 전투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그는 충주산성의 방호별감으로 파견되어 수성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충주민을 노비에 이르기까지 전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적장 야굴(也庫)이 지휘하는 몽골군의 공격을 70여 일간이나 막아냄으로써 적의 남진을 좌절시켰다.

당시 김윤후는 "만일 능히 힘을 다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니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라 하였고, 관청에서가지고 있는 관노(官如)의 서류를 불살라 버리고 또 획득한 우마(牛馬)를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나아가매 몽골병 이 좌절되어 남쪽으로 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공으로 김윤후는 물론 관노(官如), 백정(白丁)에 이르기까지 차등있게 벼슬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처인성에서 그의 지휘력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곧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한 휘하의 승도들과 함께 성으로 피난한 주민들을 지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윤후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논공행상을 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력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그의 지휘력은 처인성에서 승리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처인성에서의 승리는 중앙 정부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순수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항전이었다. 김윤후 뒤에는 다름 아닌 경기도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다 종래의 대몽항쟁이 중앙이나 지방의 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처인성 전투는 순수 지역민들의 항쟁이었다.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한 사람들은 거의 처인 부곡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처인성은 낮은 구릉 위에 위치한 흙으로 쌓은 작은 성에 불과하여 먼 곳으로부터의 입보란 생각하기 어렵고, 이곳에 군사나 관리가 있을 이유도 없었다. 몽골군이 내침하자 성에 피난하였던 입보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적과 싸우게 되었던 것이니, 처인성 전투의 전력은 거의 처인 부곡민들이었다.

처인성 전투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점은 살리타이의 사살이다. 종래에는 위 ①의 「고려사」 기록만을 가지고 김윤후 자신이 살리타이를 죽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②, ③의 자료에는 살리타이가 전쟁 중에 누군가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①의 기록에 김윤후를 포상하려 하자 김윤후 자신이 화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살리타이는 처인성에서 전투한 부곡민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던 것이다. 처인성 전투 이후 처인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된 시실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처인 부곡은 고종 19년(1232)의 승첩 이후 원종 원년(1260) 에 이르는 사이에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광주성 전투와 같이 항전에 따른 포상조치이다. 처인성 전투로 장수를 잃은 몽골군은 결국 12월 철군을 하게 되고 몽골의 2차 침입은 실패하고 말았다.

4. 몽골의 3차 침입과 지평, 죽주성 전투

살리타이가 전사함으로써 고려에 대한 2차 침략이 실패로 돌아간 이듬해(고종 20년, 1233) 5월, 몽골은 금(金)의 수도 변경을 함락하였다. 이어 고종 21년 금을 멸망시킨 몽골은 향후의 정벌계획을 새로 수립하였고 사전계획에 따라 이듬해 정복작전을 재개하였다. 고려에 대한 침략도 이때 다시 추진되었는데 당고(唐古)에 의한 제 3차 침입이 그것이다.

고종 22년(1235) 윤7월 몽골의 침략이 개시되자 강도정부는 5군을 편성, 강화의 연안 방어에 주력하게 하고 아울러 가까운 광주와 남경의 백성을 강화에 합하게 함으로써 강도의 방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몽골과는 정면 대결을 회피하여 2차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군을 대몽전선에 투입시키지는 않았다. 몽골의 3차 침입은 고종 22년부터 26년에 이르기까지 5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당시 경기도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전투로는 지평과 죽산에서의 전투였다.

1) 지평 전투

몽골의 3차 침략 초기인 고종 22년 10월 경기 지평현(양평)에서 전투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해년 에 야별초(夜別妙)가 지평현 사람과 밤에 몽골병을 쳐서 죽거나 사로잡는 일이 심히 많고 말과 나귀를 취하여 와서 바쳤다. (『고려사』 권23 . 세가23 고종 22년 10월)

매우 짧은 기사로서 야별초가 지평현 사람들과 함께 밤에 많은 몽골병을 쳐서 죽이고 말과 나귀를 취하여 와서

바쳤다고 한 내용이다. 지평현은 중부의 내륙 요로에 위치하여 한강하류를 우회 남진하는 몽골의 주요한 남진 경로에 해당한다 한 밤중을 이용하여 현지 지역민의 협조 하에 몽골군을 기습하는 전투는 고려의 몽골에 대한 전형적인 유격전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역시 주목되는 점은 지평지역민이 전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다.

2) 죽주성 전투

고종 23년(1 236) 6월에 이르러 몽골병은 다시 압록강을 건너 대거 고려에 내침하였다. 7~8월 몽골군은 저항하는 북계의 여러 성을 공략하는 한편 강원지역에 동진군을 동원하여 공격하였으며 8월 말에는 경기 충청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이어 9월에는 죽주(竹州; 안성), 온수(온양) 등에서 전투를 하였다. 몽골군의 침략 경로는 모두 서북지역으로부터 남하하여 경상도 방면을 향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항몽전은 사료가 소략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종 23년 경기도 안성에서의 죽주성 전투가 기록에 보인다.

① 임술에 몽골병이 죽주(죽산)에 이르러 항복하라고 타이르거늘 방호별감 송문주가 힘써 싸워 이를 물리쳐 도망가게 하였다. (『고려사』 권 23. 세가 23 고종 23년 9월)

② 송문주도 또한 귀주(龜州)로 군대를 따라 나간지라 공으로써 여러 벼슬을 뛰어 넘어 낭장에 임명되었다. 고종 23년에 죽주 방호별감이 되었는데 몽골이 죽주성에 이르러 항복을 권유하거늘 성안의 군사가 출격하여 이를 쫓았다. 몽골이 포로써 성의 4면을 공격하니 성문이 곧 무너지는지라 성안에서도 포로써 반격. 몽골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몽골이 또 기름을 준비하여 짚에 뿌리고 불을 놓아 공격하거늘 성중의 병사들이 일시에 성문을 열고 돌격, 몽골의 전사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몽골이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기를 무릇 15일이나 하였으나 마침내 함락시키지 못하자 이에 성을 공격하는 장비들을 불태우고 물러났다. (『고려사』 권 103. 열전 16박서 부(附) 송문주

위의 기록에서 ①은 죽주에서의 방어전만을, 그리고 ②는 구체적인 전투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처럼 전투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료는 찾기 어렵다. 죽주 전투는 15일간 진행되었는데, 몽골군의 경우 먼저 고려에 항복을 권유한 다음 항복을 하지 않자, 사방을 포위해서 포를 쏘아 성을 부수었다. 이에 고려 병사들은 다시 포로 응사하여 방어하였다. 몽골군이 다시 짚에 기름을 뿌려 성을 불사르는 화공(火攻) 작전을 감행하였으나, 고려군이 그 틈을 타서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기사는 당시 일반적인 몽골군의 공격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 역시 그 때그때 임기응변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죽주 전투는 다른 경기지방에서의 전투와는 달리 방호별감인 송문주의 지휘력이 돋보인 싸움이었다. 그는 이미 귀주에 있으면서 몽골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들의 계획을 먼저 알아차리고 무리에게 고하기를, "금일에는 적이 반드시 무슨 기계를 설계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무슨 기계를 준비하여 이에 응전할 것이다."라며 적의 공격을 미리 예측하여 방비를 세웠던 것이다. 이미 송문주는 귀주전투에서 대몽전의 경험을 쌓았던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죽주성을 지키고 적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고종 23년 9월 죽주성 전투[2]가 벌어지고 있을 때 몽골군의 일부 부대는 전라도 지역을 향하여 남하하는 과정에서 충청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충청 서북(충남 북부) 지역에 몽골군이 처음 들어온 것은 8월 하순의 일로 몽골군 100여 명이 용수군(온양)으로부터 남하한 사실과 함께 이어 다음날 몽골군이 남경(南京), 평택(平澤), 아주(아산). 하양창에 주둔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경기도 평택지역이 점령당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제3차 침략은 수년 전 고려로부터 당한 패배를 보복하고, 아울러 고려를 완전히 제압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를 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이후 당분간 양국은 외교적 통로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시적 합의를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은 장기적인 양상으로 전환되어 갔다.

5. 몽골의 4~6차 침략과 경기도

몽골의 고려에 대한 4차 침략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고종 34년(1247) 7월의 일이다. 몽골 원수 아모간이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본격적으로 침입한 것이다. 그는 몽골에 귀부한 홍복원을 대동, 먼저 청천강 상류를 공략하고 남진하여 7월에는 개경 및 강화 연안인 염주(體州, 연안)에까지 육박, 주둔함으로써 강도(江都)정부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에서의 전투 상황 등은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이어 야굴에 의한 몽골의 5차 침입이 개시된 것은 고종 40년(1253) 7월의 일이다. 몽골군의 내침에 대하여 주민을 산성 혹은 연안의 섬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당시 몽골군의 내침 경로는 압록강을 건너 서해도로 남하한 종래의 경우와 동해안을 따라 진입하는 양면 작전이었다.

야굴의 몽골군은 8월 서해도 양산성(板山城)을 함락시켰고, 이어 중부 내륙의 요충인 철원지역에 이르러 동주산성도 함락시켰다. 몽골군은 춘천에서 고려의 강력한 저항을 제압하고 9월 하순에 성을 함락시켰으며, 이어 경기도 양평의 양근성을 점령하고 원주를 공격했으나 방호별감 정지린에 의해 좌절되었다. 양근성 점령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기록이 보인다.

① 윤춘(尹椿)은 일찍이 양근성 방호별감(防護別藍)이 되었는데 몽골병이 성을 포위하자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서 항복하였다. 몽골병이 성중의 정예 600명을 선출하여 윤춘으로 하여금 이를 거느리게 하고 그 군사 300명이 머물러 이를 지키게 하여 벼를 베어 군량을 준비케 하였다. 윤춘이 춘주 방호별감 정지린에게 글을 보내 항복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정지린이 듣지 않고 성을 더욱 굳게 지키니 몽골병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고려사』 권 130. 열전 43 한홍보)

2) 현재 죽주 전투의 현장은 안성시 이죽면 매산리로 비정하고 있다.

② 몽골군이 양근성을 포위하자 방호별감 윤춘이 나와 항복하였다 (『고려사』 권 24.세가 24 고종 40년 10월)

위의 두 기록은 춘천 전투 다음 달인 10월, 몽골군의 포위공격을 받은 양평군의 방호별감인 윤춘이 성내의 백성들을 이끌고 적에게 투항하였고, 투항한 고려인은 곧이어 몽골군에 의하여 전투에 재투입되었으며 일부는 성에 잔류시켜 군량 준비에 활용하였다는 기록이다.

여기에서는 이전의 줄기찬 대몽항쟁과는 달리 반역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물론 윤춘의 반역 행위에는 이현(李峴)의 도움이 있었다. 그는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어 몽골의 사신으로 2년간이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에 야굴을 인도하여 왔는데 몽골병을 따라 여러 성을 설득하여 항복케 하였으며, 양근楊根), 천룡(天龍) 두 성에 이르러 경산(京山), 동주(東州), 춘주(春州) 등 3성이 항복하지 않자 죽음을 당하였다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몽골군은 전쟁의 과정에서 이현 등과 같은 고려의 협력자들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이들을 길 앞잡이를 세웠으며, 여러 성들에 대한 항복을 유도하여 고려 군사의 사기를 꺾었을 뿐 아니라 식량 확보에 이용하기도 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전쟁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이 당시 몽골의 척후병 3백여 기병이 광주에 이르러 가옥들을 불살랐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미루어 경기도의 피해가 매우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종 41년(1254) 정월 고려로부터 철수한 몽골군은 차라대(車羅大)로 그 지휘부를 개편하고 같은 해 7월 다시 서북면으로 내침하여 고종 46년 초까지 6년간 여러 지역을 유린하였다. 6년 동안 차라대의 몽골군은 대략 4차례에 걸쳐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는데, 그 시기를 구분하면 고종 41년 7월부터 42년(1255) 3월경(제1회), 같은 해 8월부터 43년(1256) 10월(제2회), 고종 44년(1257) 5월부터 10월까지(제3회), 이듬해 45년 6월부터 46년 3월경까지(제4회)였다.

이 기간 동안 고려가 입은 피해는 매우 컸다. 더욱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려 내부에서의 정치권력이 변동되거나 정부의 전쟁 지도방식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종 41년 7월 내침한 몽골군의 주력이 충주에 이른 것은 9월 중순이었다. 개경에서 충주까지의 경로는 양평군-여주군-이천군·안성군의 경기지역을 돌아 음성군을 거쳐 충주에 이르는, 대체로 한강을 우회하여 내륙을 종단하는 노선으로 짐작된다. 또한 8월에는 척후 기병들이 광주에 이르기도 하였다.

『고려사』에는 고종41년 한 해 동안 몽골군에게 포로된 자가 206,800여 명. 살육된 자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몽골군이 지나는 곳마다 잿더미가 되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과 경기도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종 43년 대부도 별초가 인천에서 몽골 군사 1 백여 명을 소래산 아래에서 격파하였다는 기록만 보일 뿐이다. 관련 기사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경진(庚辰)에 대부도(大府島; 남양) 별초(別妙)가 밤에 인주(仁州 : 인천) 근처의 소래산(蘇來山) 아래에 나가 몽골 병사 1 백여 인을 격파하여 도망가게 했다 (『고려사』 권 24, 세가 24 고종 43년 4월)

소래산은 지금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인천의 주산이다. 이 산의 아래에서 대부도 별초가 몽골의 군사를 패퇴시켰다는 것은 비록 그 숫자로 보아 몽골의 주력 부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려의 별초군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차라대에 의한 고려의 침략은 고종 46년까지 계속된다. 물론 이 시기 동안 경기도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 44년에는 강도 정부가 있는 강화도와 가까운 경기·서해도 연안를 공략하였으며, 고종 45년에는 개경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강화도 연안의 여러 지역인 승천부(昇天府), 교하(交河 : 파주), 봉성(峯城 : 파주), 수안(守安 : 통진), 동성(童城 : 김포)에 보내 약탈함으로써 강도를 위협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라대(車羅大)가 군사로써 옛 수도에 와서 주둔하니 몽골의 유격하는 기병은 승천부(昇川府)·교하·봉성·수안·동성에 멋대로 들어와 사람들이 기르는 양과 말을 약탈하였다. (『고려사』 권 24. 세가 24 고종 45년 8월)

② 경오(庚午)에 몽골병이 착량(수원)으로부터 갑곶강(甲串江) 밖에 와서 주둔하면서 산과 들을 누볐다. (『고려사』 권 24. 세가 24 고종 45년 9월) .

6차에 걸친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는 무참한 파괴와 약탈을 당하였다. 경기도는 항상 몽골군의 경유지였고, 그들의 주적인 강도정부가 경기도에 있었으므로 피해는 더욱 컸을 것이다. 몽골의 침략 시기 지배계층들은 난을 피해 산성이나 해도로 피신하였고, 양인 농민 및 그 이하의 최하층 백성들만 병역에 동원되어 몽골에 대항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경기도에서의 몽골군과의 전쟁 역시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경기도에서의 항쟁은 주로 몽골 침략 전반기(1차~3차)에 치러졌고, 후반기에는 이렇다 할 항쟁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6.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의 대몽항쟁			
학습 목표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경기도민의 항쟁을 파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6분) : 처인성 문화재 영상을 보고 경기도민의 대몽항쟁의 대표적인 승리인 처인성 전투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다. 제25회 처인성 문화재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YpT9P8AhCdA)		
전 개	1. 처인성 전투(15분)	몽골의 2차 침입을 격퇴한 처인성 전투와 전투를 이끈 김윤후에 대해서 파악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죽주산성 전투(15분)	죽주산성 전투와 전투를 지휘한 송문주 장군의 지휘력을 파악한다.	
	3. 소래산 전투(15분)	소래산 전투를 통해 외세에 맞선 경기도 사람들의 노력과 몽골 침략의 피해를 알아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김윤후와 송문주 비교하기 - 강화도로 천도한 지배층과 본토에서 맞서 싸운 일반 백성을 비교하기	
	함께 해봅시다(30분)	- 몽골의 침입과 격퇴 관련 OX 퀴즈 풀기 - 정리하는 그림 만들기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몽골의 침입에 맞선 경기도 사람들의 노력을 파악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7.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본문의 내용을 잘 읽고 김윤후와 송문주를 비교해 봅시다.

	김윤후	송문주
출신 신분	불교 승려	무신
몽골과 맞서 싸운 곳	처인성 전투	죽주산성 전투
전투에서 구체적인 업적	적장인 살리타이를 활로 쏘아 없앴다.	몽골군이 불로 공격하자 성밖으로 나와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몽골의 침략 시기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최우와 지배층은 몽골의 침입과 백성들의 불만을 피해 강화도로 도망갔다. 본토에 남아있던 지배층들도 산성이나 바다의 섬으로 피신하였다. 결국 양인 농민 및 그 이하의 최하층 백성들만 병역에 동원되어 몽골에 대항하였다. 경기도에서의 몽골군과의 전쟁 역시 대부분이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경기도에서의 항쟁은 주로 몽골 침략 전반기(1차 -3차)에 치러졌고, 후반기에는 이렇다 할 항쟁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2-1. 몽골군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 양인 농민과 노비를 비롯한 최하층 백성들이 병역에 동원되어 주로 싸웠다.

2-2. 경기도에서 몽골의 침략 후반기에 항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계속되는 몽골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생각 더하기]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봅시다.

1. 몽골의 침략과 항쟁에 대한 OX 퀴즈를 풀이하세요.

번호	문 제	맞아?
1	몽골은 몽골사진 저고여가 강도를 만나 죽음을 당한 것을 핑계로 침략했다.	O
2	최우는 수도를 제주도로 옮겼다.	X
3	몽골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주로 백성들이었다.	O
4	살리타이를 사살한 김윤후는 왕족이었다.	X
5	처인부곡은 고려시대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받았다.	O
6	충주산성 전투에서 노비들은 모두 도망갔다.	X
7	죽주산성 전투에서 몽골군에 맞서 지휘한 사람은 송문주 장군이다.	O
8	송문주 장군은 원래 백현원의 승려였다.	X
9	2차 침입 당시 몽골군의 지휘자는 살리타이였다.	O
10	처인성은 서울시에 있다.	X
11	대부도 별초가 몽골군을 격퇴한 곳은 소래산이었다.	O
12	소래산은 서울시에 있다.	X
13	최씨 무신정권을 비롯한 지배층은 몽골 침략 때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O
14	최씨 무신정권의 실력자였던 최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였다.	X
15	몽골은 고려 정부에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길 것을 요구하였다.	O
16	몽골의 침략에 맞서 끝가지 싸운 부대는 별기군이다.	X
17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은 징기츠칸이다.	O
18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 정부는 처인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시켰다.	O
19	김윤후는 방호별감이 되어 충주산성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O
20	김윤후는 충주산성에서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웠다.	O

2. 1번 문제에서 O에 해당하는 번호만 찾아 색칠하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 )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12	12	12	12	3	8	8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3	12	12	12	3	3	8	8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12	3	12	3	8	8	8	8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12	3	12	3	8	8	8	8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12	3	3	3	3	8	8	8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14	14	14	12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4	14	14	14	14	14	20	20	20	12	12	12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4	14	14	20	20	20	20	20	20	20	20	20	12	12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4	14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4	20	20	20	20	20	10	10	10	20	20	20	20	20	20	12	15	12	18	8	8
16	16	16	16	14	13	13	13	10	10	13	13	13	10	10	13	13	13	10	10	10	5	8	8	8
2	2	2	2	13	13	13	10	13	13	13	13	13	13	10	13	13	13	10	10	10	5	8	8	8
2	2	2	2	13	13	10	13	13	10	10	10	10	13	13	10	10	13	10	10	10	5	8	8	5
2	2	2	2	13	13	10	13	10	10	11	11	11	10	13	13	13	10	10	10	10	5	8	5	5
2	2	2	2	13	13	10	13	10	10	11	10	11	10	13	13	13	10	10	10	5	6	5	5	5
2	2	2	2	13	13	13	10	11	11	10	11	11	10	13	13	13	10	10	10	5	6	5	5	5
2	2	7	7	2	19	19	19	10	11	11	11	10	19	19	19	19	19	19	19	6	5	5	5	5
2	2	7	7	2	19	19	19	19	10	10	10	19	19	19	19	19	19	6	6	5	5	5	5	6
2	7	7	7	7	2	19	19	19	19	19	19	19	19	19	4	4	4	17	17	5	5	5	6	6
2	7	7	7	7	7	2	2	19	19	19	19	19	4	4	4	17	17	17	17	5	5	5	6	6
2	7	7	7	7	7	2	9	2	2	19	2	2	9	17	17	17	17	17	17	5	5	4	6	6
2	7	7	7	7	2	9	9	9	9	2	9	9	9	17	17	17	17	17	17	5	4	4	6	6
7	7	7	7	2	9	9	2	2	2	9	9	9	9	17	17	17	17	17	17	5	4	4	6	6
1	1	1	1	2	2	2	1	1	1	1	1	1	1	1	1	1	4	4	4	4	4	6	6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4	4	4	4	4	4	4	6	6

8.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9. 교사 참고자료

가. 최우

본관 우봉(牛峰). 후에 이(怡)로 개명. 시호 광렬(匡烈). 1219년(고종 6)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로 아버지 충헌(忠獻)의 뒤를 이어 집권, 민심수습에 나섰다. 아버지가 축재한 금은보화 등을 왕에게 바치고 부당하게 탈취했던 공사(公私)의 전민(田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가난한 선비를 등용하고 아버지에게 아부, 백성을 괴롭히던 관리와 아우 향(珦)을 유배 또는 파면했다.

1222년 참지정사(參知政事)·이병부상서(吏兵部尙書)·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가 되어 명실공히 집정자(執政者)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자주 금품을 요구하는 몽골 사신을 냉대하고, 북변의 여러 성과 개경(開京)의 황라성(隍羅城)을 수축, 몽골의 침입에 대처했다.

1225년 자택에 정방(政房)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했고, 1227년 서방(書房)을 설치하여 문객 중 명유(名儒)를 포섭했으며, 도방(都房) 등을 확장하여 사병(私兵)을 증강했다. 1228년 오대진국공신(鼇戴鎭國功臣)이 되고, 1229년 격구장(擊毬場)을 만들어 격구를 장려하였다.

북변의 몽골 대군이 침공하리라는 소식에 강화천도(江華遷都)를 단행하여 성을 쌓아 대비했으며, 그 공으로 1234년 진양후(晉陽侯)에 책봉되었다. 1243년 국자감(國子監)을 수축하고, 쌀 300곡(斛)을 양현고(養賢庫)에 시납(施納), 장학(奬學)에 힘쓰는 한편, 사재를 희사, 대장경판(大藏經版) 재조(再雕)를 완성케 했다.

이후 차차 전횡을 자행,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다. 1262년 천도공신(遷都功臣)으로 공신당(功臣堂) 벽상(壁上)에 도형(圖形)되었다. 글씨는 해행초서(楷行草書)를 모두 잘 썼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우 [崔瑀] (두산백과)

나. 김윤후

일찍이 중이 되어 백현원(白峴院)에 있다가 1232년(고종 19)에 몽골병이 침입하므로 처인성(處仁城 : 지금의 용인)에 피난하였는데, 이때 몽골의 원수 사르타이[撒禮塔]를 활로 쏘아 죽였다. 그 공으로 상장군에 임명되었으나 굳이 사양하여 섭랑장(攝郎將)에 임명되고, 뒤에 충주산성방호별감(忠州山城防護別監)이 되었다.

그 때 몽골군이 쳐들어와 주성(州城)을 포위한 지 70여 일이 되어 식량이 떨어져 위태롭게 되었을 때, 병사들을 독려하기를 "만일 힘을 다하면 귀천 없이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다."라 하고 마침내 관노(官奴)의 부적을 불사르고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니,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 적을 물리쳤다.

그 공으로 감문위상장군(監門衛上將軍)이 되었고, 그 밖에 군공을 세운 자들도 관노·백성 할 것 없이 모두 관작이 제수되었다. 1258년에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되었으나, 그 때 동북면은 이미 몽골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1262년(원종 3)에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예부상서가 되었으며, 이듬해 수사공 우복야(守司空右僕射)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윤후 [金允侯]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송문주

생몰년 미상. 고려 후기의 무신.

1231년(고종 18)구주성(龜州城)에서 몽고군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낭장(郎將)에 초수(超授)되었다. 1236년에는 죽주방호별감(竹州防護別監)이 되었고, 다음 해에 몽고군이 죽주(竹州)를 공략하자 15일 동안을 싸워 끝내 적을 물리쳤다. 이때 구주성싸움의 경험으로 몽고군의 작전과 장비를 잘 알아 적절히 대응하였으므로, 성안의 사람들이 신명(神明)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이 공으로 좌우위장군(左右衛將軍)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송문주 [宋文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 처인성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고려시대 성.

개설

처인성은 1232년(고종 19) 승려 김윤후가 처인부곡의 주민들과 함께 몽골 원수 살리타이[撒禮塔]를 사살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처인성이 위치한 지역은 용인에서 진위로 가는 교통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수원에서 평택으로 가는 교통로나 용인에서 안성(일죽)으로 가는 간선교통로에서는 벗어난 곳이다. 몽골군의 침입을 피하여 진위나 화성에서 급히 피난하기 적절한 곳이었다. 김윤후도 진위 백현원에서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다가 처인성에 모여든 백성들과 힘을 합쳐 몽골군과 싸웠다.

현재 처인성은 아곡리 마을 입구 해발 약 71m 정도 구릉의 끝부분에 평면이 마름모꼴 형태인 성벽으로 남아 있다. 현재 성벽 규모는 둘레 약 350m이고 높이 약 5~6m이다. 외벽은 35°~45° 가량 경사를 이루고 있어 윤곽이 뚜렷하다. 1979년 남서쪽 성벽 120m를 복원하였고 1980년에도 동·남·북쪽의 성벽 205m를 수리하였다.

역사적 변천

몽골군과의 전투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은 13세기 이전에 축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축조시기는 시굴조사에서 밝혀졌다. 시굴조사 과정에서는 주름무늬병, 선조문 평기와, 당초문 암막새 기와 등 신라말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늦어도 신라말 고려 초 경에는 성이 축조되어 처인현(처인부곡)의 치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고려시대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대체로 고려시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성이 모두 무너졌고 군창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무렵에는 성곽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등 조선시대 유물들

은 군창이 있었다는 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처인성의 성벽은 순수한 토축성벽으로 자연 구릉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서 축조하였다. 구릉 경사면 윗쪽에 흙을 쌓기 위한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토질이 다른 흙을 한겹씩 차례로 다져 올려 판축하는 방식으로 중심토루를 축조하였다. 이후 중심토루를 측면으로 다시 흙을 다져올려 보축하는 방식으로 성벽을 완성하였다. 판축한 중심토루의 너비는 약 430㎝이고 전체 성벽의 너비는 560~590㎝ 정도이다. 성벽의 너비로 보아 원래 성벽의 높이는 약 3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문지의 규모는 폭 450㎝ 길이 600㎝ 정도이다. 성내부와 같은 높이까지 성벽을 절개하여 평탄한 바닥을 만들고, 3열의 기둥을 세운 후 위에 문루를 갖춘 출입문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문지는 고려시대에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 불에 타서 형성된 숯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남문은 불에 타서 무너져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징

시굴조사에서 신라 말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와와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도기 등 생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성내부의 경사면과 저지대에서는 폐기된 유물이 포함된 교란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신라말에서 고려시대까지 성내부에 관아와 마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칼, 창, 화살촉 등 무기류 등도 소량이지만 출토되었다. 토기 중에는 사각편병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용기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처인성이 군사적으로도 활발하게 이용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의의와 평가

국난극복의 성지로 기록이 남아 있는 성터로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다. 다만 아직 시굴조사가 일부 진행되었을 뿐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용인 처인성』(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네이버 지식백과] 처인성 [處仁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마. 죽주산성

경기도 기념물 제69호

개설

죽주산성은 1236년(고종 23) 죽주방호별감 송문주가 몽골군과 15일간 전투를 펼쳐서 승리한 곳이다. 이는 6차에 걸친 몽골 침입에서 고려가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도 한양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산성을 보수하여 활용하였다. 국난극복의 성지로 알려져 산성에 대한 정비가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1년부터 발굴조사도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죽주산성은 내성, 중성, 외성 등 3중 성벽으로 구조로 밝혀졌다. 내성은 조선시대, 중성은 신라시대, 외성은 고려시대 등 축조시기도 규명되었다. 전체 둘레는 약 1688m이고 원래 높이는 6~8m(내성 및 복원 성벽은 2.5m 내외) 정도이다.

역사적 변천

죽산(매산리)은 영남대로가 조령과 추풍령 방면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었다.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도성의 방어와 관련하여 중요시되었다. 6세기 중반경 신라가 북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지역과 대중국교역항이 있었던 당항진(남양만 일대)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산성이 축조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중성 북동쪽 2개의 능선과 계곡을 막아 외성을 축조하였다. 축조시기는 출토되는 기와편으로 보아 고려 전기(광종~현종)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중성을 수축하고 그 안으로 내성도 축조하였다. 그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광해군)로 추정되며 성벽을 겹겹히 두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치성에는 왜성의 축조 기법을 도입하고 포루도 설치하였다.

내용

죽주산성 발굴조사는 주로 성벽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복원성벽이 붕괴되어 보수하면서 동벽과 남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성벽은 최소 3차례 이상의 수축한 흔적이 보인다. 성벽은 체성과 보축성벽으로 나누어진다. 보축성벽은 한강 유역 신라 산성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성벽이다.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여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외벽 하단부를 덮은 형태이다. 석재를 약 45° 각도로 기울여 쌓아 올라가고 그 전면에는 다시 점토를 다져서 덮은 형태이다. 이러한 형식은 성벽에 부분적으로 보축을 하거나 단면을 계단식으로 축조하는 후대의 양식에 선행하는 것이다. 체성벽은 풍화된 암반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삭토하여 기초를 조성하고 경사진 지반에 의지하여 석재로 외벽을 쌓았다. 다시 석벽 내부는 점토를 다져 넣어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 계곡부를 통과하는 지역은 외벽과 내벽을 모두 축조하여 더욱 단단하게 쌓았다. 성벽의 높이와 너비는 1:1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또한 외벽을 따라서 외항(성벽 앞에 땅을 파거나 석재로 도랑을 만든 방어시설)이 둘러쳐 있는 것도 특징적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죽주산성의 성벽은 영남지방의 신라산성의 형식이 한강 유역으로 전달되는 과도기적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성벽은 신라시대 체성벽 상면에 축조되었다. 대부분 무너지고 일부에 흔적만 보이고 있다.

성 내부에서는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계단식 저수시설 8기가 출토되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낙차를 고려하여 계단식으로 저수시설을 배치하여 물을 활용하고 조경시설도 꾸몄다. 저수시설 내부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기와와 토기 및 무기류와 공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의의와 평가

죽주산성은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과정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어 신라의 북진 전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적이다. 또한 신라말 지방세력(기훤, 궁예)과 관련되어 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기록에도 자주 보이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각 시대별 성벽 축조 방법과 활용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안성 죽주산성』(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보고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안성 죽주산성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네이버 지식백과] 죽주산성 [竹州山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영상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용인시, 제25회 처인성문화재(https://www.youtube.com/watch?v=YpT9P8AhCdA)

10. 참고문헌

[도서 및 논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경기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윤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송문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처인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죽주산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이트]

6차시

경기도민의 양난극복

1. 임진왜란의 극복과 경기도 사람

가.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 1차 침입이 임진년에 일어났으므로 '임진왜란'이라 부르며, 2차 침입이 정유년에 있었으므로 '정유재란'이라 한다. 하지만 임진왜란 하면 일반적으로 정유재란까지 포함시켜 말한다. 이 왜란을 일본에서는 '분로쿠[文祿]·케이초[慶長]의 역(役)'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만력(萬曆)의 역(役)'으로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진왜란 [壬辰倭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이치전투

임진왜란 때인 1592년(선조 25) 7월 8일 권율(權慄)·황진(黃進) 등이 금산(錦山) 서평의 이치(梨峙 : 배재)에서 왜군과 싸운 전투이다. 당시에 아군은 전라도도절제사 권율(權慄)과 동복현감 황진(黃進)이 거느린 관군 1,500명이었고, 왜군은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가 거느린 6번대소속의 별군이었다.

이 전투는 일본군의 전주 침입을 막기 위한 웅치전투(熊峙戰鬪) 및 금산전투와 거의 동시에 벌어졌는데, 웅치와 금산전투에서 아군이 비록 패하였지만, 이 전투에서는 끝내 왜군을 격파함으로써 왜군의 전라도 진출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 종일의 전투 중에 황진이 총을 맞고 쓰러지자 한때 사기가 떨어졌으나 권율이 장병을 독전하여 왜군을 격퇴시켰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전라도가 보존되어 후방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한편, 왜군은 이 전투를 조선 3대전의 하나로 꼽았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치전투 [梨峙戰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세마대전투

독산성에는 독산대첩(세마대첩)의 승전을 기념해 지은 장대가 있는데, 그 유명한 권율의 세마대다. 선조25년(1592년) 12월에 시작된 오산시 지역의 '독산성 전투'와 화성시 봉담면 지역의 '삼천병마골전투'는 관군과 의병이 긴밀하게 연계해 이룬 승첩으로 행주대첩이 있게 되는 밑거름이 된 전투였다.

1592년(선조25년) 4월 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한성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침략하였다. 5월 정암진전투, 7월 이치전투, 10월 진주대첩 등으로 번번이 좌절되고, 해상에서 이순신장군에게 연전연패 하면서 호남과 해로를 통하여 한양에 진출한다는 본래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독산성이 군사적 거점으로 이용된 것은 전쟁 발발 초기에 전라, 경상, 충청의 3도 근왕병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삼남의 병사들이 인심을 잃어 왜적을 만나면 모두 궤산했으므로 의병이 일어났다.『선조수정실록』권 25, 25년 6월조에 의하면 "의병은 왜적과 싸워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인심과 나라의 운명은 오직 그들의 힘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정도로 국란 극복의 큰 힘이 되었다.

왜군은 한양으로 진격할 때 용인으로 거쳐 갔으므로 오산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러나 거점이 용인지역인지라 항시 피습대상지역으로 수원은 여러 번 약탈을 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독산성을 중심으로 삼남지역의 근왕병이 주둔하거나 북상하는 주요한 거점으로 삼게 되었다.

첫 번째로 수원성에 도착한 것은 1592년(선조 25년) 6월 3일에 전라감사 이광의 3도 근왕병들이었다. 6월 5일과 6일에 양일간에 걸쳐 전개된 용인전투에서 근왕병 5만 명이 왜군 2천여 명에게 대패함으로서 삼남근왕병은 흩어지게 되고 조야가 모두 실망하고, 왜군의 살육과 약탈은 수원 인근까지 자행되고 있었다.

용인전투 대패 이후 1592년(선조 25년) 6월 23일에는 새로이 호남 의병장 김천일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북상해 독산성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간민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기내의 사민이 많았다. 그리고 김천일은 종사관 송제민으로 하여금 충청도 의병의 모집을 지시하였다. 수원부사 출신이기도 한 김천일은 장례원판결사에 임명되고 창의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곧 강화도로 들어갔으며, 그 대신에 종사관인 송제민을 독산성에 남겨두었다.

9월 조정은 홍계남을 수원판관에, 9월21일에 조경을 수원부사로 임명하였고, 이들은 훗날 휘하 병력을 이끌고 권율 휘하로 들어간다. 한편 전라순찰사 권율은 이치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방어사 황진에게 이치를 지키게 하고, 도내의 병력을 재정비하였다.『난중잡록』에 의하면 1592년 9월 22일에 권율은 휘하 장수들에게 "지금 평양 이남이 모두 적의 진지가 되어 버렸지만, 도성은 근본이 되는 곳이니 먼저 도성을 수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군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북진을 하자 각 고을 수령과 의승장 처영 등이 함께 따랐다.

권율 휘하에는 수원부사로 조방장에 임명된 조경, 의병장 변사정, 의승장 처영, 전라도 병사 선거이, 초모사 변이중, 의병장 임희진 등으로 이루어졌고, 10월에는 직산에 도착하여 양남도체찰사 정철을 만났다. 정철의 명령으로 북진을 멈추고 관내를 지키고 있었다.

이 상황을 행재소에 상황을 보고하자, 선조는 차고 있던 검을 하사하며 "모든 장수중에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 칼로 처단하라"고 하였다. 이에 권율은 북상하여 1592년 12월에 독산성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하였다. 더 이상 북상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날 백광언을 따라 북상하여 용인전투에서 무리한 공격을 하여 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편 한성에 주둔하던 왜군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는 권율이 호남에서 대군을 이끌고 북진하여 독산성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후방과의 연락 및 보급선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도성에 주둔한 왜군을 독산성으로 급파하였다. 왜군은 독산성 주위 3곳에 진을 치고 고립시킨 다음 공격하여 왔지만 권율은 매복과 기습전을 펼치며 성문을 닫고 지켜나갔다. 지형적인 조건을 자세하게 살핀 적장은 성안에는 물이 별로 없을 것이라 여기게 되었고, 부하에게 물 한 지게를 지어 산 위에 있는 권율에게 갖다 주게 하였다. 사실 독산성엔 물이 부족하여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었다.

권율은 즉시 성 아래의 적군이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흰 쌀을 말위로 쏟아 붓게 하였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적장의 눈에는 물이 넘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독산성에서 전의를 상실하고 있던 차에, 남부지방에서 모여든 의병들이 왜군의 후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자 조급해진 왜병들은 마침내 포위망을 풀고 한양으로 퇴각하기에 이른다. 왜군은 5일간 독산성을 공격하다 실패하자 과천을 거쳐 한양으로 퇴각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적의 퇴로를 기습하여 수많은 적병을 살상하였다.

[출처] 오산 독산성문화제, 권율의 독산성전투와 세마대(오산 가볼만한곳/오산 축제) |작성자 오산시

라. 행주대첩

권율은 임진왜란 초에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으면서 군사를 일으켜 전공을 세워 전라도 순찰사(巡察使)가 되었는데, 그 뒤 중국 명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서울을 수복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수원성(水原城)에 머물다가, 1593년(선조 26) 2월 1만여 병력을 행주산성에 집결시켰다. 권율은 조방장(助防將) 조경(趙儆)을 시켜 행주산성을 수축하게 하고 목책을 만들게 하였으며, 병사(兵使) 선거이(宣居怡)는 금주(衿州 : 始興),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은 강화(江華), 충청감사 허욱(許頊)은 통진(通津:金浦)에서 각각 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본군은 이 무렵 총퇴각을 감행하여 서울 부근으로 집결할 때였으므로 그 병력이 대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1월 말의 벽제관(碧蹄館)에서 승리한 직후여서 그들의 사기 또한 충천해 있었다. 2월 12일 새벽 일본군은 3만여 병력으로 내습, 여러 겹으로 성(城)을 포위하고 3진으로 나누어 9차례에 걸쳐 종일토록 맹공격해왔다. 이에 권율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왜군과 맞서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였으며, 당시 행주산성의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마침내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는데, 권율은 이를 추격하여 130여 명의 목을 베었으며 적장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 등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행주산성의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첩(三大捷) 중의 하나로, 권율은 이 공로로 도원수(都元帥)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주대첩 [幸州大捷] (두산백과)

마. 평양성전투

1) 전쟁의 판도를 바꾼 평양성 전투

임진왜란 중이던 1592년 6월(선조 25, 음력. 이하 모두 음력) 평양성이 함락된 때부터 명군과의 협공으로 평양성을 탈환한 때까지 평양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벌어졌던 네 차례의 전투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명군과 조선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1593년(선조 26) 1월의 전투만을 뜻하기도 한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끝에 조선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이끄는 일본군 제1대에 평양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후 2차례에 걸쳐 평양성 수복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전황은 약 7개월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1592년 12월 말 이여송이 이끄는 5만의 명군이 참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명나라 원병이 도착하자 조선은 모든 군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명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며,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전투 끝에 고니시 부대가 항복을 선언하고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임진왜란의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고니시의 부대가 먼저 한성으로 후퇴하였고, 이어서 함경도쪽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대도 한성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행주산성에서의 분투 등에 힘입어 결국 일본군은 한성에서도 철수하여 경상도 지역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전세를 바꾼 결정적 요인이 명나라 대군의 참전에 있었던 때문에, 이후 전쟁의 판도는 명과 일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명-일 양국은 강화협상에 주력하였으며, 조선은 이 협상에서 사실상 소외된 채 지루한 국지전을 감내해야만 했다.

2) 평양성 전투 경과와 관련기록

파죽지세로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잠시 전열을 정비한 후 진로를 나누었는데, 조선 침략의 선봉을 맡았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평안도 방향을 맡아 공격해 왔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대는 함경도 쪽으로 향하였고, 애초에 전라도 지역을 담당하기로 했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는 남하하여 호남 공략에 나섰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장악에 나선 것이다.

조선은 선조가 피신해 있는 평양성을 지키기 위해 근왕병을 소집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충분한 병력을 모으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전투경험의 부족으로 번번이 일본군에 패하였다. 고니시의 부대는 임진강 방어선을 어렵지 않게 뚫고 평안도로 향하였다. 결국 선조는 6월 11일 평양을 떠나 의주로 피난하였고,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 이조판서 이원익(李元翼) 등에게 평양성을 지키게 하였다.

6월 13일 고니시의 부대가 대동강에 도착하자 조선군은 대동강을 방어선으로 하여 고니시 부대에 맞섰다. 14일 새벽 400명의 군사를 내어 강을 건너 일본군을 기습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후퇴하는 병사를 태우는 배가 제 때 대지 못하여 많은 수가 익사하였다. 이 때 남은 군사가 왕성탄(王城灘)을 건너 돌아왔는데, 이것이 오히려 일본군에게 길을 알려준 꼴이 되고 말았다. 조선군을 쫓아 일본군이 대동강을 건너자마자 조선군은 무너졌고, 결국 윤두수는 무기를 연못에 버리고 성에서 빠져나왔다. 이로써 평양성은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1차 평양성 전투이다.

함경도를 향했던 가토의 부대 역시 수월하게 함경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전황이 일본군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5월을 넘어서면서 이순신(李舜臣)의 수군에 연패하면서 바닷길이 막힌데다가 곳곳에서 봉기하기 시작한 의병들이 후방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식량과 무기 등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7월 즈음해서는 비점령지였던 호남의 관군과 의병이 힘을 합치면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뒤늦

게 육로로 호남 공략에 나섰던 고바야카와 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인해 고니시의 부대는 더 이상 빠르게 북상하지 못하고 평양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소규모이긴 하지만 조승훈(祖承訓)이 이끄는 명의 원병이 이미 6월 말경에 국경을 넘고 있었다. 2차 평양성 전투는 조승훈이 이끄는 명군과 조선군의 합동 공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 조선에 들어 온 조승훈의 부대는 요동 수비병 3,000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였다. 당시 명에서는 일본군의 전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양 근처에 도착한 조승훈의 부대는 조선 도원수 김명원이 거느린 3,000여 명의 병력과 합세하여 평양성 공격에 나섰다. 조명연합군은 7월 15일 새벽 야간을 이용해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의 유인 전술에 휘말려 성내로 들어갔다가 많은 사상자만 내고 퇴각하였다.

3차 전투는 8월에 명의 원병 없이 조선 병력만으로 이루어졌다. 남쪽에서 간헐적인 승전보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또 일본군은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을 뿐 더 이상 북진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일본군의 전력이 전과 같이 않다고 판단한 조선은 모을 수 있는 병력을 총 동원하여 단독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고자 시도하였다. 8월 1일,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평양 서쪽, 대동강 입구, 중화(中和)의 세 방향에서 공격해 들어갔는데, 보통문(普通門) 밖까지 진출하며 약간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갑자기 대대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밀려 결국 물러났다. 10월과 11월에 승병(僧兵)과 힘을 합쳐 다시 평양성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4차 전투는 해를 넘겨 1593년 1월에 있었다. 1차로 파병되었던 조승훈의 부대가 패퇴하고 5개월이 지나 명나라는 이여송(李如松)을 제독으로 하여 5만의 군사를 재차 파병하였다. 새로이 파병된 명군은 규모도 커졌지만, 대포 등의 공성 화약무기를 갖춘 포병 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중국 남부의 절강성과 복건성에서 온 병사들로서 남병(南兵)이라 불렀는데, 평양성 회복에는 이 남병의 역할이 컸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은 12월 말에 국경을 넘었고, 1월 초에 평양 근교에 도착하였다. 이여송의 부대가 도착하자 조선은 이일(李鎰)·김응서(金應瑞)가 이끄는 관군과 휴정(休靜)·유정(惟政)이 이끄는 승군 등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조명연합군은 1월 6일과 7일에 걸쳐 탐색전을 벌이다가 1월 8일을 기해 총공격을 가하였다. 명나라 남병의 포병부대가 평양성을 집중 사격하고, 기병과 보병은 모란봉(牡丹峰), 칠성문(七星門), 보통문(普通門), 함구문(含毬門)의 네 곳으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조명연합군의 공격에 밀린 고니시 부대는 연광정(練光亭)의 토굴에 쫓겨 들어가 응전하였다. 토굴로 쫓긴 일본군의 결사항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이여송은 일본측에게 퇴각을 종용하였고, 고니시가 이를 받아들여 평양성을 내주고 한양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조선군은 퇴각하는 고니시 부대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안전한 퇴각을 보장하라는 이여송의 통보에 따라 복병을 철수하고 길을 열어야만 했다.

고니시 부대가 평양성을 점령한 1592년 6월부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1593년 1월까지는 전쟁의 교착상태였다. 후방이 불안정해진 일본군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조선군의 전력은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을 만큼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일본군의 발을 평양에 묶어두고 협상을 통해 북진만 막으려 했던 명나라 측의 태도 역시 전황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도록 하였다.

명군의 2차 파병으로 평양성이 탈환되면서 임진왜란의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고니시 부대가 먼저 한성으로 철수한 후 함경도의 가토 부대 역시 한성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행주산성에서의 패배로 고립되다시피 한 일본군은 결국 4월에 한성에서 마저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군은 평양성을 탈환한 직후부터 일본군과의 강화협상에 주력하였고, 조선은 명나라에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까지 5년간 경상도 남부에 주둔한 일본군과 지리한 국지전을 계속해야만 했다.

평양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제법 자세하게 전하는 편이다. 우선 중앙군의 전투였고 전체 전황에 있어서 중요성 또한 컸던 만큼 정부에 보고된 내용이 자세하고 분명하였다. 따라서 『선조실록(宣祖實錄)』에는 4차례에 걸친 전투의 전황 뿐 아니라 평양성 수복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과 『서애집(西厓集)』, 이덕형의 『백사집(白沙集)』 등 당시 전쟁 상황에 깊이 관여했던 중앙 관료들이 남긴 기록에도 평양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다.

임진왜란 당시 지제교(知製敎)로 대명외교문서를 제작하였던 신흠(申欽)의 문집인 『상촌집(象村集)』에 실려있는 몇 편의 지(志)에도 관련 기록이 있는데, 특히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신흠의 후손 신경(申炅)이 쓴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에도 임진왜란기 명군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고대일록(孤臺日錄)』과 『난중잡록(亂中雜錄)』 등 임진왜란 관련 기록 대부분에 평양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워낙에 중앙군과 명군이 참전한 전투라서 기록상의 오류나 혼동은 없다. 다만, 명군의 활동에 대해서 저자에 따라 약간씩 입장 차이가 있다. 신흠의 『재조번방지』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번방(藩邦)인 조선을 다시 일으켜(再造) 준 명나라의 은혜를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전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명군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다.

3) 『징비록(懲毖錄)』에 나타난 평양성 전투

『징비록』은 임진왜란 때 병조판서와 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전쟁을 지휘하였던 유성룡이 남긴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은거해 있으면서 썼으며, 『시경(詩經)』의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予其懲而毖後患)"라는 구절에서 따온 징비록(懲毖錄)이라는 제목은 유성룡이 이 기록을 남긴 목적을 잘 보여준다. 1633년(인조 11) 『서애집(西厓集)』을 간행할 때 그 안에 수록하였고, 이후 1647년(인조 25)에 임진왜란기의 장계 등 기타 기록을 모아서 별도의 『징비록』을 간행하였다. 이 때 간행된 『징비록』은 16권 본이며, 다른 판본으로 장계 등의 기록을 뺀 2권짜리가 있다.

『징비록』의 내용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발발 이전의 대일 관계인 교린사정(交隣事情)을 책 앞부분에 기록하여 두었는데, 이는 전쟁 발생의 원인을 밝혀 후세에 경계로 삼고자한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은 간행되기 전의 초본에는 없는 부분으로서, 저자가 간행에 앞서 의식적으로 추가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징비록』에는 다른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 특히 명과 조선 사이에 오간 기밀·고급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명군 참전 이전 조선군의 전투 상황, 의병의 활동 등 조선인들의 활약을 비롯하여 정유재란기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전쟁 전 기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고급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전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징비록』은 『선조수정실록』, 『이충무공전서』 등을 편찬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청나라에까지 알려져 널리 읽혔는데, 일본의 경우는 『조선징비록』이란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간행되기까지 하였다. 『징비록』은 현재에도 임진왜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징비록』에는 4차 평양성 전투 당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평양성을 되찾을 때 명나라 남병이 가지고 온 대포가 큰 역할을 했는데, 『징비록』의 당일 전투 묘사에도 대포의 위력이 잘 드러나 있다.

> 다음 날 아침 명나라 군대는 진격하여 평양을 포위하고 보통문, 칠성문을 공격하였다. 적은 성 위에 올라 붉고 흰 깃발을 줄지어 세우고 항전하였다. 명나라 군대가 대포와 불화살로 적을 공격하니 대포 소리가 땅을 울려서 수십 리 안의 산이 모두 흔들렸다… 낙상지(駱尙志), 오유충(吳惟忠) 등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개미처럼 성을 붙어 오르는데 앞사람이 떨어지면 뒷사람이 올라가니 후퇴하는 병사가 없었다. 적의 칼과 창이 성벽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나와 있는 모습이 마치 고슴도치의 바늘 같았다. 명나라 군대가 더욱 더 분투하니 적은 버티지 못하고 내성으로 달아났다. 칼로 베고 불로 태워 죽인 병사가 매우 많았다.
>
> (『징비록』 권 3, 12월에 명이 대군을 보내다)

징비록(柳成龍 著, 1695, 古2158-8), vol 3, 10쪽.

다음은 평양성을 되찾은 후 일본군이 퇴각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인데, 일본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명군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 등은 남은 병사를 이끌고 밤마다 달아나 한양으로 돌아갔다. 기력은 쇠하고 발은 부르터서 절뚝거리며 갔다. …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공격하려 들지 않았고 명나라 군대도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 만약 유키나가(行長), 요시토시(義智), 겐소(玄蘇) 등을 잡았다면 한양의 적은 스스로 무너졌을 터이고, 한양의 적이 무너지면 기요마사(淸正)는 돌아오는 길을 차단당했을 터이니 적병들은 두려워하여 바닷길을 따라 달아났겠지만 빠져나가지 못하였을 터이고 한강 이남의 적진들이 차례로 와해되었을 것이다. 그러하였다면 명나라 군대는 북을 치며 천천히 나아가 곧장 부산에 도착하여 실컷 술만 마셨어도 되었을 것이고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깨끗해졌을 것이니, 어찌 몇 년 동안의 어지러움이 있었겠는가.
>
> (『징비록』 권 3, 12월에 명이 대군을 보내다)

징비록(柳成龍 著, 1695, 古2158-8), vol 3, 12쪽.

[네이버 지식백과]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평양성전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 한국의 시대별 전쟁사, 국립중앙도서관)

바. 홍계남

본관은 남양(南陽). 수원 출생. 아버지는 충의위(忠義衛) 홍언수(洪彦秀)이다. 용력이 뛰어나고 말달리기·활쏘기를 잘하여 금군(禁軍)에 소속되었다. 1590년(선조 23)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의 군관으로 선발되어 황윤길(黃允吉)·김성일(金誠一) 일행을 따라 일본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관직으로는 경기도조방장, 충청·경상도의 조방장, 수원판관·영천군수 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따라 안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인근의 여러 고을로 전전하며 전공을 세워 첨지(僉知)로 승진되었다. 그가 다른 진에 연락차 본진을 떠난 사이 아버지가 왜군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자, 돌아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의병진의 선두에 서서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적정을 정탐하면서 도처에서 유격전도 펼쳤다. 이듬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전라·경상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빈(李薲)·선거이(宣居怡)·송대빈(宋大斌) 등과 함께 운봉·남원·진주·구례·경주 등지로 전전하며 전공을 세웠다. 그 뒤 1596년에는 이몽학(李夢鶴)의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홍계남 [洪季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사. 우성전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경선(景善), 호는 추연(秋淵)·연암(淵庵). 우환(禹桓)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승사랑(承仕郞) 우성윤(禹成允)이다. 아버지는 현령 우언겸(禹彦謙)이며, 대사헌 허엽(許曄)의 사위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61년(명종 16) 진사가 되고, 1564년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요승 보우(普雨)의 주살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1568년(선조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봉교(奉敎), 수찬(修撰) 등을 거쳐 1576년 수원현감으로 나가서는 명망이 높았다.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장령(掌令)·사옹원정을 거쳐 1583년에 응교(應敎)가 되고, 뒤에 여러번 사인(舍人)을 지냈다.

동서분당 때 동인으로 분류되었다. 그 뒤 이발(李潑)과 틈이 생기자 우성전은 남산에 살아서 남인, 이발은 북악(北岳)에 살아서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남인의 거두로 앞장을 섰으며, 동서분당 때나 남북의 파쟁에 말려 미움도 사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1591년 서인인 정철(鄭澈)의 사건에 연좌되어 북인에게 배척되고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해 군호(軍號)를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소금과 식량을 조달해 난민을 구제하였다. 또한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金千鎰)과 합세해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해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다. 병선을 이끌어 적의 진격로를 차단했으며, 권율(權慄)이 수원독성산성(禿城山城)에서 행주에 이르자 의병을 이끌고 지원하였다.

그 공으로 봉상시정에서 대사성으로 서용되었다. 그 뒤 계속 활약하였으며, 용산의 왜적을 쳐서 양곡을 확보해 관군과 의군의 식량을 마련하였다. 그 뒤 퇴각하는 왜군을 경상우도 의령까지 쫓아갔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계갑록(癸甲錄)』·『역설(易說)』·『이기설(理氣說)』 등

이 있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성전 [禹性傳]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병자호란

가. 병자호란

1636년(인조 14)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제2차 침입으로 일어난 전쟁. 병자년에 일어나 정축년에 끝났기 때문에 병정노란(丙丁虜亂)이라 부르기도 한다. 1627년 후금(後金 : 뒤의 淸)의 조선에 대한 1차 침입 때 조선은 무방비 상태로 후금에 당함으로써 후금에 대해 형제의 맹약을 하고 두 나라 관계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조선은 정묘호란 이후 후금의 요구를 들어 1628년(인조 6) 이후 중강(中江)과 회령(會寧)에서의 무역을 통해 조선의 예폐(禮幣: 외교관계에서 교환하는 예물) 외에도 약간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초의 맹약을 위반하고 식량을 강청하고 병선(兵船)을 요구하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해왔다. 그뿐 아니라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변경 민가에 침입해 약탈을 자행하므로 변방의 백성과 변방 수장(守將)들의 괴로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후금의 파약(破約) 행위로 조선의 여론은 군사를 일으켜 후금을 치자는 척화배금(斥和排金: 후금에 대하여 화의를 반대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격증하게 되었다. 당시 후금은 만주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 부근까지 공격하면서 정묘호란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군신(君臣)의 의(義)'로 개약(改約)하자고 요청을 해올 뿐 아니라, 황금·백금 1만냥, 전마(戰馬) 3,000필 등 종전보다 무리한 세폐(歲幣)와 정병(精兵) 3만까지 요구해왔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려 하지 않고 화의 조약을 무시하고 후금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1636년 2월에는 용골대(龍骨大)·마부태(馬夫太) 등이 후금 태종(太宗)의 존호(尊號)를 조선에 알림과 동시에 인조비 한씨(韓氏)의 문상(問喪)차 조선에 사신으로 왔는데, 그들이 군신의 의를 강요해 조선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었다.

조정 신하들 가운데 척화(斥和)를 극간(極諫)하는 이가 많아 인조도 이에 동조해 사신의 접견을 거절하고 국서(國書)를 받지 않았으며 후금 사신을 감시하게 했다. 조선의 동정이 심상하지 않음을 알아차린 그들은 일이 낭패했음을 간파하고 민가의 마필을 빼앗아 도주했는데, 공교롭게도 도망치던 도중에 조선 조정에서 평안도관찰사에 내린 유문(諭文)을 빼앗아 본국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후금에 대한 조선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재차 침입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같은 해 4월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연호를 숭덕(崇德)이라 했으며, 태종은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의 칭호를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 사신에게 왕자를 볼모로 보내서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을 일으켜 조선을 공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와 같은 청나라의 무리한 요구는 척화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조선 조정에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그 해 11월 심양(瀋陽)에 간 조선 사신에게 그들은 왕자와 대신 및 척화론을 주창하는 자를 압송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왔으나 조선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에 재차 침입해왔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청태종은 몸소 전쟁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1636년 12월 1일에 청군 7만, 몽골군 3만, 한군(漢軍) 2만 등 도합 12만의 대군을 심양에 모아 예친왕(禮親王) 대선(代善), 예친왕(睿親王) 다이곤(多爾袞), 예친왕(豫親王) 다탁(多鐸)과 패륵(貝勒) 악탁(岳託)·호격(豪格)·두도(杜度) 등을 이끌고 다음 날 몸소 조선 침입에 나섰다.

9일에 압록강을 건너 다탁은 전봉장(前鋒將) 마부태에 명해 바로 서울로 진격하도록 했다. 마부태는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이 백마산성(白馬山城)을 굳게 수비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피해 밤낮을 달려 심양을 떠난 지 10여 일 만에 서울에 육박했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입했다는 급보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12일로서 의주부윤 임경업과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장계(狀啓)가 도착한 뒤였다. 보고에 접한 조정에서는 비로소 적의 형세가 급박한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진격해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13일 오후 늦게 재차 장계가 이르러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하자 조정은 갑작스런 변란에 황망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도성 안은 흉흉해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로 줄을 이었다.

다음 14일 개성유수의 치계(馳啓)로 청군이 이미 개성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히 판윤 김경징(金慶徵)을 검찰사(檢察使)로, 부제학 이민구(李敏求)를 부사(副使)로 명하고 강화유수 장신(張紳)으로 주사대장(舟師大將)을 겸직시켜 강화를 수비하도록 했다.

한편, 원임대신(原任大臣) 윤방(尹昉)과 김상용(金尙容)에게 명해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세자빈 강씨(姜氏), 원손(元孫), 둘째아들 봉림대군(鳳林大君), 셋째아들 인평대군(麟坪大君)을 인도해 강화도로 피하도록 했다. 심기원(沈器遠)을 상중에서 불러내어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고 호조참의 남선(南銑)을 찬획사(贊劃使)로 삼았다.

인조도 그날 밤 숭례문으로 서울을 빠져 나와 강화도로 향했으나, 적정을 탐색하던 군졸이 달려와서 청국군이 벌써 영서역(迎曙驛: 지금의 서울 은평구 대조동과 불광동 사이)을 통과했으며, 마부태가 기병 수백을 거느리고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해, 한 부대를 보내 양천강(陽川江)을 차단해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겼다고 보고했다.

인조는 다시 성안으로 들어와 숭례문 누각에 앉아 사후 대책을 물으니, 전 철산부사 지여해(池如海)가 정병(精兵) 500을 주면 사현(沙峴)에 나가 청군의 선봉 부대를 무찌르겠다고 했다.

그 말에 여러 신하들은 500의 군사로 적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결국, 이조판서 최명길(崔鳴吉)이 홍제원 청군 진영에 나가 술과 고기를 먹이며 출병의 이유를 물으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인조는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인조 일행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뒤 영의정 김류(金瑬) 등은 본 산성이 지리적으로 불리함을 들어 야음을 타서 강화도로 옮겨갈 것을 역설하므로 다음 15일 새벽에 인조는 산성을 떠나 강화도로 떠나려 했다.

그러나 마침 눈이 내린 뒤라 산 언덕에 얼음이 얼어서 왕이 탄 말이 미끄러져 왕은 말에서 내려 걸어서 갔는데, 여러 번 미끄러져 몸이 편안하지 못해 강화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산성으로 돌아왔다.

훈련대장 신경진(申景禛)이 서울로부터 뒤따라오니 그에게 동성(東城) 망월대(望月臺)를 지키게 하고, 이영달(李穎達)을 중군(中軍)으로 삼고 총융사 구굉(具宏)에게 남성(南城)을 지키게 했다.

또, 수원부사 구인후(具仁垕)를 부장(副將)으로 삼고 상중에 있던 이확(李廓)을 불러 중군을 삼았으며, 어영대장 이서(李曙)는 북성(北城)을, 수어사 이시백(李時白)은 서성(西城)을 지키고 이직(李稷)을 중군으로 삼았다.

이때 영남의 분방병(分防兵)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채 여주목사 이필원(李必遠), 이천부사 조명욱(曺明勗), 양근군수 한회일(韓會一), 지평현감 박환(朴煥) 등이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입성했고, 파주목사 기종헌(奇宗獻)이 수백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구원했다.

이때 성안에 있는 군사는 1만 3000명으로 성첩(城堞)을 지키도록 하고, 도원수·부원수와 각 도의 관찰사와 병사에게는 근왕병(勤王兵)을 모으도록 하는 한편, 명나라에 위급함을 알려 원병을 청했다.

이 때 성안에는 양곡 1만 4300석(石), 장(醬) 220 항아리가 있어 겨우 50여 일을 견딜 수 있는 식량에 불과했다. 청군의 선봉 부대는 12월 16일에 이미 남한산성에 이르고 대신 담태(潭泰)의 군사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서울에 입성해 그 길로 한강을 건너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청태종은 다음해 1월 1일에 남한산성 밑 탄천(炭川)에서 20만의 군사를 포진하고 성 동쪽의 망월봉(望月峰)에 올라 성안을 굽어보며 조선군의 동태를 살폈다. 포위를 당한 성안의 조선군은 12월 18일 어영부사(御營副使) 원두표(元斗杓)가 성안의 장사를 모집, 성을 빠져나가 순찰중인 적군 6명을 죽이고, 동월 20일 훈련대장 신경진의 군이 출전해 또 적군 30명을 죽였으며, 다음날 어영대장 이기축(李起築)이 군사를 이끌고 서성을 나가 적군 10명을 또 죽여 성안에 사기를 올렸다.

그러나 이렇다할 큰싸움 없이 40여일이 지나자 성안의 참상은 말이 아니었다. 이러할 즈음 각 도의 관찰사와 병사가 거느리고 올라왔던 관군들은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무너졌다.

충청도관찰사 정세규(鄭世imagefont)의 군사는 험천(險川)에서 패해 이성현감(尼城縣監) 김홍익(金弘翼), 남포현감(藍浦縣監) 이경(李慶) 등이 전사했고, 경상좌병사 허완(許完)과 경상우병사 민영(閔泳)의 군사도 광주(廣州) 쌍령(雙領)에서 괴멸해 두 병사도 전사했다.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은 경기 용인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러 적장 액부양고리(額駙揚古利)를 죽이고 승첩을 거두었으나 뒤에 역습을 당해 수원으로 퇴각한 뒤 전군이 무너졌다.

또, 평안도관찰사 홍명구(洪命耉)는 금화(金化)에서 전사하고 부원수 신경원(申景瑗)이 맹산(孟山) 철옹(鐵甕)에서 사로잡혔으며, 도원수 김자점의 군사가 토산(兎山)에서 패주하고 강원도관찰사 조정호(趙廷虎), 함경남도관찰사 민성휘(閔聖徽)의 군사도 패배해 중도에서 좌절되니, 남한산성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앞서 명나라에 구원을 청한 것도 국내 유적(流賊)으로 인해 원병을 보낼만한 처지가 못되었고, 겨우 등주총병(登州總兵) 진홍범(陳弘範)에 명해 수군을 동원하려 했으나 그것도 바람과 파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 경기·호남·경상도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경기도에서는 적병이 강화성을 공략할 때 다소의 전과를 거두었고, 호남에서는 전 참의 정홍명(鄭弘溟)이 많은 의병을 이끌고 공주에까지 이르렀으나 이미 화의가 이루어진 뒤라 군사를 파했다.

경상도에서는 김식회(金湜會)의 의병이 여주에서 퇴주하는 경상도관찰사 심연(沈演)의 군사와 함께 조령(鳥嶺)·죽령(竹嶺) 사이를 잠행하다가 청군의 기습이 있다는 와전(訛傳)을 듣고 도산해 실전에 임해보지도 못했다. 또한, 의승군(義僧軍)도 봉기했으나 큰 전공을 세우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한산성으로 구원오는 군사가 모두 붕괴되고 성중은 안과 밖이 끊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차차 강화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화파(主和派)는 주전파(主戰派)와의 여러 차례 논쟁을 거듭했으나, 주전파 역시 난국을 타개할 방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조판서 김상헌(金尙憲), 이조참판 정온(鄭蘊)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637년 1월 3일 최명길·이식(李植)·장유(張維)로 하여금 회답하는 국서를 초(草)하도록 했는데, 최명길의 글이 공손하다 하여 그것을 채택하고 좌의정 홍서봉(洪瑞鳳), 호조판서 김신국(金藎國) 등을 청군 진영에 보내 화호(和好)를 청했다.

그러나 청태종의 답서는 조선 국왕이 친히 성안에서 나와 자기 군문(軍門)에 항복하고 척화주모자 2, 3인을 결박지어보내라는 내용이어서, 조선은 이에 응하지 않고 정론(政論)이 구구해 주저하고 있었다. 이 때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성안에 이르렀다.

강화도 수비를 맡은 검찰사 김경징은 대신이나 대군의 말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성안에 있는 피난민이나 섬 사람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으며, 청군이 강화도만은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 호언장담을 했다.

강화유수 겸 주사대장 장신은 '검찰사의 지휘 명령을 받들 사람이 아니라'고 서로 배척하는 등 알력이 심해 강화 수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1월 21일 밤 초경(初更)에 청군이 강화도를 침입하자 김경징은 그제야 놀라서 파수계책을 일르면서 화약과 총탄을 나누어주었다.

부마(駙馬) 윤신지(尹新之)로 대청포(大靑浦)를 지키게 하고, 유정량(柳廷亮)은 불원(佛院)을, 유성증(兪省曾)은 장령(長零)을, 이경(李坰)은 가리산(加里山)을 각각 지키게 하는 한편, 김경징 자신은 진해루(鎭海樓) 아래로 나가서 갑곶(甲串)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군사가 적은데다 새로 모집하는 군사들도 흩어져서 결국 강화도성을 지키기로 했다.

한흥일(韓興一)과 정백형(鄭百亨)을 시켜 성안에 피난온 사람을 이끌고 성첩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연미(燕尾) 서쪽을 풍덕군수 이성연(李聖淵)이, 연미 북쪽은 개성유수 한인(韓仁)이, 갑곶 아래는 첨지(僉知) 유성증이, 선원

(仙源) 이하는 유정량이, 광성 이하는 윤신지가 각각 지켰다.

청군이 나루터에 주둔해 홍이대포(紅夷大砲)를 쏘니 포탄이 물을 넘어 육지 몇 리밖에 떨어졌다. 이를 본 김경징과 이민구는 놀라 부성(府城)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주위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주사대장 장신은 해전을 벌리려다 도중에 퇴각해 싸움을 회피하니 강화도의 위급은 촌각에 달려 있었다. 청군은 복병을 의심해 배를 출발시키지 않고 1척을 먼저 보내 7명을 상륙시켰다. 이것을 본 관군이 조총(鳥銃)을 쏘았으나 화약에 습기가 차서 불발되었다.

적병 7명은 해안을 둘러봐도 사방에 복병이 없자 흰 깃발을 흔들어 부르니 일시에 적의 대군이 밀어닥쳤다. 성의 수비를 맡은 김경징과 이민구는 말을 버리고 나룻배를 타고 장신의 전선에 올라타고 함께 도망하니, 남은 것은 부성 안에 있는 빈궁(嬪宮)과 왕자 및 대신들로 싸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뿐이었다.

대신들이 명해 부성을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빈궁이 일의 급박함을 듣고 통곡하며 성을 나가 바다를 건너가려 했으나 비국(備局)이 문을 굳게 지키고 열지 않았다.

이에 내관 김인(金仁) 등을 불러 원손을 보호하고 피신할 것을 부탁해 그들은 원손을 모시고 교동(喬桐)에 이르렀다가 주문도(注文島)로 옮겨 그대로 당진(唐津)으로 향했다.

부성이 함락되자 청군은 성안에 들어와 숙의(淑儀)와 빈궁과 봉림·인평 두 대군 및 대군의 부인을 협박해 나오게 하고, 드디어 군사를 풀어 크게 약탈을 자행하고 관가(官家)와 사가(私家)를 막론하고 모조리 불사르며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 뒤 다시 물을 건너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강화도에서 순절한 사람으로는 원임대신 김상용 등의 관원과 어린이, 부녀자들도 많았다.

한편, 남한산성에서는 적의 포위 속에 있으면서 화(和)·전(戰) 양론이 팽팽이 맞서다가 주화론이 우세해 인조의 출성이 목전에 다가오자 예조판서 김상헌과 이조참판 정온이 화의를 반대 자결을 꾀하려다 실패했다.

이 때 청군은 강화도에서 포로가 된 대군의 수서(手書)와 재신(宰臣) 윤방과 한흥일 등의 장계를 보이면서 독촉했다. 강화도의 함락 사실을 확인한 인조는 드디어 출성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서봉·최명길·김신국 등이 적진을 왕복하며 항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또 청군 진영에서도 용골대·마부태 등의 사신이 우리 성안에 들어와서 조건을 제시한 끝에 다음과 같은 조약에 합의했다.

첫째, 조선은 청에 대해 신의 예를 행할 것. 둘째, 명에서 받은 고명책인(誥命冊印)을 바치고 명과의 교호(交好)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 것. 셋째,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넷째,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다섯째, 가도(椵島, 椵島라는 설도 있음.)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낼 것. 여섯째, 성절(聖節)·상삭(上朔)·동지(冬至)·중궁천추(中宮千秋)·태자천추·경(慶)·조(弔) 사신의 파견은 명의 구례(舊例)를 따를 것. 일곱째, 압록강을 건너간 뒤 피로인 중에서 도망자는 전송할 것. 여덟째, 내외제신과 혼인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아홉째, 조선은 신구(新舊) 성원(城垣)을 보수하거나 쌓지 말 것. 열번째, 올량합인(兀良合人)은 마땅히 쇄환할 것. 열한번째, 조선은 기묘년(1639)부터 세폐를 보낼 것 등이었다.

이상 11조문은 조선으로서는 힘겨운 부담이며 고통이었다. 드디어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호곡(號哭) 소리가 산성 안을 가득히 채운 채 서문으로 출성해 한강 동편 삼전도(三田渡)에서 성하(城下)의 맹(盟)의 예를 행한 뒤 한강을 건너 서울로 돌아왔다.

청은 왕자를 비롯한 강화의 부로(浮虜)를 일부 송환한 다음 군중에 유치하였던 조선의 세자·빈궁·봉림대군(뒤의 효종)을 볼모로 삼고 미리 유치했던 척화론의 주모자 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을 잡아 제도의 군사를 거두어 심양으로 돌아갔다.

비록, 한달 남짓한 짧은 전쟁 기간이었으나 그 피해는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것이요 조선으로서는 일찍이 당해 보지 못한 일대 굴욕이었다. 이로써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청나라에 복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청군은 철수하는 도중 4월에 가도의 동강진(東江鎭)을 공격했는데 이때 청태종은 패륵 악탁과 명나라의 항장(降將) 공유덕(孔有德) 등에 명해 용산(龍山)에서 병선을 만들게 했다.

조선에서도 황해도의 병선을 얻어 그 준비를 갖추었는데, 항복 조건에 따라 조선은 평안병사 유림(柳琳)을 수장(首將), 의주부윤 임경업을 부장(副將)으로 삼아 청군을 도와 싸우게 하였다.

임경업은 척후장 김여기(金礪器)를 몰래 보내 명 제독 심세괴(沈世魁)에게 피하도록 알렸으나, 그는 굴하지 않고 1만의 군사와 함께 역전하던 끝에 전사해 동강진은 17년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일단 전쟁이 끝을 맺자 전후 처리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화도의 실함이 인조의 남한산성 출성(出城)을 재촉케 했으니 우선 강화도 방수에 직임을 맡았던 장수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강화유수 겸 주사대장(舟司大將)으로 해상의 방어를 맡았던 장신은 바다를 지키지 않고 도주한 죄로 왕명에 의해 스스로 자살하도록 했다.

검찰사로서 강화 수비의 총책을 맡았던 김경징이 사사되었으며, 강화 수비의 부책임자였던 이민구는 영변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충청수사 강진흔(姜晉昕)은 사력을 다해 바다를 지켰으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한편, 강화부성이 함락될 때 전현직 관료나 아직 벼슬에 나가지 않은 많은 선비들이 순절했고, 부녀자들이 바다에 뛰어들거나 목을 메어 절개를 지켰는데 난이 끝나자 이들의 충절과 절개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벼슬을 추증하거나 정문(旌門)을 내렸으며, 단(壇)을 설치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또 전장에서 싸우다 전사한 자에게까지 휼전(恤典)을 베풀고 시상했다.

난이 끝난 뒤 조선과 청 두나라는 종번관계(宗藩關係)로 굳어져 가면서 청의 위협과 조선의 복종이 강요되었다. 조선은 병자호란을 종속시키기 위한 화의 교섭을 통해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조로부터 '조선국왕'으로 책봉됨으로써 군신 관계가 재확인됐다. 이로부터 조선은 속국이 확인된 셈이다.

청은 또 인조가 항복의 예를 행한 삼전도에 청태종의 공덕을 칭송하고 청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비의 건립을 조선에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다.

인조가 남한 출성에 앞서 합의한 강화 조약의 기본 원칙에는 연호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채택되었다. 그것은 조선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명의 '숭정(崇禎)'이란 연호를 버리고 청의 '숭덕(崇德)'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개월 동안은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청은 청나라의 연호만 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결국 인조는 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사 문서에 청나라 연호인 숭덕을 사용할 것을 내외에 명했다. 그러나 개인 문서나 제향(祭享)의 축사(祝詞)에는 의례히 명의 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청에 대한 배척 의식이 고조되어가는 과정에서 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군의 출병을 요구해왔다. 그것은 청 태종이 명의 금주(錦州)를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파병 반대 여론이 강했으나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청군과 함께 참전한 조선군의 상장 임경업은 청군들이 모르게 40여척의 병선을 중도에서 빼돌리고 남은 80여 척의 배만 이끌고 대릉하(大凌河)·소릉하(小凌河) 하구를 거쳐 개주(蓋州)에 도착한 다음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명·청 양군의 대결을 관망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챈 청태종은 임경업에게 조선 전함 3척을 명과의 경계선인 등주(登州) 앞바다에 척후로 보내어 명군의 움직임을 살피게 하고 임경업의 조선 수군을 철저히 감시했다.

그러나 임경업은 척후선으로 명군과 은밀히 내통해 청군의 동태를 명의 진영에 보고하고 조선의 파병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알리게 하였다.

임경업의 반청 행위가 탄로되자 청태종은 임경업의 군대를 조선에 돌려보내 강화 조약의 불이행을 엄중히 항의했다. 1641년 청태종은 또 조선에 대해 원군의 파견을 요청해 조선은 2,000명에 달하는 포수·기병·마부 등을 동원하여 유림(柳琳)을 주장으로 삼아 출동하게 했다.

조선군은 심양에 도착해 청태종의 열병을 받고 5월에 청군과 함께 금주 싸움에 참가했다. 그러나 명·청 양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전개하는데도 조선군의 주장 유림은 병을 이유로 싸움에 나가지 않고 은밀히 군중에 명해 공포를 쏘아 명군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했다.

조선군이 대명전에서 싸움을 기피하는 것을 알아차린 청은 조선군의 주장을 교체시킬 것과 포수 50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통제사 유정익(柳廷益)을 유림의 후임으로 삼아 포수 500명을 이끌고 금주로 향하도록 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조선 원군의 파병은 청의 일방적인 강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조선군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조선군의 협력을 얻어 명을 치자는 청의 의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조선의 반감만 증폭시켜 청에 대한 적개심만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후에 처리해야 될 심각한 문제는 청군에게 강제 납치된 수만(다른 기록에는 50만)인의 속환 문제였다. 특히, 청군도 납치한 남녀노소의 양민을 전리품으로 보고 속가(贖價: 포로를 풀어주는 대가로 내는 돈)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실과 양반의 부녀를 되도록 많이 잡아가려 했다.

그러나 대부분 잡혀간 사람들은 속가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속가는 싼 경우 1인당 25 내지 30냥이나, 대개의 경우 150 내지 250냥이었고, 신분에 따라 비싼 것은 1,500냥에 이르렀다.

여기에 순절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온 것은 조상에게 죄를 짓게 된다고 해 속환 사녀(士女)의 이혼 문제가 정치·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10년의 볼모 생활을 하다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은 1645년(인조 23)에 환국했으나 세자는 2개월 만에 죽었다.

그리고 인조의 뒤를 이은 봉림대군은 왕위에 오른 뒤 볼모 생활의 굴욕을 되새기며 재야의 인사를 발탁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등 북벌의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역시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병자호란 [丙子胡亂]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나.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산성이다. 흔히 북한산성(北漢山城)과 함께 조선의 도성인 한양의 방어를 위하여 쌓은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터 등이 확인되어, 신라 주장성(晝長城)의 옛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시대 남한산성은 주봉인 해발 497.9m의 청량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연주봉(467.6m), 동쪽으로는 망월봉(502m)과 벌봉(515m), 남쪽으로도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성벽을 쌓았다.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은 어려운 편이다. 봉암성(蜂巖城), 한봉성(漢峰城), 신남성(新南城) 등 3개의 외성과 5개의 옹성도 함께 연결되어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성벽과 성 안에는 많은 시설물과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서·남문루와 장대(將臺)·돈대(墩臺)·보(堡)·누(壘)·암문·우물 등의 방어 시설과 관청, 군사훈련 시설 등이 남아 있다.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신규 등재되었다.

1985년에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래, 1998년부터 8차례에 걸쳐 행궁터, 인화관터, 일부 성벽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대략적인 축성 시기와 함께 변천 과정도 파악되었다.

남한산성이 백제 온조왕 때 도성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 백제 주거지 2곳과 저장 구덩이 8곳 등이 확인되었을 뿐 성곽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673년(문무왕 13)에 한산주(漢山州)에 주장성(혹은 日長城)을 쌓았는데, 성의 둘레는 3,460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장성은 곧 남한산성이고, 당시 돌로 쌓은 최대 규모의 산성이었다. 2005년에 북문과 동장대 사이의 제4암문과 수구(水口)터 주변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 성벽 안쪽에서 주장성 성벽으로 추정되는 성벽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남한산성이 신라 주장성의 옛터를 따라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궁터 발굴 조사에서는 대규모 건물터가 확인되어, 주장성 당시 성 안에 무기고(武器庫) 등 중요한 건물들이 자리하였음도 밝혀졌다.

남한산성에 대한 고려시대 기록은 광주부사를 지낸 이세화묘지명(李世華墓誌銘)이나『고려사(高麗史)』에 몽고군이 침입하였을 때 '광주성(廣州城)'으로 피하여 항전하였다는 것 등이 전한다. 산성 안에서 고려시대 건물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광주성은 바로 남한산성으로 추정된다. 한편『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일장산성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둘레가 3,993보이고 성 안에는 군자고(軍資庫)가 있으며 우물 7곳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며, 성 안의 논밭이 124결(結)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 기록 역시 신라 때 축성된 주장성, 일장성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서 후금(後金)의 위협을 받고 이괄(李适)의 난을 겪은 뒤 인조 2년(1624)에 지금처럼 다시 고쳐 쌓았다. 곧 인조는 총융사 이서(李曙, 1580~1637)에게 산성의 축성을 명령하였고, 2년 뒤에 둘레 6,297보, 여장(女墻) 1,897개, 옹성(甕城) 3개, 성랑(城廊) 115개, 문 4곳, 암문(暗門) 16곳, 우물 80곳, 샘 45곳 등을 설치하고서 광주읍의 치소(治所)를 산성 안으로 옮겼다. 축성 공사에는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전국 8도의 승군을 동원하였는데, 승군의 사역과 보호를 위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장경사(長慶寺)를 비롯한 7곳의 사찰을 새로 건립하기도 하였다.『남한지(南漢志)』에는 원성 성벽의 안쪽 둘레는 6,290보로 17리 반이고, 바깥 둘레는 7,295보로 20리 95보이며, 성가퀴는 1940타, 5곳의 옹성과 16곳의 암문, 125곳의 군포, 4곳의 장대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순조 때까지 여러 시설이 정비되어,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가장 시설이 잘 완비된 산성으로 손꼽힌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주장성으로, 군수 물자를 저장하는 특수 창고를 설치한 중요한 거점성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외성과 옹성을 갖춘 전형적인 산성이면서, 산성의 변화 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남한산성 [南漢山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쌍령전투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조선이 쌍령에서 청나라 군대와 벌인 전투이다. 쌍령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서 동으로 16㎞ 거리에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고개를 가리킨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남한산성이 포위, 고립되자 제도(諸道)의 감사나 병사가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이 때 경상좌병사 허완(許完)과 경상우병사 민영(閔栐)도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향하던 중 쌍령에서 청군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허완은 미처 적과 접전하기도 전에 일군이 패하여 전사하였으며, 민영은 휘하의 군사를 독전하여 오랜 시간 사력을 다하여 싸웠으나 마침내 힘이 다하여 일군이 대패하고 자신도 전사하였다.

충청감사 정세규(鄭世imagefont)가 용인 험천(險川)에서 패한 싸움과 함께 많은 전사자를 내었다. 숙종 때에 허적(許積)의 건의로 예전 쌍령 전장에서 기우제를 지냈고, 영부사(領府事) 김수흥(金壽興) 등의 제언으로 전사자들의 혼령을 달래기 위하여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1734년(영조 10) 왕명으로 이 곳 쌍령전망처(雙嶺戰亡處)에 비를 세웠다.

[네이버 지식백과] 쌍령전투 [雙嶺戰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민의 양난극복			
학습 목표	1. 세마대전투와 행주대첩을 통해 임진왜란의 극복과정을 알 수 있다. 2. 남한산성 전투를 통해 병자호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10분) : 지식채널 '이상한 밀지'를 통해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M4ZHBles4LY		
전 개	1. 세마대전투와 행주대첩(15분)	세마대전투와 행주대첩을 통해 임진왜란의 경과와 극복을 탐색할 수 있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경기도의 의병(15분)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백성들이 힘을 모았던 의병들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3. 남한산성의 항전 (15분)	명·청·조선의 관계를 파악하고 당시 광해군과 인조의 외교정책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파악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임진왜란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 경기도의 의병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함께 해봅시다(30분)	광해군과 인조의 외교정책을 비교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말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경기도에서 일어난 국난극복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는 등 조선을 크게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전투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한산도대첩 → 이치전투 → 진주성싸움 → 세마대전투 → 행주대첩 → 평양성전투

[보기] 이치전투, 진주성싸움,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세마대전투, 평양성전투

2.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든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경기도의 의병이었던 우성전과 홍계남이 한 일을 찾아 적어보고, 그 분들의 이름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의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이름	우성전	홍계남
한 일	추의군 의병 모집 소금과 식량을 조달하여 난민 구제 행주대첩 지원	부친, 형들과 함께 의병 모집 죽산,양지, 용인 등지의 왜적 기습 전라, 경상도 지역까지 진출하여 왜군과 전쟁
삼행시	우 성 전	홍 계 남

[함께 해 봅시다]

1.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었던 인조와 신하들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힘이 강해진 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지키려고 하였던 광해군의 정책과 인조의 정책을 비교하여 적어보세요.

	인조	광해군
정책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하므로 명나라를 도와 청나라를 쳐야 한다.	청나라의 힘이 강해지고 명나라의 힘이 약하니 두 나라의 편을 다 들지 않겠다
정책의 장점	조선을 도와준 명을 도와줘야한다는 명분이 있다.	청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
정책의 단점	청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피해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므로 맞지 않다.

내가 당시 조선의 왕이었다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5. 교사 참고자료

가. 권율

전쟁은 기본적으로 거대한 폭력과 참혹한 피해를 수반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교류에도 중요하게 기여한다. 그리고 역사상 많은 영웅들은 전쟁의 산물이었다. 이런 모순적 진실은 인간과 역사의 양면성을 착잡하지만 또렷하게 보여준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란은 임진왜란이었다. 흔히 양란이라고 불리는 호란과 그것은 전쟁의 기간, 전장의

범위, 피해의 규모, 전개의 과정, 결과와 영향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사뭇 달랐다. 호란과 달리 왜란은 전면적이었고 장기전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와 파괴의 결과도 그만큼 거대했다.

권율(權慄, 1537~1599)은 거의 멸망할 뻔한 나라를 구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한 대표적 장수였다. 그가 지휘한 행주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승전의 하나로 손꼽힌다.

권율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이다. 그의 9대조는 고려 후기의 유명한 문신인 권부(權溥)였다. 권부는 수문전대제학 영도첨의사사사(修文殿大提學領都僉議使司事)의 고위관직을 역임했으며, 특히 당시의 가장 명망 있는 인물인 이제현(李齊賢)의 장인이었다.

권율의 조부는 강화부사(정3품) 권적(權勣)이고, 아버지는 영의정 권철(權轍, 1503~1578), 어머니는 적순부위(迪順副尉) 조승현(曺承晛)의 딸이다. 영의정이라는 관직이 상징하듯이, 권철은 명종 때부터 선조 초반까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신하였다.

권율의 가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그의 사위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었다는 것이다. '오성과 한음'으로도 널리 알려졌듯이, 이항복은 영의정까지 역임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명신이었다.

권율의 출세는 다소 늦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0년 전인 1582년(선조 15)에 45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다. 당시의 평균 수명과 보통 30세 전후에 문과에 급제했다는 통계에 비추어 이것은 상당히 늦은 출발이었다. 성적도 상위가 아니라 중후위에 걸쳐 있는 병과(丙科, 11~33등)였다.

그는 승문원 정자(正字, 정9품)로 벼슬을 출발해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사헌부 감찰(監察, 종6품)·예조좌랑(정6품)·호조정랑(정5품)·전라도 도사(都事, 정5품)·경성판관(종5품) 등의 관직을 거쳤다. 급제한 나이로 보나 이런 관력으로 보나 그의 출세가 그리 화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는 당시의 나이로 보면 노년일 55세 때 자신의 일생은 물론 국가의 운명에 거대한 영향을 준 전란을 맞았다. 그는 거기서 출중한 전공을 세웠고, 지금까지 이름을 남겼다.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권율은 호조정랑이었다가 서북 지역의 최변방인 의주(義州)목사로 발령되었지만 이듬해에 해직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왜란이 일어났을 때, 관직을 떠나 있던 것이다. 전란이 일어나자 그는 즉시 광주(光州)목사에 제수되었다. 아마도 이전에 전라도 도사였던 경력이 참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잘 알듯이 왜란의 초기 전황은 도성이 개전 한 달 만에 함락될 정도로 속수무책의 패배였다. 왜군의 침략에서 무사한 지역은 전라도밖에 없었다. 권율은 거기에 일익(一翼)을 담당했다.

권율은 처음에 전라도관찰사 이광(李洸)과 방어사 곽영(郭嶸) 휘하의 중위장(中衛將)으로 배속되어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 북진했다. 수원·용인 부근에 이르렀을 때 권율은 지공(遲攻)을 건의했지만, 이광 등 수뇌부는 즉각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결과는 대패였다. 권율은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광주로 물러나 기회를 기다렸다.

처음이자 중요한 전공은 이치(梨峙, 배재) 전투였다. 개전 석 달 째인 1592년 7월 8일, 권율과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 등은 금산(錦山) 서쪽의 이치에서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가 이끄는 왜군을 맞았다. 그때 일본군은 전주(全州)를 함락시키기 위해 웅치(熊峙)와 금산으로도 진군하고 있었다. 두 곳에서는 왜군에 패배했지만, 이치에서는 황진이부상당하여 후방으로 후송되는격전 끝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권율은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했다. 이치 전투의 승리는 이순신의 해전과 함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승전의 공로로 권율은 전라도 관찰사로 승진했다.

두 번째의 승전은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 전투였다. 같은 해 12월 권율은 도성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북진해 경기도 오산의 독성산성에 주둔했다. 거기서 그는 우키타(宇喜多秀家)가 이끈 왜군과 접전해 다시 승리를 거뒀다. 권율은 도성 수복을 위해 다시 전진했다. 그가 선택한 거점은 행주산성(幸州山城)이었다.

권율이 행주산성을 거점으로 선택한 것은 조방장 조경(趙儆)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승장(僧將) 처영(處英)도 승병 1천 명을 이끌고 합류했다. 그러나 총 병력은 수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불리는 행주대첩은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 무렵 시작되었다. 왜군은 우키타(宇喜多秀家)의 지휘 아래 이시다(石田三成)·마시다(增田長盛)·오타니(大谷吉繼) 등이 3만 여명의 군사를 7개 부대로 나누어 진격했다. 그러니까 병력으로 보면 조선군은 4~5배 정도의 열세였다. 그때 조선군은 활·칼·창 같은 일반적인 무기 외에 화포와 석포(石砲- 돌을 날려보낼 수 있는 대포) 등의 특수 무기가 있었으며, 성책을 이중으로 만든 상태였다.

왜군은 고니시(小西行長)·이시다·구로다(黑田長政)가 이끈 1~3대가 차례로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제1성책을 넘지 못하고 격퇴되었다. 총대장 우키다는 격노했고, 직접 자신의제4대를 이끌고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많은희생자를 내면서도 전진했고, 제1성책을 넘어 제2성책까지다가왔다. 그러나 권율의 독려로 조선군은 다시 반격했고, 우키다와 이시다를 집중 포격해 부상을 입혀 격퇴시켰다.왜군의 공격은 더욱 격렬해졌다. 제5대장 깃카와(吉川廣家)와 제6대장 모리(毛利秀元)·고바야카와(小早川秀秋)는 제2성책을 공격해 일부를 불태웠다. 조선군은 위기에 몰렸지만, 처영이 이끈 승군의 활약으로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제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형태도 사력을 다한 백병전으로 바뀌었다. 왜군의 마지막 공격은 제7대장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가 이끌었다. 그들은 승병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성 가까이까지 진격했다. 전투의 승부처인 이때 조선군과 백성들은 권율의 지휘로 합심해 행주산성을 지켰다. 무기가 떨어진 조선군은 투석전을 폈는데, 이때 부녀자들은 긴 치마를 짧게 잘라 거기에 돌을 운반해 전투를 도왔다.

'행주치마'라는 유명한 이름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1527년(중종 22)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에 이미 "부엌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덧입는 작은 치마"라는 의미로 '치마'라는 단어가 실려있다는 증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볼 때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조선군은 격전에서 승리했고, 권율은 중요한 장수로 급격히 떠올랐다. 적군은 퇴각하면서 자군의 시체를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에 노획한 시체는 2백여 구밖에 되지 않았지만, 타다만 시체는 셀 수 없었으며 노획물도 매우 많았다.

앞서 말했듯이 행주대첩은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꼽힌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승리였던 것이다.

행주대첩 이후인 1593년 중반부터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회담이 진행되면서 전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권율은 행주대첩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명원(金命元)의 후임으로 도원수(都元帥)에 올랐다. 도원수는 그 명칭대로 전쟁을 총괄하는 사령관이었다. 권율은 주로 영남에 주둔했는데, 그 뒤 한성부 판윤·호조판서·충청도 관찰사로 옮겼다가 다시 도원수가 되었다.

이후 권율은 뚜렷한 전공을 세우지는 못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장(明將) 마귀(麻貴)와 울산으로 진격했지만, 역시 명의 장수인 양호(楊鎬)가 퇴각을 지시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서 순천 예교(曳橋)에 주둔한 왜병을 공격하려 했으나, 역시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장(明將)들이 협조하지 않아 실패했다.

임진왜란의 중심적 장수였던 권율은 전란이 끝난 직후인 1599년(선조 32)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한 뒤 그 해 7월에 62세로 별세했다. 전쟁의 영웅에게 수여한 국가의 추숭(追崇)은 성대했다. 그는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04년(선조 37)에는 선무(宣武) 1등공신과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에 책봉되었다. 1841년(헌종 7)에는 행주에 기공사(紀功祠)를 건립해 그곳에 배향되었다. 그가 왜란에서 활약한 공훈은 [권원수실적(權元帥實蹟)]이라는 책으로 간행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권율은 다소 늦은 나이로 출사한 문신이었지만, 거대한 전란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구국의 명장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권율 [權慄]-행주대첩의 명장 (인물한국사)

나. 광해군

광해군(光海君, 1575~1641)은 재위기간(1608~1623) 동안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옥사를 일으켰고, 외교에서는 실리외교를 선택하였다. 이런 그의 정치적 태도는 결국 인조반정으로 축출되기에 이르렀고 끝내 묘호조차 갖지 못한 군주가 되었다.

1592년(선조 25) 4월, 20만 일본군이 부산포 앞바다에 물밀 듯이 밀려왔다. 이른바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 '7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임진왜란은 전투 초반 한성이 함락되고, 국왕이 의주로 몽진하는 등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해전에서 계속되는 이순신의 승전보 소식과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의 활동, 그리고 명군의 참전 등으로 전세가 우리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결국 이 땅 조선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열거되는데, 여기에 하나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광해군의 분조(分朝) 활동이 아닌가 한다.

분조란 말 그대로 '조정을 나누다' 또는 '조정의 분소'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의주와 평양 등지에 상주하였던 선조(宣祖)가 있던 원래 조정과는 달리 전쟁 극복을 위해 광해군이 주도하던 조정을 말한다. 선조에게는 임진왜란 직전까지 적자가 없어서, 당시로써는 후궁 소생을 세자로 책봉해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진왜란 발발 몇 해 전 정철(鄭澈) 등이 건저의(建儲議, 세자 책봉에 대한 논의)를 제기, 정치적 파란이 있기도 하였다.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 조선은 다급했다. 결국 부리나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에게 분조의 책임을 맡겼다. 분조의 책임자 광해군은 전쟁 기간 중 평안도나 강원도 등을 돌며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상도나 전라도 등지로 내려가 군량을 모으고 군기를 조달하는 등 상당한 공로를 세웠다. 그의 분조 활동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분조의 활동 등으로 임진왜란 때 상당한 공로를 세운 광해군이었기에, 그는 아마도 내심 세자의 자리가 굳건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선조가 55세가 되는 해인 1606년(선조 39) 인목대비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이 출생하였다. 더구나 평소 광해군을 내심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선조였기에 광해군의 세자 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유영경 같은 이는 세종 때 고사를 원용해 갓 태어난 영창대군에게 하례를 올리기도 할 정도였다.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조는 간혹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루는 병중에 있던 선조가 족자에 대나무를 그렸다. 하나는 바위 위에 왕대(王竹)가 늙어 바람과 서리를 겪어 꺾이고 마르는 모습이요, 또 하나는 악죽(惡竹)이 왕대 곁에서부터 뻗어나와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데, 긴 마디가 한 치를 넘어, 너럭바위를 넓게 점거한 채 꾸불꾸불 서리서리 엉킨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연한 죽순이 돌 위에 왕죽의 원줄기로부터 뽑혀 나와 어린 가지와 연한 잎이 비록 아직 장성하지는 못했으나, 싱싱하고 운치 있는 바른 죽순이 하늘을 찌르고 달을 희롱할 기상이 있었다.

며칠 뒤 선조는 이항복·이덕형·유영경·이홍로 등을 인견하고는 내시에게 족자를 가져오게 하여 보여주며 이르기를, "내가 병중에 우연히 한 대나무를 그렸는데 솜씨가 어떠한가?"라며 물었다. 그러자 이항복은 머리를 조아리며 신기함을 칭송할 뿐이었으나 유영경이나 이홍로 등은 선조의 의중을 간파하였으니, 이홍로 같은 인물은, "전하의 오늘의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죽은 선조를, 악죽은 광해군을, 어린 죽순은 영창대군을 비유한 것인데, 이홍로나 유영경은 국왕의 의중을 파악한 것이었다. 심지어 선조는 승하 직전 세자 광해군이 문안하는 것을 아뢰면,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르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광해군에 대한 감정을 드러낼 정도였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광해군의 손을 들어 주어 큰 변화없이 세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결국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파란의 예고였다.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말끔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도처에 산재하였다. 왕위에 오른 직후 선조 말년에 자신을 반대하고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세력의 핵심인 유영경과 그 일당들을 제거하였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어서 선조의 승하와 자신의 왕위 계승을 알리고자 연릉부원군 이호민과 오억령등을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조선은 건국 이래 중국과의 사대 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국왕이나 왕비의 승하나 책봉 등이 있을 경우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이를 통보하고 그에 합당한 조서 등을 받음으로써 정통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다. 명나라 조정에서 선조에게 장자가 되는 임해군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차자인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이호민 등이 이런 저런 이유를 말했으나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급기야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결국 임해군에게 미친 행세를 하도록 해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순탄치 않은 왕좌였다.

임해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여 광해군의 왕위가 바로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자신과는 배다른 형제로 적자인 영창대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영창대군의 존재는 항상 광해군의 왕권에 부담이었다. 그런데 광해군에게 엉뚱한 방향에서 호기가 다가왔다. 1613년 유명 가문의 서자 7명이 연루된 모반 사건이 발각되었다. 박순의 서자 박응서를 비롯해 서양갑·심우영·이경준·박치인·박치의·허홍인 등은 서자로서 관직 진출이 막힌 것에 대해서 울분을 품고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박응서 등이 모사를 꾸미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조령에서 은상(銀商)을 살해하고 은을 약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흔히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 한다. 체포된 박응서 등의 취조 도중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대비의 친정아버지 연흥부원군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추대하고 역모를 한다고 발언이 나왔다. 물론 후일 이 일은 포도대장 한희길이 사주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결국 이 일로 김제남은 처형되고 영창대군은 교동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 역시 폐비가 된 뒤 서궁에 유폐되기에 이르렀다.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가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중에 불탄 궁궐을 중수하거나, 민생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는 등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허준을 지원해 동의보감 편찬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조선을 둘러싼 대외관계 속에서 실리외교를 지향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그리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그동안 조선의 사대국가로서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파병으로 재정이나 군사력부분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 그 결과 사방에서 지방 세력이 발호하고 변방에서 야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특히 건주위 여진을 중심으로 한 여진족의 동향은 종전과는 달랐다. 즉 서서히 명나라는 기울어져 갔으며, 반면 여진족은 점차 강성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던 대외관계 속에서 광해군은 국가의 국방 경비를 정비하는 한편 무기 제조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였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멸망하는 용의 꼬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성장하는 뱀의 머리를 잡을 것인가?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광해군은 철저하게 실리를 선택하였다.

마침 1618년 명나라에서 조선에 군사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조선으로서는 앞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둘러서 파병해야만 하였다. 당시 대부분 조정 신료들은 명나라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시세를 관망하였다. 그리고는 끝내 파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파병 군사의 대장이었던 강홍립에게 비밀 교지를 내려 후금과 대적하지 말고 시세를 보아 판단하라고 하였다. 전장에 도착한 뒤 치러진 심하 전투에서 대패하자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지대로 오랑캐 진영과 협상을 하고 무조건 항복하였다.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 일행은 이후 광해군과 개인적인 서신교환을 통해 후금의 동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후금의 누르하치는 조선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축출됨으로써 통상의 다른 왕들이 갖는 묘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국왕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묘호(廟號)이다. 묘호는 국상을 마친 뒤 신위를 종묘에 안치할 때 붙여지는 이름이다. 당사자 사후에 붙여지는 이름이니 당사자들은 알 리가 없는 이름이다. 묘호의 제정은 또한 제정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이다.

흔히 묘호에는 조(祖)나 종(宗)이 붙게 마련이다. 태조니 태종이니 세종이니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광해군은 15년간을 왕위에 재위했음에도 그는 왕자, 그것도 적장자가 아닌 후궁 소생의 왕자에게 붙여지는 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불려지고 있다. 혹자는 그가 후궁 소생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후대이지만 장희빈 소생인 경종과 숙빈 최씨 소생인 영조는 종과 조가 붙여지지 않았는가. 단종은 노산군으로 불리며 묘호조차 갖지 못하다가 사후 250여년이 지난 숙종대 묘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후 어느 시기에도 그의 묘호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광해군이 반정으로 축출된 이유는 패륜적 행위와 외교정책 때문이었다. 당시 지배층인 사림들은 명분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인륜을 중시한 것은 물론이고, 대중국관계에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취한 모습은 이것과 사뭇 달랐다. 이렇게 보면 광해군이 묘호를 갖지 못한 것은 시대의 이상과 다른 방향을 추구한 결과가 아닐까? 이상적으로 본다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명나라를 돕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들을 포용하며 정치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닐까? 이상과 현실의 조화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광해군 [光海君]-조선 중기의 격동기에 실리외교를 택한 군주 (인물한국사)

6. 참고문헌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7차시 근대의 경기

【이야기 하나】 제국주의를 물리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1. 경기도에서 전개된 병인양요

가. 조선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정책

병인양요의 직접적인 원인은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에 대한 일으켜 프랑스 선교사들을 살해한 것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다 병인양요가 발생한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프랑스의 침략적인 식민지정책에서 찾아야한다. 적극적인 대외진출과 동방침략을 추진한 나폴레옹 3세는 1846년(헌종 12)에 인도차이나를 정복하여 식민지를 건설해 나가고 1856년(철종 7)에 영국이 애로우호사건을 계기로 하여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킬 때에 참전하여 중국침략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프랑스정부는 1856년에 인도차이나 기지사령관인 게랑(Guerin) 해군소장에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게랑 해군소장은 조선해역을 정찰하고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군함 베르지니(Vrrgirùee)호를 이끌고 7월 16일 한반도 동해안에 나타나 약 2개월에 걸쳐 조선 해안 전역을 정찰하고 돌아갔다. 기지로 돌아온 게랑 사령관은 9월 30일 해군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조건 및 기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현재 조선은 허약하여 쉽게 열강의 희생물이 될 것이고, 종주국인 청나라 자체가 무능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이미 조선 침략에 손을 뻗치고 있으니 프랑스는 이러한 침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모든 식민지 건설이란 군사적 점령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866년(고종 3) 1월에 풍양조씨 세력이 프랑스 선박의 내항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 남종삼을 비롯한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9명의 프랑스선교사 까지 처형되었다. 병인박해의 내용은 간신히 탈출한 리델 둥 3명의 신부에 의해 프랑스 정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함대사령관인 해군 소장 로즈는 5월 28일 북경주재 프랑스공사 벨로네(H. de Bellonet)와 해군성 장관에게 선교사 살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이에 대한 보복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프랑스는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프랑스의 원정은 로즈사령관이 코친차이나의 총독으로부터 안남인(安南人)의반란 문제로 급히 사이공으로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이공으로 떠나야만 하였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루어졌다. 당시 프랑스정부는 캄보디아와 코친차이나에 보호령과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동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첫째 관심사는 코친차이나의 식민지였다. 이 때문에 로즈사령관은 코친차이나 문제가 해결된 뒤 곧바로 조선 원정에 나설 것이라 고리델 신부에게 약속한 후 일단 사이공으로 떠났다. 이때 북경주재 프랑스공사 벨로네는 본국 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1866년 6월 2일 북경(北京) 총리아문總理衛門)의 공친왕에게 조선에 대한 선전 포고를 통고하였다. 즉. "조선이 중국의 속국 이었으나 이번의 야만적 행위로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조선 왕의 명령으로 선교사들과 신자들이살해 되었으므로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조선의 왕위는 이제부터 프랑스 황제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선언하였다. 벨로네 공사는 자신이 취한 조처를 같은 날 외무성에 보고하였다. 곧이어 벨로네 공사는 로즈사령관이 사이공에서 돌아오기 며칠 전에 그에게 조선 원정을 명령하였다 아울러 프랑스병력을 지휘하게 되는 사람은 외교관인 자신의 책임 아래 있어야하며, 조선에서 벌어진 잔혹한 행위에 대한 복수의 임무역시 자신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행동의 책임과 권한을 자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박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선을 침공함은 물론 왕의 폐위뿐 아니라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점령까지도 주장하고 나섰으며, 사건에 대한 사후조처로 희생자들에 대한보상을 촉구하면서, 국고수입 뿐 아니라 향후 통상을 체결하여 세관까지 소유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로즈사령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선에 대한 보복을 뒤로 미루고 사이공으로 떠난 동안에 도리델 신부와 조선 신자들을 통해 조선 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열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로즈는 해군성장관에게 6월 2일과 7월 14일 잇따라 편지를 보내, 조선원정 계획의 실행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즉 프랑스 선박과 병사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프랑스 정부에 피해가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응징과 보상을 요구 할 것이며, 리델신부와 동행한 신지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선교사들의 죽음을 복수하러 가는 원정에 어떠한 중대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신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포함 2척을 이끌고 리델신부와 조선 신자들을 데리고 조선해안에 가서 그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 한 다음에 원정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조선 원정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던 7월 하순에 로즈사령관은 다블뤼주교가 체포되기 직전에 보낸 편지를 동봉한 만주교구장 베롤르(Verrolles) 주교의 서한을 홍콩에서 받았다. 이들 서신에서 다블뤼 주교는 선교사들의 체포는 프랑스와 프랑스 황제에 대한 모욕이라고 표현하면서 프랑스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리고 베롤르주교 역시 이와 같은 악랄한 살육 앞에서는 어떠한 숙고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조선교구의 신자들은 프랑스 함대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프랑스군 사력을 동원하여 무력을 통한 응징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서한들은 물론 로즈사령관이 조선원정을 단행하는데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다. 7월 28일 사이공에서 지부로 돌아온 로즈사령관은 그 다음날 해군성장관에게 펀지를 보내, 이미 제출한 계획대로 며칠 내로 군함 3척을 이끌고 수도에 인접한 조선 해안을 탐험하여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통고하였다. 한편 벨로네 공사로 부터 받은 서신

에 대해 언급하여 개인적 권한으로 조선에 선전포고하고 자신에게 출전을 명령한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해군성은 뒤에 벨로네 공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외무성에 문의하였다. 외무성은 벨로네 공사의 처사를 월권행위로 인정하고 이러한 월권행동을 문책에는 동시에 그동안 그가 한 선언과 지시를 전부 무효로 선언하고 이후 일체 이 문제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선 원정은 해군성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로즈사령관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로즈사령관의 조선 원정 요청에 대해 해군성장관은 7월 30일 로즈사령관에게 그의 조선원정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한다는 지시문을 보냈다. 이 편지에서 해군성장관은 동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첫째 관심사는 코친차이나의 프랑스식민지임을 먼저 거론한 다음에 선교사들을 살해한 자들의 처벌을 위해 세운 사령관의 조선원정계획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실패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원정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특히 리델신부가 작성한 순박한 보고서를 살펴볼 때, 로즈사령관이 세운 계획이 만일 수도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지적 하면서 선교사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였다. 그가 보기에 선교사들은 선의에 의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보는 사람들 이므로 그들이 주는 정보에 대해 경계 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시모노세끼에서와 같이 내륙으로 원정할 필요 없이 프랑스군함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선교사들을 살해한 자들에게 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한 뒤, 해군성장관은 해군성이나 프랑스정부를 연루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로즈의 책임 아래 그의 휘하의 병력만을 가지고 조선원정에 성공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로즈사령관의 조선원정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나. 병인양요의 전개과정

1) 1차 병인양요

로즈사령관은 본국의 해군성장관에게 서신을 보내어 조선원정을 두 단계로 단행하되, 가을철을 택하여 먼저 예비탐사를 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함대를 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로즈사령관은 조선 수도근방의 해안을 정찰하고자 1846년 계랑 사령관에 의해 작성된 남양만 일대에 관한 지도를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마침내 1866년 8월 10일지 출발하여 한반도로 향하였다. 원정에 동원된 함대는 기함 프리모게(Primauguet)호, 통보함 데롤레드(Deroulede)호, 포함 따르디프(Tar)호 등 3척의 군함으로 편성되었다. 이때 리델신부는 통역으로 최선일, 최인서,. 심순여 1명 둥 3명의 조선 신자들은 물길 안내인으로 원정대에 합류하였다. 덕적군도를 지나 아산만으로 향하는 도중에 풍도(지금의 豊島)를 5마일 로즈사령관이 이끄는 원정함대는 8월 11일 대령 가덕도 통과한 지점에서 처음으로 정박하였다. 8월 12일 날이 밝자 그들은 피난처로 적절한 입파도(立波島) 옆으로 정박지를 옮겼다. 이날 로즈사령관은 통보함 데롤레드호를 파견하여 한강 입구를 찾게 하였으며, 마침내 8월 13일 물길 안내인의 도움으로 한강의 입구를 찾아냈다. 1846년 이래 세실사령관을 비롯하여 프랑스 함대가 내항할 때마다 한강의 입구를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지만 한강으로 통하는 염하 강화해협의 수로가 표시되어 있는 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 하다가 이번 원정에서 비로소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데롤레드호는 정박하기에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조운로(灌運路)를 장악하기에 적합한 작약도 앞바다를 발견하고 잠시 머물렀다. 이때 영종첨사 심영규(沈永奎)가 데롤레드호로가서 사정을 물으려 했으나 방해를 받아 배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조정에서 따로 임명된 통진부사 이공렴(李公濂)과 당시 상경했던 경기연안 수령들을 급히 임지로 보내 이에 대비하도록 조처하였다. 데롤레드호는 다시 염하를 거슬러 올라가 강화부 갑꽂진에 도착하였으며, 즉시 장교 몇이 물에 내려서 요새를 둘러 본 뒤 배로 돌아와 맞을 내리고 밤을 보냈다. 그 다음날인 8월 14일 데롤레드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로즈사령관에게 정찰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같은 날 로즈사령관은 데롤레드호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원정함대 모두 이끌고 작약도 근방 정박지를 확인한 다음 팔미도(八尾島) 앞바다를 거쳐 강화부를 향하여 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암초가 가로막아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시추정라 불리는 마을 근처로 돌아와 정박하였다. 8월 15일 로즈사령관은 프리모게호를 작약도로 돌려보내고 데롤레드호에 올라 따르디프호를 이끌고 본격적인 탐사를 위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두 함정은 염하를 지나 한강어귀로 거슬러 올라가 풍덕리 강에 도달하여 정박하는 동시에 육지로 상륙하여 마을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수로를 탐문하였다. 8월 16일에도 그들은 계속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석곡용 마을 앞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주민들로부터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닭, 채소 등의 식료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은화를 지불했다. 8월 17일 그들은 다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양천현에 도착하여 정박했다. 여기서 다시 소·닭·달걀·채소 둥의 식료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은화를 지불했다. 이때 양천현령이 그 찾아와 "무엇하러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당신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리델신부가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고, 꼭 이 나라를 구경할 생각이다"라고 대답하였다. 8월 18일 그들은 서울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조선선박들을 향해 대포를 쏘아 배들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양화진을 지나서 강에 이르렀다. 그들은 서강에서 1박 하면서 서울 도성 근처의 산천을 세밀히 조사하여 측정하고 지세 등을 지도에 상세히 그려 넣었다. 그들은 3장의 정밀한 해로도를 만들었다, 이때 리델신부는 서강 앞에서 만하루 정박하는 동안 잠시 양화진 인근에 상륙 하였으나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8월 19일 그들은 다시 한강을 따라 김포(金浦), 신동·감안-풍덕에서 각각 1박을 한 후, 8월 22일 작약도에 도착하였고, 8월 23일 이곳을 떠나 8월 25일 출발지인 지부로 돌아갔다. 그러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원되었던 조선의 군사들도 곧 해산되었고, 불안에 떨던 서울의 인심도 점차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요컨대 로즈사령관의 1차 조선 원정은 정찰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조선에서도 적극적인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간에 큰 충돌없이 끝났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가 물러간 뒤 대원군은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입한 것은 천주교도 때문 이라는 이유로 서소문 밖에 있던 형장을 양화진으로 옮겨 프랑스군을 불러들인 혐의가 있는 신자들을 처형하였다. 이후 양화진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적셔진 곳이라 하여 신자들 사이에서는 절두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2) 2차 병인양요

로즈사령관은 지부로 돌아온 뒤 1차 조선 원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2차 조선 원정 계획을 새롭게 구상하였

다. 그는 1차 조선 원정 때 조사하고 측정한 조선 해안과 한강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볼 때 서울을 공격 하려면 자신의 병력만 아니라, 다른 곳에 파견되어 있는 군사력까지도 동원해야 하는 동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거기에다가 프랑스는 조선에 관한 군사정보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박해를 피하면서 선교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정치-제도·군사력·방어력 동 조선 원정에 필요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신자들의 경우도 역시 피상적으로 밖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령관이 전개해야 할 원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1차 조선원정에서도 그러한 정보들은 얻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즈사령관이 해군성장관에게 약속하였듯이, 프랑스 정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만으로 조선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한강 봉쇄작전 밖에 없었다. 따라서 로즈사령관은 한강 봉쇄로 조선정부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원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강의 입구요, 열쇠에 해당하는 강화도를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도 점령계획이 결정되자, 로즈사령관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프랑스함대와 해군을 모집하여 강화도 점령을 위해 면밀한 준비를 갖추었다. 마침내 9월 3일 로즈사령관은 아래와 같은 프랑스함대와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점령을 목표로 하는 2차 조선원정에 나섰다. 로즈사령관은 해군부장관과 약속한대로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7척의 전함과 1. 400여명 가량의 프랑스군을 지휘하며 한강 봉쇄에 나섰다. 9월 3일 지부를 출발한 로즈사령관은 1 차 원정에서 조사 작성한 해로를 따라 모든 함선들을 9월 5일 작약도에 집합 시킨 뒤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다음날인 9월 6일 강화도 상륙에 나섰다, 그는 작약도를 이번 원정의 최후방 정박지로 정하여, 게리에르·프리모게·라뿔라쓰호를 정박시켰다. 그리고 최전방에 포함 따르디프호로 안내를 맡게하고, 프리모게호와 라뿔라쓰호에 타고 왔던 병사들을 8척의 소형보트에 나누어 타게 한 뒤 통보함 데룰레드호로 하여금 이끌게 하였다. 또 다른 통보함 갱장(Kien-Chan)호는 모함 게리에르호의 5척의 소형보트에 분승시켜 끌도록 하였다. 뒤이어 작은증기선이 식량과 무기를 실은 2척의 보트(canot)를 끌고 왔으며, 마지막으로 포함 르브르똥(Le Breton)호가 후방을 맡으며 해상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여러 척의 보트들을 이끌면서 강화도 상륙작전을 펼쳤다. 병사들은 올리비에(Olivier) 해군대령의 총지휘 아래 3개 종대로 나누어 각각 도제리(D' Osery) 해군중령, 보셰(Boche) 해군중령, 뚜와르스깐(Ouar) 해군대위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9월 6일 강화도에 상륙한 이들은 9월 7일 강화읍을 정찰하고, 9월 8일 강화읍을 점령하여 관아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하고 외규장각의 귀중품과 도서들을 전리품으로 장악하였다. 그들은 외규장각 도서 340권과 각종 귀중품 외에 은괴 19 상자도 발견하였는데, 은의 총무게는 887.55kg에 달하였다. 한편 로즈사령관이 강화도를 장악하여 한강을 봉쇄하고 있는 동안 순무영(週無營)에서 보낸 서한, 즉 조선국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서양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책망하고 굴복을 독촉하는 격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로즈사령관은 프랑스 황제의 이름으로 프랑스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프랑스선교사들의 학살에 대한 보상을 받으러 왔다고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프랑스선교사 학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3명의 대신을 엄중히 처벌하고, 조약체결을 위해 전권대사를 자기에게 파견하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로부터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강화도 함락 소식을 전해들은 조정에서는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급히 순무영을 설치하고 이경하(李景夏)를 대장 이용희(李容熙)를 중군, 제주목사 양헌수를 천총에 임명한 뒤 출정하도록 하였다. 또 대원군은 이항노의 주전설을 받아들여 오랑캐를 물리치고 나리를 보존하자는 뜻의 양이보국을 표방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서울과 지방에 엄하게 명령하였다. 9월 18일, 조선인 신자로부터 조선군의 출정 소식을 들은 로즈사령관은 통진(通律) 인근의 문수산성(文珠山城)으로 120명의 정찰대를 파견하여 우수한 무기로 그곳을 지키고 있던 조선 군사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정찰대는 이 전투에서 해군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손실을 입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강화도로 돌아왔으며, 로즈사령관은 포함으로 한강 입구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때 조선의 천총 양헌수가 강화도에 잠입하여 기습을 감행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정족산성(鼎足山城)으로 집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조선인 신자들이 몰래 찾아와서 로즈사령관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로즈사령관은 10월 3일 올리비에(Olivier) 대령으로 하여금 군대 160명을 이끌고 야포 한 대 없이 정족산성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포수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편성된 조선군에 의해프랑스군 29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패로 나타났다. 로즈사령관은 올리비에 대령이 이끈 정찰대가 정족산성에서 크게 패한 다음날 강화도 철수를 결심 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끄는 병력만으로는 지구전으로 대항하는 조선정부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마땅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군은 10월 4일부터 철수를 시작하면서 강화읍내의 모든 주요 건물들과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불태웠고, 200척 이상의 배들을 침몰시켰으며, 화약고를 폭파시켰다. 그런 다음 10월 12일에는 작약도를 떠나 입파도에 정박하였고, 10월 15일에는 완전히 조선해역을 떠나 2척은 일본으로 1척은 지부로, 그리고 나머지 4척은 상해로 돌아갔다.

요컨대, 조선정부는 결연한 항쟁 의지를 가지고 지구전을 전개한 결과 인도차이나 식민지 건설로 인하여 한정된 병력만으로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게 되었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승리에 도취되어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더욱 심하게 박해하였다. 한편 1867년(고종 4) 4월 벨로네의 후임으로 북경에 부임한 랄르망(Leman) 공사는 프랑스제국과 프랑스함대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에 대한 재차 원정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로운 원정이 계획 될 경우 그것은 과거처럼 선교사 학살에 대한 보상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고 통상이란 보다 보편적인 목적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정부는 인도차이나의 식민지 경영에 바빴기 때문에 랄르망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경기도에서 전개 된 신미양요

가.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그 진상조사

신미양요는 미국 국적의 제너럴셔먼호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하였다. 1866년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이르러 통상을 요구하였는데, 영국의 메도우즈 상사(Meadows and Company)가 빌린 미국 국적의 셔먼호에는 선주 프레스턴w. B. Preston) 등 미국인 3명, 통역을 담당한 프로테스탄트선교사 토머스(Robert

Jermain Thomas) 등 영국인 2명, 중국인 13명, 흑인 2명 등 총 19명이 타고 있었다. 전에 이미 조선포교의 꿈을 가지고 조선어를 익히고 조선 해역을 순방한 일이 있는 토머스는 단순히 통역에 그치지 않고 조선과의 접촉을 주도하고, 병인박해 거론하며 조선에 위협도 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선은 셔먼호가 영국 혹은 프랑스 국적의 선박이라고 오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평안중군平安中軍)을 납치하는가 하면 식료품을 약탈하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였다. 그들은 철수 하는대가로 많은 미곡·금·은·인삼을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현지 관리와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불에 타 침몰하였으며 승무원들도 모두 살해당했다.

이 셔번호 사건은 병인박해 때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간 리델 신부에 의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북경주재 미국공사 벌린게임(AnsonBwgame)은 영국 프랑스와공동으로 조선을 원정할 것을 본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존슨Andrew Johnson) 행정부의 슈어드(William H. Sewa:d) 국무장관은 별린게임 공사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에 별린게임 공사는 청나라 총리 아무음 통해 조선측에 생존 승무원이 있으면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함대사령관 벨CH.H. BelD 제독에게 전함을 파견하여 셔먼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요구하였다. 벨제독은 벌린게임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전통문화에 대해 남다른 인식을 갖고 있던 외추세트(Wachushett) 호의 함장 슈펠트Robert W. S hufeldt)에게 셔먼호 사건 진상 조사의 임무를 맡겼다. 슈펠트는 1866년 12월 황해도 장연에 도착하여 〈장연현감에게 보내는 편지〉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들 서한은 조선이 서양관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한 문서 중 최초로 예의 바르게 외교적 수사를 사용한 문건이었다. 전에 평안도 지역에 조난되었다가 구조 되었던 서프라이스(Surprise) 호의 메케슬린(McCaslin) 선장과 조선에서 탈출한 프랑스의 신부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치밀하게 입수한 슈펠트는 미지의 국가 조선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격식을 차렸던 것이다. 슈펠트는 섬주민들로부터 셔먼호는 조선측의 항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고. 선원들이 불법적으로 상륙하여 함부로 폭력을 자행하자 이에 격분한 조선군민들이 그 습격하여 살해하였으며, 이같은 일은 당국으로서도 제어 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조선국왕의 회답을 받지못한 채 1주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은 뒤에 다시 슈펠트와 동행했던 중국인으로부터 서양인 2명과 중국인 2명이 조선에 생존해 있디는 소문을 전해 듣고 셰난도(Shenand oah) 호의 함장 페비거(John. C. Febiger)를 보내 진상을확인하게 하였다. 1868년(고종 5) 3월 대동강 하구에 출현한 셰난도어호의 함장 페비거는 삼화부사를 통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선측 에서는 직접 대원군의 서한을 전달했다. 그러나 페비거는 대원군의 서한에 만족하지 않고 평양에서 양인 2명과 중국인 2명이 억류되어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의 승인도 없이 군함을 이끌고 평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침략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그 소문을 최초로 발설한 김자평(金子平)을 잡아다가 대질 신문해서 미국이 전해들은 소문이 헛소문이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결국 페비거와 셔먼호 승무원들은 모두 살해되었으며, 그까닭은 그들이 한국인들에게 성급하고 난폭하게 행동한데 있다는 결론을 얻고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나. 신미양요의 전개과정

페비거가 조선을 다녀간 이후 미국에는 존슨 정부를 대신해서 그랜트(UlyssesGrant) 정부가 어섰고, 북경주재 공사 도로우(Frederich F. Low) 로 바뀌었다. 새로운 정권의 국무장관인 피쉬(Hamilton Fish)는 상해 총영사 조지슈어드(George F. Seward)의 제안을 받아들여 셔번호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조난선원 구흘협약을 체결하되 가능한한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로저스(John Rodgers) 가 인솔하는 아시아 함대를 동원하되 협상은 문관인 로우공사가 담당하게 하였다.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Matthew C. Perry) 제독의 포함외교를 본뜬 것이었다. 로우논 아시아 함대의 출발과 조선방문 목적 등을담은 미국의 공한公輪)을 청나라 조정을 통해 사전에 조선정부에 전달했다. 그 내용은 조선과조난선원 구흘협정을 맺기 위해 미국의 공사를 파견 할 것이니, 조선은 고위관료를 선임해서경에서 협상을 갖자는 것이었다. 1871년(고종 8) 4월 군함 5척으로 구성된 미국함대가 조선의해안에 정박하자 미국선박이 올 것을 예상했던 조선정부는 유원지의柔遠之義) , 즉 먼데서 온사람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3명의 관원을 기함콜로라도(Colorado) 호에 파견했다. 그러나 로우공사는 조선관원들의 직급이 낮고 정부의 신임장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접견을 거부하고 드루(B. Drew) 서기관에게 대신 접대하게 했다. 드루서기관은 미국 특사인 로우공사와 대등한 고위관료를 파견할 것과 로우공사가 펼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소형함정이 탐측(探測) 작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는 것 등을 통고 했다. 그 다음날 미국은 일방적으로 소선 4척과 포함 2척을 동원하여 염하 일대를 측량, 정찰하였다.

함대가 염하를 측량한 뒤 손돌목을 지나 광성진으로 나가려고 하자 연안을 경비하고 있던 우리 포대에서 포문을 열고 공격하였다. 덕진진·초지진에서도 합세하였다. 조선군은 200여발의 포탄을 미국 탐측함대에 집중 포격했지만, 미국 함정은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단지 2명의 부상자만 냈을 뿐이다. 손돌목 포격사건 뒤 로우공사는 해변에 꽂아둔 장대에 매단 편지를 통해서 미국군함의 탐측항해의 정당성과 셔먼호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한 조난 선원구흘문제를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강화도 진무사 정기원u皮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우리 영토를 불법 침입한 것을 문책함과 동시에 통상조약교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로우공사는 드루서기관의 이름으로 된 반박서를 보내 무단공격의책임은 조선군민의 망동에 있고, 3, 4일내에 협상 할 뜻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측은 자유행동을 취할 터이니 각오하라고 협박하였다. 조선측에서 협상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않자 로우공사는 무력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무력공격을 단행했다. 미국군은 초지진과 덕진진을 차례로 점령한 뒤 진무중군鎭無中軍) 어재연魚在淵)이 경군京軍)을 거느리고 엄중히 수비하고있는 광성보를 함락시키고 성조기를 내걸었다. 어재연이 거느린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항전했으나 절대적인 화력의 열세로 완패했다. 이 전투에서 미국군은 전사자 3명, 부장자 10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조선군은 전사자 350명, 부상자 20명의 피해를 입었다. 이 승리로 미국군은 조선측에 대한 당초의 계획, 즉 위협과 보복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1일간 머무른 뒤 광성보에서 자진 철수하였다.

전투에서 졌지만 조선정부는 지구전을 전개할 경우 끝내 미국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민심을

결속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결연한 척화 의지를 담은 국왕의 교서敎書)를 전국에 반포하여 민심을 단결시켰다. 그런 다음 서울의 종로와 8도 각지역에 척화비를 건립하여 척사사상을 고취시켰다. 조선정부는 패전에 당황하여 곧 어떤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로우공사에게 도리어 미국의 강화도상륙작전을 비난하는 부평부사 이기조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로우공사는 드루 서기관 명의의 답서를 보내 부평부사의 주장 을반박하고 아울러 조선국왕 앞으로 보내는 공한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기조는 자신을 1개 지방관으로서 로우공사의 문서를 국왕에게 전달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공한 수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드루서기관에게 보낸 마지막 답신에서 손돌목 포격은 불법 침입한 외국군함에 대한 조선의 정당한 조처였고, 이에 대해 조선측이 유감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화도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을 비난하였다. 아울러 로우공사가 조선국왕과 동등한 자격으로 펀지를 보낸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조난 선원 구흘은 그동안 조선정부가 변함없이 시행하던 원칙이므로 새로운 조약체결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조선정부는 외교교섭에 응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로우공사와로저스사령관은 당시의 보유병력으로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강행할 처지에 있지 않았고, 또 그러 한행동은 본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령 밖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드루서기관의 이름으로 이기조에게 공문을 보내 조선측이 외교교섭의 책임을 갖고 있는 특사의 접견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논하였다. 또한 장차 미국국민이 조선내에서 조난되었을 경우에는 구조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뒤 그 다음날 아시아함대를 이끌고 조선해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소식이 서울에 알려지자 관리와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하고 서양을 배척하는 의식도 강해졌다. 대원군도 의기양h하였으며 그의 쇄국정책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서 서양을 배척하는 결의를 다지는 한편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였다. 미국함대가 떠나 간 뒤인 5월 24일 고종은 좌·우포도대장에게 교서를 내려 천주교도를 남김없이 잡아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교서에 따라 미국함대가 떠나간 뒤에도 천주교인들이 잡히어 좌포도청에서 문초를 받게되었다. 이러한 박해의 추세는 다음해 말까지 이어져 많은 신자들이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요컨대 미국정부는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계기로 포함외교를 앞세워 조선을 개항시키려하였으나 조선이 순순히 응하지 않자 도발을 자행하여 조선군이 미국함대에 포격을 가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조선군의 선제공격을 문제 삼아 미국군대가 반격을 가하여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광성보를 일시 점거했다가 자진하여 물러가 외교적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전쟁 후 서부개척에 여념이 없을 때였으므로 조선정부의 뜻밖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는 그것을 물리칠만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어서 물러가게 되었던 것이다. 신미양요는 병인양요와 마찬가지로 포함외교를 구사하는 자본주의 열강이 군함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조선의 영토를 강점한 침략이었다. 그러나 서로 차이점도 있었다. 첫째. 조선의 영토를 강점한 후 조선군이 최후 통첩을 보낸 이후에나 자신들의 목적을 알린 프랑스군과 달리 미국군은 조선에 출발하기이전에 중국을 통해서 조선정부에 자신들이 조선에 갈 것을 사전에 알렸다. 둘째 '조선영토에 장기 주둔하고 강화도 내의 비전투시설 등에 대해서도 약탈과 파괴를 일삼은 프랑스군과 달리 미국군은 광성보를 점령하여 일시 성조기를 게양하기도 했지만, 즉각 철수했고 그들의 공격도 전투시설에 한정되었다, 셋째, 병인양요를 계기로 조선과 비우호적인 실질관계로 악화되었고 이후에도 비우호적인 실질관계를 해소할 의도가 없었던 프랑스와 달리 미국은 비록 신미양요를 거쳤지만 조선과 비우호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신미양요가 발생했음에 도불구하고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비우호적인 관계로 악화된 것 이아니라, 신미양요 과정에서 양국이 공식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실질관계는 더욱 진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된 실질관계 바탕위에서 조선은 서양 여러나라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1882년(고종 19) 조미수호조규를체결했다. 이때 파견된 미국의 전권대신은서양관원이 조선에 보낸 공식 문건중에서 최초로 예의있는 문서를 작성했던 슈펠트였다.

3. 두 양요 후 경기연안의 국방력강화

병인양요 이전에는 강화에서 한강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는 수로가 외국군에게 노출되지 않았다. 1840년대 후반기 이후 많은 이양선이 조선의 연안에 빈번하게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심을 측정하기도 하였지만, 서울로 들어오는 수로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1866년 8월 1일 프랑스군의 침입을 예상하고 연해 각읍에 자금을 내려주며 방비책을 세울 때 대체로 인구 및 해안선의 길이. 보유선박 등을 기준으로 각 도별로 할당했다. 그러나 병인양요로 인하여 강화에서 한강을 거쳐 서울로 들어오는 수로가 프랑스군에 의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프랑스함대는 1차 병인양요 때 조선 신자들의 안내를 받아 한강의 입구를 찾아낸 뒤 염하를 지나 한강을 거쳐 양화진까지 오르내리면서 수로와 수심 등을 세밀하게 측정하여 해로도를 작성하였다. 이 해로도를 이용하여 프랑스함대는 2차 병인양요 때 쉽사리 강화도를 점령하고 한강의 입구를 봉쇄할 수 있었다. 이후로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는 이양선이 강화도에 자주 출몰하였다. 이와같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강화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수로가 병인양요로 인하여 적나라하게 외국군에게 알려짐에 따라 조선은 국방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협을 받게되었다. 실제로 2차 병인양요 때 프랑스함대는 한강의 입구를 봉쇄하여 조운선의 출입을 막아 서울의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여 항복하게 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전쟁이 끝난 후 에 프랑스사령관 로즈는 언제라도 서울로 침입할 수 있는 수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을 전쟁의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외국군에 대한 방비책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즉 그동안 전통적으로 최우선시 되어왔던 평안도와 함경도 및 동래지역에 대한 군비증강책은 수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강화도를 비롯한 경기도 연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군비증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서울을 향해 침입하는 외적들에 대한 단순한 방어선만이 아니라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조운선이 강화도 연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강화도에 대한 위협은 서울의 식량에 직접적인 위협이되었다.

따라서 강화도는 외적의 서울 침입을 저지하는 소극적-넘어서 그곳 자체를 지켜야 등 적극적인 전략적 임무가 새로이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군대가 철수한 뒤 전례없는 군비증강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강화도진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강화도의 방비를 진무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였다. 이전까지는 문신인 강화유수가 진무사를 겸하게 되었고, 강화유수는 또 경기감사가 겸하게 되었는데, 병인양요 뒤에는 무신인 진무사가 강화유수를 겸하게 하고, 경기감사의 강화겸직도 폐지하였다. 진무사의 품계도 종품에서정2품으로 승격시켰으며, 강화유수가 의정부 당상을 겸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여 강화유수를겸하는 진무사가 강화에 전념하게 하였다. 또한 교동부사가 겸하던 경기수영 및 삼도수군통제사를 진무사가 겸하게 하였다. 즉 경기수영이 관할하던 변장휴에 대한 통제를 진무사가 넘겨받았다. 그리고 교동과 영종을 진무영의 좌-우 해방장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군사통제권을 진무사가 겸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교동이 거느리고 있는 영종·덕포·덕진화양- 주문·장봉동속진(屬鎭)에 대한 통제권도 진무영에 이속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처로 진무사의 권한은 더욱확대되었다. 다음으로 병인양요 뒤에 진무사가 주도하여 별무사와 통진무영의 병력을 크게 증강하였다. 특히 신미양요 이후에 진무영의 병력이 대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미군이 철수한 지 며칠 뒤 심도포량미을 징수해서 약 3.000~4.000명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1874년 고종11 당시 진무영의 총병력은 3,300명이었다. 당시 서울에있는 군영의 병력이 훈련도감 5,198명, 금위영 1,841명, 어영청 2,089명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대규모 병력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군사들은 정예병인 포군이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대항하여 조선군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인 것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 전투였는데, 모두 지방에서징발한 포수들을 매복시켰다가 일제히 조총을 발사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전과를 토대로 정예병인 포군을 중심으로 진무영의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차출되어 파견무를 하는 번상보다는 급료를 받고 장기근무를 하는 장번군長番軍)이 위주가 되었다.

아울러 진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군비도 확충했다. 즉 병인양요를 치른 직후 강화의 배후가 되는 풍덕을 읍으로 복구해서 다시 진무우영(鎭無右營)으로 삼고 정예병인 포군을 설치하였으며, 다른 진영에도 역시 정예병인 포군을 설치하였다. 또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 기함과 신미양요 때 미국군 기함이 모두 인천만에 있는 작약도와 월미도 사이에 정박했었기 때문에 인천만의 남쪽에 있는 대부도(大후島)에 대부진大후鎭)을 설치하고, 인천의 방비도 강화하여 정예병 인포군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수원 개성·광주 3개 유수부의 군비도 강화하여 정예병인 포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진무영에 비하면 그다지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는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를 위한 가상전투지가 강화도-연강(治江)-도성-북한산성의 방향으로 잡히고 수원이나 개성은 이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광주는 그 보조적인 역할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병인양요 이후 서양 침략군의 예상 침입로는 강화도에서 한강을 거쳐 도성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군비 증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강화도에 대한 방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이야기 둘】 경기도의 의병운동

1. 경기도 연합의병진으로서의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 성립

1) 이천수창의소의 성립과정

전기 의병은 189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의병항쟁은 1895년 12월 30일 단발령(斷髮令) 공포에서 비롯되었다. 단발령이 공포되자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로 인해 부분적으로 일고 있던 의병봉기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전국의 양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즉 단발령 공포 이전 소규모적인 의병항쟁의 사례가 보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활동은 단발령이 공포된 후 '이천수창의소'의 성립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천수창의소' 의병진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김하락(金河洛)·조성학(趙性學)·구연영(具然英)·김태원(金泰元)·신용희(申龍熙) 등인데 이들은 거의(擧義)에 나서기 이전 모두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은 단발령 소식을 듣고 다음날 12월 31일 이천으로 이동하여 의병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들이 이천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천군 화포군(火砲軍) 도영장(都領長) 방춘식(方春植)이란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방춘식은 위의 다섯 사람 중 경기도 광주 지역과 연고 관계를 갖고 있는 구연영과 이전부터 면식 관계에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 김하락 일행은 이천에 도착하자 우선 방춘식을 방문하여 의병 활동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방춘식은 이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천에서 병사를 모으는데 있어 방춘식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방춘식은 포군 100여 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고, 김하락을 위시한 다섯 사람은 이들을 분담, 인솔하여 의병 모집에 착수하였다. 구연영은 양근(楊根)·지평(砥平)으로, 조성학은 광주(廣州)로, 김태원은 안성(安城)으로, 신용희는 음죽(陰竹)으로 각각 출발하였고, 김하락은 이현(梨峴)에 남아 총지휘관의 역할을 담담하였다.

이천 지역 관포군들의 지원에 힘입어 의병 모집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구연영은 양근·지평에서 300여 명을, 조성학은 광주산성의 별패진 포군 300여 명을, 신용희는 음죽·죽산(竹山)에서 화포군 300여 명을 모집해 왔고, 김태원은 안성에 들어가 이미 거의(擧義)해 있던 민승천(閔承天)과 합세하기로 약속하였다.

김하락 일행은 의병 모집에 나서자 곧 900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이천에서의 의병봉기 소식이 인근에 전해지자 용인(龍仁)·안성·시흥(始興)·수원(水原)·안산(安山) 등에서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호응해 이천으로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천수창의소' 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천수창의소는 조직구성원으로 볼 때 경기도 연합의병진의 성격을 갖는다.

이천수창의소가 위와 같이 대규모 의병진으로 조직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이천수창의소가 조직되기 이전 이미 이천을 중심으로 의병봉기의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고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일본『동경조일신문(東京朝日新聞)』의 12월 27일자에 의하면 "충주부내 충주·이천·음죽·제천·괴산·진천 등 각군 적도(賊徒)

횡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발령 공포 이전 중부 지역 일대에 이미 산발적인 의병봉기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연합의병진이 단시일에 대규모 의병진으로 결성될 수 있던 배경에는 이러한 선행 민중봉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 의병 봉기의 이념

일반적으로 전기 의병은 갑오개혁, 을미사변, 단발령에 반대하여 일어났고 따라서 의병 봉기의 이념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주자학적 문화 이념 및 갑오(甲午)·을미(乙未)개혁에 반대한 복고주의 정치 이념'으로 정리된다. 이천수창의소의 경우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연구를 심화한다는 의미에서 사료를 통해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자.

이천수창의소의 봉기 계기는 봉기의 시점(時點)에 비중을 둔다면 단발령의 공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살펴보면 봉기의 계기는 단발령 공포 이전부터 복합적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김하락이 저술한 『진중일기』에는 봉기의 이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개국(開國) 504년 성상(聖上) 32년 을미(乙未)에 나라 운수가 큰 액을 만나 난신(亂臣)이 정권을 잡게 되자 혁신이란 표어를 만들어 어진 선비를 배척하고 섬 오랑캐와 암통(暗通)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수천 년 동안 호시탐탐하던 왜적이 문호개방의 기회에 편승하여 그해 6월에 적의 군사 10만 명이 바다와 육지로 한꺼번에 진출하여 각 항구와 요새에 기지를 만들고, 동래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3천 리에 뻗쳐 수십 개소에 진을 치고 마침내 도성(都城)으로 돌진해 왔다. 이때 역적놈들은 밖으로 왜적의 세력을 끼고 안으로 임금을 협박하여 오래 전 국법으로 제정된 우리 의복을 다 버리고 되놈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게하여 8도의 수령과 서울 안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검은 옷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심이 흉흉하여 혹은 깊은 산골로 도망가고 혹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가기도 하였다. 이해 8월 21일 밤에 적신 유길준(兪吉濬)·정병하(鄭秉夏)·조희연(趙羲淵)·장박(張博) 등이 일본 군대를 불러 군중에 들어와 난을 일으키고 안 대궐로 넘나들어 우리 국모를 살해하였으니 아 지극히 통분한 일이었다. (중략) 11월 15일(음력-인용자) 밤에 유길준 등 여러 적당이 머리깎는 칼을 가지고 대궐 안에 들어와 임금의 머리를 강제로 깎고 이어 조신(朝臣)들의 머리를 깎으며 다시 관리와 병졸을 발동시켜 그 칼을 가지고 사방으로 횡행케하여 도성 안 사람들이 대개 늑삭을 당하며 이 화를 면한 자는 극히 적었다. 이른바 예의의 나라가 이토록 부패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위의 자료에 의거해 이천수창의소의 봉기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을미개혁에 의한 국정의 문란과 일제의 내정간섭
② 그로 인한 전통 문화의 파괴
③ 청일전쟁을 명분으로 한 일제의 불법적인 군사 침략
④ 친일 관리들의 몰지각한 친일행태
⑤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
⑥ 단발령의 강행

위의 기록으로 보면 단발령의 공포가 없었더라도 이천수창의소의 의병봉기는 곧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단지 이러한 상황에서 단발령은 점화제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위의 의병봉기의 원인은 바로 의병봉기의 이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천수창의소의 봉기 이념은 '반(反)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압축된다. 이는 김하락이 영덕전투에서 패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우리 500년 예의의 나라가 견양같은 오랑캐에게 먹힌단 말이냐. 아! 우리 수천 만 민족이 과연 희생의 참혹을 면하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차라리 고기 뱃속에 장사할망정 살아서 욕을 당하지 않겠다.

2. 이천수창의소의 조직 구성

1) 주도 인물의 성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천수창의소의 성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김하락·조성학·구연영·김태원·신용희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천수창의소 주도 인물의 성격을 가늠해 보자. 김하락(1846~1896)은 자(字)는 계삼(季三), 호는 해운당(海雲堂),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경북 의성 태생으로 김운휘(金運輝)의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초명(初名)은 김길주(金吉周)이다.

가문의 관력(官歷)을 보면 13대조 김거두(金居斗)가 공조전서(工曹典書), 16대조 김한계(金漢啓)가 집현전 승문원사(崇文院事)를 지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는 당쟁으로 인해 벼슬길이 막혀 증조부 김기수(金琦洙), 조부 김동화(金東和), 부친 김운휘를 포함, 김하락 자신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김하락은 전형적인 재야유생(在野儒生)으로 볼 수 있다. 김하락은 어릴 때 황학산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수학하였는지 밝혀져 있지 않아 학통(學統) 관계는 불분명하다. 같은 전기 의병 시기의 의병장인 김도현은 김하락의 인물됨에 대해 '키가 크고 시원스러우며 그 말은 쾌활하고 씩씩하다'라고 적고 있는데, 김하락은 유생이면서도 무인적 기질이 다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하락은 동료 중 연장자일 뿐 아니라 활동에 있어서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

조성학은 김하락의 이종제이다. 조성학은 경북 풍기에 거주하고 있었고, 김하락의 권유로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다. 어릴 때는 대구 팔공산에서 수학하였다고 하는데 학통은 불분명하다. 김하락과 마찬가지로 재야유생의 범주에 해당된다. 조성학은 주역에 근거한 군사적 소양을 바탕으로 전투 수행시 주요 방침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구연영은 1864년 6월 20일생으로 자는 춘경(春景), 본관은 전남 화순군 능성(綾城)이다. 구연영의 집안은 선조

(宣祖) 때 이후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에 대대로 세거(世居)하여 왔다. 그러나 구연영 자신은 구철조(具哲祖)의 3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구연영은 한때 관직에 종사하였으나 조정(朝廷)의 부패가 심화되어가는 것을 목도하고 사직하였다. 즉 구연영은 신분상 전직관료로 분류된다. 김하락을 위시한 구연영의 동료들이 이천으로 이동해왔던 배경에는 광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연영의 제안이 설득력있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은 1863년 9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는 춘백(春伯), 호는 집의당(集義堂), 본관은 해풍(海風)이다. 가문의 관력을 보면 시조 김숭선(金崇善)이 고려 예부 상서를 지냈고 후손들도 누대로 관직에 등용되었다. 김태원 자신은 의진(義陣)에 참여하기 전 별군직(別軍職)과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하였다. 김태원은 신분상 현직 관료로 분류된다. 김태원은 의병 활동을 하면서 유인석과 인연을 맺어 그의 문인이 되었다. 유고로 『집의당유고(集義堂遺稿)』가 있다.

신용희는 호는 운호(雲湖), 자는 이현(利現),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그외에 신용희와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의 족보에 관직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야유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 이천수창의소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는 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도 인물들의 성향은 유생 계층으로 규정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 처지는 각각 달랐다. 김하락·조성학·신용희는 재야유생, 구연영은 전직 관료, 김태원은 현직 관료의 신분이었다. 연령 구성을 보면 김하락이 가장 연장자로서 50세이고, 김태원이 33세, 구연영이 32세로 확인되는데 즉 이천수창의소 주도 인물의 연령은 중장년층으로 볼 수 있다.

학통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김하락이 김도화 계열과 연결되기는 하나 특별한 학문적 연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김태원은 의병활동 중 유인석의 문인이 되지만 의진 결성 당시에는 뚜렷한 학통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천수창의소는 전기 의병의 일반적 특징인 척사의진(斥邪義陣)의 성격은 미약하고 근왕의진(勤王義陣)의 성격이 강하다.

2) 의병진(義兵陣) 결성 초기의 조직 구성

이천수창의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의 지도부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창의대장 : 민승천(閔承天)	
각군도지휘 : 김하락	도총 : 조성학
좌군장 : 김귀성(金龜性)	우군장 : 신용희
선봉장 : 김태원	중군장 : 구연영
후군장 : 박주영(朴周英)	소모 : 전귀석(全貴錫)
유격장 : 김경성(金敬誠)	돌격장 : 심종만(沈鍾萬)
도지휘 종사 : 안옥희(安玉熙)	대장종사 : 최순룡(崔順龍), 김명신(金明信)
도총종사 : 조순희(趙舜熙)	중군종사 : 최진엽(崔鎭曄)

이는 상층 지휘부이고, 중간층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1기〉	1대 십장 : 허봉룡	2대 십장 : 김봉학	3대 십장 : 이경운
〈2기〉	1대 십장 : 이상태	2대 십장 : 김한용	3대 십장 : 표금하
〈3기〉	1대 십장 : 문기현	2대 십장 : 이준성	3대 십장 : 신탁원
기총 : 고기준			
	1초 초관 : 김순삼	2초 초관 : 고응선	3초 초관 : 권영수
	4초 초관 : 홍대현	5초 초관 : 김만석	6초 초관 : 한석기

조직 편제의 체제를 보았을때 우선 전형적인 전투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같은 전투형 조직은 전기 의병 여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나 유격장·돌격장의 직책은 여타의 의병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직책이다. 그리고 편제 조직이 구체적인 점도 특징이다.

창의대장(倡義大將)에는 민승천이 추대되었다. 민승천은 이천수창의소에 참여하기 이전 이미 안성에서 대규모 의병진을 이끌고 봉기한 인물인데 이러한 선행 봉기로 인해 이천수창의소에서도 창의대장에 추대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천수창의소는 경기도 연합의병의 성격을 띠면서도 이천과 안성에서의 참여 비중이 높았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외 상층 지도부의 주요 직책은 김하락·조성학·구연영·김태원·신용희가 맡았다. 전기 의병진은 대부분 향토성의 성격을 보이지만 이천수창의소는 서울에서 이동해 온 인물의 비중이 높다.

나머지 지도부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다.

도지휘 종사 안옥희 : 광주 출신
후군장 박주영 : 여주에서 활동하던 인물
돌격장 심종만 : 음죽에서 활동하던 인물
좌군장 김귀성 : 이천에서 활동하던 인물
3기 2대 십장 이준성 : 광주에서 활동하던 인물
1초 초관 김순삼 : 광주 출신
2초 초관 고응선 : 광주에서 50명의 포군을 거느리고 의병 활동을 하던 인물

즉 이천수창의소의 지도부는 출신 지역으로 볼 때 서울, 경기도 각지의 연합체적 성격을 보인다. 즉 이천수창의소는 병사 조직의 측면에서 경기도 연합체의 성격을 보이지만, 지도부 간부도 각 지역에서 이동해 온 대표성을 띤 인물로 구성되었다.

다음 병사계층에 대해 살펴보자. 이천수창의소의 병사계층에는 많은 관포수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적이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남한산성의 별패진 군관 300여 명, 양근·지평의 군사 300여 명, 음죽·죽산의 화포군 300여 명, 이천 화포군 100여 명 등 약 1,000여 명의 관포수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면에서 이천수창의소는 여러 전기 의병진영과 비교해 볼 때 강력한 전투력을 소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천수창의소의 초기 조직은 1896년 1월 17일 고종의 의병봉기 촉구 비밀조칙이 전달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고종의 조칙은 다음과 같다.

왜적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가의 안위(安危)가 조석에 박두했으니 힘을 합해 적을 토벌하라. 경(卿)들의 자손에게 후한 녹을 내릴 것이다. 김병태를 산남창의(山南倡義) 도지휘사(都指揮使)로 삼고 계궁량(桂宮亮)을 목인관(木印官)으로 삼아 장차 목인(木印)을 선포키로 한다. 경기도는 순의군(殉義軍)이라 하고, 충청도는 충의군(忠義軍)이라 하고, 영남은 장의군(仗義軍)이라 하여 8도에 반포하노니 8도 각 고을은 모두 호응하여 창의하기 바란다.

이 조칙이 전달되자 의병진은 사기가 더욱 충천되었다. 참모 이춘영은 충주·청주에까지 가서 의병봉기를 호소하였고, 소모 전귀석은 여주 의병장 심상희(沈相禧)와 만나 장차 연합하여 활동할 것을 협의하는 등 의병진의 활동 영역도 더욱 확대되었다.

3. 이천수창의소의 초기 전투 활동

1) 백현(魄峴)전투

1896년 1월 17일 의병진의 결성이 마무리 되었을 때 일본군 수비대 보병 100여 명이 이천으로 공격해 왔다. 이때 의병진에서는 복병전술로 대항할 것을 계획하였고, 조성학·김태원·김귀성·신용희 등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백현을 중심으로 야산에 매복하면서 일본군 수비대를 기다렸다. 1월 18일 일본군이 도착하자 조성학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전투 상황에 대해 김하락의 『진중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른 아침에 조성학은 적을 맞아들여 두 시간 가량 격전을 하다가 갑자기 쇠북을 울리며 퇴군하여 백현으로 향해 달아나니 적병이 고함을 치며 뒤를 쫓아와 백현 아래 당도하였다. 그때 문득 대포소리가 울리며 구연영은 전면을 가로막고 김귀성·신용희는 산 중턱으로부터 쏜살같이 내려오고, 조성학은 적의 갈길을 차단하여 사방에서 협격하니 적은 포위망 속에 빠져서 진퇴의 길이 없었다. 나는 군사를 지휘하여 엄습하였는데, 적병의 죽은 자가 수십 명이었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상한 자가 없었다. 한참동안 무찌르다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초생달은 서쪽 하늘에 떠있는데 (중략) 이윽고 달은 지고 저녁 10시 경이 되자 적은 한가닥 길을 찾아 암암리에 돌아갔다. 좌우의 우리 군사는 밤새도록 뒤를 쫓아 광주 장항 장터에 도착하였다. 바로 초 닷새날 새벽이었다.

의병진은 첫 전투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상대로 낮밤을 계속해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고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해 완전히 섬멸하는 쾌거를 올렸다. 당시 일본군 수비대는 180여 명이 출동하여 불과 2~3명 만이 살아 돌아갔다고 하는데, 기록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의병진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사실은 틀림없다.

백현전투에서의 대대적인 승리는 전기 의병사상 최초의 대규모 승리 전투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백현전투 이전에도 산발적인 전투는 있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승리는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승리는 이후 의병봉기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 이현(梨峴)전투

이현전투는 이천수창의소 의병진이 벌인 두번째 전투이다. 백현에서 참패했던 일본군 수비대는 1896년 2월 12일 약 2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재차 이천으로 공격해왔다. 이때 김태원은 1초군을 거느리고 최전방에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역할을 맡았고, 이외 조성학은 원적산(圓寂山)에서, 구연영은 1초군을 거느리고 이현 동구에서, 신용희와 심종만은 각각 1초군을 거느리고 김태원의 후방에서 복병하고 있었다. 곧 총격전이 시작되었으나 쌍방이 모두 물러나지 않는 접전이 하루종일 전개되었다.

다음날 새벽 다시 접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의병진을 향해 서북풍이 불고 눈보라가 일어 전세가 지극히 불리하였다. 이때 눈보라를 등진 일본군이 일시에 공격하자 의병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한 채 흩어졌다. 당시의 치열했던 상황을 『진중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30일(음력-인용자) 새벽녘에 적병이 또 와서 공격하므로 여러 장수들이 힘을 모아 전진하여 두어 시간 동안 큰 싸움을 벌였는데 10시 정각에 이르러 서북풍이 크게 불어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이윽고 큰 눈이 사뭇 내려 지척을 분별하기 어려웠다. 이때 적의 군사는 서북을 등지고 동남을 향하고 우리 군사는 동남을 등지고 서북을 향한 까닭에 풍설이 얼굴에 드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뜰 수 없게 하므로 여러 군사가 수족을 놀릴 수 없어 다만 빈총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목숨을 유지키로 하니 형세 매우 창황하여 부득이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현전투의 패배로 인한 손실은 이천수창의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군은 의병을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의병뿐 아니라 이현 마을 전체를 무자비하게 초토화하였다. 전기 의병사에서 일본군의 대표적인 만행의 하나로 1896년 4월 2일 안동을 초토화시켰던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보다 앞서 이미 백현에서의 일제 만행도 그에 못지 않은 것이었다.

【이야기 셋】 경기도의 국채보상운동

1905년 강제적인 을사조약 체결을 통해 통감부체제를 구축한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한 본격적인 식민지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자국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도입하여 이를 식민지화 작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차관도입정책에 따라 한국의 대일부채는 1907년 2월 현재 1,300여 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상환의무는 고스란히 한국정부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이제 대일부채의 해결 여부는 한국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족쇄인 동시에 이러한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고 고갈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정부에 있어 외채상환이란 요원하기만 하였다. 이에 무능한 한국정부를 대신해 전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대일부채를 상환하고 일본의 침략의 도를 저지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21일 대구의 김광제·서상돈 등의 발기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국채 1,300만 원이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2천만 국민들이 3개월 간 단연하고 그 대금을 모아 국채를 상환하자는 내용의 취지서를 발표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국채보상 취지가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거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약 1년 6개월 간 지속된 국채보상운동은 경향 각지,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국 규모의 운동으로서 비록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공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외채상환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전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국권회복운동이었다.

다음에서는 먼저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배경으로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과 그에 따른 차관도입 및 대일부채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맞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 지방의 운동전개 과정에 주목하여 어떠한 계층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국채보상운동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 국채보상운동이 갖는 특징과 의의는 무엇인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1. 배경

러일전쟁 이후 한국에서 러시아세력을 축출하고 독점적 지배권을 장악한 일본은 강제적인 '을사조약' 체결과 이 조약의 현실적 장치인 통감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질서를 본격화해 갔다. 이때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국에서 도입한 차관으로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사용한 경비마저 국채로 떠안는 형편이 되었다.

식민지 기초작업에 필요한 일본의 차관공세는 재정고문 메가타(目賀田鍾太郎)에 의해 추진된 재정정리사업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재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일본에 예속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을 위해 메가타는 먼저 1905년 1월 화폐정리채(貨幣整理債) 명목으로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이때 차입조건은 관세 수입을 담보로 연 6푼 이자 6년 거치 5년 상환이었다. 당시 이 화폐정리채로 실시한 화폐개혁으로 인해 금융공황이 일어나 한국 경제계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반면 일본의 금융독점이 강화되었다.

한편 메가타는 같은 해 6월 구채(舊債) 상환 및 세계부족보충비(歲計不足補充費) 명목으로 200만 원의 국고증권채(國庫證券債)를 발행하고 이를 일본 정부의 지불보증으로 일본 국내에서 모집해 들여왔다. 이 국고증권채는 국고금 담보에 연 7푼 이자 3년 거치 5년 상환이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식민지작업의 일단인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재정 지출에 충당되었다. 이어서 12월에는 천일은행 및 한성은행의 창립 보조 대부와 지방 금융조합 창립자금 등 화폐개혁에서 비롯된 금융공황 구제 및 민간금융 지원 명목으로 금융자금채(金融資金債) 150만 원을 담보 없이 일본 정부로부터 차입했다. 그러나 이 금융자금채는 명목과는 달리 어용금융기관 설치에 충당되었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의 재정·화폐·금융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이후 이토 통감은 "한국의 안전과 부원(富源) 개발을 위해서는 차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시정개선 및 기업자금 명목으로 일본 흥업은행으로부터 관세수입 담보와 연 6푼 5리 이자에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1,00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차관공세로 한국정부는 원금만 1,65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이자도 해마다 늘어나 1907년 2월 현재 일부를 정리하고서도 남은 부채가 1,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액수는 1906년 한국의 세입총액이 1,318만 9,336환이고 세출총액이 1,395만 523환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거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감부 설치 이후 대일부채가 격증한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자국에서 들여온 대일부채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0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약 5년간 한국의 대일부채는 4,500여 만 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05~1910년 한국의 대일본 부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차입액	차입년월
화폐정리자금채	3,000,000	1905년 21월
국고증권채	2,000,000	1905년 26월
금융자금채	1,500,000	1905년 12월
제1기업자금채	5,000,000	1906년 23월
제2기업자금채	12,963,920	1908년 12월
기업공채	100,000	1908년 12월

구 분	차입액	차입년월
일본정부차입금	11,682,623	1907년 이후
화폐정리자금차월	8,564,818	
계	45,711,361	

한편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탈에 의한 식민지화 과정은 한국민에게 국권상실이라는 중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른 항일 국권회복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 계층은 대일부채로 일본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모색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다.

2. 전개

1) 운동의 발단과 전국적 확대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방침이 구체화되면서 그 물적 기초로서 추진된 일본의 차관도입정책에 따라 한국은 1907년 현재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외채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국고 고갈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한국 정부에게 있어 외채 상환이란 요원한 일이었다. 결국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일부채는 국권의 상실 여부와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채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국채보상 움직임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2월 중순 무렵 대구 광문사(廣文社)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相敦) 등이 공동 명의로 「국채 1천 3백만 원 보상 취지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취지서의 내용은 대개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는 것으로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국고로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2,000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국채를 갚아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광문사의 대동광문회에서는 1907년 2월 21일 대구민의소 즉 단연회(斷煙會)를 설립하고 3월 9일 국채지원금수합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모금에 나섰다.

대구 광문사의 국채보상운동 발기가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만세보』 등 각 신문을 통해 전해지자,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자각하고 있던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들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울에서는 2월 22일 김성희·유문상·오여근 등이 국채보상기성회(國債報償期成會)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발표하는 한편, 회칙을 제정하고 7개소에 의연금 수전소(收錢所)를 설치하여 합법적인 운동으로 형식을 갖추었다. 또한 서병염·윤흥섭 등도 국채보상중앙의무사(國債報償中央義務社)를 설립하고 황성신문사를 의연금 수납처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국채보상 움직임은 각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이 운동을 찬동 지지하는 취지서 발표와 함께 도·군·면 단위 국채보상회가 속속 설립되어 1907년 3월 말 현재 27개의 보상소가 경향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들이 발표한 보상소 설립 취지는 공통적으로 '토지가 있은 후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은 후에야 국가가 있으며 국민이 보안(保安)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부강을 꾀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국권만회의 날이요 민명재생(民命再生)의 때'라고 하여 전 인민이 합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자 고종도 2월 27일 "우리 국민들이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 단연하고 그 값을 모은다 하는데 짐이 담배를 피울수 없다"하여 단연을 실천하고, 영친왕의 길례(吉禮)를 음력 7월로 연기하도록 명하여 이 운동을 독려하였다.

한편 당시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각 계몽운동단체와 언론기관 등도 각종 강연과 집필활동을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자강회·기독교청년회·서우학회·한북흥학회 등은 국민의 의무와 단연에 관한 토론회 및 강연회를 자주 개최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환기하는 한편, 절용보국의 생활을 호소하였다. 1907년 3월 1일 임시평의회에서 김광제의 국채보상에 관한 의안을 수리한 대한자강회는 논설을 통해 단연과 국채보상문제를 적극 개진하면서 경향 각지에 조직된 국채보상단체의 취지서를 월보에 전재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박치훈은 「단연의 이해」, 지석영은 「흡연의 해」라는 연제로 강연을 하였고, 윤효정·유맹·김택진·박치훈·유승겸·석진형 등도 「실지경험(實地經驗)이 승어학리연구(勝於學理硏究)」라는 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경향 각지에 설립된 국채보상소 발기문과 취지서를 게재하는 등 운동의 진행상황을 보도해 온 각 언론기관들도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각 신문사에서는 먼저 논설을 통해 차관을 도입한 정부와 운동에 소극적인 대신 관료들을 비판하고 국채보상의 취지와 애국심을 고취하였으며, 지면을 할애하여 의연소 설립과 의연금 납부자 명단을 게재함은 물론 신문사 사원들도 직접 의연에 동참하였다.

그런가 하면 각급 공·사립학교와 상인단체, 종교계, 해외교포 및 유학생, 부인층, 노동자 및 천인 등 도시저변계층까지 망라한 각계각층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운동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운동의 형태는 대개 단연동맹·담배 판매금지·분초(焚草)·의연(義捐) 등으로 전개되었으며, 운동이 확대되어 가면서 국민들은 흡연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이 운동에 대한 전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07년 2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경향 각지의 성금 기탁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자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통일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07년 3월 말 각 지방의 수금을 총관하는 통합기구로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國

債報償志願金總合所)가 대한매일신보사내에 설치되었다. 이종일·김광제·박용규·서병규·이면우·오영근 등의 발기로 설립된 총합소는 전문 29조의 규정을 제정하고 4월 8일 총회를 개최하여 소장에 한규설(후에 윤웅렬로 교체), 부소장 김종한, 회계감독 박용규·서병규, 검사원 이강호·양기탁·이면우, 사무원 안덕용·윤치호 등 12인, 평의원으로는 각 사회유지 12인을 각각 선출하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4월 초 '국내에 수금 총합소가 없어 수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회사와 13도 대표인원이 회동하여 본소를 조직'한다는 취지하에 국채보상연합회의소(國債報償聯合會議所)가 설립되었다. 회의소는 대한자강회 회관을 임시사무소로 정하고, 의장에 이준(후에 이도재 → 이용직 → 김종한)을 추대하고 부의장에 김광제, 위원장에 윤효정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국채보상기성회·국채보상중앙의무사와 함께 통일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채 오히려 의연금 수합경쟁이 일어나 의연금 수납과정상의 난맥만 드러냈다. 이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와 연합회의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월 말 특별회를 개최하고, 지원금총합소에서는 각 지방에서 수합한 의연금을 주관하고 연합회의소에서는 상채사(償債事)에서 일반 국민의 지도방침을 담당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두 보상소가 비록 국채보상운동을 총괄하는 단일기구로 통합되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이제까지 지역 분산적으로 전개되던 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에 전국 각 지역단위로 설립되어 있던 지방 보상소를 중앙의 두 보상소가 총괄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계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수합된 의연금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각 도별로 설립된 보상소 수는 강원도 3개, 경상도 15개, 경기도 8개, 충청도 12개, 전라도 14개, 황해도 7개, 함경도 7개, 평안도 13개였으며, 이들 각 지방 보상소는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의연활동과 함께 수합된 의연금을 중앙에 송금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의 하부단위로 역할하였다.

이들 중앙 및 지방 보상소의 노력과 전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1908년 4월 30일 현재 중앙에 접수된 의연금 총액은 14만 3,542원 33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0일자 일본헌병대 기밀 제407호 보고에 따른 각 의연금 수납기관의 접수액을 보면, 대한매일신보사 3만 6,000여 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4만 2,308원 50전, 황성신문사 8만 2,000여 원, 제국신문사 8,420원 6전, 만세보사 359원, 국민신보사 55원, 국채보상기성회 1만 8,700원 22전 5리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고 12개월 동안 약 18만 8,000여 원이 모금되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경기도 지방은 국채보상운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2) 경기 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1907년 2월 대구의 김광제·서상돈 등이 국채보상의 일환으로 단연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각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국채보상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 군에서 보상소 설립과 설립취지서가 발표되었고, 주민들은 리(里)와 동(洞) 단위로 성금을 모아 중앙의 의연금 수납처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연활동에는 직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있어 국채보상에 대한 경기도민의 의지를 짐작하게 하였다.

먼저 보상소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한 각 군의 사례를 보면, 수원의 경우 3월 9일 이하영·임근수·김태제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고 부내 인민의 애국경재지심(愛國輕財之心)을 함유할 목적으로 국한문 취지서를 발간하여 분발을 계도하였다. 29일에는 수원 영어삼학당(英語三學堂) 찬성원 조안장·김제구, 서기 이하영·임근수 등이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활동을 독려하였다. 이렇듯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활동에 들어간 수원부는 부내 국채보상회의 활동도 두드러져 보상회 재무원인 나성규·차유순의 헌신적인 노력이 신문에 미담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안성군 서리(西里)에서는 3월 15일 유희근·이원세·정기조 등이 발기하여 국채보상금 모집소를 설치하고 수합한 의연금 20원을 국채보상기성회로 전송하였으며, 국채보상취지서를 3월 29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사의금모집소(紳士義金募集所)에서도 설립취지서를 발표하고 의연활동에 들어갔으며, 안성 상업과남소(商業課南所)의 보상금 모금활동을 비롯하여 특히 일반 부인들이 발기하여 설립한 안성장기동부인회모집소(安城場基洞婦人會募集所)에서는 19원 50전의 의연금을 모아 대한매일신보사로 송납하였다.

한편 이천군의 향무의사(鄕務義社)에서는 각 리의 의연금을 수합하여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내 이것이 5월 25일자 『대한매일신보』 광고난에 게재되었으며, 5월 28일 포천군에서는 발기인 이청렬·이광순 등이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국채보상포의소(國債報償抱義所)를 설립하였다. 또한 5월 29일에는 강화군 외주동에서 송요덕·김교창·황중래 등이 발기하여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여주군의 경우 단연단음(斷煙斷飮)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국채보상권고문을 원용한·한호석의 이름으로 6월 11일자 신문에 게재하였으며, 14일에는 양주군에서, 20일에는 파주군에서, 그리고 7월 17일에는 발기인 김제필·김한원 명의로 장단군 대남면에서 각각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여 각 군민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의연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연금 모집형태는 대개 개인이 직접 중앙에 의연금을 보내기보다는 리나 동 단위로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송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대한매일신보』 광고난에 부록으로 게재된 국채보상금 기탁자 명단을 보면 경기도의 거의 전 군이 망라되어 있으며, 모금 횟수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모금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양근군 남종면 분원동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소식을 듣고 함동헌·이춘식·김명선·이성도·이경구·김홍서·이희풍 등이 가산의 태반을 출연하고 바느질로 연명하는 유소사·염소사 등 부인들도 가난을 돌보지 않고 기꺼이 의연하는 등 한 동의 200여 호 주민 254명이 하룻밤에 395원 55전을 의연하여 모금액을 국채보상기성회로 전납하였다.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서는 신사·인민·학동 등 주민 대다수가 국채의연금을 수합하여 기성회로 보냈으며, 안성군 기우면 집강 유용준은 면 단위 회집을 권고하고 단연·절식·의연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자 협호(挾戶)·나

무장수·고용민까지 의연에 가세하여 당일로 50원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문중 단위로도 의연활동을 전개하여 고양 기포 대화동에서는 김씨 종중이 17원 20전을 모아 대한매일신보사에 기탁했으며, 장단군 상도면 석곶리 황씨 문중과 인천 월촌리 경주 김씨 문중에서도 의연금을 수합하여 신문사에 송금하였다.

이렇듯 국채보상운동이 각 군의 리와 동 단위까지 확대되면서 이에 참여하는 부류도 일부가 아닌 실로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었다.

먼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각 군에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다. 앞서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한 수원 영어삼학당을 비롯하여, 광주군의 염곡사숙(廉谷私塾)에서는 학동 14명이 '우리도 국민인데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는가'라고 분기하여 점심을 굶고 15원 45전을 모금하였으며, 개성 배의학교와 강화군의 월호보창학교도 각각 의연금을 모아 국채보상해서동정회에 송금하였다.

포천군의 신야의숙(莘野義塾)에서는 사무원들이 일반 학도들에게 국채보상에 대해 일장 연설하고 일체 단연하기로 동맹한 후 성금을 모아 기성회로 송납했으며, 사립옥성의숙(私立玉成義塾)에서도 숙장·교사·간사원·학원(學員) 일동이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또한 여주군의 여흥학교 및 연천 사립일신학교 교감 이하 교사·찬무원·사무원 등과 양주군 동진관서숙(東眞官書塾)의 교사와 학동 등도 각각 성금을 모아 중앙의 수납처에 기탁했다.

이렇듯 학교와 학생들의 의연활동 외에 각 지방에 설립되어 있던 계몽단체 지회도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용인군의 경우 동아개진교육회에서 13원 6전을 모아 국채보상해서동정회로 보냈으며, 남양군에서는 대한자강회 남양군지회 지회원들이 13원 2전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종교계에서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수원에서는 영국신부 부재열(夫在烈)과 전 교사 김만준이 성당에서 기도회를 갖고 '고종의 애민하신 성의와 전국민의 단연의 뜻'을 토론하고 남녀 교인이 일제히 성금을 모아 구화 120원 40전을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냈다. 또한 남양군 쌍부압정면(雙阜鴨汀面) 고온포(古溫浦) 내동(內洞)에서는 천도교인 10호에서 성금을 모아 신문사에 기탁했으며, 강화군의 예수교당과 장단군의 화장사(華藏寺)에서도 교인들이 의연금을 모아 기부했다.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상품 및 자본을 앞세운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의해 자기 기반을 침식당하고 있던 상인계층이 반일의 입장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인천항에서는 근업사(勤業社) 직원 44명이 40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매일신보사로 보냈으며, 광제(廣濟) 객주 9명도 의연금을 모아 송금했다. 또한 장단군 소남면 홍화리에서 사기점을 하는 상인 등 53명의 상민도 의연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채보상운동의 소식을 듣고 감격한 양근군 분원의 초동(樵童)들은 땔감과 짚신을 팔아 3원을 수합하여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냈고, 이때 같은 군의 백정 김삼용도 40전을 의연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에는 직업의 구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국권회복의 대의 앞에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강화군 길상면 초지동에 사는 전 의관 민준식의 부인 장씨는 대안동부인총회로 의연금을 보내자 총회에서 장씨에게 공함을 보내 강화군부인회 설립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인천·남양군·안성군·김포군 등지에 인천국미적성회(仁川菊米積誠會), 남양군부인의성회, 안성군국채보상부인회, 김포군 검단면 국채보상의무소 등을 설립하고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모금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부인들이 국채보상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수원부내 6세 아이 신천동이 국채보상모금을 보고 세뱃돈 50전을 의연금으로 기부했다는 사례와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계층의 층위를 확대하고, 운동을 확산시키는 자극제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3. 운동의 결과와 의의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킨 일본은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체결과 8월 1일 군대해산을 통해 한국의 행정권·사법권·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인 한국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자 일본은 7월 24일 신문지법, 7월 27일 보안법 등 악법을 제정하여 당시 점차 가열화되는 항일 국권회복운동과 그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던 국채보상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악법들로 인해 국채보상운동의 주도 단체 가운데 하나인 대한자강회가 강제 해산 당하였고, 언론기관들도 신문기사의 삭제, 언론인의 감금·추방 등 일련의 언론탄압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국채보상운동도 일본의 제도적인 탄압과 운동을 주도하던 단체 및 세력들의 위축으로 1907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쇠퇴해 갔다. 그러자 대구 단연보상소(斷煙報償所)의 이현주·서상돈·정재학·김병순·최시교·최대림 등은 이 운동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하여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전국민의 대동결의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을 저지하고 언론활동을 봉쇄하려는 일본의 탄압책은 더욱 구체화되어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인 배설(裵說)의 국외 추방과 총무 양기탁의 제거를 꾀한 수난사건을 일으켰다. 배설을 추방하지 않는 한 『대한매일신보』의 예봉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 1906년부터 집요하게 배설추방공작을 추진해 온 통감부는 1908년 5월 또다시 '보호권을 전복하고 일본인 배척을 선동하여 교사선동의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배설을 공소하였다. 이 재판으로 배설은 제1종 경죄범인(輕罪犯人)으로서 3주간의 금고, 만기 후 6개월 간의 선행보증금(善行保證金)으로 피고 1,000불 보증인 1,000불 도합 2,000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배설추방공작이 금고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일본의 본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통감부는 다시 국채보상금비소사건(國債報償金費消事件)을 조작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배설의 공판이

열린 한 달 후인 7월 12일 통감부가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국채보상금 3만 원을 배설·양기탁 두 사람이 횡령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양기탁을 구속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으로 양기탁은 4차에 걸쳐 재판을 받았으나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배설과 양기탁을 제거하려는 통감부의 기도는 유죄판결에는 실패하였지만, 국채보상금비소사건을 야기하여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언론활동을 통한 민족운동과 함께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국채보상운동을 저지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은 의연금 모금을 통해 국채를 보상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의연금 조사를 위한 국채보상금검사소 설립과 의연금 처리를 위한 국채보상금처리회가 개최되는 등 국채보상운동의 사후처리만 남긴채 유야무야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그 재원으로 마련한 차관 명목의 대일부채를 전국민의 의연금으로 상환하고자 한 국권회복운동이었다. 운동의 발단은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 계층의 대일 부채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지만 삽시간에 각계각층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신분과 계층의 구별도 없었으며, 오히려 운동이 진행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탈로 자기기반을 침식당하고 있던 소농민, 영세상인층과 함께 하급관료, 부녀자 등이 대거 동참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의 반일민족의식과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운동에 앞장섰던 지식인계층은 이러한 민중들의 국채보상과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를 수렴 총화하여 운동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이끄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된 이 운동을 관리하고 주도해 갈 통일적인 기구를 만들지 못한 채 분산되었으며, 통감부의 탄압책에 따라 주도세력의 일부가 개량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도세력의 한계성은 일본의 집요한 탄압책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운동이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가중되는 침략정책에 맞서 대대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민의 하나된 반일 국권회복 의지를 확인시켜준 민족운동 바로 그것이었다.

이상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일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는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다. 국권회복이라는 대의에 크게 공감한 국민들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였고, 여기에는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망라되어 있었다.

경기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여서 수원·안성·포천·강화·여주·양주·파주·장단 등지에서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모금활동을 독려하였다. 이에 각 동이나 리 단위로 주민들의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계몽운동 단체의 경기 지역 지회, 각급 사립학교, 종교단체, 상인단체 심지어 문중의 이름으로도 모금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전국민의 단합된 항일 의지에 위기감을 느낀 통감부는 이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해 책동을 가중하였고 아울러 주도적인 위치에서 운동을 이끌어가던 지식인계층의 분열과 추진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국채보상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이 비록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이 운동을 통해 항일 국권회복에 대한 전국민의 기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항일정신은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이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민족해방운동으로 수렴 계승되어갔다.

4.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근대의 경기			
학습 목표	1. 근대시기의 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근대 시기 우리 저역의 변화 과정을 열거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경기도에서는 어떤 의병활동이 있었는지 질문을 한다.		
전 개	1.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경기도(15분)	천주교 박해로 시작된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신미양요 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경기도 이천의 의병 운동 (15분)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던 무렵 경기도의 의병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이천 의병운동을 정리해 본다.	
	3. 경기도의 국채보상 운동(10분)	경제적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채보상운동 중 경기도의 국채보상 운동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전개과정을 정리한다. - 경기도 이천의 의병운동을 정리한다. - 경기도의 국채보상을 운동을 정리한다.	
	함께 해봅시다(30분)	-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전개과정을 각각 4컷 만화로 그려본다. - 경기도의 각 지역별 국채보상 모금액을 그래프로 정리해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양요에 대한 학습을 전개할 때 자칫 무기와 전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장면만 그리지 않도록 수업 설계를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5.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병인양요의 전개과정을 4컷 만화로 그려보기

병인양요의 전개과정			

2. 신미양요의 전개과정을 4컷 만화로 그려보기

신미양요의 전개과정			

[생각더하기]

1.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신분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7. 교사 참고자료

[외규장각]



1782년 2월 정조(正祖)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奎章閣)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설치 이후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儀軌)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으나,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습격하면서 297권의 왕실의 주요행사를 기록한 의궤 191종(유일본 30종 포함) 297책을 포함한 도서 359점을 약탈했다. 나머지는 불에 타 없어졌다.

1975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도서관에 조선시대의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하여 그 존재가 알려졌다. 서울대학교는 1991년에 정부에 도서 191종 279권의 반환 추진을 요청하였고 1992년에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목록을 프랑스에 전하여 도서 반환을 요청했다.

1993년 9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부설권을 프랑스의 테제베(TGV)가 따 내기 위한 의도로《휘경원원소도감의궤》1권을 가지고 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외규장각 도서는 약속과 달리 반환되지 않았고 2000년 10월 다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필사본이 없는 63권을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한국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반환 협상이 연기되거나 프랑스 측에서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힘을 빌리더라도 무조건 반환시켜야 한다는 역사·학술·시민 단체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이 확산되는 등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10년 11월 12일 G20정상회의에서 양국의 대통령 간에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형식으로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년 6월 11일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8. 참고문헌

경기도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200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일보, 동학농민전쟁 그 역사를 찾아 12. 2014. 4. 27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803

8차시

경기도민의 독립 운동

1. 경기도의 독립 운동

가. 경기도의 3.1운동

1) 3.1운동의 확산

서울에서 봉기한 3·1운동이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3월 1일 당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봉기하였으며 그 후에는 철도 연선을 따라 대도시에서 중소 도시로, 그리고 읍·면·리와 산간 벽지로 파급 되었다. 그리고 각지의 운동은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었으며 지방의 대부분은 장날을 기하여 발생하여 5일~10일 간격으로 되풀이 되었다.

또 참가 계층을 보면 3·1운동의 주도체는 예외는 있으나 주로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체가 되었으며 이에 농민들이 가담함으로써 순식간에 전민족운동으로 파급되었다. 또 3·1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한 학생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였다.

경기도의 3·1운동은 발원지인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서울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파급되었다. 또 경기도의 3·1운동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처음부터 약 2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끈기있게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전국 어느 도보다 격렬했고 많은 희생자를 냈다. 특히 향남(수원)·안성·이천·양평의 시위는 두드러졌다.

경기도의 3·1운동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나 주로 서울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파급되었다. 3월 1일 개성의 한영서원(韓英書院) 학생과 기독교 목사가 계획하여 3일부터 7일까지 근 일주일간 대대적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수원에서도 3월 1일 용두각에서 일어난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경기도내에서 3월 상순에 일어난 지역을 들면 3월 3일 고양군 동막에서, 3월 5일~6일에는 강화군 부내에서, 3월 7일에는 인천에서 일어 났으며, 3월 9일에는 고양군 한지면에서, 10일에는 양평군 문호와 파주군 교하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중순 이후에 들어서자 시위 지역이 차츰 전 도내로 파급되었다. 평택·안성·파주 교하·양주 와부·가평 북면 등의 시위를 시작으로 하순에 이르러서는 고양·시흥·광주·양주·부천·김포·수원·용인·안성·이천·양평·가평·포천으로 확산되었으며 4월에는 진위·여주·연천·장단으로 파급됨으로써 도내 20여 개 군 중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경기도의 3·1운동은 군청 소재지 이상의 도시에서는 학생과 기독교인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일부 지역은 천도교인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산간 지역의 면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농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양주·여주에서는 승려가, 안성에서는 시천교인이, 그리고 수원·안성에서는 기생들이 앞장서기도 하였다.

경기도 3·1운동의 특색은 여러 곳에서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고양군(5개소), 시흥군(3개소), 광주군(7개 면), 부천군(3개 면), 수원군(7개 면), 개성군(8개소), 강화군(17개소), 장단군(2개소), 파주군(2개소), 김포군(1개소), 양주군(3개 면), 진위군(3개소), 이천군(3개 면), 여주군(마을 단위)에서 횃불시위가 전개되었다. 이 시위 방법은 주로 구릉이나 평야지대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군중동원의 수단인 동시에 시위군중의 단결력과 연대감을 강화시켰으며 시위의 규모를 실제 이상으로 나타냄으로써 매우 효과적이었다.

처음 3월 상순에는 평화적인 만세시위로 전개된 경기 지방의 3·1독립운동은 3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점차 무력시위로 변해 갔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시위가 과격화된 이유는 일제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방식으로 시위대의 감정이 격화되었으며 시위군중의 무차별 체포·투옥은 시위대를 흥분시켰다. 군중들이 체포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제 통치기관에서 시위 중 일제의 무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의 양상이 무력시위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시위군중에 대한 일본 군경의 발포는 군중을 극도로 자극하여 경찰서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우편소 등 일제 식민통치기관을 습격·파괴·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이 일제의 군경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다.

2) 수원면(현 수원시) 3.1운동

3월 1일 시위

이병헌(李炳憲)의 『三·一運動祕史』에 따르면, 서울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면서 바로 수원에 파급되어 3월 1일 수원 북문안 용두각[華虹門]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일본 경찰이 해산시키려 하자 군중은 흩어지는 척 하다가 별안간 만세를 불렀다. 순사는 이에 깜짝 놀라 경찰서로 달아나 버렸다. 만세소리를 듣고 각 처에서 모여든 군중이 수천 명이었다고 한다.

3월 16일 시위와 철시

또한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팔달산 서장대(西將臺)와 동문안 연무대(練武臺)에 수 백 명씩 모여 만세를 부르며 종로를 통과하여 시위행진을 하는데 경찰이 소방대 및 헌병과 합동으로 시위를 제지하고 주모자를 검거하였다. 주모자를 검거하자 시내는 전부 철시를 단행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검거하였던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11시 경 북수리(北水里)에 있는 천도교에서는 서울에서 연락차 내려온 이병헌이 교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이 집합하여 서울의 정세를 듣고 앞으로의 독립운동비를 부담할 것을 논의하던 중 소방대와 일본인이 합세하여 소방용 갈구리와 괭이로 대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모여 있던 사람들을 구타하였다. 김정모(金正模)·안종환(安鍾煥)·안종린(安鍾麟)·홍종각(洪鍾珏)·김상근(金相根)·이병헌(李炳憲) 등이 중상을 당하였다. 이날 밤 12시 반 경 일본인들은 삼일여학교도 습격하였으나 숙직원 뿐이어서 사무실만 파괴하였다.

3월 23일 시위

3월 23일 수원역 부근의 서호(西湖)에서 700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수원역 앞에서 일본 경찰과 헌병대 및 소방대의 제지를 받고 해산했다.

3월 25~31일 철시 항의

3월 25일 수원 장날을 맞아 청년·학생이 앞장서서 약 20명의 학생·노동자가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10명이 붙잡혀간 후 해산되었다. 이튿날인 3월 26일, 전날의 시위에서 만세시위자들을 붙잡아 가둔 데 항의하여 아침부터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철시 시위에 돌입하였다. 3월 27일 들어서는 전 상점의 약 4할인 60호가 문을 닫을 정도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수원면민의 폐점 항의는 3월 31일까지 이어져 일제를 당혹스럽게 했다. 3월 31일의 상황을 이병헌은 이렇게 기록했다. 수원시내에서는 계속하여 만세를 부르므로 인심이 소연하였다. 독립의 의기가 충만하여 31일은 장날인데 촌 장꾼 하나 없었고 각 상점과 음식점까지도 문을 닫아 거리는 매우 적막하였다.

4월 1, 2일 군수는 유력한 상인 6명을 소집하여 상점을 다시 열도록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

3월 29일 기생시위와 면민의 시위

한편 3월 29일 수원면내에서는 기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수원 기생조합 기생들이 자혜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다가 경찰서 앞에서 그중 김향화(金香花)가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며 지휘를 하자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병원으로 가서 다시 독립만세를 불렀다. 병원에서 이러한 이들의 검진을 거부하자 병원을 나와 다시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김향화는 곧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이날 또한 300명의 학생·기독교인·일반민이 중심이 되어 격렬한 시위를 일으켜 18명이 검거되고 관공서 및 민가 여섯 채가 파괴되었다. 그 이튿날인 3월 30일도 팽팽한 긴장감이 읍내를 감돌고 있었다. 경기도장관은 "이날은 수원 장날로서 일반으로 살기를 띠고 위험의 경향이 있으므로 보병 제79연대로부터 병원(兵員)을 파견할 터이다."라고 하였다.

지하 선전활동

수원군 일형면 하광교리 342번지 거주 이종상(李鍾祥, 일명 득수(得壽), 당시 20세)은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1919년 독립만세시위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3월 말부터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 관계 인사 차관호(車寬鎬)와 연락하여 서울의 동대문 안에 거주하는 박성환(朴聖煥, 일명 김일(金一))에게서 보내오는 독립신문을 여교사 차인재(車仁載)와 함께 8~9월 경까지 수원면내의 조선인 집에 배포하기를 계속하였다. 그 후 1919년 9월 경 남창리의 박선태(朴善泰, 학생, 당시 21세)와 지하 유인물의 배포를 통하여 독립사상의 선전에 힘쓰고자 하여 1920년 7월 경까지 수원에 사는 주민들에게 독립신문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창가집, 대한민보 등 수십 매를 배포하였으며, 1920년 6월 20일 복수리 임순남(林順男, 당시 19세), 남수리 최문순(崔文順, 당시 18세), 산루리 이선경(李善卿, 당시 19세) 등의 여학생을 규합하여 구국민단(救國民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박선태는 총장, 이득수는 부총장이 되어 수원에 거주하는 김석호(金錫浩)··김노적(金露積)··윤귀섭(尹龜燮)·김병갑(金秉甲)·이희경(李熙景)·신용준(愼用俊) 등을 동지로 규합하고, 제1 일본의 국권강탈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의 통치하에서 이탈케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제2.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의 2대 목표를 실행하다가 이종상·박선태는 징역 2년, 임순남·최문순·이선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3) 성호면(현 오산시) 3.1운동

3월 14일 시위 태동

성호면 오산리의 최초의 독립시위운동 움직임은 3월 14일 있었으나 일제의 경계로 거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뒤 열흘 가량이 지나자 다시 사방에서 시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3월 25~26일 일본인 가옥 파괴·방화

3월 25일 오산에서 보통학교 졸업자와 천도교도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 가옥을 파괴한 운동이 있었다. 이때 일본병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튿날 두 건의 화재사건이 일어나 일본군과 경찰이 경계를 강화했다.

3월 29일 오산시장 시위

3월 29일 수원 읍내, 태장면, 안용면 등지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산에서는 800명의 큰 시위가 있었다. 관공서와 민가 13채가 파괴되고, 일본병이 출동하여 2명이 붙잡혀 가고 일본병의 발포로 약간 명의 부상이 있었다. 이 날은 오산장날이라 약 300명의 장꾼들이 모여 있었는데 시위는 오후 4시 경 우시장에서 시작되어 군중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오오키(大木喜市) 순사가 해산을 요구했다. 시위군중은 이에 불응하고 만세소리를 더욱 높였다. 성호면 세교리 안낙순(安樂淳, 또는 낙순(樂順), 당시 44세, 농업)이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고 군중들은 저마다 "관공서를 파괴하라"고 부르짖으며 정거장으로 행진했다. 오후 5시경 해가 서산으로 기울 즈음 오산리의 유진홍(兪鎭弘, 당시 34세, 농업) 안낙순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군중속으로 뛰어들어 만세를 높이 부르자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장꾼들이 시위군중으로 돌변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면서 면사무소와 경찰관 주재소 앞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오오키는 시위대를 뒤따라가며 거리 변두리에서 태극기를 빼앗으려 하자 유진홍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일본인 순사 오오키가 시위 군중 가운데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유홍진과 기수 안낙순을 비롯한 6~7명을 주재소로 끌고 갔다.

"붙잡아간 자를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곳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

시위 군중들은 완강하게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인치자를 풀어주는 대신 해산하라!"

시위대의 기세에 눌려 일본 경찰은 검거자를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구금되었던 동지를 구해낸 시위 군중은 더욱 열광적으로 만세를 부르며 다시 면사무소로 나아갔다. 이때가 저녁 7시 30분 경, 면장과 면서기 일동은 면사무소에 있다가 우시장쪽에서 만세시위 소리가 들리자 곧 면사무소로 밀어닥칠 줄 알고 면장을 숨겨두고 면서기 심원식이 상황을 알아보러 밖으로 나와보았을 때 수백 명의 군중이 종이로 만든 태극기를 손에 들고 흔들며 열광하는 광경을 보았다.

일형면 조원리 342번지에 사는 이성구(李成九, 25세, 농업), 성호면 오산리 거주 김경도(金敬道, 34세, 농업), 진위군 북면 봉남리 거주 이규선(李圭璇, 25세, 농업), 오산리 거주 정규환(鄭奎煥, 25세, 농업), 위의 유진홍, 성호면 금암리 김용준(38세, 농업)은 500명의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를 에워싸고 부르짖었다.

"면장은 어디 있는가? 면장을 내어 놓아라!"

"면장은 왜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군중들은 일제히 면사무소를 향해 돌을 던져 창유리와 창문을 모두 부수고 다시 주재소로 몰려갔다. 군중은 계속 불어나 7~8백 명이 되었다. 주재소 앞에는 희미한 가스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 군중은 일제히 길바닥의 돌을 주워서 주재소를 향하여 투석하였다. 오오키순사가 전화를 하러 우편소로 달려가자 시위대의 일부는 우편소로 달려와 남포등을 돌로 깨어 버렸다.

이성구·이규선이 우편소 안으로 뛰어 들어가 성냥을 그어 성냥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전화기를 찾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응원하러 오는 것이다. 쳐부숴서 그 근심을 없애라!" 일동은 함께 전화기를 내동댕이쳐 부순 다음 유리창 63장, 그밖에 우편소 기물들을 부수었다.

우편소원들은 모두 책상 아래 숨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투석하자 우편소장과 소원들은 뒷편 밭으로 달아났다. 이때 정규환은 노동화를 신고 수건을 머리에 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김기선이 하는 이발관에 가서 그 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계속 독려하였다. 시위 군중은 인근에 사는 일본인 노부요시(信吉定治郎)·마쓰바라(松原龜吉)·노무라(野村勝太郎)·나니노부(南信政太郎)·쓰키노(月野矢太郎)·이케다(池田和吉)·우노(宇野常松)·무나카타(棟形源十郎) 등의 집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쳐서 이들 주택의 유리창, 판자문을 때려부숴 버렸다.

이들은 1919년 11월 6일 조선총독부 판사 가나가와(金川廣吉)의 심리로 진행된 경성지방법원 재판정에서 이성구·이규선은 징역 1년 8개월, 김경도는 징역 1년 6개월, 공칠보는 태 90도가 선고되었으며 정규환은 징역 1년, 김용준·안낙순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유진홍은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로 확정되었다.

3월 31일 오산·발안장·고천·병점·군포장에서 시위가 잇달았는데, 오산에서는 횟수 불명의 시위가 있었다.

나. 일제 강점기 사회운동을 주도한 경기도민

1) 1920년대 항일독립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에 조선민족대동단,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한독립애국단 등 비밀결사들이 결성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나 독립군에 대한 지원 또는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독립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일제에 의한 민족간의 차별대우에 항의하여 1920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자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를 결성하였다. 그후 노동공제회는 조선노동연맹회, 조선노농총동맹으로 변화·발전하였으며, 노농총동맹은 1927년 후반기에는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되어 각각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담당하였다.

1920년대 소작인으로 전락한 다수의 농민들은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하였다. 그후 1927년 조선노농총동맹의 지도를 받다가 노농총동맹이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나뉘면서 농민총동맹은 32개 단체 산하 2만 4,0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진 전국 농민운동의 총본산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1925년 천도교 신파 쪽의 김기전(金起田)·이돈화(李敦化) 등을 중심으로 조선농민사가 결성되었다. 기관지로 『조선농민』을 발행한 조선농민사는 천도교단이 주도권을 가진 종교적 성격이 강한 농민운동단체였다.

1920년대에는 청년·학생운동도 활발하였다. 청년운동의 경우, 1920년에 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923년 서울청년회 소속 김사국(金思國) 등은 김윤식(金允植)의 사회장 문제를 계기로 이 단체에서 탈퇴하여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신사상연구회, 북성회(北星會)를 중심으로 한 신흥청년동맹이 1924년 조직되었으며, 신흥청년동맹은 전조선청년당대회 이후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후 청년총동맹은 제1,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며, 1927년 신간회가 조직되자 중앙집권적 기구를 강화하고 도연맹을 조직하는 한편 신간회 중심의 민족협동전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3·1운동 후에는 학생운동도 활발하였다. 1920년에 최초로 조선학생대회라는 학생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이 단체는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이후 1923년에는 전문학교학생만으로 조선학생회가 조직되었다. 그후 1925년에는 사회주의계 학생단체로 북풍회계의 조선공학회(朝鮮共學會)가 조직되었고, 다시 서울청년회계의 경성학생연맹, 북풍회계의 서울학생구락부, 화요회계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이 조직되었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면서 조선학생사회과학연구회가 결성되어 학교 단위로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시켰다.

192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은 동맹휴학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6·10만세운동의 적극적인 참가를 거쳐 광주학생운동으로 발전하면서 학교 밖으로 나와 조직적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1925년 조선공산당이 조직되면서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927년에는 비타협주의적 좌우익 대표들에 의하여 신간회가 조직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비밀결사운동·농민운동·노동운동·청년운동·학생운동·조선공산당의 활

동·신간회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민족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열단 등이 조직되어 활동하였으며, 만주 지역에서는 3·1운동 직후에는 무장투쟁활동이, 1920년대 중반에는 정의부·참의부·신민부 등 3부가 정립되었으며, 1920년대 후반에는 민족유일당운동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국내외에서 이처럼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도 역시 도민들에 의하여 민족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전국의 중심부이며 요충지로서 남북으로 철로와 도로가 관통하여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전파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던 독립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독립운동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역은 타도에 비하여 독립운동이 활발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1운동시 경기도민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만세운동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3·1운동시 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1개 부·군 모두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3~4월 두 달 동안 225회의 시위운동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 인원도 연 15만 명에 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세운동과 시위 참여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3·1운동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항일 역량은 1920년대 비밀결사운동, 농민운동, 신간회운동 등 다양한 운동의 형태로 계승 발전되었던 것이다.

2) 1920년대 경기도 사회 운동 조직

1920년대 경기도 지역에서 조직되어 활동했던 혈복단, 구국민단, 건아단, 조선개척사 등의 비밀결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혈복단은 서울에서 조직된 대한독립애국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건아단과 조선개척사는 서울의 조선농민사, YMCA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일본의 운동단체와도 연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혈복단과 구국민단은 임시정부의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원고농의 비밀결사는 일본에 있는 조선농우연맹과 연대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셋째, 청년학생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혈복단, 구국민단, 건아단, 조선개척사의 경우가 모두 그러하다.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경우는 수원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건아단과 조선개척사는 수원고농학생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다.

넷째,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주목된다는 점이다. 혈복단과 건아단의 이득수·차인재·임순남·최남순·이선경 등이 그러하며, 수원고농사건의 중심인물인 김성원이 그러하다.

결국 경기도 지역의 비밀결사 조직은 수원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혈복단, 구국민단, 건아단, 조선개척사 등이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당시 수원군에 위치하고 있던 수원고등농림학교는 경기도 지역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3) 신간회의 창립과 경기 지역 지회의 조직활동

1919년 거족적 항일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이 전개된 이후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민족운동의 방법론이 모색되었다. 국외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족이 있었으며, 홍범도·김좌진 등에 의해 이루어진 무장독립운동론이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계열에 의해서 '실력을 길러 독립을 준비하자'고 하는 실력양성운동론을 전개하고 있던 상황에서 1926년 11월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정우회(正友會)는 정우회선언을 발표한 후 종래의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의 일시적 공동전선 결성을 제기하였다. 이 제안을 민족주의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양자는 1927년 2월 연합전선으로서의 신간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들은 일제와의 일체의 타협을 부정하고 조선의 절대독립론을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1927년 2월 15일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들의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다.

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一,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一,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한편 신간회가 창립된 후 전국의 각 단체들, 즉 사상·청년·노동·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신간회를 지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지지형태는 아직도 존립하는 사상단체의 해체와 파벌박멸을 통한 전선의 통일, 신간회에 대한 지지와 후원의 표명이었다.

신간회 각 지회의 설립운동은 1927년 12월에 전국적으로 140여 개의 지회를 설립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해 나갔으며 회원수도 3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지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신간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창립 직후부터 심한 일제의 감시로 인하여 중앙본부의 활동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오로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하였던 지회의 활동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경기도 지역에서도 신간회 지지와 후원은 역시 대단하였다. 1927년 6월 10일 경성지회를 시작으로 동년 8월 8일 성남(城南)과 24일 광주(廣州)지회가 설립되었고, 동년 10월 17일 수원지회, 11월 12일 안성지회, 12월 5일 30여 명의 회원으로 인천지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28년 들어서는 3월 20일 마포 지역과 고양의 서부 지역을 통합한 경서지회 설립, 6월 10일의 강화지회가 설립되었고 1929년에는 8월 15일에 장호지회, 1931년 1월 3일에 광주 지역에서 광흥지회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는 설립연도가 분명치 않은 용인지회, 개성지회, 장연지회 등이 있으며 본부직속으로 양주지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경기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 설립과정을 보면 그 양상이 독특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신간회 지회에서의 활동은 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신간회 지회 설립의 보편적인 현상은 지역 차원에서 신간회설립준비위원회(혹은 신간회발기위원회) 구성이었다. 이 위원회의 활동에 의하여 회원이 30명 이상 모집되면 본부에 지회설립 신청을 하고 승인이 있게 되면 설립대회의 날짜를 정하여 경찰에 집회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지방에 존재하고 있었던 각종 단체들의 지지나 후원에 의하여 그 단체들 중의 한 단체나 혹은 단체와 단체의 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단체의 중심은 청년단체들이었다. 영광지회·마산지회·원산지회 등이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지회 설립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광주 지역 신간회 지회의 설립은 1927년 8월이었다. 광주 지역에는 8개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지역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광주중앙청년회, 송파광주청년회, 광명청년회, 진흥청년회, 노동공제회, 『조선일보』·『중외일보』·『조선농민사』 지국이 있었는데 송파청년회가 바로 신간회 지회 설립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다. 지회장은 한순회(韓順會)가 선임되었고 간사로는 한백봉(韓百鳳)·한백호(韓百鎬)·이대헌(李大憲)·유인목(兪仁穆)·박기환(朴基煥)·한용회(韓龍會) 등이 맡았다. 광주지회는 돌마 지역의 인사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광주지회는 지회장이었던 한순회의 활동으로 유명한데, 3·1운동에 참가하면서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에 투신한 그는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천도교에 귀의, 천도교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봉도(奉道)까지 역임하였다. 천도교 광주교구장으로 있으면서 이천·여주·원주·음성 등지에 연락책임까지 맡아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포교를 위한 전국순회강연을 통해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상해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가 천도교인들의 연합예배인 백일기도회에서 강론 중에 안심가(安心歌) 중 멸왜심고(滅倭心告)로서 '무궁한 내 조화로 개같은 왜적놈들 일야간에 멸하고서 아국운세(我國運世) 세계에 떨치리라'는 대목을 한번도 빼지 않고 기도문에 넣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수원지회의 경우는 1927년 10월 8일, 3·1운동 직후 구국민단을 조직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인사들과 수원의 유지들은 처음으로 북수리 천도교당에 모여 신간회 수원지회 조직문제를 논의하고 조직준비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동월 14일에 준비회를 열고서 오는 17일 천도교당에서 수원지회의 결성대회를 개최한 다음 그 취지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종로교회당에서 대강연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인천 지역에서 신간회 지회의 설립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27년 11월 24일 인천의 유지 수십 명이 모여 준비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그 창립준비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동년 12월 5일 입회인원 67명으로 대회준비위원이었던 곽상훈(郭尙勳)이 사회를 보고 본부에서 파견된 이관용이 인천지회 창립대회 개회사를 겸하여 신간회의 유래와 현재 발전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하상훈이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어 의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인천지회 간부와 장차 대회에 출석할 대의원 2인을 선거하였다. 간부진의 선출방법은 지회세칙에서 규정되는 사항인데 즉, 회장·부회장은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또한 역시 직접투표에 의해서 수명의 전형위원이 선출되어 그들에 의해 배수의 간사들이 추천된 후 다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간사가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당시 임원은 대부분은 신문기자들이었다.

그러나 지회설립을 준비하여 추진해나가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회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대회 날짜를 정하고 경찰에 집회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갖은 이유를 대서 탄압을 가하였다. 양주에서는 1929년 4월 경에 지회설립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위협으로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명칭상으로는 양주지회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1929년 10월 말 현재 중앙 본부 직속으로 회원 30여 명으로서 실제 조직은 존재하였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1927년 이래 계속된 신간회 지회의 활동가와 활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내 각 신간회 지회에서 주요한 활동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식인들이었다. 인천지회의 경우는 신문기자들이 그 주축을 이루었으며 수원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로 교육계 인사들과 지역사회운동가들이었다. 회장 김로적은 수원소년군지도자였고, 부회장 염석주는 삼일여학교 후원자이면서 샘골학원 이사장이었다. 그리고 1929년 당시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선태는 화성소년군단장직을 맡고 있었고 수원강습소 보조교사였다. 총무간사 김병호 역시 삼일여학교 교사였고, 공석정의 경우는 오산청년동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1928년 2월에 열린 제1회 신간회 정기대회가 일제의 탄압으로 금지된 이후 3월 28일 어려움 끝에 열린 본부 임시간사회에서는 정기대회에서 개최하려던 규약 초안을 각 지회에 배부하여 각 지회의 수정의견을 종합하기로 하고 동시에 각 지회에 본부의 간부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1929년 4월 11일에 열린 경성지회대회 임시간사회에서 중앙간부개선에 관한 건을 본부건의안으로 결의하였다. 경성지회에서는 전국 12도에 일본을 합하여 14개 지역을 14개 선거구로 정하고 매 선거구에 2명씩의 중앙간부 선거위원을 선출하여 해(該)위원에게 일임하여 중앙간부를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복대표안의 골격을 본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일제도 1929년 6월 28일~29일 양일 간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 대회에서 허헌이 집행위원장으로 되었고 신간회 본부에서는 우선 전국을 14개 구역으로 나누고 회원수에 비례하여 각 구역을 다시 소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회에 소속 소구역을 지정하였다. 소구역 대표수는 경성 2명, 경기 1명 등 전국적으로 총 34명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구역에서 인천·강화·광주·수원·안성의 5개 지회가 협의하여 공석정을 선출하였다. 공석정은 수원 출신으로서 직업은 신문기자였다. 신간회 수원지회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회원이었다.

각 지회에서는 조직강화를 위해서 지회연합기관의 설치를 중앙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는 1929년 7월 허헌(許憲) 중앙집행위원장체제에서 새로이 작성되는 「신간회강령급규약(新幹會綱領及規約)」에서 현실화되었다. 지회연합회가 설치될 경우 거리상 가까운 지방연합회 소속의 지회들은 상호 형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본부의 지회에 대한 통제력은 이전에 비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회의 활동은 본부의 지휘권 내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함북연합회와 평남연합회 두 곳만이 결성되었다. 경기도에서도 연합회 결성을 발기하였으나 경찰의 금지 조처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4) 근우회의 창립과 경기 지역 지회의 조직활동

한편 항일을 목표로 하여 좌우합작체로 조직된 신간회에 뒤이어 역시 좌우합작체의 성격으로 1927년 5월 전국적 여성운동조직인 근우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근우회운동은 그 출발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신간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진행되었다. 1927년 4월 26일 김활란·유영준·유각경 등의 민족진영과 황신덕·박원희·정종명·주세죽 등 사회주의진영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발기총회를 열어 회명을 근우회(槿友會)라고 정하였고 강령을 결정한 후 5월 2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근우회는 2~3년간 지방조직의 확대에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1928년도 임시전국대회부터는 본부 중앙집행위원회로 지방지회의 진출이 크게 두드러졌다. 1929년까지 충청도를 제외한 전국에 57개, 해외에 3개의 지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경기도 지역에서도 지회들이 조직되었다. 1929년 6월 15일 개성여자교육회를 기반으로 하여 개성지회가 창립되었다. 1920년에 창립된 개성여자교육회는 근우회 조직준비를 192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본부에서 온 정칠성이 설립대회 임시의장을 맡았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인천여자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데 본부에서는 인천 지역 강연회에 정칠성과 강정임 등을 지방순회강연대로 파견하여 강연을 마친뒤 근우회 지회설치에 대한 의론이 있었고 이후로 계속하여 설치 준비를 하다가 1929년 7월 5일 인천지회가 창립되었다. 근우회는 주로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하였으며 또한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착취되는 부녀노동자의 이익옹호와 생활개선을 기본 활동과제로 삼으면서 여성운동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데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다. 경기도민의 건국 준비 운동

1) 건국준비위원회

태평양전쟁에서의 참패와 원폭투하 소식을 접하면서 항복이 임박해지자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의 안전귀국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송진우에게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송진우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만이 통치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총독부당국은 여운형에게 이를 다시 요청하였다. 총독부가 자신들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여운형에게 항복 후의 치안권과 행정권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은 여운형이 조선의 청년·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항복이 공표되었을 때, 조선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여운형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총독부 관리들은 판단하였다.

8월 15일 아침,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로부터 일본 패망 후 치안권과 행정권을 위촉받은 여운형은 ①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②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③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④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등 5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총독부는 여운형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여운형은 즉각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여운형과 그의 측근 인사들은 8월 15일 오후에 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17일에 여운형을 위원장, 安在鴻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완료하였다. 이어 8월 26일에는 건국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언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선언의 요지는, "건국준비위원회는 한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준비기관이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각 계층의 인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기관으로, 반동적 반민주세력과 투쟁하여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한다. 둘째,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정권의 수립을 기한다. 셋째,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한다.

여운형은 해방 전에 조직한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그리고 일제의 항복 직후 석방된 정치범과 민족주의자들과 더불어 건국을 준비해 나갔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히 확산되자,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정비하였다. 8월 31일, 건국준비위원회는 12부 1국의 체제를 갖추어 준정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은 지방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8월 말에는 건국준비위원회지방지부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전국적으로 145개에 이르렀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해 준비하는 과도적 조직체임을 표방하고, 반민족적·반민주적 세력을 제외한 전 민족의 통일체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극우세력(한민당 계열)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극좌세력(조선공산당 계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나 균등의 원칙을 존중한 중도 우파세력(안재홍의 국민당계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지향하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부정하는 중도 좌파세력(여운형의 인민당 계열)"을 모두 참여시켰다. 여운형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던 정치세력들을 한 곳으로 규합함으로써, 국가건설을 위한 좌우균형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건국준비위원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초기의 조직이 급박한 상황에서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면, 중기의 조직은 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 되었으며, 후기의 조직은 미군의 진주가 임박해지고 우익세력들이 점차 세력을 규합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에서 탈퇴함에 따라 보다 좌익적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인사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였지만 조직적 측면에서는 12부 1국이라는 상당히 체계화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영향력은 확대·강화되었으나, 전국유지자대회의 문제, 건국준비위원회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에서 여운형과 안재홍 간에 견해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간부들이 조직의 방침과는 다르게 독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 내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 국민들의 여망이었던 건국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국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4일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여운형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출되고 증폭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가속화되었다. 일제의 항복 직후 정세를 관망하던 우익세력들은 점차 결집하기 시작하였으며, 반면에 일사불란해 보이던 건국준비위원회는 내부적 균열을 겪게 되었다. 안재홍 등 우익세력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초계급적 협조정신으로 명실상부한 과도기적 기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경화되어 간다"며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탈퇴하였다. 이렇게 되자, 초기와는 달리 좌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결국 조선공산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2) 조선인민공화국의 탄생과 좌절

9월 초 미군의 진주가 임박하자, 건국준비위원회 내에는 미군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군정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부로서 대처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건국준비위원회는 9월 6일 경기여고에서 1천 300백여 명의 인민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운형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임시정부조직법을 가결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朝鮮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정강과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1.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기한다.
2. 일본제국주의의 법률·제도를 즉각 철폐한다.
3. 일본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다.
4. 일본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들의 공장·광산·철도·항만·선박·통신 그밖의 모든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
5.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6.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만 14세 이하의 유년노동을 금지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한다.
7.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우방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시한다.

이 밖에도 18세 이상의 남녀에 대한 선거권 부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 최저임금제, 실업 방지, 강제공출제 철폐, 의무교육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중요 산업기관의 국유화 등이 사회주의정책이라 하여 우익세력의 반발을 샀으나, 우익 민족주의단체들을 포함하여 대다수 독립운동단체들도 해방 전 토지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인민공화국의 정강과 시정내용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온건한 내용들이었으며, 특히 토지관련 정책은 농민들로 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이 발표한 선언문과 강령, 그리고 정책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방침 등으로 볼 때 조선인민공화국의 조직성격은 좌파지향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래세력에 대해 철저한 투쟁을 한다는 내용, 노동자·농민의 생활향상, 세계 민주주의 국가와의 국제평화주의 등의 내용을 들면서 좌파지향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건국준비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급속도로 조직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먼저 미군정 실시에 직면한 여운형과 박헌영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해방정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필요성에서였다. 특히 좌파세력은 형식적이라도 국내 각계 각층의 사회세력들이 참여하는 정치세력들을 만들어 미군정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고 주도권을 장악하여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즉 미군정을 이용하여 좌파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둘째,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맞설 수 있는 정치조직을 만들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당시 해방정국에서 중경의 임시정부가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승만을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한 것도 민중과 미군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동시에 중경의 임시정부보다 우월한 지지를 확보하여 먼저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인민대표자대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 55명, 후보위원 20명, 고문 12명을 선출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지도부 구성은 좌익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좌우익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부서장으로 선임된 인사들 가운데 우익은 모두 참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좌익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대해 벽보내각이나 좌파조직이라는 비난이 대두되자, 여운형은 국가 건설을 위해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여운형은 먼저 국내의 혁명동지를 규합·단결하여, 국가건설을 준비하고, 해외 혁명동지들이 입국하면 이들과 함께 혼연 일체의 과도정권을 세우려 하였다.

여운형의 이러한 복안에도 불구하고, 주석으로 선출된 이승만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우익인사들은 조선인민공화국에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아놀드(Archibald V. Arnold) 군정장관과 하지(John R. Hodge) 미군사령관은 10월 10일과 16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였다. 이들은 "미군정 기관은 남한에서 최고 통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두 개의 정부를 병립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선인민공화국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해방 직후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은 좌절되었다.

미군당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고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미군당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과 반목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우익세력들은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에서부터 이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 여운형은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였으니 조선민족은 즉시 자주적으로 주권 확립에 매진하여야 하며 우선 국내외의 혁명단체를 총망라하여 새로운 독립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송진우 등 우파는 총독부가 연합군에게 정권을 인계할 때까지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한국의 정통정부로 추대하자고 하였다.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방정국을 주도하게 되자, 송진우 등은 여운형을 비난하고, 임정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면서 별도로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파는 조선인민공화국에 참여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제의를 거부하고, 자파의 이익을 위해 미군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미군당국은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3) 경기도의 건준과 인공

경기도는 해방시점인 1945년에 나름의 발달된 통신 및 교통과 공업체제를 갖고 있었다. 좋은 철도와 도로는 경기도의 군들을 연결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이 시기 남한지역 대부분의 시, 군에서 급속한 인구팽창이 있었음에 반해 경기도는 수개 군이 근소한 인구증가를 보였으며, 3개 군만이 1930년대에 절대인구의 감소를 겪었다. 1944년부터 1946년 사이의 인구증가는 불과 평균 9%로서 당시 남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해방직후 남한지역에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된 지역일수록 외부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근거해 해방직후 경기도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보자면 당시 남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곳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겠다. 물론 이는 해방직후 경기도 지역의 일반적 정치 동향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 경기도 역시 남한 내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었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지역은 해방직후 대대 적 인구증가를 경험했던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보다 민중 소요의 빈도가 적었고,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뒤늦은 1945년 11월 10일에 이르러서야 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5년 미군정의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의 군에서 인민위원회가 실제 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포천, 시흥, 수원, 용인, 평택 등이었다. 수원과 그 주변 대부분의 군들에서 인민위원회들은 군청 청사를 인수하여 활동하거나 그 근처의 장소에 근거지를 두었다. 또한 대부분의 면사무소에 그들의 대표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인민위원회는 여운형의 고향인 양평군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용인에서는 경찰 및 군청 직원들의 과거를 다루기 위한 인민재판소가 수립 되었다. 그 외 인민위원회들은 또한 이천, 여주, 안성 및 가평에서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인천의 인민위원회는 현지의 공산당 지부 및 시내 각 공장지대의 전평에 기초를 두었으며 상당히 강력했다.

2.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의 민족 수호 운동			
학습 목표	1. 경기도민의 3.1운동 및 독립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2. 경기도민의 건국 준비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경기600년과 경기100년의 의미를 알아본다.		
전 개	1. 경기도의 3.1운동(15분)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일제강점기 사회운동을 주도한 경기도민 (15분)		
	3. 경기도민의 건국 준비 운동(15분)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함께 해봅시다(30분)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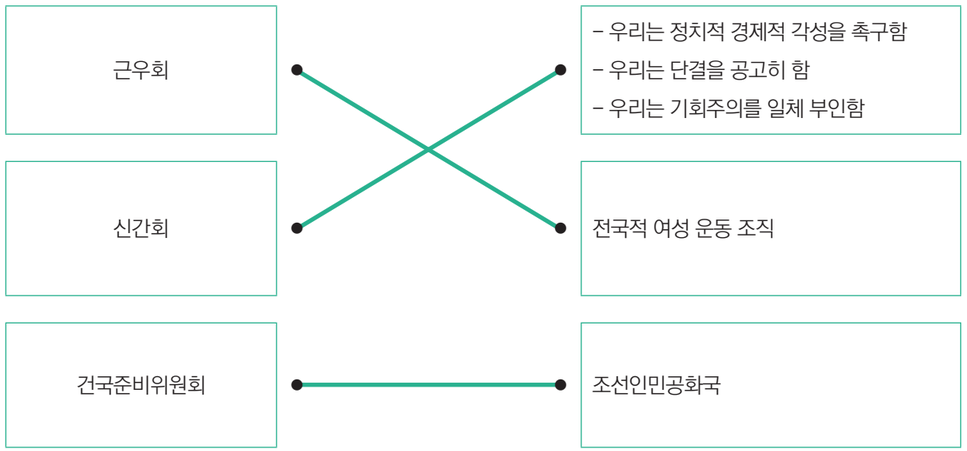
3.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경기도의 3.1 운동 전개 과정의 특징을 써 보시오.

3월 상순	3월 하순 이후
평화적인 만세시위	무력시위
까닭	일제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방식으로 시위대의 감정이 격화되었으며 시위군중의 무차별 체포 · 투옥은 시위대를 흥분시켰다.

2. 다음은 일제 강점기 경기도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생각 더하기]

1. 다음은 여운형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이양 제의를 받았을 때 요구했던 5대 요구안입니다.

① 전국적으로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②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 줄 것,
③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④ 학생과 청년을 훈련 · 조직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동원 · 조직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 것

2. 여러분이 만약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이양 제의를 받았다면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여운형과 같이 민족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요구안	까닭
각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시대적 상황에 맞는 근거를 가지고 기술

4. 교사 참고자료

몽양 여운형

1886~1947. 독립운동가 · 정치가.

개설

경기도 양평 출신.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회숙(會叔). 호는 몽양(夢陽). 아버지는 여정현(呂鼎鉉)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다. 14세 때에 유세영(柳世永)의 장녀와 혼인하였으나 사별하고, 충주의 진상하(陳相夏)와 재혼하였다.

1900년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흥화학교(興化學校)와 통신원 부설의 관립 우무학당(郵務學堂)에서 수학하였다. 1911년 평양의 장로교회연합 신학교에 입학하여 2년을 수학하고, 1914년 중국 난징(南京)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1907년 경기도 양평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지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무렵 개신교에 입교하였다. 1908년 미국인 선교사 클라크(Clark. C. A) 목사의 조수로 있으면서 기호학회에 참여하여 평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시 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승동교회(勝洞敎會)를 출입하였다. 1911년 강원도 강릉에서 남궁억(南宮檍)의 후원으로 운영되던 초당의숙(草堂義塾)의 교사가 되어 청년교육에 힘썼다.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南京)에서 활동하다가 1917년 상하이(上海)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8년에 상해고려민친목회(上海高麗民親睦會)를 조직하였으며, 같은 해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의

조직을 주도하고 총무간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 재일유학생의 2·8독립선언과 3·1운동에 관여하고, 김규식(金奎植)을 상하이로 초빙하여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결정하였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에 힘썼으며 임시의정원 의원과 외무부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상하이에서 아동들에게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성학교(仁成學校)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일본을 방문하여 일제 고위관리들과 여러 차례 회담하면서 일제의 자치제 제안을 반박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

1920년 사회주의 계열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피압박민족대회(極東被壓迫民族大會)에 참석하였다. 같은 해 김구(金九)·손정도(孫貞道) 등과 함께 한인노병회(韓人勞兵會)를 조직하여 노농병 양성과 군비 조달에 힘썼다.

1923년 임시정부의 진로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였으며, 1925년 쑨원(孫文)의 권유로 중국국민당에 가입하고 중국혁명운동에 참여하였다. 1926년 중국혁명운동이 실패한 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9년 상하이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32년 출옥하였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朝鮮中央日報社) 사장직에 취임하였으며, 1934년 조선체육회 회장직을 맡았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되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2년 치안유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44년 8월 일제의 패전을 예상하고 독립운동과 국가건설을 위하여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을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건국동맹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농민동맹(農民同盟)·부인동맹 등을 조직하였으며, 옌안(延安)의 독립동맹(獨立同盟)과 제휴하여 연합작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건국 준비를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의 결성을 주도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소되고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의 부주석(副主席)이 되었으며, 김구·이승만·안재홍·송진우 등과 만나 국가건설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11월에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을 결성하여 당수직에 맡았으며, 미군정 장관의 고문을 맡기도 하였다.

1946년 2월 북한을 방문하여 조만식(曺晩植)과 김일성(金日成)을 만나 미소공동위원회의 대처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좌파 세력의 연합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5월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후 김규식 등과 함께 좌우합작과 민족통일에 기반을 둔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와 성공을 목표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8월 조선인민당 당수직을 사임하였으며, 9월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 3당 합당문제를 포함한 남한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11월 사회노동당(社會勞動黨)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과 합동을 제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1947년 1월 우파 세력의 반탁운동과 좌파 세력의 편협성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정계에 복귀하였다. 3월 신당 결성을 위한 준비 활동에 착수하여 5월에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을 창당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김규식·김창숙(金昌淑)과 함께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펼치는 등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십여 차례 테러를 당하였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韓智根)에게 저격을 당해 서거하였다.

상훈과 추모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8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경기도박물관, 『조선 근본의 땅, 경기』, 경기도 박물관, 2014

경기문화재단, 『경기, 천년의 문화사-고려전기』, 경기그레이트북스, 2018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1』, 휴머니스트, 2012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KOREA/)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3단원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9차시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10차시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11차시
경기도가 주도한 조선후기 문화발전

12차시
근대교육의 산실 경기도



9차시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1. 대동법의 시행과 경기도

정부에서는 특산물을 수취하는 공물제도도 바꾸고자 하였다. 16세기까지 공납제로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과 지방의 기관에 상납하였는데, 그것이 많은 폐단을 야기하자 다른 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공납제 하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났다. 한번 지방의 특산물로지정이 되어 공안에 오르면, 후에 그 지방에서 생산해내지 않더라도 그 산물을 바쳐야 하였다. 특히 바치는 점퇴의 과정에서 서리(胥吏)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특산물이 퇴짜를 받아 바칠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농민들에게 운반비를 별도로 징수함으로써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자 특산물을 현물로 직접 바치는 공납제도를 쌀로 바치는 대동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1608년)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공납제를 토지 1 결당 12두 내지 16두로 바치는 대동법으로 경기도 지방에 처음 실시하였다. 이에 경기도 농민들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였고 반면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지주들과 토호및 관료들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예전에는 특산물을 호(戶)당 부담하여 바치게 되어, 양반호와 평민호의 부담이 같거나 신분차이를 바탕으로 평민호의 부담이 많았는데, 대동법의 실시로 토지 1결당 12두 내지 16두로 바치는 형태로 바뀜으로써 토지를 많이 가진 지주 토호들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주 토호들은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매우 불편하다고 상소함으로써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폐지시키고자 하였다. 대동법이 양반·토호들의 반대로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은 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하였고, 이에 조정에서는 대동법을 그대로 관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정부는 대동법을 점차 각 도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는데, 인조 2년(1624)에 강원도, 효종 3년(1651)에 충청도, 효종 8년(657)에 전라도 연해지방, 현종 3년(1662)에 전라도 산간지방, 숙종 3년(1677)에 경상도, 숙종 34년(1708)에 황해도 지방에서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대통법이 1608년에 경기도에 처음 실시한 이래 100년 만에 전국에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린 이유는 양반지주·토호들의 저항을 무마하면서 실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의 실시 결과 방납의 폐단이 시정되고 공인 중심의 상품유통관계가 발전하게 되었고, 미곡이 상품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1결당 12~16두의 전세로 징수함으로써 과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되었다. 즉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던 세금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온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자.'는 대동법.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자.

조선 시대, 누구나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 공납. 돈이 많든 적든 백성이라면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을 정해진 양만큼 나라에 바쳐야 했다. 논 100결을 가진 대감도, 소작농인 김 씨도 똑같은 양의 공납을 내야 했다. 심지어 이웃이 가난한 형편 때문에 공납을 내지 못하면 대신 그 공납을 내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당시 벼슬을 하기 전 10여 년 동안 직접 농사지으며 살았던 김육.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세금으로 고통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김육이 찾은 해결책은?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하자. 드디어 관리가 된 김육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은 되고 있으나 관리와 지주들의 반발에 막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새로운 법'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동법 시행을 반대했다. 이에 평생 집 한 칸 없이 청빈한 삶을 살았던 김육은 죽기 직전까지 상소를 올렸다. 일부 시행되던 대동법 시행이 자신의 죽음으로 중단될까 염려해서이다.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를 시작으로 1651년 강원도와 충청도까지 시행된 대동법은 김육이 세상을 떠난(1658년) 후 호남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1708년(숙종 34년) 황해도 지역까지 시행되었다. 대동법을 시행한 지 100년 만에 비로소 전국적인 세금 제도가 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난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최고의 개혁〉 (EBS 어린이 지식e, 지식채널(시공사))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물고 있던 1623년, 김육은 충청도 음성이라는 작은 고을의 원님이 되었다. 그는 위로는 임금을 잘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잘 보살펴 훌륭한 원님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였다. 하지만 음성에 도착한 김육은 고을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농민들은 대부분 제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다. 게다가 가을걷이의 절반은 지주에게 바쳐야만 하였다. 추수가 막 끝난 가을에도 굶주림은 계속되었고, 나라에 낼 세금을 마련하려고 다음 해 농사에 씨앗으로 써야 할 곡식마저 써 버리기 일쑤였다. 김육은 먹고살 길이 없어서 구걸하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수없이 만났다.

김육은 조세 제도의 개혁, 동전 사용 등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바탕 위에서 나라 살림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개혁을 시도하였다.

가. 대동법을 실시하자

김육은 원님으로서 농민의 생활을 보살피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나 작은 고을 원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금 제도를 고쳐야만 농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중앙 관직에 나가게 된 김육은 조세 제도의 대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공물 내는 제도

를 뜯어고치자고 하였다. 공물 납부를 둘러싼 폐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공물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탓에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깔개 하나가 무려 무명 200필과 맞먹을 정도였다. 김육은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 공물을 쌀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대동법이 확대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던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던 많은 관리들도 그의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면 세금이 잘 걷히고, 그러면 나라 살림도 차차 나아질 것'이라며 호패법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육은 '호패법은 먹고 살 길이 없는 농민들을 도적으로 만들 뿐'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동법 확대 과정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고 나서 100년 만에야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지주들이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민들은 특산품을 현물 대신 쌀이나 베, 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이라는 상인에게 돈을 주고 사들이게 하였다.

상평통보

김육은 화폐의 유통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이 바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화폐도 전국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대동법을 확대하라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2012. 4. 9., 휴머니스트)

2. 개성상인과 조선 후기 무역

조선후기 경기도지역의 대외무역은 개성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개성은 중국-의주평양개성-서울동래-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의 연결고리역할을 하였다 개성상인들 가운데 부상대고들은 중국-조선-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개성상인은 국내 피잡물을 비롯하여 인삼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인삼상인으로서 18세기 후반부터 대청무역의 주도권을 잡았던 상인이었다. 개성상인들은 책문후시(柵門後市)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의주상인에게 수출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또 국내의 수요를 감안하여 중국의 물화를 선별하여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의주상인을 조종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시기 대청무역의 주요 물품은 종이류·포목류 피혁류·각종 해산물이었다. 이 가운데 종이류는 개성상인에 의해 매점되고 있었다. 중국에 수출되는 종이류는 대개 각 지방의 사찰에서 제조되었고, 관 무역품의 경우 지전인(紙廛A)과 지계인(紙契A)들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는 개성상인들이 전국의 종이 만드는 사찰을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품질 좋은 종이를 매점하여 중국에 직접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피물의 수출에도 개성상인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정조대의 기록을 보면 개성상인이 의주의 부장대고들과 연계하여서 수달피를 다량으로 매점하여 중국에 수출하므로 공인들이 방물용 수달피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피의 경우 청과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되던 상품이었다 우피는 공사(公私)에 있어서 긴요한 물품이어서 도고(홈陣)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피는 동래나 의주를 통해 일본과 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우피는 소의 도살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우피 수출의 증가는 곧 우척의 도살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9세기 이래 대일 사무역에서 우피수출은 일정량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런데 우피 수요의 증가가 현방이나 향도사(鄭廣韓)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잠도(慣屬)의 성행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개성상인들은 현방(應房)이나 창전시민(昌慶市民)들을 따돌리고 우피를 매점하여 의주상인에게 판매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개성은 18세기 중엽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중국의 밀무역선인 당선(홈船)들과 교역하는 잠상들의 활동무대이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밀무역에서 중요한상품인 홍삼은 대부분 개성에서 공급되었다. 인삼의 대외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필요한 인삼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인삼의 채취와 판매 일체를 호조에서 관리하도록 통제하기도 하였다.

순조대의 기록을 보면 청나라로 수출하는 홍삼은 모두 개성부에서 생산되는데 의주상인이 매년 금법을 무릎쓰고 밀 것이 수천 근을 내 개성인삼밭 려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인삼을 가공하여 만든 홍삼의 수요가 증가하자 정조대에 홍삼제조장인 증포소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증포소는 순조대에 개성으로 옮겨갔다. 경강에서 개성으로 증포소가 옮겨간 것은 대청 홍삼무역에서 개성상인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삼은 조선에서 주로 생산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무역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영조대의 기록을 보면 송상의 무리가 인삼을 채취하는 대로 모두 무역하여 일본에 들여보내므로 일본에서 생산된 은화가 모두 개성상인에게 들어가고. 이러한 은화는 다시 중국과의 무역에서 결재수단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1810년 이래 인삼무역의 주도권은 역관으로부터 상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 상인들 가운데 개성상인이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개성상인은 대청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의주의 상인들과 결탁하였다. 개성상인들은 18세기에 이르러 대청무역의 주요 수출품인 산삼, 피물, 종이류 등을 매점하여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는 개성이 영남보다 인삼생산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대청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송상은 포삼의 공무역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무역에도 활발하게 종사하였다. 개성을 중심으로 밀조된 홍삼은 각처의 상인들에 의해 육로는 물론이고 해상으로도 밀수출되고 있었다. 특히 서해에서는 중국배와 서양배가 수시로 출몰하여 우리 측의 여러 지역 상인들과 밀무역을 벌였다

한편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고 빠른 기간 내에 도회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화성부에 이주하는 부상대고에게 모자와 인삼의 국내판매권을 위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였다. 즉 수원으로 이주한 부실호(富實戶)에게 모자와 가삼

(家參)에 대한 독점권인 매입권을 허가하여 각처의 상인들이 수원으로 와서 교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모자와 인삼에 대한 대청무역상의 특권도 부여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판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수원을 물화의 집산지이자 상업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에 의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조선후기 대외무역은 공무역에서 사무역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성상인들은 각 지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의주-동래 상인들과 연계하여 국내상권뿐만 아니라 대청-대일 무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상업의 발달과 경기도의 장시

조선후기 경기도지역의 상업발달 추이는 각종 읍지와 지리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8세기 중반 이후 간행되는 각종 자료에서 상업분야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면서 각 지방의 재정에 관한 것이나 장시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역에 나타난 상업발달 추세는 일반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는 것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증가시키게 하였다. 정조대의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내 민인들이 농사를 게을리하는 것이 팔도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므로 관찰사로 하여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수령들을 만나서 신칙하고 민인들을 효유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업발달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자.

강화 같은 곳은 서울과 개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륙교통을 통해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생산물을 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민들이 칩을 채취하여 경강을 거쳐서 서울로 판매하러 들어가다가 난전으로 지목되어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다. 적성(積城)은 토지가 척박하지만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백성들이 땔나무를 판매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아 농상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여주의 경우 여강을 끼고 있는 이포의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보다는 수운(水運)으로 장사하면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여 선상들이 대두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남양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잇닿아 좌우로 포구와 항구를 끼고 있고 염어전이 남북해안에 수없이 많기 때문에 남양의 서촌(西村)은 어염의 상업적 이득을 독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양에서는 보통 때도 매 장마다 매매되는 소금의 양이 항상 100여 바리가 되고 3~4월이나 8~9월 등 장을 담그고 김장할 때가 되면 하루에 팔리는 것이 수백여 바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해안에 위치한 안산(安山) 역시 생선과 자염(煮鹽)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소금의 생산과 판매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성의 경우 일반주민들이 봄 가을이면 대부분 행상을 위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송도 군영의 군사훈련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경기도에서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거나 해안과 강가 또는 산협에 위치하고 있는 민인들이라도 그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어염이나 땔나무의 판매와 수운 등으로 생업을 삼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는 국초 이래 최대의 소비지인 서울의 물자수요 공급지로서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장시의 개설을 다른 지역보다 억압하는 추세에 있었다. 장시 개설의 억제는 바로 상업 활동의 억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 전에 경기도에 장시가 개설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크게 억제되었다. 그 이유는 시전상인들의 보호와 각종 물화가 서울로 공급되는 것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주민들은 생산물을 서울로 가지고 와서 교역하였다. 그러나 임란이후부터는 정부에서 경기지역에 장시가 개설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시가 함부로 개설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이로 인해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평, 광진(廣津), 누원(樓院), 검암, 송파 등과 같은 곳에 장시가 개설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후기 장시의 양적 증가와 장시 내부의 질적인 변화는 사상인들의 활동, 금속화폐의 전국적인 유통 등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으로 각 지역마다 국지적인 시조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장시는 대개 5일장 체계로 정착되었으며, 대장시 및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장시들을 중심으로 시장권이 확대되어 갔다 특히 경기도는 개성·강화-광주-수원의 4도(四都) 체제가 확립되면서 서울과의 연계관계가 더욱 긴밀해 지게 되었다. 조선후기 각종 자료에 나타나는 경기도에 개설되고 있던 장시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자 료 명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임원경제지	증보문헌비고
전국 장시 수	1,064	1,061	1,052	1,075
경기도 장시 수	101	102	93	102

전국의 장시 수는 『임원경제지』와 『증보문헌비고』 사이에 23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경기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장시 수의 증감만으로 변동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각 자료간의 장시의 위치, 장시명 등을 검토해 보면 신설·통합·폐지 이설·흡수 등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내에 개설되었던 장시 가운데 크게 성장한 곳은 『만기요람』에 전국 15 대장시로 소개된 광주의 송파장·사평장, 교하의 공릉장, 안성의 읍내장을 꼽을 수 있다. 송파장은 수륙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므로 서울의 중도아배(中都兒輩)와 사상인들이 결탁하여 삼남과 북도·영동에서 올라오는 상인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시전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송파장이 한때 혁파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광주유수 서명빈이 보장요진인 송파의 주민이 모두 흩어지게 되면 유사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시개설을 요청하였다 송파장은 명목상1개월 6개 시의 5일장이었지만 실제는 거의 매일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전상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교하의 공릉장이 큰 장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풍부

한 물산이 집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하였던 것도 큰 장점이었다

안성장은 18세기 초에 이미 대장시로 성장해 있었다. 위치상 서울과 삼남을 이어주누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모여들어 한남의 도회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안성이 번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대장시로 성장한 곳은 대개 해로와 수로가 만나는 포구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안성천과 진위천은 수원(水源)이 깊지 않아 배가 운항할 수 있는 구간이 짧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안성장과 같은 곳이 대장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배후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내륙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서쪽은 서해에 의해, 동쪽은 남한강에 의해 물자가 이동하며 배후지를 양분하고 있다 안성의 경우 경강(京江)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한강과 서해안의 거리가 멀어져 배후지가 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안성장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안성을 중심으로 시장권을 형성하며 인근 군현에서 개설되고 있던 장시는 6곳이었다. 이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안성의 군내장, 양성의 현내장, 평택의 관문장은 읍취락 또는 그 인근에 개설되었고, 수원의 오산장, 양성의 소시장은 대로변에, 그리고 진위의 신장은 대로변은 아니나 여러 개의 길이 과하는 곳에 위치하였다. 즉 도로의 결절점(結節點)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시의 개시일로 보면 안성을 중심으로 수원, 진위, 양성, 평택의 장시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의 오산장과 진위의 신장이 1, 6일 같은 날에 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날에 장이 열리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로 본다면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장시지만 시조k권 범위에서는 시장이 상설화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정조대에 화성(華城)의 건설과 함께 크게 성장한곳이 수원의 장시였다. 정조는 수원을 대도회로 만들기 위하여 전방(懷房)의 설치와 장시를 개설하였고, 서울·개성·평양·의주·동래의 부상(富商)들이 이주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하였다. 수원은 정조의 적극적인 부흥책과 함께 서울과 안성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면서 서울의 부유한 상인들을 유치하고 전방을 설치하는가 하면 장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모민책(幕民策)을 강구하였다. 이에 대해 좌의정 채제공은 수원의 활성화 방안이 결실을 맺으면 전주나 안성보다 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안성이나 전주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장시로 성장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한편 18세기 이후 시장을 통해 잉여생산물을 판매하여 화폐이득을 보게 된 농민들 가운데 상업으로 전업하는 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인삼과 같은 약재나 연초, 생강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거나, 서울이나 지방 도시 주변에서 채소나 과일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른바 상업적 농업은 적은 토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농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성건설과 함께 수원 인근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하영은『관수만록』에서 이 같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근년 이래로 도하의 민인들이 미나리와 채소를 싣고 부내에 판매하러 가는 자가 도로에 이어 지고 있다. 대저 미 나리 채소 둥을 심는 것으로 업을 삼는 자는 밭이 10여 두락에 불과하고 논이 3~4두락에 불과하더라도 가히 5~6명의 생업으로 삼을 수 있다.

수원부만 하더라도 정조의 화성건설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채소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성내로 들어가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농사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는 특용작물이나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서울 근교 양주의 도봉산 기슭에 위치한 누원점은 송파장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북지방에서 올라오는 어물 등을 중간에서 도집하여 경시전의 상업적 이득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누원지방은 동북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대부분의 물화가 거치는 곳이었다. 이곳에 근거지를 둔 중도아배들은 각종 상품을 매점하여 서울의 칠패와 이현 근처의 난전인 등에게 직접 공급하여 시전인들이 환산파시(煥散罷市)한다고 할 정도였다. 누원점민들은 이곳에 장시를 개설 하여 많은 상업적 이득을 얻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누원점민들의 활동영역은 멀리 원산까지 미치고 있었다. 누원점민들의 도고행위에 대해 서울의 포전과 내·외어물전인들이 호소하며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감영에서 신칙하고 단속하려 하였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금압조치에도 불구하고 누원을 비롯한 서울근교의 장시나 점막을 배경으로 한 사상들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후기 시장은 물화교역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장날을 통해 민중들은 다양한 문화와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평소에 바깥 출입이 여의치 않았지만 장날만큼은 자연스럽게 장을 볼 수 있다. 속담에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세상일을 모르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담은 장날을 통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수공업 제품 등의 생산과 판매에 참여하고 있음은 여러 형태의 풍속화와 민화 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풍속화에 나타난 모습이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일 수도 있지만 17세기 이래 대동법의 실시, 동전유통의 활성화, 조세의 금납화, 상업적 농업의 확대 등으로 일반 농민들도 자연스럽게 상품화폐경제에 편입되었다.

4.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가 이끈 조선 후기 경제 발전			
학습 목표	1. 양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경기도민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지방 장시를 통해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조서 후기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6분) : 개성상인에 대한 영상을 보고 조선 후기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개성상인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한다. 개성상인 그들은 누구인가?(http://allclip.sbs.co.kr/end.html?clipid=OB1_42443352 59808489)		
전 개	1.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15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 시행의 결과를 알아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대외무역을 이끈 개성상인(15분)	개성상인을 통해 조선 후기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파악한다.	
	3. 경기도의 장시(15분)	경기도의 장시를 통해 조선 후기 발달한 상업 경제의 모습을 파악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개성상인 이해하기 - 경기도의 장시 지도 그려보기	
	함께 해봅시다(30분)	대동법 시행과 관련한 토론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조선후기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경기도민의 노력을 알아보고, 현재 경기도의 경제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5.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조선 후기 농민들이 공물 납부를 둘러싼 비리, 특히 방납의 폐단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2. 영화 '광해' 중 대동법 시행과 관련한 동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ttp://vnx.fr/pages/28793/%EB%8C%80%EB%8F%99%EB%B2%95)

2-1. 대동법 실시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대동법 실시로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2. 대동법 실시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을 각각 적어 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대동법 실시로 손해를 보는 사람과 그 이유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
	토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동법 실시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 이유	땅이 없는 소작농, 공인
	토지가 없으니까 대동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공인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생각 더하기]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봅시다.

1. 제시된 단어들을 조합하여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봅시다.

〈예시〉

대동법	방납	광해군	경기도	폐단	처음

→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으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1조 제시 단어

김육	대동법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	영의정	기념

→ 평택시에는 조선 후기 영의정 김육의 건의로 대동법이 시행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대동법 시행기념비가 있다.

2조 제시 단어

대동세	특산물	쌀, 옷감, 동전	토지1결당	12두	현물 대신

→ 대동법은 특산물을 현물 대신 토지 1결당 12두에 해당하는 쌀, 옷감, 동전 등의 대동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3조 제시 단어

대동법	양반지주	일반농민	결과	부담	공인

→ 대동법이 시행 결과 양반 지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일반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4조 제시 단어

개성상인	인삼	무역	송상	의주 만상	은화

→ 개성상인인 송상과 의주의 만상은 인삼을 수출하고 은화를 수입하는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5조 제시 단어

장시	보부상	송파장	안성장	시전상인	문화

→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면서 송파장, 안성장 등의 장시가 활발해졌고 장시를 연결하는 보부상이 활동하였다. 장시에서는 탈춤, 판소리 등의 서민 문화가 유행하였다.

6.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7. 교사 참고자료

가. 김육

1580(선조 13)~1658(효종 9).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회정당(晦靜堂). 기묘팔현(己卯八賢)의 한 사람인 김식(金湜)의 4대손이며, 할아버지는 군자감판관 김비(金棐)이고, 아버지는 참봉 김흥우(金興宇)이며, 어머니는 현감 조희맹(趙希孟)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05년(선조 38)에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관으로 들어갔다. 1609년(광해군 1)에 동료 태학생들과 함께 청종사오현소(請從祀五賢疏: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 등 5인을 문묘에 향사할 것을 건의하는 소)를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자, 성균관을 떠나 경기도 가평 잠곡 청덕동에 은거하였다.

청덕동에 머물며 회정당을 짓고 홀로 학문을 닦으니, 이 때부터 스스로 호를 잠곡이라 하였다. 1623년에 서인의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의금부도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음성현감이 되어 목민(牧民)의 직분을 다하는 한편, 증광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 해 10월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으며, 1633년 9월에 안변도호부사(安邊都護府使)로 나가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는 중요한 직임을 맡기도 하였다. 이어 동지성절천추진하사(冬至聖節千秋進賀使)로 명나라에 갔다온 뒤 예조참의·우부승지·장례원판결사를 거쳐 1638년 6월에 충청도관찰사에 올랐다.

도정(道政)에 임해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한편, 수차(水車: 무자위·물레방아)를 만들어 보급했으며,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辟瘟方)』 등을 편찬, 간행하다가 승정원좌부승지가 되었다. 이후 형조참의 겸 대사성·대제학·대사간·병조참의·한성부우윤·도승지 겸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병조참판·이조참판 겸 비변사유사제조(備邊司有司提調)·형조판서 겸 선혜청제조·우참찬·대사헌·예조판서·도총부도총관·개성부유수 등의 현직(顯職)을 지내면서 중국에 두 차례(1643년과 1645년)나 더 다녀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폐의 주조·유통, 수레의 제조·보급 및 시헌력(時憲曆)의 제정·시행 등에 착안하고 노력하는 한편, 『유원총보(類苑叢寶)』·『황명기략(皇明紀略)』·『종덕신편(種德新編)』·『송도지(松都誌)』 등을 저술, 간행하기도 하였다.

1649년 5월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대사헌이 되고 이어서 9월에 우의정이 되자, 대동법의 확장 시행에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의 실시를 반대하는 김집(金集)과의 불화로 이듬해 1월에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로 물러앉아 다시 진향사(進香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71세의 늙은 몸을 무릅쓰고 중국에 다녀온 뒤, 잠시 향리에 머무르다가 이듬해 1월에 영의정에 임명되고, 실록청총재관(實錄廳摠裁官)을 겸하였다. 대동법의 확장 실시에 또다시 힘을 기울여 충청도에 시행하는 데 성공했고, 아울러 민간에 주전(鑄錢)을 허용하는 일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원임(原任) 정태화(鄭太和)가 영의정에 복귀함에 따라 좌의정으로 지내면서도 대동법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을 저술하고 『인조실록(仁祖實錄)』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1654년 6월에 다시 영의정에 오르자 대동법의 실시를 한층 확대하고자 「호남대동사목(湖南大同事目)」을 구상하고, 이를 1657년 7월에 효종에게 바쳐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죽어, 이 사업은 유언에 따라서 서필원(徐必遠)에 의해 뒷날 성취되었다.

저술로는 시·문을 모은 『잠곡유고(潛谷遺稿)』(11권 10책)·『잠곡별고(潛谷別稿)』·『잠곡유고보유(潛谷遺稿補

遺)』·『잠곡속고(潛谷續稿)』가 전한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것 이외에 『천성일록(天聖日錄)』·『청풍세고(淸風世稿)』·『조천일기(朝天日記)』·『기묘록(己卯錄)』·『잠곡필담(潛谷筆談)』·『당삼대가시집(唐三大家詩集)』 등이 전하며, 「자네집에 술닉거든」이라는 시조 1수도 전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유원총보(類苑叢寶)』는 우리 나라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편찬된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구황촬요(救荒撮要)』·『벽온방(辟瘟方)』·『종덕신편(種德新編)』 등은 목민자(牧民者)의 각성을 촉구하는 안민(安民)의 한 방책으로서, 위민적(爲民的) 생애의 단면을 보이는 저술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저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직접 활자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업은 자손 대까지 하나의 가업(家業)으로 계승되어 우리나라 주자(鑄字)와 인쇄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훈과 추모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다. 양근(楊根)미원서원(迷源書院)과 청풍봉강서원(鳳岡書院), 강동(江東) 계몽서원(啓蒙書院), 개성숭양서원(崧陽書院) 등에 배향되고, 1704년(숙종 30)에는 가평의 선비들이 건립한 잠곡서원(潛谷書院)에 홀로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나. 장시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리 잡은 정기적인 시장.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정기 시장이다.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팔았다.

장시에는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봇짐장수(보상)나 등짐장수(부상)를 비롯해 객주와 감고도 장시에서 활동했다. 특히 객주는 상인들을 상대하는 상인이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에게 잠자리를 빌려 주거나 물건을 맡아 대신 팔아 주고, 물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삼국 시대에도 시장이 있었다. 이때는 주로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고려 시대에는 매일 열리는 상설 시장과 농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향시가 있었고, 조선 전기에는 정기적으로 장시가 열렸다. 그러나 장시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조선 후기였다. 조선 후기에는 장시의 수가 크게 늘어나 전국 곳곳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 때문이었다. 농민들은 자신이 먹을 곡식 외에 장시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수공업이 발달해 여러 가지 공산품이 만들어졌으며, 화폐가 널리 쓰이면서 물건을 사고팔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는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은 장시가 섰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는 대부분 5일장이었다. 주변의 다섯 개 지역을 하나로 묶은 뒤 날짜를 달리 하여 시장을 열었다. 이러한 5일장 조직은 전국을 벌집 모양으로 연결했다. 장시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활동했다. 보부상들은 장시를 돌아다니며 장사했고, 객주는 사람들의 물건을 보관해 주거나 거래를 연결해 주었으며, 감고는 곡식의 양을 측정해 준 대가를 받아 돈을 벌었다. 한강 포구에 있는 큰 규모의 장시에는 많은 양의 곡물과 소금, 어물 등을 사고팔면서 숙박업을 하던 여각도 있었다.

장시에서는 주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일상 용품을 사고팔았다. 곡물이나 옷감, 고기, 술과 같은 식품은 물론이고 농기구, 칼, 도끼 등과 같은 생활 도구 등 다양한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들이 장시에 나왔다. 그러나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 특별한 물건을 파는 장시도 있었다. 가축 시장, 땔감 시장, 한약재를 사고파는 약령시, 고기잡이 철이면 열리는 파시 등은 한 종류의 상품을 주로 다루는 전문 시장이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는 차츰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다. 대도시 주변의 장시는 규모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현대에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할인 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장시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통 시장과 매일 열리는 재래시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

지정번호 : 경기유형문화재 제40호
지정일 : 1973년 07월 10일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지도
크기 : 높이 3m, 너비 85㎝, 두께 24㎝
설명

대동법 시행의 성과를 기리기 위하여 1659년(효종 10) 영의정인 김육이 건립한 기념비. 비는 높이 3m, 너비 85㎝, 두께 24㎝ 크기로 구질비신과 이수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 위쪽 이수는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은 수평인데 양 모서리의 각을 약간 무디게 하였다. 전후 양면에는 두 마리 용이 양각되어 있다.

김육(金堉:1580~1658)은 1638년 승문원 부제조를 거쳐 충청감사로 나갔다. 부임한 후 도내의 토지대장과 세금 징수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 지방에도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상소하였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제도이다. 대동법은 1608년(선조 41)~1894년(고종 31)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후로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이 줄어들었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호서지방(湖西地方)에 실시한 대동법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후 영의정이 된 김육은 효종 10년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고, 백성을 위하는 그 법의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삼남지방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인 소사에 기념탑을 세웠다. 탑이 처음 세워졌던 곳은 현재의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언덕이었다. 1970년대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비는 높이 3m, 너비 85㎝, 두께 24㎝ 크기로 구질비신(龜趺碑身)과 이수로 이루어져 있다. 구질은 목이 짧으며 두부와 전면은 사실성이 없다. 비신은 바탕돌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내 거기에 끼워 세웠다. 비신 위쪽에 끼워진 이수는 윗면이 둥글고 아랫면은 수평인데, 양 모서리의 각을 약간 무디게 하였다. 전후 양면에는 두 마리 용이 서로 얽혀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양각되어 있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

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라. 대동법

조선시대 공물제도는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는데,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다. 공물의 이런 폐단을 이용한 관리나 상인이 백성을 대신하여 공물(특산물)을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를 몇배씩 가중하여 백성에게 받아내는 방납(防納:代納)이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었다. 더구나 거주지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공물을 배정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관리가 많았다. 이런 관리들의 모리 행위는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오히려 국가 수입은 감소되었다. 결국 중간 관리와 상인들만 이익을 보는 조세제도는 조선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이었다.

이에 대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이(李珥)는 1569년(선조 2)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대공수미법(貸貢收米法)을 건의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군량 부족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조선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대신에 미곡으로 납세하도록 장려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군량을 조달하려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웠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1594년(선조 27), 영의정 류성룡(柳成龍)은 대공수미법을 제안하고 이 제안은 토지 1결에 쌀 2말씩을 징수하도록 하여 그해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징수한 쌀의 양이 매우 적고 수시로 현물로 징수하는 일도 많아 1년이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은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고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이를 재청하여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

1623년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등극한 후 조익(趙翼)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나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의 대동법은 다음 해 폐지되었다. 당시 인조와 서인 조정에서는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것은 백성들의 충성심이라고 여겼다. 이후 대동법의 확대 실시론이 간간이 제기되다가 효종 즉위후, 김육(金堉)·조익(趙翼) 등이 삼남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강경히 주장하였다. 그래서 1651년(효종 2) 8월에 충청도에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1658년(효종 9)에는 전라도 연해지역 27개 군현에 시행되었으며 이어 산군(山郡)에도 1662년(현종 3)에 실시되었다. 경상도는 1677년(숙종 3)부터 실시하여 1결에 13말을 징수하였다. 함경도는 전토가 척박하고 군현들간의 사정이 달라 군현별로 징수량과 물종을 다르게 정하는 상정법(詳定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정법은 함경도와 비슷한 상황의 황해도와 강원도에 확대되었다. 황해도는 1624년 대동법을 시행하다가 1708년(숙종 34)부터 상정법으로 바꾸고, 강원도는 1710년(숙종 36)부터 상정법을 적용하다가 1747년에 이르러 대동법으로 전환하였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세액도 12말로 통일하였다. 산간지방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쌀 대신 베·무명·돈[大同錢]으로 대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 실시 후에도 별공(別貢)과 진상(進上)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따라서 백성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생겼으며, 호(戶)당 징수가 결(結)당 징수로 되었기 때문에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줄었으며, 국가는 전세수입의 부족을 메웠다.

대동법 실시 뒤 등장한 공인(貢人)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 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키고, 운송활동의 증대를 가져와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제의 변화로 상공인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켜 종래의 신분질서가 와해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마. 개성상인

고려·조선시대 개성을 중심으로 국내 상업, 국제교역을 담당하고 축적된 상업자본을 바탕으로 인삼재배, 홍삼제조업등을 경영한 한국의 대표적 상인집단. 개성상인들은 개성부내의 상설점포인 시전(市廛)상업, 전국적 행상(行商)과 도고(都賈)상업, 해양을 무대로 한 선상(船商)활동,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나아가 인삼재배와 홍삼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감으로써, 오늘날 상인정신을 전형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상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성상인들의 상업경영은 송도사개치부법이라는 독특한 복식부기의 창안, 상업사용인 제도, 독특한 금융제도인 시변제(時邊制) 등 각종 상관습의 합리적 운영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본축적과 그 자본의 생산부문에의 투자는 우리나라 중세 말기의 근대적 지향을 보여주는 징표로도 이해되고 있다.

내용

개성상인들이 상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시대 개경이 국제무역도시로서 번성했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개경은 국제무역항인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를 거점으로 외국사신의 빈번한 왕래에 의한 공무역과 외국상인에 의한 사무역이 번창하여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때부터 개경의 상인들은 송도상인(松商)이라고 불려졌다.

조선왕조는 신왕조를 개창한 이후 개성 주민들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개성에 잔류한 자들은 신왕조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과전(科田)의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다. 또한 개성부의 토지도 다른 군·현(郡縣)에 비해 훨씬 적었으므로 개성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조선전기 개성상인들은 전국을 무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의(襦衣)나 목면류, 농기류 등을 판매하였다. 소규모 자본으로 전국을 무대로 행상활동을 하던 개성상인이 오늘날 거대자본을 축적하고 합리적 상업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상인집단으로 각인된 것은 조선후기부터였다.

개성상인 중에는 조선시대 한양의 시전상인과 마찬가지로 개성부에 세금을 내고 금난전권(禁亂廛權)을 소유한 시전을 경영한 상인들이 있었다. 1910년대까지 개성에는 선전(縇廛), 백목전(白木廛), 청포전(靑布廛), 어과전(魚果廛), 문외백목전(門外白木廛), 의전(衣廛), 지전(紙廛), 유기전(鍮器廛), 장전(欌廛), 사기전(砂器廛) 등 16개가

있었다. 개성의 시전상인들은 한양의 시전과 마찬가지로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신입조합원의 가입여부 결정, 도원(都員) 상호간의 상호부조등의 일을 처리하였다. 한양 시전의 동업조합은 도중(都中)이라고 했지만, 개성의 조합은 전계(廛契)라고 지칭하였다.

개성상인의 본령은 시전상업보다는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전개된 상업활동과 국제무역이었다. 개성상인들은 대부분 소나 말을 소유하고 여러 명이 행상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행상들은 행상단을 꾸려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상인과 달리 상인조직이 발달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물주(物主)인 부상(富商)과 사용인인 차인(差人)이 존재했지만, 조선후기에는 조직이 더욱 세분화되어, 차인·서사(書士)·수사환(首使喚)·사환(使喚) 등으로 구성되는 상업사용인(商業使用人) 체제가 정립되었다. 수사환과 사환은 상업활동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환은 소년점원으로서, 좋은 집안의 자제를 상업견습생으로 다른 집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사환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었으며, 매년 1~2회 의복, 신발 등을 지급할 뿐이었다. 사환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수사환으로 승진하였다. 수사환도 사환과 마찬가지로 보수가 없었지만, 영업성적에 따라 결산기에 이익의 일부분을 지급받았다. 재직 7~8년이 지나 신용을 얻게 되면, 주인은 수사환에게 소자본을 주어 독립시켜 지방행상을 하게 하였다. 서사는 부기장부인 사개치부(四介置簿)의 작성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차인은 주인의 신용을 얻은 자가 독립하여 지방행상 및 금융에 종사하는 자였다. 차인은 상업자본가를 대신하여 영업하는 점포의 고급사용인으로서, 일정한 월급을 받거나 자기책임 하에 진행된 손익계산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기록에 의하면 차인의 규모는 대상인의 경우 30명 이상, 소상인의 경우는 2~3명 규모였다.

이와 같은 상업조직을 기초로 개성상인들은 전국의 주요지역에 송방(松房)을 설치하여 차인을 상주시키고 그 지역의 상품유통을 담당하게 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자본력은 물론 조직력에서도 국내의 여타 상인에 비해 훨씬 월등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도고상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에는 개성상인들은 백면지(白綿紙)를 생산하는 삼남지역의 제지업자들에게 선금을 주고 이를 독점하였으며, 1810년(순조 10) 갓을 만드는 원료인 양태(凉台)산지인 제주의 길목인 강진과 해남에 차인을 파견하여 양태를 매점함으로써 서울 양태전(凉台廛)의 상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한 1817년(순조 17)에는 면화의 흉년을 계기로 황해·충청지역의 면화를 독점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육지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사상(私商)세력 중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소유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선상(船商)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753년(영조 29) 개성의 사공 김중재는 개성의 부상인 물주 김진철(金振哲)의 돈 2,200냥을 가지고, 예성강을 출발하여 충청도 은진 강경포, 경상도 영일 포항, 강원도 삼척에서 미곡 540석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였다. 배의 선장인 사공 김중재는 개성상인의 차인으로 활약한 것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청과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개성상인들은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래상(萊商)과 함께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개성상인의 국제무역 참여는 중강개시(中江開市)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강개시는 임진왜란 시 창설된 이후 중단되었다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1646년부터 재개되었다.

2월15일과 8월 15일 1년에 두 차례 열린 중강개시에서 조선은 농우(農牛), 소금, 지물(紙物)과 해대(海帶), 해삼, 면포, 사기 등을 수출하였다. 중강개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교역경험을 쌓은 개성상인들은 이후 의주상인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원래 개성상인과 같은 사상(私商)들의 무역행위는 불법으로 지목되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1681년(숙종 7)부터 정부에서는 사행비용과 군수품조달을 목적으로 부상들을 무판별장(貿販別將)에 임명함으로써 사상들의 대외무역 참여의 길을 열었다.

특히 개성상인들은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일본과 중국과의 직교역 단절을 계기로 전개된 중국·일본을 중개하는 무역에 인삼을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인삼 유통허가권을 보유한 개성부에서 이 권한을 개성상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인삼이 재배되기 이전부터 국내 인삼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삼무역외에 밀무역에도 적극적이었다. 1821년(순조 기록에는 정부의 공식 홍삼무역량은 1년에 200근이었지만, 밀조(密造)되어 중국에 수출되는 홍삼은 수천 근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식무역에 비해 밀무역 규모가 열배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홍삼 잠매가 성행한 것은 포삼(包蔘)에 비해 잠매되는 인삼의 가격이 1/3정도로 헐했기 때문이다. 인삼잠매의 주체도 개성상인이었다. 인삼잠매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주에서 밀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통제를 피하여 서해안에서 밀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한편 개성상인들은 신용에 기초한 금융거래기법을 발달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상업관행을 정착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개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금속화폐가 유통된 지역이었다. 1678년(숙종 4) 상평통보가 주조·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개성에서는 동기(銅器)나 동철(銅鐵)덩어리가 화폐로 유통되었다. 화폐유통과 함께 농업보다 상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성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도 활성화되었다. 식량이나 의류, 심지어 반찬가게에서도 1년 동안 거래된 액수를 연말에 한번, 혹은 7월과 12월의 2회에 나누어 대금을 치루는 것이 보편적인 거래관행이었다.

이와 같은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관행은 금융의 대부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것이 개성지역에서만 존재했던 독특한 금융관행인 시변제(市邊制)였다. 개성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17세기 무렵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변제는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가 중개인을 매개로 물적 담보 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대차관계를 맺는 제도였다. 시변제하의 이자율은 환(換)중개업자를 통해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 정해졌는데, 개성상업계의 자금순환과 인삼 등의 주요 물산의 생산과 집하, 시변자금의 결제일등의 사정에 따라 월 0.75%~1.50%로 다양했다. 시변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환중개인이었다. 환전거간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당화거간(唐貨居間)과 합하여 박물계(博物契)를 조직하였다. 박물계는 중매인 및 중개업자의 동업조합으로서, 1925년 현재 당화거간 86명, 환전거간 51인으로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시변제에 기초하여 융통되는 금액은 1929년경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을 토대로 한 거래관행이 정착된 개성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용화폐도 유통되었다. 동전운송의

비효율성과 원거리운송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성상인이 고안해 낸 것이 신용화폐의 일종인 환과 어음(於音)이었다. 환은 원거리에 동전을 보내거나 자신이 동전을 직접 가지고 가기 어려울 때, 그것을 대신한 신용전표로서,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었다. 개성상인이 처음 쓰기 시작한 환 거래는 19세기에 오게 되면 개성 지역에서 통용되는 송환(松換)을 비롯하여, 인천환(仁川換)·전주환(全州換)·선천환(宣川換)·철산환(鐵山換)·해주환(海州換) 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환과 어음은 18세기 후반 경 서울과 평양, 개성 등 대도시에서 보편화되었고, 환거래의 일회규모는 18세기 후반 400냥에서 1,500냥 규모였으나 19세기 이후는 수만 냥까지 거래될 정도였다.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에서 특기해야 하는 점은 급차질(給次秩), 봉차질(捧次秩), 이익질(利益秩), 소비질(所費秩) 등 네 개 질로 나누어 계산하는 고유한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을 고안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복식부기법은 조선초기부터 발생하여 개성의 시전은 물론 송방·객주·여각 등과 고리대업자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광업에 투자하여 광산물주가 되기도 하였고, 삼을 캐는 사람들에게 미리 삼가(蔘價)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인삼을 받는 등, 생산부문에 대한 선대제적 경영도 시도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생산부문에의 투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인삼 재배업과 홍삼제조업이었다.

인삼재배는 동일 면적의 곡물생산에 비해 그 수익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900년의 자료에 의하면 삼포경영의 수익률은 15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인삼재배가 큰 이익을 남기는 분야였기 때문에, 지방행상을 통해 돈을 번 개성상인들은 귀향하여 인삼재배에 뛰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17세기 후반에는 '개성주민들이 행상을 업으로 한다[民業行商]'고 표현했지만, 1821년(순조 21)에는 '개성주민 대부분이 인삼재배로 업을 삼는다[多以種蔘爲業]'라고 표현하고 있다.

개성상인들이 상업에서 인삼재배로 주된 업종을 바꾸었다는 것은 개성상인들이 상업자본을 인삼재배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자본가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인삼재배를 개성상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은 인삼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더불어 수확까지 길게는 6~7년, 짧으면 4~5년의 장기간 동안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에서는 신용으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시변제와 같은 금융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삼포경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삼포를 경영했던 개성상인들은 백삼을 홍삼으로 증조하여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초기 서울의 경강에 위치했던 홍삼 제조장인 증포소(烝包所)는 1810년부터 인삼산지인 개성으로 옮겨왔다. 이를 계기로 소규모에 머물렀던 개성에서의 홍삼생산은 19세기 중반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인삼재배의 성행과 인삼의 국제상품으로서의 성가가 높아지자, 1797년(정조 21) 조정에서는 중국사신의 경비로 책정된 팔포정액을 은 2,000냥에서 인삼 120근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포삼정액(包蔘定額)은 1811년 200근, 1823년 800근, 1834년 8천근, 1847년에는 2만근, 1851년 4만근으로 급속히 증액되었다. 1853년에는 2만 5천근으로 감액되긴 했지만, 120근에서 4만근으로 무려 230배가 증가하는데 불과 5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세기 후반기에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18세기 후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포경영과 홍삼제조가 증가하였다. 1888년의 경우 개성지방에서는 165명의 삼포주가 200좌의 삼포를 경영하고 있으며, 총 채굴간수(採掘間數)는 154,055간에 달하고 있다. 개성상인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사상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삼포경영과 홍삼제조와 함께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의와 평가

개성상인은 조선시대 상업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일제시대에까지 이어졌다. 한말 일제초기 개성의 상업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상인들은 상품유통상의 위치에 따라 객주(客主), 도고상(都賣商), 거간(居間), 소매상, 좌상(座商), 지방행상인 장군(場軍)으로 구분되고 있다. 거간은 다시 일반 상품을 중개하는 당화거간(唐貨居間), 금전의 중개를 담당하는 환전거간(換錢居間), 인삼거래를 중개하는 삼거간(蔘居間)으로 구분되었는데, 당시 삼거간으로 60여 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장군은 소자본으로 화물을 등에 지고 육로행상을 하는 보부상(褓負商), 상당한 자본으로 말에 상품을 운반하는 주객(主客) 또는 차인(借人)과 차인(差人)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이러한 상인중에서 시전상인은 도매상과 좌상을 겸했던 부상이었다.

한말·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으로서 거액의 재화를 축적한 자본가는 많았으나, 근대 기업가로 전환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거상(巨商)으로는 손봉상(孫鳳祥), 공성학(孔聖學), 김정호(金正浩), 박우현(朴宇鉉) 등이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기업으로는 합자회사 영신사(永信社), 합명회사 개성사(開城社), 개성전기주식회사, 고려삼업주식회사, 송고실업장(松高實業場) 등이 대표적이다.

바. 상평통보

조선시대 법화(法貨)로서 채택, 유통된 명목화폐(名目貨幣). 1678(숙종 4)부터 조선시대의 유일한 법화로서 조선 말기까지 사용된 전근대적 화폐이다. 상평통보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관찬(官撰) 기록에서는 동전(銅錢)이라 했고, 또는 엽전(葉錢)으로 속칭되기도 하였다.

한국 화폐 발달사에서 볼 때, 국가가 정책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것은 10세기 말, 즉 996년(성종 15) 철전(鐵錢)을 주조, 유통하고자 했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 후 고려왕조는 동전·은화(銀貨:銀甁·碎銀 등) 및 저화(楮貨)를 법화로서 유통시키려 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초기부터 종이돈이나 동전을 유통,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은 거듭 시도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에 각종 화폐를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가의 화폐유통정책은 당시 왕조 당로자(當路者 :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책적 의욕의 발로에 그쳤을 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즉,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화폐유통을 위한 정책은 당시의 절실한 사회경제적 요청에 부응해서 시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폐나 동전 등과 같이 국가가 법화로 유통, 보급시키려던 화폐들 중, 그 어느 것도 계속 화폐

기능을 발휘하면서 화폐의 역사적 기능을 담당,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상공업에 대한 조선왕조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관영 상공업체제가 무너지는 한편, 사영수공업과 자유상업은 성장, 발전했다. 토지소유제 및 지배체제의 문란으로 토지의 상품화가 촉진되어 특수 계층의 토지광점(土地廣占) 대토지 경영의 가능성이 커지고, 영리 위주의 상업적 농경이 확대, 보급되는 등, 농업생산 분야에서 이윤추구를 합리화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동법(大同法)이 확대 실시됨으로써 조세체계가 단순, 합리화되는 동시에, 상품생산 내지 교환경제가 더욱 발달했다.

왜란과 호란 후부터 조선의 대청·대일 관계는 대체로 안정기에 들어서고, 이에 따라 양국과의 무역거래가 그 전보다 활발해져 국내 생산력이 증진하고 상품·교환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양란 후에 인구는 급격히 증가되고, 이로써 사회생산력이 증진되는 동시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사회의 경제구조 및 제반 생산양식이 변화,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란을 전후해서 봉건 사회신분제도가 빠르게 해체되어 사회 신분질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전통적 생업관이 변질되었으며, 또한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기반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성 등의 한계가 있기는 했으나, 수공업과 함께 상업을 진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전란 뒤 사회·사상적 혼란에 대한 반성과 청나라 고증학 및 서양 과학문명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흐름으로서 합리성과 실용·실제성을 강조하는 실학이 발생하여 학문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봉건 조선사회의 생산양식과 가치체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1600년대 후반에 조선왕조가 동전, 즉 상평통보를 법화로 채택, 유통 보급시키게 된 배경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왜란을 전후해서 사회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서 빈약한 농업에 의존해온 조선사회에서 일찍부터 통화기능을 발휘해 온 쌀·포 등 물품화폐와 칭량은화(稱量銀貨)의 화폐기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교환 경제 내지 사회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근대적 명목화폐인 동전 통용의 필요성이 커졌다.

둘째, 전통적으로 빈약한 농업에 경제의 기초를 둔 조선왕조는 양란을 겪으면서 파탄에 직면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또는 급박한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재원확보책으로서 동전 통용, 즉 명목화폐제도 수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개성은 일찍이 동전 등 전근대적 명목화폐의 유통을 시도한 고려왕조의 수도였고, 또한 국내외의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화폐수용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이 비교적 컸다. 따라서 1640년대는 국내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동전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왕조 당로자나 지식계층으로 하여금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도 동전의 통용이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고, 그와 같은 확신은 화폐유통을 위한 그들의 정책 의욕을 높였다.

넷째, 쌀·포 등 물품화폐의 유통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조선사회에는 일찍부터 화폐경제가 발달한 중국의 명목화폐, 즉 동전의 유통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중국측의 영향은 동전 유통 의욕을 증진시키게 했던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 즉 명목화폐의 유통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배경하에 1678년 당시의 영의정 허적(許積)의 제의에 따라 상평통보를 주조, 유통하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 말기까지 법화로서 계속 통용되었다.

조선왕조가 상평통보를 법화로 주조, 유통하기로 결정한 뒤, 호조·상평청(常平廳)·진휼청(賑恤廳)·정초청(精抄廳)·사복시(司僕寺)·어영청(御營廳) 및 훈련도감(訓鍊都監) 등 7개 관청 및 군영에서 그것을 주조하도록 하였다. 이후 상평통보는 중앙의 각 관청이나 군영에서 주조,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관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주조, 유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평통보가 법화로서 계속 통용될 수 있다고 확신됨에 따라, 조선왕조는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즉, 조선왕조는 '화권재상(貨權在上)' 내지 '이권재상(利權在上)'의 전통적 정치이념에 충실하고 화폐 원료 수급을 적절히 조정하며, 상평통보의 주조 및 발행 과정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관리 통제하기 위해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숙종·영조대를 거쳐 그와 같은 시도가 거듭되다가 1785년(정조 9), 마침내 호조에서 상평통보의 주조발행 업무를 전관(專管)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조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화폐주조 관리체계의 일원화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중앙의 각 관청·지방관청 및 군영에서 상평통보를 주조,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국고 전담하에 관청에서 전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화폐주조업이, 민간인 도급제로 전환하는 경향, 즉 화폐주조사업의 민영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상평통보의 무게는 2전(錢)5푼(分)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원료의 주종인 동의 공급이 어려워져 2전·1전7푼·1전2푼으로 줄어들었고, 19세기 후반에는 당백전(當百錢)·당오전(當五錢) 등과 같은 고액전이 주조,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상평통보는 1670년대 말부터 조선시대의 법화로서 계속 유통, 보급되면서, 조선사회의 해체 내지 근대 지향을 촉진하는 역사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

조선왕조가 1860년대에 악화 당백전을 남발함으로써 상평통보 유통체제에 혼란이 일었고, 뒤이어 역시 악화인 중국 동전과 당오전을 유통하게 되어 당백전의 남발로 빚어진 화폐유통 질서의 혼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상평통보는 조선 말기에 걸쳐 거의 만성이 된 화폐제도의 혼란 속에서 각종 근대 화폐와 겸용되다가 1894년(고종 31) 주조발행이 중단되어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화폐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회수, 폐기되기에 이른다.

8. 참고문헌

[도서 및 논문]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경기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인조실록(仁祖實錄)』
『효종실록(孝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동주집(東州集)』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용주유고(龍洲遺稿)』
「잠곡선생연보」(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잠곡전집』, 1975)
「이씨조선의 후기활자의 개주와 잠곡김육선생 삼대의 공헌」(김두종, 『백낙준박사환갑기념국학논총』, 1955)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商業」(고동환, 『지방사와 지방문화』12·1호, 2009)
『조선시대 회계문서에 나타난 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조익순·정석우, 박영사, 2006)
「개성상인과 동래상인」(정성일, 『거상 전국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2005)
「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박평식, 『조선시대사학보』30, 2004)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蔘業자본의 성장」(양정필, 『학림』23,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市邊制」(오성, 『한국근현대사연구』21, 2002)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고동환, 『역사비평』54, 2001)
『朝鮮後期 對日貿易』(정성일, 신서원, 2000)
「한국의 사개송도치부법과 회계장부조직에 관한 연구」(김갑종, 『한국전통상학회』8, 1995)
「한말 개성지방의 蔘圃主」(오성, 『고문서연구』3, 1992)
『조선후기 상인연구』(오성, 일조각, 1989)
『조선상업사·고대·중세』(홍희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韓末時期 開城地方 蔘圃農業의 展開樣相 상·하」(홍순권, 『한국학보』49·50, 1987)
「17세기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홍희유, 『역사과학』3호, 1986)
「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김종원, 『진단학보』43, 1977)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강만길, 고려대 출판부, 1970)
「開城簿記硏究の再檢討」(吉田光男, 『조선사연구회논문집』25, 1988)
『朝鮮人の商業』(善生永助, 朝鮮總督府, 1925)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당오전고(當五錢攷)」(원유한, 『역사학보』 35·36, 1967)
「전환국고(典圜局攷)」(원유한, 『역사학보』 37, 1968)
「대원군집권기의 화폐정책에 대한 고찰」(원유한, 『사회과학연구』 1, 1973)
「조선후기 화폐사연구」(원유한, 『한국연구총서』 29, 1975)
「조선후기 화폐류통사」(원유한, 『정음문고』 165, 1978)
「한국개화기의 근대화폐제수용에 대한 고찰」(원유한, 『향토서울』 35, 1978)
「대동법」, 『두산백과』.
「대동법시행기념비」, 『두산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성상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상평통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한종 외, 『한국사 사전 2』-역사 사건·문화와 사상, 「장시」,2015, 책과함께어린이

[사이트]

[동영상]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용인시, 제25회 처인성문화재, (https://www.youtube.com/watch?v=YpT9P8AhCdA)

[신문기사]
서울신문, 「공릉장·문산포 시장은 조선시대 전국 10대 장시」, 2018.03.13.

10차시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1. 조선의 신도시 화성 건설

가. 신도시 화성을 건설한 정조

재위 1776~1800. 이름은 이산(李祘).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 영조의 둘째아들인 장헌세자(일명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1759년(영조 35)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장헌세자가 비극의 죽음을 당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1775년에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왕위에 올랐는데, 생부인 장헌세자가 당쟁에 희생되었듯이 정조 또한 세손으로 갖은 위험 속에서 홍국영)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개유와'라는 도서실을 마련해 청나라의 건륭문화에 관심을 갖고 서적을 수입하면서 학문 연마에 힘썼다.

그리하여 즉위하자 곧 규장각을 설치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홍인한·홍상간·윤양로 등을 제거하였다. 나아가 그의 총애를 빙자해 세도정치를 자행하던 홍국영마저 축출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정조는 퇴색해버린 홍문관을 대신해 규장각을 문형의 상징적 존재로 삼고, 홍문관·승정원·춘추관·종부시 등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면서 정권의 핵심적 기구로 키워나갔다. '우문지치(右文之治)'와 '작성지화(作成之化)'를 규장각의 2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작성지화'의 명분 아래 기성의 인재를 모으고, 참상(參上)·참외(參外)의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 교육해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문지치'의 명분 아래 세손 때부터 추진한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수입에 노력하는 동시에 서적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였다.

곧 임진자(壬辰字)·정유자(丁酉字)·한구자(韓構字)·생생자(生生字)·정리자(整理字)·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을 새로 만들어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사서·삼경 등의 당판서적(唐版書籍)의 수입 금지 조처도 이와 같이 자기문화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왕조 초기에 제정, 정비된 문물제도를 변화하는 조선후기 사회에 맞추어 재정리하기 위해 영조 때부터 시작된 정비작업을 계승, 완결하였다.

『속오례의(續五禮儀)』·『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국조보감(國朝寶鑑)』·『대전통편(大典通編)』·『문원보불(文苑黼黻)』·『동문휘고(同文彙考)』·『규장전운(奎章全韻)』·『오륜행실(五倫行實)』 등이 그 결과였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저작물도 정리해 뒷날 『홍재전서(弘齋全書)』(184권 100책)로 간행되도록 하였다(1814).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당쟁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가졌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영조 이래의 기본정책인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강고하게 세력을 구축하던 노론이 끝까지 당론을 고수해 벽파(僻派)로 남고, 정조의 정치노선에 찬성하던 남인과 소론 및 일부 노론이 시파(時派)를 형성해, 당쟁은 종래의 사색당파에서 시파와 벽파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가 1794년에 들고 나온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는 문풍(文風)의 개혁론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도 관련되었다. 그는 즉위 초부터 문풍이 세도(世道)를 반영한다는 전제 아래 문풍쇄신을 통한 세도의 광정(匡正)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내건 것은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술수이자, 탕평책의 구체적인 장치였다고 이해된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육경(六經) 중심의 남인학파와 친밀했을 뿐 아니라 예론(禮論)에 있어서도 '왕자례부동사서(王者禮不同士庶)'를 주장해 왕권 우위의 보수적 사고를 지닌 남인학파 내지 남인정파와 밀착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었다. 그러나 '천하동례(天下同禮)'를 주창하면서 신권(臣權)을 주장하는 노론 중에서도 진보주의적인 젊은 자제들은 북학사상(北學思想)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학자적 소양은 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신설하고 북학파의 종장(宗匠)인 박지원(朴趾源)의 제자들, 즉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을 등용해 그 사상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검서관들의 신분은 서얼로서, 영조 때부터 탕평책의 이념에 편승해 '서얼통청운동(庶孼通淸運動)'이라는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임용은 서얼통청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조처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와 같이 남인에 뿌리를 둔 실학파와 노론에 기반을 둔 북학파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 학풍을 특색있게 장려해 문운(文運)을 진작시켜나갔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저변확산을 꾀해 중인(中人) 이하 계층의 위항문학(委巷文學)도 적극 지원하였다. 여기서 인왕산을 중심으로 경아전(京衙典)이 주축이 된 중인 이하 계층의 위항인(委巷人)들이 귀족문학으로 성립되어온 한문학의 시단에 대거 참여해 그들만의 '옥계시사(玉溪詩社)'를 결성하고, 공동시집인 『풍요속선(風謠續選)』을 발간하는 등 성관(盛觀)을 이루어 중인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뒷날 '필운대풍월(弼雲臺風月)'의 효시를 보게도 되었다.

정조대의 시기를 조선시대의 문예부흥기로 일컫기도 한다. 문예부흥이 가능했던 배경은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의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조선중화의식(朝鮮中華意識)이 고취되고, 이에 따른 북벌론(北伐論)의 대의명분 아래 조선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한 예치(禮治)의 실현이라는 당면과제를 국민상하가 일치단결해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이룩한 자긍심과 조선문화의 독자적 발전에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고유문화현상 경향은 18세기 전반에 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그림에서 진경산수(眞景山水)라는 '국화풍(國畫風)', 글씨에서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국서풍(國書風)'이 그것이다.

이는 조선성리학의 고유화에 따른 조선문화의 독자성의 발로이며, 바로 이러한 축적 위에 정조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건륭문화의 수입이 자극이 되어, 이른바 조선 후기의 도미적성관(掉尾的盛觀)으로 파악되는 황금시대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정조의 업적은 규장각을 통한 문화사업이 대종을 이루지만, 이 밖에도 『일성록(日省錄)』의 편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편찬, 장용영(壯勇營)의 설치, 형정(刑政)의 개혁, 궁차징세법(宮差徵稅法)의 폐지, 『자휼전칙(字恤典則)』의 반포, 『서류소통절목(庶類疏通節目)』의 공포,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의 폐지, 천세력(千歲曆)의 제정 및 보급, 통공정책(通共政策)의 실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정치문제였던 서학(西學)에 대해 정학(正學)의 진흥만이 서학의 만연을 막는 길이라는 원칙 아래 유연하게 대처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조는 비명에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와 예우문제에도 고심하였다. 외조부 홍봉한(洪鳳漢)이 노론 세도가로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었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해 사면해야 하는 갈등을 겪었다. 또 아버지를 장헌세자로 추존하였다(고종 때 장조로 추존됨). 또한 양주 배봉산(拜峰山) 아래에 있던 장헌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花山) 아래로 이장해 현륭원(顯隆園)이라 했다가 다시 융릉(隆陵)으로 올렸고, 용주사(龍珠寺)를 세워 원찰(願刹)로 삼았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권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도를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완수하였다.

옛 수원 관아가 있던 화산에 융릉을 조성하면서 대신 팔달산 기슭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고 어머니의 회갑연을 화성 행궁에서 열었다. 권신(權臣)들의 뿌리가 강고한 서울에서 벗어나 신도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적 구상을 가진 것이었다.

왕의 말을 '교(敎)'로 표현한 데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왕은 통치자 일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해 모범을 보여 큰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였다. 조선이 성리학이념을 채택하고 '우문정치(右文政治)'로 표현되는 문화정치를 표방한 지 400년만에 명실 부합한 전형적인 학자군주가 탄생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시대 27명의 왕 가운데 유일하게 문집을 남겼다. 180권 100책 10갑에 달하는 그의 문집이 『홍재전서(弘齋全書)』로 간행된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가 있었기에 스스로 임금이자 스승인 군사(君師)로 자부하고 신하들을 영도할 수 있었다. 학문을 숭상하는 시대에 탁월한 학문적 능력으로 군사의 위상을 확보하여 문화국가를 통치한 것이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나. 조선의 뛰어난 기록문화를 보여주는 화성

1) 화성성역의궤

권수(卷首) 1권, 본편(本編) 6권, 부편(附編) 3권의 10권 10책.

정조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1796) 8월에 걸친 화성성곽의 축조는 큰 토목건축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정조가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에게 편찬을 명령,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었고, 이어 1801년(순조 1) 9월에 인쇄 발간되었다.

책의 구성은, 책머리에는 이 책의 편찬방법·경위·구성방침을 실은 범례가 있고, 권수에는 본편과 부편의 총목록을 실은 총목(總目)과 성곽축조에 관계되는 일지를 실은 시일(時日), 성곽축조 및 의궤편찬에 관한 관청의 관리명과 담당업무를 실은 좌목(座目), 그리고 성곽과 각종 건조물과 공사에 사용된 부재(部材)와 기계·도구 등의 그림 및 그 설명을 실은 도설(圖說)을 수록하였다.

권1에는 성곽축조 기본계획을 실은 주략(籌略), 왕의 명령을 실은 전교(傳敎), 왕의 말을 실은 윤음(綸音), 왕이 내린 문서를 실은 유지(有旨), 왕이 전달한 지시를 실은 전령(傳令), 연석(筵席)에서의 왕의 자문과 이에 답한 내용을 실은 연설(筵說), 왕에게 올린 상주문(上奏文)과 그 결과를 실은 계사(啓辭)를 수록하였다.

권2에는 성곽에 관하여 왕이 만든 시문(詩文)을 실은 어제(御製), 왕이 활을 시사(試射)한 내용을 실은 어사(御射), 신하에 내린 녹봉(祿俸)을 실은 반사(頒賜), 왕이 하사한 음식 내용을 실은 호궤(犒饋), 포상규칙을 실은 상전(賞典), 의식에 관한 절차를 실은 의주(儀註), 행사와 공사진행에 관한 절차를 실은 절목(節目) 및 각종 고유문(告由文)·상량문·비문(碑文)을 수록하였다.

권3에는 현장에서 왕 또는 상관(上官)에게 올린 보고문을 실은 장계(狀啓), 왕에게 올리는 문서에 덧붙인 문서를 실은 별단(別單), 관청간의 조회문(照會文)을 실은 이문(移文)을 수록하였다.

권4에는 동급관청에서 온 공문을 실은 내관(來關), 상급관청에서 온 공문을 실은 감결(甘結), 왕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물건의 품목과 양을 실은 품목(稟目), 공사진행상의 규칙을 실은 사목(事目), 공사에 관한 전례(前例)를 실은 식례(式例), 동원된 기술자의 종류와 이름 및 종사일수를 실은 공장(工匠)을 수록하였다.

권5·6에는 전공사에 사용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실은 재용(財用)을 상·하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부편 1에는 화성에 소속된 행궁(行宮)·공해(公廨)·단묘(壇廟)·정거(亭渠)·역관(驛館)에 관하여 그 위치와 그에 소속되는 시설·규모 등을 수록하였고, 부편 2에는 전교·연설·계사·어제·어사·절목·고유문·상량문·장계·별단·이문·내관·감결의 항으로 되었고, 부편 3에는 재용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그 내용만으로도 중요한 학술자료가 되지만, 정교한 활자나 높은 수준의 인쇄술을 잘 나타낸 표본적인 서적으로도 귀중한 것이다.

그 밖에도 조선 후기 축성공사의 실태와 무기 발달에 대응한 축성법을 잘 나타냈고, 대역사에 소요된 물동량과 경영의 본말을 알 수 있어서 사회경제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규장각도서 중의 화성행궁본(華城行宮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을묘원행정리의궤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은 1795년(정조 19)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화성(華城)에서 열렸다. 당시 정조는 노량진 앞 한강에 배들을 잇대어 다리를 놓은 주교(舟橋)를 설치하고 100리 길을 행행(行幸)하여 화성행궁(華城行宮)에서 8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진찬(進饌) 외에도 문무과방방(文武科放榜), 행성조(行城操), 어사(御射), 사미(賜米), 양로연(養老宴) 등 부속행사를 다채롭게 펼쳤다.

정조가 이렇게 전례가 없을 만큼 거창하게 행사를 치른 까닭은 1795년이 정조 재위 20주년에 해당하는 데다 자전(慈殿)의 나이가 육십을 바라보고, 사도세자의 구갑(舊甲)이며, 혜경궁 홍씨의 주갑(周甲)에 해당하는 뜻 깊은 해였기 때문이라고 이 의궤에 적혀 있다. 그러나 그 의도는 화성 건설의 명분을 높이고 화성을 통한 왕권 강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권수 1권, 본편(本編) 5권, 부편(附編) 4권이고 모두 8책으로 나누어졌다. 권수는 택일(擇日), 좌목(座目), 도식(圖式)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의 의궤와 달리 도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글씨는 목활자인 생생자(生生子)를 본떠서 제작한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로 찍었고, 그림은 목판화(木版畫)를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의궤로는 맨 처음 활자와 판화를 함께 갖춘 인쇄 체제로 제작한 점에 서지학적 의의가 있다.

이 의궤에 실린 도식은 정교한 새김 기술을 바탕으로 당시 도화서(圖畫署)를 주도한 김홍도(金弘道)식 화풍으로 표현함으로써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용주사부모은중경(龍珠寺父母恩重經)』,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과 더불어 '정조대 판화 양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전의 의궤도(儀軌圖)가 마치 지도처럼 일종의 표식에 가까운 데 비하여, 이 의궤는 판화로 제작되었고 당시의 새로운 화풍을 반영하여 회화사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의궤의 체재와 기법 등은 『화성성역의궤』를 비롯하여 이후에 잔치를 기록한 『진찬의궤(進饌儀軌)』, 『진연의궤(進宴儀軌)』, 『진작의궤(進爵儀軌)』 등에 영향을 미치며 후대로 계승되었다. 현재 규장각도서, 장서각도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김학수(金學洙) 집안 등이 소장하고 있다. 그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그림이 필사(筆寫)로 되어 있고, 김학수 소장본은 목판화에 채색을 입힌 점이 특이하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화성

정조는 1789년(정조 13)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우원(永祐園)을 수백 년간 수원도호부가 있던 화산(花山)주 01)으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이라 개명(改名)하고 수원 도읍을 새 장소인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원부로 부르던 고을 명칭을 화성(華城)으로 고쳐 부르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줄곧 수원은 화성이란 이름으로 사용되었으나 1895년 지방 관제개편 과정에서 다시 수원군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지금은 수원시로 불리고 있다.

수원부를 옮기고 정조 17년(1793)부터 화성 축조가 본격적으로 준비되어 이듬해 정월부터 시작해 2년 반 만인 1796년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성벽 전체 길이는 당초 정약용이 생각했던 4㎞보다 늘어난 5.4㎞ 정도이다. 성곽 시설에서도 적대나 누조, 공심돈, 포루 등과 같이 다른 성곽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설이 많이 도입되었다.

성벽은 돌로 쌓았으며 높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6m 정도이고 성벽 위에는 1m 정도 높이의 여장을 두고 여장에는 총안을 뚫었다. 성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규형(圭形) 쌓기를 기본으로 했다. 성벽에는 4개의 성문을 두었고 암문 5개를 설치해 통행토록 하였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앙에는 행궁이 자리 잡았다. 화성이 위치한 지세는 서쪽에 팔달산이 있고 그 반대쪽인 동쪽에도 나지막한 구릉이 있으며 이 동서 경사지 사이를 북에서 남으로 개천이 흐르고 그 주위에 약간의 평지가 펼쳐진다. 화성을 비롯해 우리나라 성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불규칙한 형태로 쌓아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성문은 동서남북에 4개가 있는데 북문이 장안문이고 반대 남쪽이 팔달문이다. 동서에 청룡문과 화서문이 있다. 남북문은 중층문루로서 도성문루에 버금가는 규모와 형태를 갖고 있다. 암문은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하는 출입구를 내서 사람이나 가축이 통행하고 양식을 나르는 통로이다. 화성에는 모두 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개 벽돌을 많이 사용했고 원여장 등의 특수한 장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암문에는 보통 건물을 세우지 않지만 서남암문에만 예외적으로 포사를 설치했다. 이외에도 수문 2곳, 적대 4곳, 노대 2곳, 공심돈 3곳, 봉돈 1곳, 치성 8곳, 포루 10곳, 장대 2곳, 각루 4곳, 포사3곳 등의 시설이 있다.

화성 축성은 정조의 개혁적 정치노선과 당시 실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사상 및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만들어낸 근대적 생산방식에 의한 건축공사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성 축성을 계기로 한국 근대건축이 시작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의 문화 발전 노력			
학습 목표	1. 신도시 화성을 건설한 정조에 대해 안다. 2. 세계 유산으로서의 화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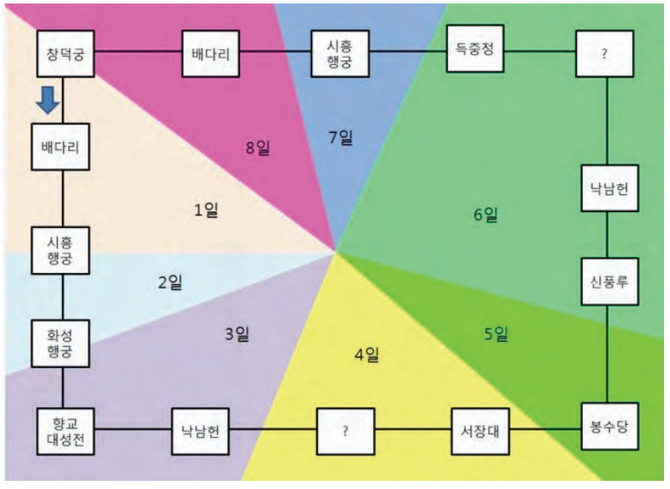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전 개	1. 신도시 화성을 건설한 정조(15분)	신도시 화성을 건설한 정조대왕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알아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화성(15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의 가치를 새롭게 살펴본다.	
	3.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로 본 조선의 뛰어난 기록문화(15분)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통해 조선의 기록문화의 가치를 알아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나타난 정조와 혜경궁의 행차 일정을 살펴본다.
	함께 해봅시다(30분)	정조대왕 초장지 터 개발에 관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수원화성 건설이 단순한 성곽이 아닌 신도시 화성이었으며, 조선후기 실학의 집대성으로 나타난 결과물이자 정조 효심의 결과였음을 인지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3.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정조대왕이 을묘년 어머니를 모시고 현륭원에 행차했던 8일간의 여행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정답 : (순서대로) 현륭원, 방화수류정

[생각 더하기]

정조대왕이 처음 묻히셨던 초장지는 아파트와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될 뻔 했습니다. 죽어서도 아버지의 발치에 묻혀 모시겠다는 정조대왕의 효심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정조대왕께서는 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써 봅시다.

〈 초장지 사진 〉

1	
2	
3	

(정답 :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게 한다.)

Tip. 초장지 보존을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나라(중앙정부)	경기도(지방정부)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우리 가족
문화재 지정 확대 등	개발 허가 취소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등	융건릉을 방문한다 등

4. 교사 참고자료

8일간의 능행차–을묘원행

첫째날

아침 묘정3각(卯正三刻, 6시 45분경)에 창덕궁 출발

※출발하는 시간을 알릴 때에는 꼭 세 차례에 걸쳐서 악기를 불었다고 함.

창덕궁(돈화문) → 돈녕부 앞길/파자전 돌다리(지금의 단성사 앞) → 통운 돌다리(지금의 보신각 앞길) → 대광통 돌다리(지금의 서린동 122번지 남쪽) → 소광통 돌다리(남대문로1가 23번지 남쪽) → 동현(銅峴, 지금의 명동) 병문 앞길 → 송현(松峴, 지금의 한국은행 부근) → 수각(水閣) 돌다리/숭례문(남대문) → 노량행궁(용양봉저정, 지금의 동작구 본동 30번지)에서 점심

휴식을 취한후 오초2각(午初二刻, 11시30분)에 시흥행궁으로 향함.

노량행궁 → 시흥행궁(금천구 시흥 5동 831번지 6호)

둘째날

시흥을 출발하여 청천평에서 휴식을 취하다.

시흥행궁 → (지금의 시흥대로와 안양시 만안대로, 그리고 1번 국도를 따라 이동) → 장산(長山)모루 → 청천평(晴川坪) 에서 휴식/ 왕은 말에서 내려 혜경궁에게 문안 → 사근참행궁(肆覲站行宮)에서 점심 → 저녁에 화성행궁 봉수당(奉壽堂)에 도착 (혜경궁을 봉수당 왼편에 있는 장락당(長樂堂)으로 모심)

셋째날

아침에 화성 향교 대성전에 참배하다.

화성향교 대성전 참배 → 행궁에서 문무과 별시 시행 → 행궁의 봉수당에서 회갑잔치의 예행연습인 진찬습의(進饌習儀) 거행

넷째날

아침에 융릉에 전배하다.

새벽 인정 3각(寅正三刻, 오전 4시45분) 3취에 화성행궁 출발 → 팔달문 → (지금의 정조로(正祖路)를 따라 이동) → 상류천점(上柳川店)(지금의 매교삼거리)에서 잠시 휴식 → 융릉 → 화성행궁 → 서장대에 친림하여 주간 및 야간 군사훈련

다섯째날

오전에 봉수당에서 회갑잔치를 하다.

진정3각(辰正三刻, 오전 8시 45분경)에 봉수당에서 회갑 진찬례 거행

여섯째날

새벽에 수원주민에게 쌀을 나누어 주다.

새벽에 신풍루(新豊樓)에서 사미의식 → 진정1각(辰正一刻, 8시 15분경)에 낙남헌(洛南軒)에서 양로연

오시(오전11시-오후1시)에 방화수류정 시찰

신시(오후 3-5시) 득중정에서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다. 야간에도 활을 쏘고, 매화포를 터뜨렸다.

일곱째날

귀경길에 오르다.

진정3각(辰正三刻, 오전 8시 45분경)3취에 수원 화성행궁 출발 → 미륵현(彌勒峴, 지지대고개) → 사근행궁에서 점심 → 시흥행궁(1박)

여덟째날

시흥에서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다.

묘정3각(卯正三刻時, 오전 6시 45분경)에 부로(父老)와 민인(民人)을 만나 백성들의 소망을 듣고 이 자리에서 환곡을 탕감 → 노량행궁에서 점심 → 저녁에 창덕궁 도착

5. 참고 문헌

[도서 및 논문]

수원시, 『수원시사1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5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2016

[사이트]

문화원형백과 : 화성의궤(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Main.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13&cp_code=cp02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동영상]

문화유산채널-한국의 세계유산시리즈-수원화성(https://www.youtube.com/watch?v=xhhJuKJArOE)

문화유산채널-의궤 2부 조선 최대의 이벤트 정조의 화성행차(http://www.k-heritage.tv/brd/board/229/L/CATEGORY/2337/menu/373?brdCodeField=CATEGORY&brdCodeValue=2337&bbIdx=10725&brdType=R

11차시

실학의 본고장 경기도

1. 실학과 경기도

가. 실학

실학(實學)은 18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한국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말한다. 실학이 태동하는 시기는 서양세력이 동양으로 진출하는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전환기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란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생산력이 점차 회복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이 발달하여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 요구되었다. 당시 학문 세계는 '사장학(詞章學)'이나 '예학(禮學)'이 발달하여 백성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등장한 실학은 '실용(實用)'을 중시하는 학풍 경향을 띄었고 고대 유교경전을 연구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개혁에 도움이 되고자 한 학문이었다.

실학은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시대요청에 부응한 학문이었다. 소중화주의(小中華主義)라는 낡은 시대의 자폐적인 정신상황을 반성하는 한편, 국가의 총체적 개혁을 도모하는 것을 학문의 사명으로 삼았다. 17세기 중엽 명·청(明淸) 교체에 따른 화이(華夷) 질서의 해체가 그 신호탄이었다. 병자호란 후, 조선은 강대국인 청나라에 대해 겉으로는 사대외교(事大外交)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야만국 오랑캐[夷]로 여기며 중화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8세기에 들어와 이러한 생각들이 점차 변화하여 "충실한 예(禮)의 질서를 이루면 어느 나라나 중화(中華)가 될 수 있다"고 한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말처럼 중화주의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조선일뿐"이라는 성호 이익의 생각은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조선 문화의 독자적 가치에 대한 자각이기도 했다. 이어서 청은 결코 오랑캐가 아니며 오히려 훌륭한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논의가 18세기 후반 서울의 진보적인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북학(北學)의 선두주자였던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이 "화와 이는 마찬가지다(華夷一也)"라면서 금기에 가까웠던 화이론(華夷論)을 흔들어 놓았다.

화이론의 변화와 함께 17세기 이후 전래된 서양문물의 전래도 실학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서학(西學)으로 명명되는 서양문물과 천주교는 조선의 선각적 지식인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이었다. 조선 정부는 천주교에 대해

서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컸으나, 과학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예컨대 아담 샬 등 예수회 선교사들의 주도로 청나라에서 채택 시행된 시헌력(時憲曆)은 1654년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18세기 실학자 가운데 서양 문물에 호의적이었던 이익은『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지금 실시하는 시헌력은 곧 서양사람 탕양망(湯若望, 아담 샬, 1591-1666)이 만든 것인데 해와 달의 교차인 일식·월식이 하나도 틀리지 않으니 성인이 다시 나더라도 반드시 이를 따를 것이다."라며 극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산 정약용의 경학(經學)에 자주 등장하는 상제(上帝) 개념 또한 천주교의 영향이었다.

실학의 발생과 발전에는 17세기와 18세기에 이루어진 여러 개혁정책도 큰 힘이 되었다. 1608년에서 1708년까지 100년의 노력 끝에 실행하게 된 대동법(大同法), 1750년에 이루어진 균역법(均役法), 1774년 공사노비의 신공(身貢) 폐지, 도망한 공노비에 대한 추쇄(推刷) 폐지 등은 백성들의 처지를 크게 개선하는 조치들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백성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다산 정약용은『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현자(賢者)가 해야 할 일로서, 시대 흐름에 따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함은 세상의 도리이자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임진왜란 이후 온갖 법도(法度)가 무너지고 모든 일이 어수선하여 털끝 하나도 문제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여 정부의 과단성 있는 개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가 개혁을 향한 정약용의 욕망은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이었다, 국가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벼슬아치들만의 전용물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반계 유형원이 법을 고치자고 논의했어도 죄를 받지 않았고, 그의 글도『반계수록(磻溪隧錄)』이란 이름으로 나라 안에 간행되었으니 다만 이용되지 않았을 뿐이었으며, 그가 말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록 현직에 있는 관리가 아니더라도 충신과 지사라면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약용의 확고한 가치관이었다.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실학적 학풍은 18세기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학문적 혹은 지역에 따라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첫째가 토지제도 및 국가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학풍으로,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 출신의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서울과 가까운 농촌에서 생활한 덕분에 도시 양반들과 달리 농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호 이익을 종주로 하여 성호학파를 이룬 이들 실학자들은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발전과 이에 따른 토지 소유 문제를 농민의 처지에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때문에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신분 제도, 관리 선발과 임용,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계 등에 대한 개혁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성호 이익의 실학 사상은 정상기(鄭尙驥, 1678~1752), 이중환(李重煥, 1690~1752), 윤동규(尹東奎, 1695~1773), 신후담(愼後聃, 1701~1761), 이병휴(李秉休, 1711~1776),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이맹휴(李孟休, 1713~1751), 권철신(權哲身, 1736~1801),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이가환(李家煥, 1742~1801), 정약전(丁若銓, 1758~1816), 정약용(丁若鏞, 1761~1836) 등에게 이어졌다.

다음으로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조선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실학학풍이 있는데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와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를 중심으로 한 서울 출신의 실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적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선의 뒤떨어진 경제사정을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통해 일신하고자 했다.

당시 조선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곤하여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많았다. 선비들은 경제 생산과 동떨어진 학문에만 골몰했고 일반 백성들의 삶에 유용하고 생활을 두텁게 하는 이른바 이용후생적 학문에는 등한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한 동네에서 하루 두끼를 먹는 집도 두 세 집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절약할 여력이 없으니,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외국과의 통상 무역이 필요하다"는 박제가의 주장은 조선의 빈곤에서 나온 현실적 경제관이었다.

서울 출신의 실학자들은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허위의식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허위의식은 신분차별과 소중화의식이었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서자 출신의 실학자들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의 신분적 차별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사행단에 속하여 청나라를 다녀온 뒤로는 중국과 서양으로부터 선진문화를 수입하여 조선의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북학파(北學派)'라고도 지칭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선진적인 문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잘 표현된 명칭이다.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전반에는 국가 개혁에 대한 관심 보다는 학문적 고증을 위주로 한 실학적 학풍이 일어났다. 청나라의 고증학을 받아들여 조선 학계에 적용한 실학자가 바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였다. 그는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통해 헛된 논의를 숭상하지 말고 성현의 도를 직접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실제에서 올바름을 구해야지 공허한 이론으로 그릇된 곳으로 달아나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인 안목에서 엄정히 살펴보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사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경학(經學)을 비롯하여 금석학(金石學)·문학·서예에 이르기까지 김정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 업적을 이루었으며, 신분과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학풍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함께 금석학을 연구한 신관호(申觀浩)·이상적(李尙迪)·오경석(吳慶錫)·강위(姜瑋) 등이 이들인데, 19세기를 거치면서 실학 학풍이 중인층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학은 본래 관념적인 학문을 지양하고 인간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지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탐구, 즉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정치, 경제 및 문화 등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1602년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에 표현된 새로운 세계관은 종래의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과 달리 둥근 지구 표면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세계지도가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는 근거가 없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중심이 될 수 있고 독자성을 가진 독립국임을 인식하게 해준 것이다.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자각은 자국의 문화를 연구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졌다.

자국학에 대한 연구는 역사 분야에서 가장 활발했다. 성호의 삼한(三韓)정통론 이후로 조선사가 독립적인 역사

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호의 역사학을 계승한 안정복은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조선의 역사를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및 고려로 체계화하였으며, 정약용은 중화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민족은 다 중화라고 보았다. 언어학에서도 한글이 연구되기 시작되어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훈민정음도설』,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의 『훈민정음운해』 및 유희(柳僖, 1773~1837)의 『언문지(諺文志』 등이 간행되었다. 자국학에 관한 연구는 생활서 혹은 농서에서도 주목할 만한 저술들이 이어졌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색경(穡經)』,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의 『천일록(千一錄)』 및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이르러 조선농서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사실 실용을 중시하는 학풍은 조선후기 실학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고 자기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실학'이 조선후기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실학이라고 하면 오늘날 대부분 조선후기 '실학'을 가리키는 용어라 생각되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백 년 전만 하더라도 실학이 조선후기 실학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사실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으로서 실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었다.실학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한국 학계 최고의 이슈였다. 이슈는 성공적이었고, 실학은 오늘날까지 조선후기 정치·경제·사회·사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정조대 진보적 학자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학문적 탐색과 문제의식이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권을 얻기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우리가 아는 '실학'은 조선후기 '실학'만을 의미하는가? '실학'이라는 용어가 가진 통시대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선후기 실학의 실체성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실학이란 무엇인가?-조선후기 실학의 형성과 전개(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나. 성호 이익

조선후기 태동한 실학은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직된 전통 유학으로부터 현실에 적용하여 실용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이다. 실학은 이전의 성리학적 가치관과 완전히 결별한 전혀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유학 속에서 민생을 도모하는 실용성을 찾아낸 당대 유학자 지식인들의 자기반성적 고뇌와 노력이 깃든 사상이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지식인 각자의 입장으로 인해 몇 개의 분파로 나눠지기는 하나 그들 모두가 추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있었다. 그 중 토지를 바탕으로 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을 꿈 꾼 이익(李瀷 1681~1763)은 많은 제자를 두고 자신의 호를 딴 성호학파를 형성함으로써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익의 가문은 여주 이씨로 서울과 경기도에 기반을 둔 남인 계의 관료집안이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이상의는 의정부 좌찬성이었고 할아버지 이지안은 사헌부 지평을 역임했으며 아버지 이하진은 도승지를 거쳐 사헌부 대사헌에까지 올랐다. 누대에 걸친 관료집안으로 조선후기 정계를 주름잡던 이익의 가문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숙종대의 격렬한 붕당간 정쟁의 틈바구니에서였다. 조선후기 중앙정계의 주도권을 두고 서인과 엎치락뒤치락 하던 남인은 숙종 6년(경신년 1680년) 남인 계의 거두이던 허적과 그 서자 허견이 일으킨 문제로 인해 정계에서 일거에 내쫓긴다(경신대출척).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익의 아버지 이하진은 대사헌에서 진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이익은 이하진의 유배지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로 그가 태어난 다음해 이하진은 울분을 품고 결국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사망 후 이익의 어머니 권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문의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촌으로 돌아왔고 이익은 이곳에서 자신의 80평생을 보내게 된다. 마을 인근에 성호라는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의 이름을 따 이익은 성호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

안산으로 돌아온 이익은 10세까지 글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했다고 한다. 그를 학문의 세계로 이끌고 지도를 한 것은 그보다 20 여 세가 많은 이복형 이잠이었다. 이잠은 16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준재였지만 이후 집안이 정쟁에 휩싸이면서 몰락을 거듭하는 동안 입신의 기회를 잃은 불운한 지식인이었다. 이러한 형의 지도로 학문을 접하기 시작한 이익은 현실 정치의 엄혹함과 이를 개선할 필요를 몸소 체험하면서 성장하였다.

나이 25세경인 1705년 이익은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하였지만, 이름을 기재한 것이 격식에 맞지 않다 하여 회시에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시는 갑술환국(1694년)으로 남인들이 정권에서 완전히 축출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로 중앙정계는 노론과 소론의 무대였다. 이익의 과거응시에서 일어난 문제도 이런 중앙정계의 사정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그가 스승으로 모신 형 이잠이 그 다음해 1706년에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훗날 경종)를 두둔하고 노론에 맞섬으로써 이익의 집안은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였다. 노론이 숙종의 맏아들(훗날 경종)을 해하려 한다는 취지의 상소를 올린 이잠은 당시 노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던 숙종을 진노케하였다. 이잠은 숙종의 분노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곤장을 맞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따르던 형의 참혹한 죽음을 목도한 이익은 이후 관료로 중앙정계에 진출할 뜻을 접었다. 이미 실권한 남인계 지식인이 중앙 정계에서 설 자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익은 이때 깨달았던 것 같다. 대신 그는 안산에 머물면서 당리당략에 움직이며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잘나가던 시절 모아둔 수천 권의 책이 학문의 밑거름이되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며 모아온 새로운 학문에 대한 책 특히, 서학과 과학에 대한 책들도 있었다. 이익은 기존에 익힌 성리학에 새로운 학문을 접목시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던 당시의 유학을 새로운 방향에서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실용성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재야에 머물면서, 협소한 중앙 정계에서 생존을 걸고 다투다가 시야가 좁아진 고위 정치권이 발견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와 변화, 그리고 개혁의 지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익의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그보다 앞서 유학에서 실용성을 이끌어내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실학의 바탕을 마련한 반계 유형원이었다. 이익은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여 이전에 학자들이 공부하지 않던 천문·지리·율산·의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갔으며, 몸소 농사를 짓는 동안 토지의 중요함과 농경의 고귀함을 깨달아 이를 학문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익은 기존의 학문에 대한 치열한 비판적 태도 속에서

유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냈고 독창적이고 논리적 사고로 이를 철학적으로 재정립했다. 그리고 그 위에 서학이나 과학 등을 접목시킴으로써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개혁 방안을 정리해냈다.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僿說)]과 [곽우록(藿憂錄)] 등 주요 저술에 자신의 개혁사상을 풀어 놓았다. 그는 몸소 체험한 사회적 모순과 불안한 민생을 해결할 방안을 실증적 분석과 비판을 통해 얻었다.

농사를 짓던 경험에서 토지와 농경생산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익은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그 근간이 토지제도의 개혁이었다. 그는 한전론을 통해 개인의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한정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빈부의 양극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농가마다 가질 수 있는 일정 정도의 토지를 정하고 그 토지는 매매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에 보고하도록 하면 점차로 토지의 배분이 균등해 질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토지에 바탕을 둔 조세제도를 구상하였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여타한 잡세들은 타파하고 토지에만 세금을 매겨도 세수원이 확보된다고 파악한 것이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에서도 세금은 지주가 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또 당시 구휼제도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은 백성의 목을 죄는 세금으로 탈바꿈해 있던 환곡제도를 혁파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관청과 왕실의 지출에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익은 세원 확보와 경제부흥의 일환으로 노비제도 혁파와 양반도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노비제의 혁파는 계급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자율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수를 늘려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양반도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정권획득이라는 한정된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익이 추구한 세상은 백성의 몰락을 막고 모두가 비슷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함께 근로하며 함께 잘 사는 자영농민의 세상이었다. 그는 상업적인 발달보다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가진 국가를 꿈꾸었다.

관료의 선발에도 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과거제도를 벗어나 공거제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위정자의 민본사상을 새삼 강조하였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붕당간 갈등 속에서 희생된 경험이 있는 탓에 중앙정계의 이전투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원인을 탐구했다. 그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양반계급이 추구할 수 있는 이권이 관료가 되어 정권획득을 추구하는 하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 "붕당은 이(利)를 욕구하는 데에 시작된다.....이(利)가 하나고 사람이 둘이면 당이 두 개 생기고, 이가 하나고 사람이 넷이면 바로 당이 네 개가 되는 것이니.....이해가 절실하면 당은 뿌리가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지속되면 당의 결합이 공고하게 되는 것은 필연의 형세이다"

그는 앞서 말한 양반의 생산 참여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이권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과열경쟁이 된 과거제를 손질하여 공거제를 통해 관료로서 능력이 있는자를 엄선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익은 이전까지 유학자라면 고집해왔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폈다. 그는 기존의 학문 풍토나 역사관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인식과 학문적 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여 민족의식을 싹 틔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서학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 서학을 통해 들어온 과학기술에 특히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다만 그는 서학과 함께 들어온 크리스트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경계하였다.

이렇듯 경세치용의 개혁사상을 설파한 이익의 문하로 당대 많은 진보적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그것은 이미 변화한 세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기존 학문의 한계에 갈증을 느끼던 지식인 학자들로서는 당연한 발걸음이었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이익의 사상은 그의 가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개혁에 뜻을 둔 많은 젊은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이익의 개혁사상을 공부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문에 투영하였다. 이들을 이익의 영향을 받은 학파로 분류하여 이익의 호를 따 성호학파로 부른다.

그의 제자로는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쓴 사학의 안정복, 천문학을 한 황운대, 지리학의 윤동규, 문학의 신후담, 경학을 연구한 권철신등이 유명하며 가문의 인물로 경제학을 연구한 이만휴와 천문학과 문학을 연구한 이용후, 경학과 사학의 이가환, 지리학의 이중환 등이 이익의 개혁사상을 이어받아 성호학파를 이루었다.

이 성호학파는 이후 경전의 해석방법과 서학을 대하는 태도에서 안정복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와 권철신을 중심으로 한 진보파로 나눠지기도 하였다. 안정복은 서학을 경계하고 민족주의 입장을 고수한데 비해 권철신은 서학을 학문으로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천주교신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익의 경세치용의 개혁사상은 이가환, 이승훈을 통해 정약용과 그 형제들에게 전해져 더욱 계승발전 되었다.

이익은 83세에 자신이 평생을 농사짓고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을 고심했던 안산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영조는 그의 학문을 높이 사 중추부첨지사를 제수하였고 죽은 뒤 이조판서로 추증하였다.

저서로는 [성호사설]과 [곽우록] 이외에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 [이선생예설(李先生禮說)], [사서삼경], [근사록(近史錄)] 등이 있고, 편저에 [사칠신편(四七新編)], [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 [자복편(自卜編)], [관물편(觀物編)], [백언해(百諺解)]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익 [李瀷]-조선후기 실학의 토대를 마련한 실학의 중조 (인물한국사)

다. 안정복과 동사강목

순암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숙종 말기에 태어나서 정조 말기에 세상을 떠난 실학자이다.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호는 순암(順菴)이며, 자는 백순(百順)이다. 안정복의 집안인 광주 안씨의 시조는 고려 때 태조를 도와 공

을 세운 안방걸(安邦傑)로, 광주는 태조에게 받은 사패지(賜牌地: 임금이 내려준 논밭)이다.

안정복이 주로 살았던 경기도 광주는 지금의 행정구역과 달리 서울 강남, 강동, 하남시, 남양주시 등에 걸친 넓은 지역이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광주부는 실학의 종장(宗匠)인 성호 이익(李瀷, 1681~1763)의 영향을 받은 순암 안정복과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등 재야 남인 계열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근기실학이 형성된 지역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 좌참찬을 지낸 안성(安省, 1344~1421)이 안정복의 12대조이며,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扈從 :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며 따름)하여 공신에 봉해 진 안황(安滉, ?~1593)이 그의 6대조이다. 이후로 현달한 인물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안정복의 고조 안시성(安時聖)이 현감에 오른 적이 있고, 증조 안신행(安信行)은 그보다도 못한 빙고(氷庫) 별검 자리에 나갔으며, 그나마 조부 안서우(安瑞羽, 1664~1735)가 비교적 현달하여 태안군수를 거쳐 울산부사(종3품)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조부 안서우는 영조 즉위와 함께 노론의 세상이 되자 당류의 배척을 받아 탐관오리죄로 울산부사에서 파직되는 비운을 만났다. 안서우는 파직 후 서울을 떠나 전라도 무주에 내려가 은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의 아들 안극(安極)과 손자 안정복 등 온 가족이 함께 무주로 이사하게 되었다. 조부의 몰락은 안정복과 그의 부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안정복의 부친인 안극은 일평생 관직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안정복도 15세의 어린 나이로 할아버지의 비운을 목도한 후 38세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은 물론이고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일체 포기하였다. 조부의 파직이 가져다 준 충격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무주에서의 은거 생활은 안정복의 학문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출세와는 거리가 먼 학문을 좋아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인 유학 경전도 공부했지만, 그는 음양·성력(星曆)·의약·점복, 손자병법, 불교·노자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15~16세에는 이미 통달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한다. 세간에 '방술가(方術家)'로 알려진 것도 이러한 학문적 경향 때문이었다.

1726년(영조 2)부터 무주에서 은거하던 안극과 안정복은 10년 뒤인 1735년(영조 11)에 안서우가 사망하자 무주를 떠나 고향인 광주 경안면 덕곡리로 돌아왔다. 이때가 1736년, 안정복의 나이 25세였다. 광주 덕곡리에 돌아온 안정복은 '순암'이라는 이름의 거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학문에 전념했다. 순암이라고 불리는 집은 규모가 8칸이 되는 '엄(奄)'자형의 가옥이었다. 또 그는 조상 선영이 있는 덕곡리 영장산 아래에 '이택재(麗澤齋)'라 불리는 청사를 지어 학문 생활과 함께 제자들을 공부시키는 강학의 장소로 이용하였다.

안정복은 고향으로 돌아온 때부터 방술학보다는 성리학에 눈을 뜨게 되어 [성리대전]과 [심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수기치인(修己治人)', 즉 인간의 윤리 도덕과 사회참여 문제로 확장시켜나갔다. 그러나 그가 왜 광주로 환향한 것을 계기로 학문적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광주 환향 후, 안정복은 학문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다. 광주로 온지 1년 후인 26세에 〈치통·도통이도(治統·道統二圖)〉를 시작으로 27세에는 뒷날 [임관정요(臨官政要)]의 모체가 되는 〈치현보(治縣譜)〉와 동약(洞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향사법(鄕社法)〉을 짓는 등 쉴 틈 없이 저술에 전념했다. 29세에는 토지제도 개혁안으로서 〈정전설(井田說)〉에 대해 썼고, 30세에는 주자의 글을 모방한 〈내범(內範)〉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환향 후 몇 년간 학문과 저술에 전념하던 안정복은 30대가 되자 광주 지역 근처에 사는 실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시작했다. 33세에 반계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의 증손으로부터 [반계수록(磻溪隧錄)]을 입수해서 읽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64세 때 〈반계연보〉를 짓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현실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안정복은 35세에 자신의 학문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선생을 만나게 된다. 안산 첨성촌에 살고 있는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을 찾아가 그의 문하에 들어간 것이다. 스승 이익과의 학문 교류는 이익이 타계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는데, 특히 안정복의 대표 저술인 [동사강목(東史綱目)]은 6년간 스승인 성호와의 편지 문답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익과 그의 문인들과의 교류는 안정복의 학문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아닌 30대 중반에 어느 정도 학문과 사상 체계를 이룬 뒤였기 때문에 이익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자기 색깔이 뚜렷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38세 되던 1749년(영조 25) 안정복은 문음(門蔭 : 특별한 연줄로 벼슬에 임명되는 일)으로 첫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말단 관직인 만령전참봉(萬寧殿參奉, 종9품)을 시작으로 의영고참사(義盈庫奉事, 종8품), 정릉직장(靖陵直長),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 종6품)를 거쳐 43세에 이르러 사헌부감찰까지 올랐다. 그러나 부친의 죽음과 본인의 건강 악화로 5년 만에 관직에서 물러나 다시 고향 광주에 내려갔다. 이후 61세까지 18년간 관직과는 거리를 두고 저술 활동에 몰두하였는데, [임관정요](1757. 46세), [동사강목](1759, 48세), [열조통기](1767, 56세) 등 그의 대표 저술은 이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저술은 아니지만 [이자수어](1753, 42세), [성호사설유편](1762, 51세)과 같은 편집글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저작물들이다.

40~50대를 학문과 저술 활동으로 보낸 안정복은 61세에 다시 관직에 나갔다. 예순이 넘은 그에게 동궁(훗날의 정조)을 가르치는 일이 맡겨졌는데, 이는 학자로서의 학문적 수준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정조가 왕위에 올라서는 고령의 나이인 그에게 목천현감이라는 수령 자리가 주어졌다. 1776년, 그의 나이 예순다섯 살이었다.

백성의 세금을 탕감해주고, 민폐를 해소하기 위해 온 정열을 기울인지 3년. 백성들은 나무를 깎아 송덕비를 세우고 그의 치정(治定)을 기렸다. 안정복은 72세에 다시 중앙으로 복귀하여 돈녕부 주부(정6품)·의빈부 도사(종5품)·세자익위사 익찬(정6품) 등을 역임했다. 비록 한직이지만, 이 또한 고령인 안정복을 배려한 정조의 처사였다.

73세에 벼슬길에서 물러난 후 안정복은 학자 본연의 생활로 돌아가 저술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는데, 이 시기에 천주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안정복은 일찍이 40대 중반에 스승 이익을 비롯하여 이익의 제자이자 천주교 신자인 권철신(權哲身, 1736~1801)에게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인 자신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 이후로 20여 년이 흐른 후 그의 나이 70대가 되었을 무렵, 천주교의 교세가 날로 확장되자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천주교를 비판한 책인 [천학고(天學考)]나 [천학문답(天學問答)]이 간행된 것도 1785년, 안정복의 나이 74세 때이다.

안정복은 현실 문제를 직시하는 성리학자로서 내세를 인정하는 천주교에 긍정적일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성

리학적 명분론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성호 이익의 제자들, 즉 성호학파 문인들은 천주교의 수용 문제를 두고 두 노선으로 나뉘었는데, 천주교에 비판적이던 안정복 계열과 수용적 입장을 취한 권철신 계열이 바로 그것이다. 흔히 전자를 성호우파, 후자를 성호좌파라 한다.

안정복은 죽기 직전인 79세에 가선대부(종2품)에 가자(加資: 관원의 품계가 올라감)되고, 동지중추부사로서 광성군(廣成君)에 피봉되었으며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죽은 뒤인 순조 원년에는 천주교 비판의 공이 높이 평가되어 자헌대부(정2품) 의정부좌참찬겸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총관이라는 벼슬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익의 제자로서 천주교를 믿었던 이가환·권철신·정약종 등 남인 학자들은 사형을 당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그중 권철신은 안정복의 사위인 권일신의 형이며, 권일신도 장인인 안정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하였다.

안정복이 쓴 책 가운데 가장 대표작은 [동사강목]이다. 평소 자국의 역사가 제대로 서술된 책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그는 절치부심하여 마흔여덟 살에 이 책을 완성하였고, 이후로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다. 그는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에 관계되는 서적은 모조리 조사하여 참고하였다 한다.

[동사강목]의 핵심은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것에 있었다. 단군·기자·삼한을 정통의 줄기로 잡고 한족(漢族)이 침입하여 세운 위만조선이나 한사군을 정통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면 안정복은 왜 [동사강목]을 편찬했을까?

안정복은 중국 사서 중에서도 주자가 쓴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최고의 사서로 인정한 인물이다. [동사강목]은 주자학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주자의 강목체 서술을 표준으로 하여 서술된 역사서이다. 강목체는 역사를 기록할 때 '강(綱)'과 '목(目)'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강은 기사의 큰 줄거리를 기록한 것이고, 목은 강의 하위 항목으로,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강목체를 기본으로 하는 역사서는 보통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른 정통의 구별과 포폄(褒貶: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을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데 [동사강목]이 후대 역사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데는 역사의 정통을 바로 세운 것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고증이 그 이전의 사서에 비해 광범위하고 철저했다는 데 있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쓸 때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기본 자료로 삼으면서 각 시대의 역사책과 문집들을 널리 참고하였고, 나아가 중국인이 쓴 기록과 [일본서기]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많이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따라서 18세기 중엽 당시로서는 자료 수집 면에서도 가장 충실한 사서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동사강목]은 주자학적 정통론에 입각한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책이라는 평가에는 재론이 없다. 일제강점기에 위당 정인보(鄭寅普, 1893~1950)나 단재 신채호(申采浩, 1880~1936) 등이 가졌던 민족주의 역사관도 안정복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동사강목]에 서술되어 있는 삼한정통론은 일찍이 스승인 이익이 주창한 바 있었고, 안정복은 그 계승자로서 이를 체계화한 인물이다.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로 인정한 [동사강목]은 단군의 정통성이 기자-마한-통일신라-고려로 이어진다고 서술하였다. 이어 단군·기자·위만을 합하여 삼조선(三朝鮮)라고 한 [동국통감]의 역사 체계를 비판하고, 위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므로 삭제한다고 기술하였다. 안정복의 삼한정통론으로 우리 역사는 1천여 년이 끌어올려졌고, 독자적 역사관이 제시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을지문덕과 강감찬 등 외래 침략을 격퇴한 명장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국방 문제나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 등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안정복 자신이 처해 있는 조선 사회의 현실 모순을 상징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정복 [安鼎福]-자국의 역사를 체계화한 보수주의 실학자 (인물한국사)

2. 조선후기 회화와 진경산수

가. 강세황

강세황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줄곧 '속기 없는 문인화'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화풍은 전적으로 남종화법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예술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탐구하고 수련하였다. 그림 수업은 주로 화보류를 방(倣)하는 독학이었다. 앞 시대의 명작을 따라 그리는 방작(倣作)은 기법을 터득하는 것은 물론 그림의 정신을 체득하는 기본과정으로서 화가들이 일반적으로 걸었던 길이며, 강세황도 그 길을 충실하게 따랐다. 그러나 그는 결코 상투적인 답습이 아니라 참신한 실험정신의 열린 자세로 임하였다.

그것은 진정한 문인화의 세계를 지향하였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그가 이룩한 문인화의 경지는 '와유(臥遊: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김을 이르는 말)'와 '사의[寫意: 사물에 의탁하여 도(道)와 진(眞)에 이르고자 하는 뜻을 그리는 것]'라는 남종화의 본질적 정신을 굳게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성과 독자적 개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성과를 '한국적 남종문인화'나 '남종문인화의 토착화'라고 부른다.

그는 여러 화목(畫目)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누구보다도 많은 종류를 그려 '소재의 다양성'에서 가히 독보적이다. 또 각각의 소재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화법을 시도하였고, 특히 산수화에 현실감이 나도록 서양화풍을 적용하였다. 그는 작품이 예술적 생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었고, 스스로 서화의 습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요컨대 '습기'와 '속기'를 벗어나는 것은 문인 예술정신의 본질이자 동양예술의 핵심이었는데, 그가 이 문인화의 보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스스로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그는 작품의 제작 정신과 소재에 대하여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산수화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산수' 자체라는 그의 입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그에 따르면, 흔히 언급되는 진경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소재의 차이이며 산수화 정신의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또 그림에서 전신사조(傳神寫照 : 대상의 겉모습과 정신을 담아냄)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은 산수뿐 아니라 고목죽석(枯木竹石)이나 화훼사생(花卉寫生)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가 다양한 소재를 다룬 것도 이러한 생각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편의상 생애와 화풍을 중심으로 초기(45세까지)·중기(45~51세)·후기(51~79세)로 구분하며, 화목은 크게 산수화와 화훼·사군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 시기에 걸쳐 이들 분야의 소재들을 공통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며, 중기에 산수인물과 사군자, 후기에 묵난죽(墨蘭竹)이 좀더 많아지는 정도이다. 현재 전하는 그의 그림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 25세때 『국조서법(國朝書法)』 뒤쪽에 그린 〈산수도〉와 〈매화도〉라는 사실이 그의 작품세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그가 무슨 소재를 다루든 그 근본은 사의를 중시하는 남종문인화 정신에 의거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강세황이 25세 되던 1737년 즈음은 문인화가로서 새 전기를 마련한 시기이다. 그가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6세 때 시를 지었으며 12~13세 때 붓글씨를 얻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시와 글씨에 비해 그림의 시작을 늦게 잡아도 20대 중반이면 이미 10년 정도의 세월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가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이 무렵에 문인화가의 입지와 실천적 자세를 확실히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조서법』 뒤쪽에 그린 그림이 이때에 그려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시기는 그가 자신의 예술적 분위기를 갖추어간 때였다. 그해에 그는 서재 이름을 '산향재(山響齋)'라 하고, 방안 네 벽에 산수를 그렸다. . 더욱이 종병(宗炳: 중국 남북조시대 송나라의 화가. 노년에 병이 든 이후, 젊은 시절 돌아다녔던 산수를 벽에 그려 놓고 즐긴 '와유'의 일화로 유명함)의 '와유'를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그 보편성을 받아들였으며 이를 따르고자 하는 목표를 선명하게 밝힌 점이 드러난다. 이 때의 와유정신은 그의 일생 동안 일관되었다. 그는 명나라의 동기창(董其昌)을 비롯하여 많은 유명 화가들을 따랐지만, '와유'의 근원을 찾아간 그의 근본주의적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산수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산수화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18세기를 산 문인화가로서 그가 지닌 시대성을 관찰할 때 비로소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우르며 그의 산수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일생 화보를 따라 그린 일과 실제 산수를 유람하고 진경을 그린 일, 전통적 남종화풍을 추구한 것과 산수의 현장감을 위해 서양화풍을 수용한 것 등은 언뜻 모순적이거나 대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산수의 와유정신이라는 근본바탕을 고려한다면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일인 것이다.

강세황은 진경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이는 당시 문인들의 진경관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진경산수 전반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제공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진경산수의 유행이라는 현상을 볼 때 산수와 진경의 본질적 관계를 놓치고 전통과 혁신의 측면만 부각시킨다면 단편적 이해에 그치고 마는 문제점이 생긴다. 모든 시대에 유효한 보편가치로서의 산수 정신과 그 보편성을 어떻게 시대적인 미감으로 새로이 성립·실현시키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문인화의 본질을 추구한 강세황은 '진경산수'를 당시의 입장대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남겼다.

그는 전 시기에 걸쳐 진경산수를 제작하였다. 초기에 남종문인화풍의 산수를 그리면서 그 소재는 화보풍인 것과 실경,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다. 산수화의 개념상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점은 강세황이 39세 때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부탁으로 그린 〈도산도(陶山圖)〉의 제발(題跋)에서 간단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림은 산수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그것은 크기 때문이다. 또 실지의 진경(眞景)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그것은 닮게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실경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그것은 실제와 다른 것을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직접 보지 못한 지역을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다. 그것은 억측으로 닮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송도기행첩』의 특색 중 하나는 서양화법의 수용이다. 이것은 그가 평소 어떻게 하면 실제 산수를 보듯이 현실감 나는 산수를 그려낼까 궁리하다가 찾은 해결책으로서 당시로서는 새롭기 만한 서양화법의 이점을 채택한 것이었다. 개성 부근의 뛰어난 경치를 여행하면서 받은 감동적인 인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현실적 공간 구도와 음영효과에 의한 입체감 등을 적절하게 구사하였다. 윤곽을 잡아준 건강하고 개성적인 필선과 새로운 서양화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생기를 더함으로써 '품위 있는 수채화'라 불러도 좋을 만큼 참신한 감각을 풍긴다. 이는 명암법이 이미 적용되던 초상화 분야와 달리 산수화에서 서양화법이 수용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평생에 걸쳐 문인화가의 길을 걷다 (한국의 미술가, 2006. 2. 1., (주)사회평론)

나. 김홍도

> "단원은 어릴 적부터 그림을 공부하여 못하는 것이 없었다. 인물, 산수, 신선, 불화, 꽃과 과일, 새와 벌레, 물고기와 게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묘품(妙品)에 해당되어 옛사람과 비교할지라도 그와 대항할 사람이 거의 없었다. 특히 신선과 화조를 잘하여 그것만 가지고도 한 세대를 울리며 후대에까지 전하기에 충분했다. 또 우리나라 인물과 풍속을 잘 그려내어 공부하는 선비, 시장에 가는 장사꾼, 나그네, 규방, 농부, 누에 치는 여자, 이중으로 된 가옥, 겹으로 난 문, 거친 산, 들의 나무 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꼭 닮게 그려서 모양이 틀리는 것이 없으니 옛적에는 이런 솜씨는 없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대체로 천과 종이에 그려진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공력을 쌓아야 비로소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단원은 독창적으로 스스로 알아내어 교묘하게 자연의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천부적인 소질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강세황의 글이다.

김홍도는 1745년 태어났다. 본관은 김해이고 아버지는 김석무(金錫武)이다. 증조할아버지가 만호 벼슬을 지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을 보면 본래 무반이었던 듯하나 김홍도가 태어날 무렵에는 중인 집안이었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는 해도 그림과 아무 연관 없는 집에서 태어난 중인 소년이 당대의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세황이라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뛰어난 문인화가이자 명문사대부인 강세황에게 어떤 연유

로 그림을 배울 수 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홍도는 "젖니를 갈 때부터"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강세황은 마흔 살 무렵으로 벼슬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처가에 살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김홍도가 안산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김홍도는 스무 살 이전에 이미 도화서 화원이 되어 있었던 듯하다. 1765년 영조가 71세가 되어 여든의 나이를 바라보는 망팔(望八)에 이른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이를 위해 병풍을 만들었는데, 당시 스물한 살에 불과한 김홍도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전한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로 임금의 큰 잔치 그림을 홀로 그렸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1773년 스물아홉의 김홍도는 영조의 어진과 왕세손의 초상화를 그리며 그의 그림 인생에 중요한 인연을 또 한 사람 만난다. 뒷날 정조가 되는 왕세손은 당시 김홍도의 솜씨가 썩 마음에 들었다. 뒷날 "김홍도는 그림에 공교로운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이다. 30년 전에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때부터 무릇 화사(畫事)에 속한 일은 김홍도로 하여금 주관하게 했다."는 글을 남긴 바 있듯이 이후 정조는 김홍도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후원자가 된다.

영조의 초상화를 그린 김홍도는 그 공을 인정받아 이듬해 사포서(司圃署)의 감목관(監牧官)이라는 벼슬에 올랐다. 마침 두 달 뒤 스승 강세황이 사포서의 별제로 발령을 받아 사제지간이 함께 근무했다. 이때의 일에 대해 강세황은 이렇게 회상했다.

"일찍이 군과 더불어 사포서의 동료가 되었을 때, 매번 일이 있으면 군이 나의 노쇠함을 딱하게 여겨 바로 힘든 일을 대신했으니, 이는 내가 더욱 잊을 수 없는 바이다."

삼십 대에 김홍도는 "그림을 구하는 자가 날마다 무리를 지으니 비단이 더미를 이루고 찾아오는 사람이 문을 가득 메워 잠자고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이었다."는 말이 전할 만큼 그림으로 높은 이름을 얻고 있었다.

이 무렵 김홍도는 [신선도], [군선도], [선동취적], [생황을 부는 신선] 등의 신선도와 [서원아집도], [평생도] 등의 인물화, 그리고 [서당], [씨름], [타작], [우물가] 등의 풍속화를 많이 그렸다. 그 가운데서도 풍속화는 인물의 생동감 있는 묘사와 각 장면의 극적인 구성이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일하는 백성들이다.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 장인들, 밭을 갈고 꼴을 베는 사람, 물을 긷고 빨래하는 사람, 장사하는 상인들의 모습 등 서민들의 정서와 삶에 밀착된 그림들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

김홍도는 서른일곱 살이던 1781년 정조의 초상을 그리고, 그 상으로 경상도 안동의 안기찰방 벼슬을 받았다. 그에 대해 강세황은 "나라에서 기술자(중인)를 등용한 것이 본시 여간해서 없던 일이며 단원은 서민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비록 종6품의 말직이기는 했지만, 화원으로서 누리기 어려운 영광이었다. 벼슬살이를 하고 돌아온 40대의 김홍도는 화조화, 기록화 등을 주로 그렸다. 1788년에는 정조의 명으로 김응환과 함께 금강산 등 영동 일대를 기행 하며 그곳의 명승지를 그렸고, 그 이듬해 사신을 따라 중국 베이징에 갔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으로 모시며 현륭원을 건설할 때 현륭원의 원찰인 용주사의 후불탱화 제작에 참여해, 조선 후기 불화의 명작 중 하나를 남기기도 했다. 입체감을 나타내는 음영을 넣어 독특하게 표현한 이 불화들은 기존의 화풍을 뛰어넘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1791년, 다시 정조의 초상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해 그 상으로 충청도 연풍 현감에 제수되었다. 중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 직책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만 3년 뒤 "남의 중매나 일삼으면서 백성을 학대했다."는 충청 위유사 홍대협의 보고로 파직됐다. 백성들 중매를 해주던 인간적 관리였으나 행정적으로 유능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현감 자리를 내주고 평민으로 돌아온 김홍도는 자유롭게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에 전념해 산수, 화조, 인물화 등에서 명작들을 쏟아냈다. 50대에 이른 김홍도의 그림들은 보다 원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대담한 생략과 거침없는 붓길이 대가다운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시기의 대표작들은 [해산선학도], [마산청앵도], [세마도] 들이다.

이렇듯 많은 그림을 그렸고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삶은 어려웠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 지필묵이 부족했을 정도로 가난했던 적도 있지만, 생활에 크게 구애받는 성격은 아니었다. 조희룡의 [호산외사]는 이런 김홍도의 모습을 잘 전해주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 "집이 가난하여 더러는 끼니를 잇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매화 한 그루를 파는데 아주 기이한 것이었다. 돈이 없어 그것을 살 수 없었는데 때마침 돈 3천을 보내주는 자가 있었다. 그림을 요구하는 돈이었다. 이에 그중에서 2천을 떼내어 매화를 사고, 8백으로 술 두어 말을 사다가는 동인들을 모아 매화음(梅花飮)을 마련하고, 나머지 2백으로 쌀과 땔나무를 사니 하루의 계책도 못 되었다."

낭만적인 예술가였지 생활력 있는 가장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전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김홍도는 매우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 생김생김이 빼어나게 맑으며 훤칠하니 키가 커서 과연 속세 가운데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언도 있고, "아름다운 풍채에 도량이 크고 넓어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신선과 같다고 하였다."는 말도 전한다. 미술뿐 아니라 음악도 즐겨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이면 거문고 한두 곡을 연주하며 스스로 즐겼고, 즉석에서 한시를 남길 정도로 문학적 소양도 갖고 있었다.

정확히 몇 년에 사망했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1805년 12월에 쓴 편지가 전하고, 이후 행적과 작품이 일절 전하지 않아 예순두 살이던 1806년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현재 300점 정도의 작품이 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홍도 [金弘道]-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린 천재 화가 (인물한국사)

다. 진경산수화와 정선

조선 후기(1700~1850년)를 통하여 유행한 우리나라 산천을 소재로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 한다. 진경(眞境) 또는 동국 진경(東國眞景)이라고도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신조선 산수화(新朝鮮山水畫)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중기에 걸쳐 그려진 실경 산수화(實景山水畫)의 전통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다. 앞 시기의 경향에 비하여 화단에서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며 성행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회화성과 함께 한국적인 화풍을 뚜렷하게 창출하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진경 산수화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회적 변동과 의식의 변모를 배경으로 유행하였다. 특히 종래의 방고(倣古) 행위의 형식화와 그 표현의 상투화에 대한 반성에서 당대의 현실을 통하여 고의(古意)와 이상을 찾으며, 가치를 재인식하고자 하였던 당시의 사상적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산천을 주자학적(朱子學的) 자연관과 접목시키고자 하였던 문인 사대부들의 자연 친화적 풍류의식의 확산에 의한 탐승유력(探勝遊歷) 풍조의 성행과 주자학의 조선화(朝鮮化)에 따른 문화적 고유색의 만연 및 자주의식의 팽배 등도 진경 산수화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류의 이념적 성향은 당시 집권층이었던 노론 문인 사대부들과 남인 실학파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실경의 소재는 조선 초기·중기와 마찬가지로 명승 명소(名勝名所)·별서 유거(別墅幽居)·야외 아집(野外雅集)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강산과 관동 지방, 서울 근교 일대의 경관이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화풍은 종래의 실경 산수화 전통에 18세기에 이르러 새롭게 유행하기 시작한 남종화법(南宗畫法)을 가미하여 형성되었다. 그리고 정선(鄭敾)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정선은 금강산과 영남 지방 및 서울 근교 일대를 다니면서 산천의 특색을 남종화법을 토대로 표현하여 새로운 화격을 이룩함으로써 전통 실경 산수화의 면모를 일신하고, 진경 산수화풍의 정형을 수립하였다.

그의 진경 화풍은 기존 화법과 남종화법을 우리 산천의 형상에 어울리는 필법으로 소화하여 낸 것이다. 실경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회화적 재구성을 통하여 경관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감동적으로 구현하였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양식적으로는 부감법(俯瞰法)의 시각에 동적인 대각선이나 사선을 활용한 화면 구성법을 비롯하여 습윤한 피마준법(披麻皴法)과 듬성한 태점(苔點), 괴량감 넘치는 짙은 적묵(積墨)의 바위와 능란한 편필직필(偏筆直筆)의 스케치풍 소나무 묘사법 등을 특징으로 구사하였다.

특히 금강산 화법에서는 예각적인 암봉(巖峰)들을 날카로운 수직준(垂直皴)으로 요약하여 굳세고 빼어난 골기(骨氣)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 이를 토산(土山)의 부드러운 미점(米點)과 대조시켜 만물을 생성 화육시키는 원동력인 음양의 조화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정선의 이러한 화풍은 강희언(姜熙彦)·김윤겸(金允謙)·정황(鄭榥)·김유성(金有聲)·최북(崔北)·정충엽(鄭忠燁)·장시흥(張始興)·김응환(金應煥)·김석신(金碩臣)·김득신(金得臣)·거연당(居然堂)·신학권(申學權) 등 주로 중인층 문인 화가들과 화원들에게 파급되어 정선파(鄭敾派)라는 유파를 형성하면서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풍의 주류를 이루었다.

통신사절단을 따라 도일(渡日)하였던 최북과 김유성을 통하여 일본 에도시대(江戶時代)의 남화가들인 이케(池大雅), 우라카미(浦上玉堂) 등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화의 금강산도와 관동팔경도의 양식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중·후반을 풍미하였던 정선파의 화풍은 강희언·김윤겸 등의 일부 중인 서얼층 문인화가들에 의하여 참신한 사경풍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화원들에 의하여 형식화의 경향을 나타내면서 18세기 말엽에 이르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였던 강세황(姜世晃)은 정선의 화풍과 형식화된 영조시대 진경 산수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제 경관과 부합되는 사실적인 기법을 강조하였다.

강세황(姜世晃)은 「송도기행명승도첩 松都紀行名勝圖帖」을 통하여 서양화법을 수용하면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화풍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김홍도(金弘道)에 의하여 구도와 필법이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으로 발전되었다.

김홍도의 이와 같은 사실적인 화풍은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의 새로운 양식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의 화단에서 이인문(李寅文)·조정규(趙廷奎)·임득명(林得明)·이유신(李維新)·엄치욱(嚴致郁)·이재관(李在寬)·유숙(劉淑) 등의 화원들에게로 이어지면서 계승되었다.

조선 후기의 진경 산수화풍은 정선파와 김홍도파 이외에도 심사정(沈師正)·이인상(李麟祥)·허필(許佖)·정수영(鄭遂榮)·윤제홍(尹濟弘)·정철조(鄭喆祚) 등의 문인화가들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남종화법과 함께 문인풍의 격조 높은 화법을 바탕으로 색다른 개성미를 보여 주면서 이 시대 진경 산수화의 다양한 전개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진경 산수화는 현실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근대 지향적인 의의를 형성하면서 한국적 화풍 수립과 함께 조선 후기의 회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정치권의 보수화 추세에 의하여 김정희(金正喜)를 중심으로 사의적(寫意的)인 문인화풍이 득세함에 따라 쇠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서 1970년대에 걸쳐 특정 경관이 아닌 생활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그리는 사경 산수화(寫景山水畫)로 그 전통이 계승되어 양식보다 정신적 배경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으로는 정선의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간송미술관 소장), 「금강전도(金剛全圖)」·「인왕제색도(仁旺霽色圖)」(호암미술관 소장)를 비롯하여, 강희언의 「인왕산도」(개인 소장), 김윤겸의 「영남명승첩(嶺南名勝帖)」(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김응환의 「금강산화첩」(개인 소장), 김석신의 「도봉산도」(개인 소장), 심사정의 「경구팔경도(京口八景圖)」(개인 소장)가 있다.

이인상의 「구룡연도(九龍淵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수영의 「한림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卷)」(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강세황의 「송도기행명승도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의 「사군첩」(개인 소장), 이인문의 「단발령금강전도(斷髮嶺金剛全圖)」(개인 소장), 임득명의 「서행일천리장권(西行一千里長卷)」(개인 소장), 조정규의 「금강산병풍」(개인 소장) 등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진경산수화 [眞景山水畫]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바. 정수영

1743년(영조 19)~1831년(순조 31). 조선 후기의 화가.

정수영의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군방(君芳), 호는 지우재(之又齋)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으로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정상기(鄭尙驥)의 증손자이다. 선비화가로서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지리학의 명문이었던 집안의 전통을 따라 기행(紀行)과 탐승(探勝)으로 시·서·화에 몰두하며 일생을 보냈다.

정수영은 산수를 비롯해 화조(花鳥), 어해(魚蟹)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으나 주로 산수화에 심취했던 듯하다. 산수화는 전통적인 정형산수화(定型山水畫)와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를 두루 제작하였다. 금강산과 한강 일대를 기행사경(紀行寫景)하고 그린 진경산수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회화세계는 자유분방한 필치와 유탄(柳炭 : 버드나무 숯) 사용, 거친 독필(禿筆 : 끝이 거의 닳은 붓)로 강한 개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그의 화풍은 조선 후기에 확산된 남종화풍(南宗畫風)을 익혀 자기화시킨 것이다. 아울러 정선(鄭敾)의 진경산수화풍을 비롯해 심사정(沈師正), 이인상(李麟祥), 강세황(姜世晃) 등 선배 문인화가들의 화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스케치풍의 유탄약사(柳炭略寫)와 수묵(水墨) 사용, 거친 붓자국, 대담한 화면 구성 등은 조선 후기 화단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함을 지녔고 한국적인 독특한 분위기와 정취를 풍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796~1797년에 그린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漢江臨江遊覽寫景圖卷)」(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있다. 또 1797년(정조 21)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만든 초본을 바탕으로 그린 1799년 작 「해산첩(海山帖)」(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여러 금강산도(金剛山圖)들이 전한다. 이 밖에도 「지우재묘묵첩(之又齋妙墨帖)」(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춘강고주도(春江孤舟圖)」(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추경산수도(秋景山水圖)」(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등과 같이 독특한 필세(筆勢)를 지닌 남종화풍 산수화를 다수 남겼다. 또 화조, 어해, 영모(翎毛) 등을 담은 그림들도 전해온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수영 [鄭遂榮]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가 주도한 조선후기 문화발전			
학습 목표	1. 조선의 건국과 한양천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유수부 체제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10분) :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야기를 통해 실학자들이 백성과 학문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알아본다.(https://www.youtube.com/watch?v=fTcAL28uULI)		
전 개	1. 실학의 본고장 경기 (15분)	왜 실학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혁적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강세황과 김홍도 (15분)	강세황과 김홍도의 작품활동과 작품세계를 통해 조선후기 미술의 발전을 이해한다.	
	3. 진경산수화 속 경기의 모습(15분)	경기의 모습이 그려진 진경산수화를 통해 조선후기 산수화의 발전모습을이해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경기도가 실학이 발전된 지역의 토대임을 이해한다. – 진경산수화가 발달한 이유를 파악한다.	
	함께 해봅시다(30분)	오늘날의 실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눈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조선 후기 학문과 예술의 발달에 대해 이해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1. 경기도가 우리나라 실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강세황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자화상에는 직접 글도 썼는데 이것을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강세황처럼 자화자찬을 하여 봅시다.

	강세황	나
자화		
자찬	저 사람은 누굴까? 수염과 눈썹은 온통 희다. 머리에는 관리의 모자를 쓰고 있으나 옷은 평상복이라 우스꽝스럽다. 지금은 벼슬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벼슬을 탐하지 않고 고고하네. 가슴으로는 많은 책은 읽었고 그림은 천지에 이름을 떨치네.	

3.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리기 전에는 주로 많은 화원들이나 문인들이 산수화를 그릴 때에는 중국의 산수를 그렸습니다. 그 이전에 중국의 산수를 그렸던 이유와 정선이 우리나라의 산수인 진경산수화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 중국의 산수를 그린 이유

▶ 정선이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린 이유

[함께 해 봅시다]

1. 실학은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오늘날 '실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어떤 분야의 학문일까요?

	현실의 문제	실학
예)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 배양하기
1		
2		
3		
4		

2. 강세황과 김홍도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강세황은 제자인 김홍도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였으며, 김홍도는 스승을 존경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나요?

강세황이 김홍도를 세 번 만났다고 한 것처럼 그 선생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적어보세요.

처음 선생님을 만나 ( ) 했으니 ( )이라 말할 수 있고
( ) 했으니 ( )이라 말할 수 있고
( ) 했으니 ( )이라 말할 수 있다.

5. 교사 참고자료

가. 송하맹호도

작품의 크기는 세로 90.4㎝, 가로 43.8㎝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이며 사제지간인 김홍도(金弘道 : 1745~?)·강세황(姜世晃 : 1712~1791)의 합작품으로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스승인 표암 강세황이 소나무를 그리고, 단원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렸다고 한다.

소나무 밑에서 돌아나오는 호랑이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소나무는 노송의 줄기와 가는 잔가지가 문인화풍으로 운치있게 표현되어 있고, 호랑이의 모습은 매우 사실적이고 치밀한 필치를 보여 준다.

그림 속에서 호랑이는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듯 꼬리를 치켜올리고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등을 굽어 올리고 앞발에 힘을 모으고 있는 자세에서 막 달려들려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게 해 준다. 호랑이 터럭을 일일이 헤아리듯 수없는 붓질을 하여 그려 얼룩무늬의 터럭 하나하나가 살아 있는 듯 섬세함이 느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송호도 [松虎圖] (두산백과)

나. 강세황의 자화상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앉아 있다. 머리에는 관복에 맞추어 쓰는 오사모를 쓰고, 몸에는 평소에 입는 푸르스름한 옥색 빛이 도는 도포를 입었다. 두 손은 넓은 소매 속에 감추고 있고, 가슴 아래로 유난히 붉은 띠가 매어진 채로 흘러내린다. 배경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머리 좌우로 강세황 자신이 쓴 글이 특유의 해서체로 쓰여 있다. 얼굴은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 얼굴의 7·80%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려진 7, 8분면의 상을 하고 앉은 전통적으로 애용되던 자세와 구성, 도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얼굴 모습은 움푹 들어간 눈, 깊이 파인 양쪽 뺨, 미간에 새겨진 세로 주름 등에 음영이 짙게 드리워져 다른 영정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렬한 요철감이 나타나고 있다. 콧대는 유난히 밝고, 그 왼쪽으로는 그늘이 져 역시 콧날이 오뚝해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서양화풍에서 유래된 명암의 개념을 진영을 그리는데 적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 작품은 강세황이 1782년, 70세 때 그린 자화상으로 노년기의 선비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린 것이다. 서양의 경우 유명한 화가들은 흔히 자화상을 반복하여 그렸다. 그러나 조선시대 동안 자화상을 그린 화가는 거의 없다. 조선 후기에도 윤두서와 강세황 정도를 손꼽을 수 있을 뿐이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은 강렬한 자의식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전체적인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피했던 유학적 가치관 아래에서 자화상은 등장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선시대 내내 자화상을 그린 화가는 거의 없다.

자화상으로 유명한 윤두서와 강세황은 모두 조선 후기에 활동하면서 서양문화와 회화에 관심을 가졌던 진취적인 선비화가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들이 자화상을 그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양문화 및 회화에 대한 관심과 모색에서 유래된 자화상은 자연스레 서양화풍의 적용으로 이어졌다. 강세황은 전통적인 선비상의 구성과 도상을 따랐지만, 얼굴 표현에서 만큼은 서양화풍에서 유래된 입체감을 강조하는 수법을 시도하였다. 강세황은 이미 50대 즈음 송도 여행을 기념하여 제작한 《송도기행첩》에서 서양화풍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생각이나 그림에서 서양화풍의 입체감을 중시하는 화법을 시도한 것은 시차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의 모색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상한 점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제 그림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가? 발견한 사람은 조선시대 문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머리에 쓴 오사모는 관복을 입을 때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강세황은 평소에 입는 도포를 입고 있다. 만일 이런 차림으로 조정에 나간다면 근무태만으로 파직당할 참이다. 그렇다. 강세황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렸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강세황은 이 독특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쓴 글을 통하여 해명하였다.

그림의 위쪽에 좌우로 나뉘어 명필의 해서체로 쓴 강세황의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수염과 눈썹이 하얗구나. 머리에 오사모를 쓰고 야인(野人)의 옷을 입었네. 여기에서 볼 수 있다네. 마음은 산림(山林)에 있지만 이름이 조정에 오른 것을. 가슴에는 많은 서적을 간직하고 필력은 오악(五嶽)을 흔들었네. 세상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늙은이의 나이는 일흔이고 그 호는 노죽(露竹)이라네. 그 진(眞)은 자신이 그린 것이고, 그 찬문도 자신이 지은 것이라네. 때는 현익섭제격(玄黓攝提格)이라.”

이 글을 읽고 나면 비로소 오사모를 쓰고 야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린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강세황은 이즈음 늦게 발탁되어 공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60대가 넘도록 야인생활을 하였던 그로서는 공직에서 벗어나 다시금 자유로운 산림으로 살고 싶은 것이었나 보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깊은 심사를 담아낸 것이다. 이렇게 명쾌한 초상이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모습 뿐 아니라 심상까지도 전달하는 의미인 전신(傳神)은 조선시대 영정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만일 직업화가가 지체 높은 사대부인 강세황상을 그렸다면 이렇게 예법에 어긋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린 강세황은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담은 전신을 시도하였다. 바로 이것은 선비화가의 힘이며 예술이다. 전래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해석과 실험적인 기법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선비화가의 역할이다. 선비화가들의 진취성과 실험정신을 통하여 조선시대 회화는 늘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반영할 수 있었다.

강세황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문인 서화가로 학문과 장수를 누린 소북인 가문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삼대가 71세 때 기로소에 들어가서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이름이 났다. 시서화 삼절로 이름이 높았으며, 처남인 유경종, 친구 허필(許佖, 1709~1761), 이수봉과 절친하게 교유하였다. 남인인 이익을 존경하였고, 소론인 심사정(沈師正, 1707~1769), 중인인 강희언(姜熙彦, 1710~1784년 이전) 등 많은 사람들과 시서화를 교유하였다.

조선 후기의 유명한 풍속화가 김홍도(金弘道, 1745~1816년 이후)는 그가 어릴 적에 발탁하고, 신위(申緯,

1769~1847)는 그의 제자이다. 72세 때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였고, 76세 때 김홍도, 김응환(金應煥, 1742~1789)과 함께 금강산과 관동팔경지역을 여행하고 기록과 그림을 남겼다. 시서화를 스스로 잘 하였을 뿐 아니라 감평과 감식에도 뛰어나 당대 예원의 총수로 존경받았다. 화가로서의 역할도 커서 남종사의산수화, 진경산수화, 대나무 그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이 자화상은 노년기까지 그림을 놓지 않은 화가 강세황이 이룬 그림의 경지를 보여준다. 규범이나 관습적인 형식과 표현을 답습하지 않고 현실과 개성을 중시하면서 이룬 이 자화상의 성취는 선비화가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화상 [自畫像]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그림, 2008. 03. 10.)

6. 참고 문헌

경기문화재단, 『천년의 문화사 1-3』, 2017

12차시

근대 교육의 산실, 경기도

【이야기 하나】 경기도에 세워진 소학교

1. 소학교를 통해 본 근대 교육의 시작

1) 통감부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확대

1906년 2월 설치된 통감부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준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식민지 교육의 기반을 구축할 교육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한국의 민족교육을 억제하고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통감부는 이를 위해 실용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갖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학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여 관학의 체제와 교육내용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06년 8월 27일 칙령 제44호 「보통학교령」, 8월 31일 칙령 제41호 「사범학교령」, 제43호 「외국어학교령」, 칙령 제42호 「고등학교령」 등 새로운 교육령을 반포하여 종래의 교육관제 및 규칙을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학제를 개편하였다.

제2단계는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통하여 민족사학을 통제 억압하며 애국적인 교육내용을 교육현장에서 봉쇄하는 것이었다. 1908년 8월 26일자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한 통감부는 신규 사립학교는 물론 기존의 모든 사립학교까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8월 28일 「사립학교령 시행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여 각 지방관들에게 「사립학교령」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1908년 9월 1일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9월 17일 「학부편찬교과용도서규정」을 공포하는 한편, 학교설립에 적극적인 학회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학회령」을 9월 1일자로 발표하여 학회설립도 통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적 교육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화라는 현실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만이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애국계몽운동가와 이를 지지하는 사회세력들에 의해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계속 확대되었다.

학교설립을 선도한 것은 각 지역을 연고지로 한 학회였다. 이들 학회는 교육과 식산을 통한 점진적 실력양성으

로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교육진흥을 국권회복의 지름길로 생각하였으므로 신교육의 발전과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도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방 유지들의 적극적인 학교설립을 당부하는 한편, 학교설립 및 학교활동에 관한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나라의 급무가 학교설립 및 인재양성에 있다고 하여 각 부·군에 학교설립을 강조한 광학조칙(廣學詔勅)이 1906년 3월 26일 반포되자, 각 지방에서는 군수가 봉칙(奉勅)의 의미로 학교설립에 앞장서기도 하고 지방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설립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시기 설립된 사립학교 수는 1908년 현재 관공립학교를 포함하여 5,000여 개교 학생수 20만 명에 달하였으며, 「사립학교령」 발표 이후 그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7월 1일 학부에서 조사한 사립학교 수가 총 2,082개교에 달해 전국 각지로 확대된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2) 경기도 각 군의 사립학교 설립 현황

애국계몽운동시기 학교설립운동의 확대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립학교가 신설되었다. 1910년 7월 현재 경기도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각종 학교 139개, 종교 학교 44개로 총 183개교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 분포한 총 2,082개교 중에서 평남 417개교, 평북 367개교, 황해 251개교, 함남 189개교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서북지방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종교 학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 설립된 사립학교가 숫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 사립학교 설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897년 1개, 1898년 1개, 1899년 6개, 1900년 5개, 1901년 4개, 1903년 4개, 1905년 13개, 1906년 21개, 1907년 33개, 1908년 84개, 1909년 38개 누계 211개로 나타나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경기도 지역 각 군으로 확대되어 1910년 현재 총 37개 군 가운데 30개 군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통계에 나타난 사립학교 수와 각 군에 설립된 사립학교 및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파악이 가능한 수준에서 경기도 지역 각 군별 사립학교 설립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원군

통감부 설치 이전인 1903년 5월 7일 보시동 북감리교회 내에 이하영·임근수·나중석·차유순·최익환·홍건표·이성의·김제구 등이 주축이 되어 11명의 학생으로 삼일학교(三一學校)를 설립하였다. 개교 후 4년 간은 한문 서당식으로 교육하다 1906년에 이르러 학제를 마련하고 1909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08년 9월 1일부터 학교 경영권은 북감리교회로 이양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성경·영어·역사·미술·동물·지지·국문·수신·작문·체조 등이었다.

1902년 6월 3일에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튼 여사(Mrs Hary Fletcher Scran ton)가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를 설립하여 초대 회장에 이하영이 부임하였다. 이 학교는 1909년 4월 28일 학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교과목으로는 국문·한문·영어·산술·체조·성경·음악·재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09년 2월 2일 홍긍섭 형제를 비롯한 양성관·신준희 등 상업인들이 후진들에게 상업부기·영어·한문 등을 가르침으로써 신학문과 새지식을 보급할 목적으로 수원상공회의소내에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 『기호흥학회월보』, 「학회휘문」난에 게재된 군내 학교 현황을 보면, 기호흥학회 수원지역 회장이었던 김종한이 명륜학교(明倫學校) 설립을 학부에 청원하였으며, 남곡면 근동에는 보명학교(普明學校)가 설립되어 교감 강필중, 총무 서진하, 학감 김동호 등이 청년자제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남문 밖에 사는 이선익이 학업 장려를 위해 화양(華陽)·삼대(三臺) 두 여학교의 연합운동회를 개최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여학교도 이미 설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개성군

1905년 10월 20일 윤치호(尹致昊)·강조원(姜助遠) 등에 의해 배의학교(培義學校)가 설립된 이래, 1906년 4월 장정모·김성룡이 숭명학교(崧明學校)를, 6월 16일 이동휘·김용성 등이 보통학교(普通學校)를 각각 설립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미국남감리교회 선교사 기의남(寄義男)의 부인이 여자 8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명을 송계학당(松桂學堂)이라 칭하였다. 이 학교는 그후 1909년에 교명을 미리흠여학교(美理欽女學校)로 개칭하였다.

또한 1906년 10월 3일에는 한영서원(韓英書院)이 설립되는데, 개원 당시 설립자인 윤치호가 원장을, 미국 선교사인 왕영덕(王永德, Wassan)이 교감을 맡았으며, 교사 2명과 학생 18명이었다. 1909년 4월 21일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학제를 소학과 4년, 고등과 3년으로 정하였다. 1910년에 고등과 제1회 졸업생 10명을 배출하기도 한 이 학교는 현 인천 송도중·고등학교의 전신이기도 하다.

한편 1908년 9월 1일부터 7~8명의 여학생을 모집하여 교수하기 시작한 김정례에 의해 1909년 설립된 정화여학교(貞和女學校)는 1910년 정식으로 학부 인가를 받아 사립정화여학교라 칭하고 2학급으로 편제하였다. 현 서울정화여자중·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이다.

그외 예호학교(禮湖學校) 교감 이정렬이 강화군내 사립보창학교를 방문했다는 기사나 사립광명학교(私立光明學校)가 재정문제로 곤란을 겪다가 군내 신사 이민하 등의 보조와 헌신으로 점차 흥왕하고 있다는 기사로 보아 이들 학교도 설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안성군

1907년 천주교재단의 강도영 신부가 사립해리학교(私立海里學校)를 설립하였고, 1909년에는 공안국(孔安國) 신부가 당시 안성군내 교육시설 미비와 문맹을 타파하기 위해 초등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안성 읍내에 사립안법학교(私立安法學校)를 설립하고 안성천주교회내에서 개교식을 가졌다. 1910년에

는 4월 1일에는 적성학교(積城學校)가 설립되었다가, 1911년 4월 11일 안성공립보통학교로 개칭하였다.

(4) 용인군

1909년 5월 10일 인가를 받은 용인학교가 동년 6월 19일 구성면 소재 관사를 수리하여 개교하였다가 1910년 4월 1일자로 용인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또한 1909년 4월 1일 설립된 추미학교는 1911년 3월 6일자로 4년제 양지공립보통학교로 학제를 바꾸었다.

(5) 이천군

1908년 대월면 대포리에서 개교한 대승학교(大升學校)는 1909년에 사립학교 인가를 받아 교육활동을 실시하다가 1921년 6월 5일에 이르러 신갈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1909년 마면에 설립된 진성학교(進成學校)는 서광호가 교감에 부임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 열기가 높아졌으며, 미국 감리회 부인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1910년 5월 3일에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양정여학교(養貞女學校)가 현 이천읍사무소 자리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6) 가평군

1907년 6월 25일 근대적 사립초등학교인 가릉학교(嘉陵學校)가 설립되었다. 수업년한은 4년제로 4개 학급에 학생 수는 모두 100여 명에 이르렀다. 그후 1910년 4월에 보통학교령에 따라 가평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서면 대성리 유지신사 홍종훈(洪鍾薰)·신석영(申奭永) 등이 발기하여 대성학교(大成學校)를 설립하고 설립 취지서를 각지에 송치하기도 하였다.

(7) 포천군

1907년 이철용(李哲鎔)에 의해 사립신야의숙(私立莘野義塾)이 설립되었는데, 1908년 8월에 이 학교를 포천군내 옥성의숙(玉成義塾)과 학교 위치는 다르나 명칭을 연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야의숙을 청성제1학교(靑城第一學校)로, 옥성의숙은 청성제2학교로 개칭하여 학부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후 설립되는 학교도 설립 순서에 따라 제3, 제4로 분별할 뿐 청성학교 명칭은 그대로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같은 해 군내 유지신사 임헌재(任憲宰)에 의해 청성제3학교가 신설되었으며, 1909년 4월 20일 경에는 청성 제1, 제2, 제3학교와 영평군 사립영창학교가 청성제1학교 운동장에서 양군 군수와 4개 학교 임원 및 교사, 그 외 외국 관리도 다수 참석한 가운데 수백 명 학생들의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

(8) 양주군

1908년 5월 10일 북내학교(北內學校)가 설립되었다가 1919년 12월 28일 북내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09년에는 전 군수 신태형(申泰衡)과 이규응(李奎應) 등 유지신사가 교사(校舍) 및 전답 등을 기부하여 접동면에 궐리학교(闕里學校)를 설립하고 자제와 아동들을 모집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건천면 양지리에 위치한 한동학교(漢東學校)에서는 임원 구연태·이수악·심원익 등이 극력 찬성하고, 교사 유용하·홍은섭·이창식 등이 열심 교육하여 원거리 학도들까지 입학을 희망할 정도로 교육이 흥왕하였다.

한편 고양주면에는 자양학교(紫陽學校)가 설립되어 야학학생을 다수 모집하여 교수하기도 하였다.

(9) 파주군

1907년 10월 8일 신성학교가 설립되어 1911년 5월 5일에 사립교동학교로 개칭되었다. 1909년 1월 25일에는 명륜학교(明倫學校)가 설립되어 1911년 5월 사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설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개진학교(改進學校)가 1907년에 이르러 학교명칭과 학제를 개편하여 파주공립보통학교로 전환하였다. 1909년 5월 26일에는 칠정면 문산리에 문창학교(文昌學校)가 신축되어 내외국 신사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가졌다.

(10) 고양군

1909년 초등교육기관으로서 명륜학교(明倫學校)가 설립되어 1911년 5월에 학제 4년제의 사립고양보통학교로 인가받았다.

(11) 장단군

설립연대와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장단군에 소재한 명신의숙(明新義塾)이 재정궁핍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다. 이에 군수 이석재와 전 군수 서병소, 면장 정선호, 학부형과 촌민들의 적극적인 보조로 학교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하도면 덕산리 사는 이근직은 자기 집을 교사로 사용하고 학교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학교를 설립하여 60여 명의 학도를 모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12) 양근군

1908년 불의의 사고로 교사(校舍)와 부속 건물을 잃은 용문학교(龍門學校)가 폐교위기에 처했다가 주사 이은철에 의해 교사와 학생 기숙사를 새로 건축함에 따라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에는 이규하에 의해 진용학교(進龍學校)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13) 시흥군

서면에 소재한 운양의숙(雲陽義塾)은 면민들의 의무로 창립되어 청년을 교육하였는데, 1909년에 이르러 재정이 궁핍해지자 숙장 최호선, 숙감 최이용, 교사 민훈 등이 적극적으로 시무를 돌보며 재정을 부담함에 따라 점차 상황이 나아졌다.

(14) 진위군

병파면에 설립된 동명의숙(東明義塾)은 일반민의 의연금을 모아 청년 자제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성군수 김영진과 진위군수 김복규가 적극적으로 후원함에 따라 교무를 더욱 확장하였다.

(15) 과천군

군내면에서 이택락 등이 발기하여 명륜학교(明倫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에 정인성, 교감에 조건하, 교사에 이문순·신종묵이 부임하여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다.

(16) 안산군

와리면 소재 초지보통학교(草芝普通學校)는 이민선이 창립하여 3년째 운영해온 학교로 학생 수가 90여 명에 이르며, 1909년 6월 15일 제3회 기념예식을 거행하였다.

(17) 광주군

중대면에 있는 송파광성학교(松坡廣成學校)는 설립된 지 4~5년 간 영세함을 면치 못하다가 1909년에 이르러 교사 김창진이 학생 중 극빈자의 서책 및 교육자재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등 교육에 열심하여 주야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렀다.

(18) 옹진군

1907년 11월 8일 1학급으로 편제된 창명서당이 설립되었다.

(19) 김포군

1908년 1월 20일 설립 인가를 받은 금란보통학교(金蘭普通學校)가 동년 4월 28일 개교식을 가졌다.

(20) 강화군

1905년 진위대 참령이었던 이동휘는 그 직을 사임한 후 사립육영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부임하였다. 1907년에는 영친왕으로부터 보창학교(普昌學校)라는 교명과 교사 건축비를 하사받아 이때부터 보창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또한 1905년에는 유지 유경근이 광창학교(光昌學校)를 설립했는데, 1906년 7월 경 보창지교로 변경했다가 1909년에는 광명학교(光明學校)로 개명하였다. 1906년 이건승·권병효·이선재 등에 의해 계명의숙(啓明義塾)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영국인 선교사 단아덕(端雅德)은 당시 학부의 인가를 받아 온수리에 진명학교(進明學校)를 설립하였다. 학제는 보통과 4년제였다. 1907년에 서도면에 영생학교(永生學校)를 설립한 유지신사 박용세는 다음 해에 인가를 받아 이 학교를 기독교 선교회 관할에 두고 선교회 보조금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학급은 4학급이었다. 1908년에는 유지 박규양이 대동학교(大東學校)를 설립하고 1909년 3월에 인가를 얻어 교사 3명에 4학급으로 운영하였다. 1909년에는 당시의 유지 한병렬이 보창지교로 집일학교(集一學校)를 설립 운영하였다. 그리고 하도면 두 개 동에서 재정을 모아 설립한 이산의숙(尼山義塾)은 설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주야학생이 1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숙장 박길병, 숙감 이태영, 임원 함명식이 헌신적으로 교육을 담당하였다.

(21) 인천군

1908년 3월 이교원이 명신학교(明新學校)를 설립했는데 경영난으로 인해 인천 공립보통학교에 흡수되고 말았다. 같은 해에는 허광모·장은식 등이 발기하여 적덕면에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설립하고 청년자제를 모아 교육하였다. 또한 1909년에는 신지면 등지에 사는 정형택이 교육에 뜻을 두고 동생 정우택과 함께 자기집에 진명의숙(進明義塾)을 설립하고 각종 교과서를 구입하여 교육에 힘썼으며, 그의 동생 정우택도 자기집에서 30여 명의 학생을 모아 야학과를 설치하였다.

(22) 교하군

1908년 유덕팔 등이 출자하여 의성학교(宜城學校)를 설립하였다.

2. 역사적 성격과 의의

경기도 지역에서 전개된 애국계몽단체 설립운동과 교육구국운동은 단위 지역운동으로서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된 애국계몽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의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추진 주체와 운동의 전개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이 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유추하려는 시도는 당해 시기 반봉건·반외세라는 역사적 과제를 담부하고 있던 시대적 조건 속에서 이를 목표로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의 객관적 평가와 아울러 우리 민족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던 주도세력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으며, 어떻게 성격지을 수 있을까. 이는 경기도 지역 계몽단체 및 학회설립운동, 사립학교 설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는 단위 지역단체인 기호흥학회와 대한자강회 및 대한협회 지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경기도 지역은 서울의 주변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중앙의 운동범위를 포괄하면서도, 기호흥학회 지회인 광주·수원·양근·장단·교하·강화의 6개 지회와 대한자강회 지회인 남양·인천·강화, 대한협회 지회인 포천·장단·개성 등의 지회가 각 군에 포진하여 지역 단위 애국계몽운동의 구심체로 기능하고 있었다.

지회설립은 이를 주관하는 중앙단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때 지회를 발기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회원의 자격도 중앙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해야만 하였다. 이는 '교육과 식산을 통해 독립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중앙단체의 설립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 식산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들 단체로서는 이를 담보할 재력과 명망을 갖춘 인물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회원의 자격요건도 이러한 역량을 구비한 각 지역의 유지신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충청남북도의 흥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호흥학회가 각 지방 유지에게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과 인권신장을 내세우고 지회설치를 권유했던 것이라든가 대한자강회가 지회설립 조건으로 '각 부·군 유지인사 30인 이상 입회'를 전제로 했던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계몽단체 및 학회설립운동은 이처럼 중앙단체에서 규정한 회원자격을 갖춘 인물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지역 단위 애국계몽운동이 해당 지역의 유지신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사립학교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1895년에서 1909년 사이 경기 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 설립자를 유형별로 보면, 전직관리 및 유지인사 119개교, 현직관리 24개, 기독교 8개, 학회 등 단체 12개, 유림 5개, 불교 3개, 일본인 2개교 등으로 전·현직 관리 및 지역 유지인사에 의한 학교설립 건수가 월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단체설립과 학교설립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단위 지역의 유지인사란 어떠한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사회적 기반은 무엇일까.

이는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총무를 역임한 바 있는 윤효정의 유지인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윤효정은 '민간의 유지'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협회의 구성원을 '신저작가(新著作家), 번역가, 신문가, 잡지가, 소설가, 유학생, 망명정치가, 사립학교 설립자 및 교사, 상사(商社) 은행의 주무인원, 척식회사의 위원·주주 등 정견과 학문과 자산이 있을 뿐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신사(紳士)며 학사(學士)며 지사(志士)'들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기반을 신지식층과 지주 및 상공업자 등 신흥부르주아층에서 찾고 있다.

한편 지방 지회의 경우도 중앙단체의 운동이념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던 만큼 그 추진 주체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개항 이후 자본주의적 유통구조의 변화과정에 편승하여 성장하던 지주층·요호부민·상공업자들이 점차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해체 억압되면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애국계몽운동에 동참, 단위 지역을 주도해 갔던 것이다.

결국 애국계몽운동의 중요한 두 개의 중심축이었던 계몽단체 설립운동과 학교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은 지주 및 상공업자 등 신흥부르주아층을 기반으로 한 유지인사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중앙이나 지방 모두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국계몽운동이 당시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확대과정에서 성장하던 신흥부르주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은 이 운동이 추구한 목표와 지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애국계몽운동은 보호국체제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민족운동이었으며, 아울러 신흥부르주아

세력을 주축으로 당대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던 근대국민국가 수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반봉건 근대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봉건 반외세 국권회복운동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운동의 사상적 기반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회진화론과 동양평화론을 현실인식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통감부하 보호국체제와 일본의 식민지적 침략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문명계도로 합리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이 내세운 '국법의 범위'안에서의 점진적인 실력양성론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운동노선과 방법은 당시 또 하나의 국권회복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의병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족운동의 통합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한말 국권회복운동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추진주체와 운동노선의 상이에 의해 식민지 강점 이전까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한말 애국계몽운동을 경기도 지역의 계몽단체 및 학회설립운동과 사립학교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기도는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중앙에서 전개되고 있던 애국계몽운동에 지역적으로 포섭되어 있으면서도, 중앙단체의 지방지회 확산 분위기와 이 시기 각 지역을 연고로 한 지역학회 설립운동에 부응하여 여느 지역 못지않게 활발한 지역 단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포천·장단·개성에 대한자강회의 지회가 설립되었고 대한자강회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대한협회의 지회가 남양·인천·강화에 설립되었다. 또한 '경기 및 충청남북도의 흥학'을 표방하며 지역학회로 출발한 기호흥학회도 다수의 지회를 설치하여 광주·수원·양근·장단·교하·강화에 지회를 두었다.

이러한 지방지회는 해당 지역의 애국계몽운동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였는데, 애국계몽운동 가운데 지역 단위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것이 바로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이었다.

1910년 7월 현재 경기도에 설립된 사립학교 수는 총 183개에 달하였으며, 37개 군 가운데 30개 군에 학교가 설립되어 경기도 거의 전역에서 사립학교설립운동이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파악이 가능한대로 각 군별 사립학교 설립현황을 수원·개성·안성·용인·이천·가평·포천·양주·파주·고양·장단·양근·시흥·진위·과천·안산·광주·옹진·김포·강화·인천·교하 등 22개 부·군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회설립과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그 지역에서 재력과 명망을 갖춘 유지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자본주의적 재편과정에서 성장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억압 해체되고 있던 지주나 요호부민·상공업자들로 신흥부르주아층으로 지칭될 만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신흥부르주아층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반외세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였고, 같은 이유로 봉건적 유제의 청산과 근대화를 통한 근대국민 국가수립을 열망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은 보호국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반외세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 한편 주도세력의 성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당대 또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는 반봉

건 근대화운동의 경향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운동이 진행되면서 애국계몽운동은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점차 후자만이 부각되어 근대주의에 매몰되어 갔으며, 일본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과 회유에 부회하여 개량화되기까지 하였다.

이제 국권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민중들의 힘겨운 항일 의병투쟁에 매달린 채 일본 강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야기 둘】 근대 여성 교육을 선도한 경기도

조선시대의 교육은 국가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을 백성들에게 보급시키고, 유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중앙에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군현에는 향교를 설립하였고, 사립교육기관으서 서원, 서당(書堂)도 전국 각처에 세워 교육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생도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 이었으며, 이들은 교육을 통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따라서 교육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비롯하여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가례(家禮), 통감(通鍵), 좌전(左傳), 송원절요(宋元節要),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과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서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역학(譯學), 율학(律學), 의학(醫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산학(算學) 등 기술교육은 매우 경시되었으며, 교육도 소속관청에서 실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렇듯 성리학을 위주로 한 조선왕조의 교육체제는 후기들어 실학파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여 개항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산업혁명 이후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를 얻기 위해 식민지 개척에 나선 서구열강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위정자들은 나라의 독립은 물론 부국강병을 위해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으로 나뉘게 되었다. 위정척사파는 개항으로 인해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서구열강과의 통상을 극력 반대하였다. 이와는 달리 개화파 세력은 서구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대원군의 퇴진과 함께 친정(親政)을 선포했던 고종(高宗)이 개화사상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본격적인 개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수신사를 일본에 보내 새로운 문물을 시찰하게 하는가하면, 신사유람단(輔士遊魔團)과 영선사를 각각 일본과 청에 파견하여 근대문물에 대한 견문을 넓힘과 동시에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한 것도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 역시 개항 이후 외세의 침투 및 개화사상과 연관되어 성립, 발전하였다.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체결에 이어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 등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 함에 따라 부산-원산-인천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의 외교관·상인·선교사들이 빈번하게 내왕하였다. 이에 따라 서양 문물과 지식에 대한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서구문명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1883년 10월에 창간된 한성순보(漢城句報) 를 통하여 서양의 교육제도와 교육상황 등이 자세히 소개됨으로써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활발한 육영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종래 성리학적 가치에 입각한 과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드디어 신식교육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시대변천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개항(1876)에서부터 갑오개혁(1894)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개화사상에 따른 개화정책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교육체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신교육이 태동하던 때였다. 그러나 아직 교육사상이나 교육철학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한반도에 기독교주의 학교가 뿌리내리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갑오개혁으로부터 '을사조약'이 늑결되는 1905년 이전 시기이다. 신분제 타파로 인한 교육의 기회균등, 과거제도의 폐지, 학교교육의 법제화, 교육행정 기관의 독립, 교육입국조서 반포 등 근대교육으로의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점차 노골화하여 감에 따라 민족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권회복과 자주권 옹호를 위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교육은 민족교육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을사조약 이후 1910년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일제는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 침략을 본격화하여 1905년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1907년의 군대해산, 1909년 경찰권 박탈에 이어 1910년 8월 29일에 이른바 '한일병합'을 달성하여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갔다. 이때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하여 주권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는데, 대체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의 양태로 나타났다. 애국계몽운동이 실력양성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자는 주장이었던데 비해, 의병전쟁은 무력을 바탕으로 일제와 전쟁을 치러 일본 세력을 몰아내자는 차이점이 있었다. 일제는 이 시기에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교육을 식민지 교육으로 재편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이러한 일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민족교육을 통한 국력과 민족정신력을 배양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사립학교와 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우리의 글과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민족정신을 환기시켰다. 또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운 인물의 전기류와 외국의 망국사나 혁명사를 보급하여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개항과 함께 개화정책이 추진되어 나가면 서개화파 인사들은 개화의 첩경은 곧 교육에 있다고 자각하게 되었다. 즉, 나라의 독립과 발전이 신지식을 가진 인재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고 교육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을 계몽하여 자주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겼다. 이처럼 근대 교육사상이 개화운동에 있어 가장 긴요한 급무라고 강조되는 가운데,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학교 설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학교는 1883년 8월원산에 세워진 원산학사(元山學舍)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해 정부에서는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무학(同文學)을 설립하여 어학교육을 담당하였고, 최초의 관립교육기관으로서 기틀을 갖춘 육영공원(育英公院)이 1886

년에 설립되기도 하였다.

가. 1876~1894년의 신교육

한편 18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계통의 사립학교 또한 한국근대교육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중심이 되어 서울에 설립하였던 배재학당(培材學堂), 이화학당(李花學堂), 구세학당(救世)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학교는 1890년대부터 평양·부산·인천·재령·원산·목포·개성·공주·대구·전주 등 대도시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1900년대 후반에 이르면 전국 각지방에 기독교 학교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의 학교 설립은 근대교육 보급보다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서구 중심적가치관을 강요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근대교육에 기여한 공로는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1876~1894년에 있어 근대교육의 특징은 위정자나 일반인 사이에서 이제는 서양문화를 받아들여야 겠다는 의욕 속에서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선교사들의 육영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근대식 학교의 설립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전 통적인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신교육이 수용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왕조의 위정자들은 근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단지 서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반인도 근대적 교육방법에 의해 자녀를 교육시켜야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상태였다. 한때 갑신정변이 발발하면서 급진개화파의 국민교육제도國民教育制度) 실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정변이 3일천하로 끝나는 바람에 교육의 혁신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따라서, 이 시기 근대적 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고, 근대 학교의 설립과 발전은 갑오개혁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개항 이후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주요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립학교

1) 동문학

동문학은 1883년 8월에 서울에 세워진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통변학교라고도 하였다. 독일인 뮐렌도르프(P. G. Möllendorff, 한국명 題輯惠)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근대적 과학과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라기보다는 일종의 통역관 양성소였다. 학생 40명을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어 영어와 일어를 중심으로 교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중국인 교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뒤에영 국인 할리팩스(1. E. Hax)를 주무교사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동문학은 독립된 근대학교로 보기는 어렵지만 남궁억(南宮憶)을 비롯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1886년에 육영공원이 설립되면서 폐교되었다.

2) 육영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은 1886년 정부가 본격적으로 서양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 보려는 의도에서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 이후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온 민영익의 건의에 의하여 1884년에 설립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으로 계획이 지연되다가 미국의 길모어(F. W. Gilmore), 벙커(D. A. B unker), 헐버트(H. B. Hulbert) 등 세 교사가 내한한 1886년 9월에 설립되었다. 육영공원은 좌원(左院)과 우원右院)의 두 반으로 나뉘었는데 '좌원은 현직 관리 10명을 우원은 양반 자제 20명을 정원으로 하였다. 교과과목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비롯하여 수학·자연과학·역사·지리정치학 등이었으며 강의 용어와 교과서는 모두 영어였다. 수업 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매월 말과 매년 말에 시험을 치렀으며 3년마다 대고(大考)가 있어 대고에 합격하면 졸업하였다.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국가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신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여 출석률이 저조하였고, 공원 관리 층에서 운영비를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결국, 1894년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육영공원은 개교한지 8년 만에 폐교되었다.

(2) 사립학교

1) 원산학사

1883년 8월 원산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이다. 원산은 병자수호조약 체결로 인해부산·인천과 함께 개항한 3대 항의 하나로서 1880년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고 일본 상인의 침투가 이루어졌다. 이에 원산주민들은 인재를 양성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학교 설립을 계획하였고, 덕원부사(德源府使) 정현석의 지원을 얻어 원산학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설립당시 반편성은 문예반 50명과 무예반 200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고을의 연소하고 재주있는 자제를 대상으로 입학시켰다. 교과목은 공통과목으로서 산수(算數)·격치(格致 : 물리)·기(懶)·농업(農業)·양잠(養蠶)·광채(鑛總) 등을 가르쳤고, 특수 과목으로 문예반은 경의經義)를 무예반은 병서와 사격술을 교육하였다. 교재로는 영지, 연방지해, 기기도설(奇器圖說), 일본외국어학, 법리문(法理文), 문학예비문(文學據備門), 영환지략, 만국공법(萬國公法), 심사(心史), 농정신편(農政新編)을 사용하였고, 교육연한은 1년 단위로 하였다. 이처럼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사에 있어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를 서양인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설립하였다는 점, 정부의 개화정책에 선행하여 개항장의 민중들이 자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하였다는 점, 외국세력과 직접 부딪치는 지방 개항에서 시무時務)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점, 외국의 근대학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개량서당을 발전시켜 근대학교로 승화시켰다는 점, 관민이 일치 합력하여 설립하였다는 점 등이다. 한편 원산학사는 갑오개혁 이후 문예반만 갖춘 원산소학교로 되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원산보통학교로 바뀌었다가 원산제일국민학교가 되어 해방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 배재학당(培材學(堂)

외국인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이다. 1885년 8월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 가스크랜톤(w. B. Scranton) 의사의 서울 집을 사서 방 두 칸을 헐어 교실을 만들고, 이겸라·고영내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다음해 학생이 16명으로 늘어나자 민가 몇 채를 사서 교실로 개축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았다. 당훈을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여 봉사정신이라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하여 설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학은 17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글을 이해할 수 있으면 가능하였고. 수업연한은 보통과 4년 본과 5년 이었다. 교과목은 한문·영어·천문·지리·생리·수학·성경 등이었으며 과외활동에 치중하여 연설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며 각종 체육경기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토목 공작실을 두어 실기교육도 실시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정구반·축구반·야구반·육상반 등을 창설하여 체육활동 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배재학당은 한국 근대의 무수한 역군을 배출함으로써 근대교육의 요람지로 평가받고 있다. 배재학당은 이후 배재고등학당, 배재고등보통학교, 배재중학교 등으로 바뀌었다가 1951년 학제변경에 따라 배재중학교와 배재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이화학당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톤(M. F. Scranton) 여사가 서울에 설립하였으며 여성을 교육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다. 설립 당시 한국 사회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교육을 기피한데다 서양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팽배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곤란을 겪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정부 관리의 첩 1명을 학생으로 삼아 영어를 가르쳤으며, 다음해 고종 비인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내려주었다. '이화'는 배꽃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교과로는 성경을 비롯하여 국어·한문·영어·수학·역사·지리·과학 등이었으며, 1909년에는 음악이 추가되었다. 1910년에는 4년 과정의 대학과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4) 경신학교儆新學(校)

1886년 미국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 한국명 元尤)가 설립하였으며, 처음에는 구세학당(救世學堂)이라 하였다. 1885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몇몇 학생들을 가르쳤던 언더우드는 다음해 인근 건물을 빌려 고아원 겸 학교를 설립하고 언더우드학당이라고 이름하였다. 보통반과 특별반으로 나누어 국어·영어·한문·역사지리·자연과학·번역·음악·체육·궁술·성경·교회사 등을 교육하였다. 1905년에 경신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고, 1915년에 대학부를 설치하여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경기도의교육기관

1880년대 중반 이후 포교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내한하여 활동하면서 많은 신식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경기도 내에서는 인천에 영화학당(永化學堂)과 영화학교(永化學校)가 설립, 운영되었다.

1) 영화학당

1892년 4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존스(G. H. Jones, 한국명 趙元時) 여사가 설립하였다. 그는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톤 여사를 도와 학당 운영에 대한 일을 연구하다가 1892년 1월 제물포교회 담임목사 겸 지방선교사로 파견되었다. 존스는 제물포에 도착하자마자 학당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사회분위기는 선교사를 의심하며 경계함에 따라 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한 여아를 데려다가 오전에는 존스여사가 산수, 영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헬렌 교사의 방에서 한문·국문·성경·지구약론·붓글씨·바느질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 후 1895년에 두 명의 여아를 받아들여 학생은 세 명이 되었다. 교육방법은 우리나라의 전통방식을 따랐는데, 그날 배운 것은 다음날 받아쓰는 시험을 치러 반드시 알게 하고, 다음 진도를 진행하였다. 또 매주 화요일에 1주일 동안 배운 것을 시험하여 성적이 좋으면 옷감이나 상금을 주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주었던 상금에서 일정액을 내놓게 하거나 벌에 해당하는 일을 시켰다. 이와 같이 존스는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교육을 하다가 1900년 4월 내동(內洞) 예배당의 방을 빌려 교사(校舍)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학생은 7명이었다. 1902년에는 미국인의 기부금으로 부지 120평을 사들여 90여 평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15평과 11평의 교사를 신축하였다. 1903년 신축교사로 옮겨 올 당시 학생은 30여 명이었다. 1912년 8월 사립영화학교로 인가를 받은 이후 영화여자보통학교(1922), 영화여자심상소학교(1938), 영화여자국민학교(1941), 샛별초등학교(1964) 등의 교명 변경을 거쳐 현재 영화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2) 영화학교

영화학당을 세운 미국인 선교사 존스는 1893년 3월에 인천 내동에있는 내리교회(內理教會) 안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학생수가 적어서 교명을 발표하지 못하다가 1900년에 이르러 영화학교라 하였다. 1904년 존스가 미국에서 귀국하던 중 자선가 콜린스(Collins) 로부터 1,0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벽돌로 단층교회를 설립하였다. 1905년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단발을 하고 검정 옷을 입도록 하였으며, 그해 처음으로 초등과 17명을 배출하였다. 1907년에 다시 콜린스로부터 2,0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1907년에 2층 교사를 증축하고 고등과를 병설하였다. 그후 유지 박삼홍(朴三洪)이 사재를 털어 군악기와 총검을 구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1907년 10월 서울훈련원에서 학부 주최로 전국관사립학교 대운동회가 열렸을 때 영화학교 학생들은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총검훈련을 마쳐 학부대신의 칭찬과 함께 후한 상을 받았다. 이때 사용한 총검은 내리교회 지하실에 보관하던 중 일본경찰에 압수되어 인천 남상업학교의 교련용으로 이용되었다고 전해진다.

3) 삼일여학당

삼일여학당은 삼일학당과 마찬가지로 당시 수원군 북부면 보시동의 북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2월 17일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4월 24일에는 19명이 되었다. 이즈음에 이미 남자 15명을 대상

으로 선교 목적의 부속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여학생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여학당은 이보다 늦은 식에 시작된 듯하다. 처음에 선교사들은 학교를 '매일 낮에만 다닌다'는 의미로 'Day School'이라 불렀는데, 북감리교회의 부속학교를 '수원남자매일학교', '수원여자매일학교'라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가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하영 등 한국인은 삼일학당·삼일여학당이라 불렀다.

삼일여학당이 개교한 것은 1902년 6월경으로 나타난다. 여학당의 후신인 수원매향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한 밀러(L. A. Miller)의 회고에 따르면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턴(Marry Fletcher Scranton : 1834~1909) 여사가 초가집에서 어린 소녀 3명을 모아 가르친 것이 학교의 시작이었다.

스크랜턴은 1885년 미감리회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와 24년간 선교 활동과 의료봉사에 힘썼으며, 오늘날 이화여고·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는 선교 초기에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힘쓰다가 페인, 로드와일러, 프레이 등 여선교사들이 들어오자, 1894년 이후 서울 이남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사업에 열중하였다. 수원·용인·과천·시흥을 순회하면서 여성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본격적인 선교를 준비하는 등 미감리교 연선교회의 실질적인 대모(代母) 역할을 하고 있었다.

1898년에는 스크랜턴의 뒤를 이어 스웨어러(W. C. Sweaer, 한국명 徐元補)가 서울 이남 지역 선교사업에 투입되었다. 1899년 보고서에는 수원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1901년 12월에는 북문 안에 초가집을 구입하여 선교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스크랜턴이 수원을 방문하여 소녀 3명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삼일여학당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1903년 미감리교 여선교회는 수원 지역의 여성 선교와 여학교 활성화를 위해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경숙(이경숙, 1851~1930)을 파송하였다. 이경숙은 스크랜턴의 수양딸이자 이화학당 한국인 최초의 교사로서 스크랜턴을 도와 전도사업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경숙이 부임할 당시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여학생도 2명 밖에 없었는데, 1년 만에 교유 70명에 여학생은 20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1904년 미감리회 한국선교부에서 수원·이천 지역에 전담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수원 선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경부선이 개통하여 서울과 철도로 이어지면서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고, 종로교회도 교인수 160명에 부녀자가 60~7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스크랜턴은 교사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한 끝에 장안동 95번지의 초가집과 부지를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2월 북문 근처에 있던 교회가 종로로 이사할 때 남자 학당은 교회를 따라 옮긴 반면, 여자 학당은 장안동 새 부지로 독립하게 되었다.

수원부 내에 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교사는 김매례 씨이고 학도는 48명, 학과는 국문, 한문, 영어, 산술, 체조인데, 교사의 열심 권학과 학도의 일진월보함을 찬상한다.

(황성신문 1906년 9월 1일)

여기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는 표현은 북수동의 남녀학당 체제에서 비로소 여자학당이 독립·이전하여 새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문에 여학당 설립 기사가 게재되고, 이어 수원군수가 학당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일여학당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삼일여학당이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여학교로 인정받게 되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졌다.

학당 운영에 필요한 선교비와 운영비는 미감리회 여선교회에서 부담하였는데, 1907년에는 밀러가 부임하여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미감리회 여선교회장인 스크랜턴의 지원에 힘입어 수원 시내 중심가에 남녀학당과 교회 건물, 선교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도 구입하였다. 이곳은 현재 매향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이다. 이처럼 삼일여학교는 점차 수원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편 1909년 일제는「보통학교령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조선의 사립학교 교육을 더욱 억압하는 동시에 일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보통학교의 설립 목적은 '학도의 신체 발육에 유의하고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베풀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예(技藝)를 주는 것'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4년에 매년 200일 이상 수업하도록 하였다. 설립 주체에 따라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뉘었으며, 공립·사립 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 삼일여학교는 1909년 4월 28일 학부의 인가를 받은 후 정식 학교의 면모를 갖추고자 교가도 제정하였다. 교과목으로는 국문·한문·영어·산술·체조·성경·음악·재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0년 3월 23일 삼일여학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졸업생은 다섯 명으로 차우르다 나혜석, 홍보배, 박충애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나혜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신여성(新女性)으로서 여권 신장과 남녀평등을 주장한 선각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1921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와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하였다.

나. 18941~1905년의 신교육

(1) 학교관제의 공포와 시행

한국근대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1894년의 갑오개혁은 교육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신분계급제도가 타파된 것은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과 학교교육의 전제가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설치됨으로써 문교행정 기구의 독립과 아울러 근대적 신학제의 수립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내 교육행정을 관장하게 된 학무아문에서는 영재교육의 시급함을 느끼고 학교설립을 강조하였으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배우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1895년 2월에는 고종이 교육입국의 뜻을 밝힌「교육조서」를 반포하여 교육을 통하여 조선왕조를 개혁하겠다는 자신의 결단을 천명하였다. 즉 이 조서에서 국왕은 교육은 국가보존의 근본임을 전제하고 허명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을 추구해야하며, 정부에서 학교를 널리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니 백성들은 교육의 3대 강령인 지(知)·덕(德)·체(體)를 기를 것을 호소하였다. 교육입국에 따른 정부의 노력은 교육에 대한 법제화의 실현을 가능케하여 1895년4 월「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師範學校官制)J가 제정, 공포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학교

관제가 공포·시행됨으로써 신교육은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당시 제학교관계 법령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같은 법령에 따라 1895년 4월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성사범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학교는 본과와 속성과로 나누어 수업연한을 본과 2년 및 속성과 6개월로 하였으며, 취학연령도 본과는 20~25세. 속성과는 22~35세로 제한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국문·한문·교육·역사·지리·수학·습자·작문·체조 등 본과와 속성과가 비슷하였다. 외국어 학교로는 이미 설립된 동문학·육영공원·일어학교에 이어 법어학교(法語學, 1894), 아어학교·한어학교·덕어학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학교는 15~23세인 자를 선발하여 외국어로 보통 학과목을 가르치고 한문으로 독서 작문과 역사 지지를 가르치게 하였다. 수업연한은 일어학과 한어학이 3년이었고, 영어·법어·아어·덕어는 5년으로 하였다. 소학교는 1895년 서울 수하통(水下洞) 오경선(吳擎善)의 집에 설립했던 을미의숙을 수하동소학교로 개교한 것을 비롯하여 장동소학교·정동소학교·재동소학교·양사동소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소학교는 초등교육기관인 만큼 국민 교육 의기초와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편제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3년을수 업연한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방에는 심상소학교가 설립되어 을사조약 이전까지 서울에 교·지방에 교의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처럼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소학교가 보급되어 가는 가운데 중등교육을 위한 중학교 관제가 제정, 공포되어 1900년에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다. 중학교는 17~25세의 고등소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심상과 3년, 고등과 4년 등 총 7년의 수업연한을 두었다. 이밖에 산업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도 설립되었다. 1895년 법원 안에 법관양성소가 세워졌는가 하면 1899년에 설립된 경성의학교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의술을 교육하였고, 상공업학교는 상공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과목을 가르쳤다. 또한 1897년에는 우편 사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무학당郵務學堂)과 전무학당(電務學堂)이 설립되었고, 1900년에는 광무학교(鍵務學校)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갑오개혁 이후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외국어학교·의학교 등 각급학교들이 설립되어 신학제에 의한 근대교육제도가 점차 완비되어 갔다.

(2) 사립학교의 설립

18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민간인들에 의한 사립학교의 설립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동학농민운동에 이은 청일전쟁·갑오개혁·을미사변 등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방책으로 발전해갔다. 즉 이 시기의 교육활동은 민족의 위기를 인식함으로써 민족적 자각에 의한 국권회복과 자주독립 달성을 위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민족교육이 크게 부각하게 된 것은 독립협회를 비롯한 결사와 언론기관의 활발한 국권회복운동에 힘입은 바 컸다. 특히 독립협회는 신학문에 의한 근대교육을 역설하고, 나라의 요부강이 교육에 있음을 강조하는 등 교육을 통한 민족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활동 이외에도 이 시기 한국의 근대교육이 민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 데에는 관학의 일본화 경향과 기독교 계통학교의 활발한 발전에도 원인이 있었다. 즉 갑오 을미개혁 이후 정부의 주도 아래 각종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그 숫자나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활성화 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교육제도 자체가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데 대한 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일반 국민의 신교육에 대한 이해수준도 낮았다. 따라서 당시 자녀를 관공립학교에 입학시키기를 꺼리고 사립학교에 보내게 됨에 따라 자연히 사립학교는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사립학교 가운데 민간유지들에 의하여 설립된 주요 학교를 보면 [표2]와 같다.

이 중 흥화학교는 특명전권공사로서 서구 여러나라를 견학하고 돌아온 민영환이 설립하였는데, 심상과·특별과) 외에 토지측량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양지과를 둔 것이 특징이었다. 1900년 당시 13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1905년 이후 경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황실의 보조와 지방유지의 의연금 등으로 유지하다가, 1911년에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여학교인 순성여학교는 찬양회라는 부인회에서 회원 400여 명 으로부터 회비를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도 직접 담당하였다. 안창호가 강서에 세운 점진학교는 민간인에 의해 설립된 관서지방 최초의 사립학교 이면서 남녀공학을 실시한 최초의 소학교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시기 기독교계통의 학교 설립도 활발하였다. 1893년 제1회 선교사 회의에서 지방도시에 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주의 교육을 보급한다는 시책을 결의 한 뒤 학교설립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1902년의 보고에 의하면 북장로계의 초등학교가 637교에 학생수는 993명 이었고, 북감리계도 여학교 16개교를 비롯하여 총 28개교에 학생이 567명이었다. 당시 전국에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 중 주요학교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3) 경기도의 교육기관

이 시기 경기도 내에는 관립교육기관으로서 한성외국어학교의 인천지교仁川支校)와 각 지방에설립된 소학교가 있었고, 그 외에 민간유지나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었다. 앞서 기술한대로 서울에는 영어학교를 비롯하여 일어학교, 법어학교, 아어학교, 한어학교, 덕어학교 등이 설립되어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895년 외국어학교 관제가 발표되면서 그해 6월 27일 한성외국어학교 인천지교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관학의 효시가 되었다. 현재 인천의 내동에서 개교할 무렵 학생수는 30여 명으로 수업연한은 4년이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년에 1,535원이었다. 당시 지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고관 및 지방 유지의 자제를 종용하여 입학시키고 학비를 받기는 커녕 월급을 주었으며, 졸업과 동시에 관직에 취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사회의 봉건적인 인습으로 인해 아직은 신학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1898년 첫 졸업생 9명을 배출하였으며, 1904년 4월에 3년제인 인천 일어학교로 개명하였다. 그 뒤 인천실업학교·인천공립상업학교 등으로 교명이 바뀌었으며, 1951년 이후 인천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1895년 소학교령 반포 이후 을사조약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설립된 50개의 관립소학교 중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학교는 9개교로 확인된다. 1896년 2월 10일에 설립된 경기관찰부립 소학교는 신학제에 의한 경기도내 최초의 학교이다. 이후 학부의 지정으로 소학교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개성·강화·인천·평택 등지에도 학교가 설립 되었다.

경기도내 관립소학교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므로 군수의 노력과 군민의 협력으로 겨우 설립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름만 학교였을 뿐 형편없는 학교시설과 자격미달의 교사 등 규모와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재래식 서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울에 설립된 소학교가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된 것과는 달리 경기도에 설립된 관립소학교는 설립 당시에 어느 정도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점차 쇠퇴하여 갔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한편 구한말 학교설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설립된 사립학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확인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한다. 1899년 유지들이 학계를 조직하고 기금을 모아교사 9칸을 신축하고 교육을 시작하였다. 당시 교과과목은 독서·작문·습자·산수·지지·역사 등이었다.

1900년 9월 1일 인천시 중구 답동 3번지에 사립 박문소학교로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일찍이 천주교 신자들의 자녀 등을 모집하여 초급학문을 가르치며 인전사립일신학교·인천사립박문학교, 전도하던 형식의 천주학방이 발전한 것이다. 1914년 급증하는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박문소학교 여자부로 하여 6학급의 교사를 신축하였고, 다음 해에는 남자부 6학급의 교사를 신축하였다. 1917년 4월 2일 두 학교를 통합하여 박문학교로 개칭하였다. 그 후 1925년 11월 17 일 사립박문보통학교로 인가받았으며, 현재 박문초등학교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1) 인천 사립제령

1903년 6월에 인천신상회사 사장인 서상빈이 설립하였다. 그는 인천 앞바다에 격침된 러시아 함대를 인양하여 부자가 된 김정곤의 도움을 얻어내 동에 초가집 30여 평을 짓고 개교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정난으로 인해 인천공립보통학교에 흡수되었다.

2) 인천 사립 인영학교

1901년 4월 1일 미국인 선교사 존스와 강화읍 목사 박능일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1905년 5월 31일 4년제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24년 2월 23일 다시 6년제로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교명을 합일국민학교로 바꾸었다.

3) 강화 잠두의숙

1901년 4월 1일 미국인 선교사 존스와 강화읍 목사 박능일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 1905년 5월 31일 4년제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24년 2월 23일 다시 6년제로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교명을 합일국민학교로 바꾸었다.

4) 수원 사립 삼일학교(私立三一學校)

1903년 5월 7일 수원 보시동(普施洞) 북감리교회 안에서 이하영·임면수·나중석·차유순·최익환·홍건표·이성의·김제구 등 수원 유지들이 학교 설립 촉진회를 발기하고 교명을 삼일학교라 하였다. 특히 나중석은 학교 유지비로 8만 냥과 토지 9백 평을 기증하여 학교 운영의 재원으로 삼게하였다. 11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삼일학교는 처음 4년간은 학년과 반도 없이 서당식으로 교육하다가 1906년에 이르러 학제를 마련하고 1909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교육 내용은 성경·영어·역사·미술·동물·지지·국문·수신·작문·체조 등이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1908년 9월 1일부터 학교 경영권은 북감리교회로 이양되었으며, 1909년 4월 23일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현재 삼일중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삼일공업고등학교로 분리 계승되었다.

5) 수원 사립 삼일여학교

1902년 6월 3일에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톤여사가 삼일여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회장에 이하영(李夏榮)이 부임하였다. 개교 당시 학생은 3명으로 시작하여 1910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학교는 1909년 4월 28일 학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교과목으로는 국문·한문·영어·산술·체조·성경·음악·재봉 등이 있었다. 오늘날 매향여자중학교·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6) 개성 사립 개성여학교

1904년 12월 4일 미국 남감리교선교사인 캐롤(Carroll)이 여학생 12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1910년 5월 15일 석조 4층 건물을 짓고 미국의 홀스턴(Holston) 지방의 이름을 따서 교명을 호수돈여숙이라 하였다. 1910년 7월 25일 소학부는 사립 호수돈지여숙·중학부는 사립호수돈여숙으로 인가를 얻었다. 수업연한은 각각 4년으로 하였다. 그후 1938년에 호수돈고등여학교, 1944년 명덕고등여학교, 1946년 명덕여자중학교로 개칭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1953년 2월 14일 대전에서 개교하였고, 이듬해 호수돈여자중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안성사립안성소학교

1902년 9월 15일에 설립하여 1904년 2월에 인가를 받았다. 1906년 9월 15일 갑종공립안성보통학교로 승격하였으며, 현재 안성초등학교로 계승되었다.

【이야기 셋】 혁신교육을 이끄는 경기도

제1장 혁신학교의 도입과 성과

1. 혁신학교의 필요성 및 정의

가. 혁신학교의 필요성

학교는 구성원과 신뢰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빚는 곳이자 가치 있고 행복한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엄성, 소질, 꿈이 존중되어야 하며, 자기 주

도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르고 '참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생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가주도 교육 개혁 정책의 한계와 상명하달 방식의 정책 추진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정책을 아래로부터 수렴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 주체의 자발성과 헌신,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총체적, 전면적, 구조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학교는 특정 이론과 방법의 적용이나, 수업, 교육과정, 연구학교 등 특정 부분의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학교가 처한 여건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문제 진단과 과제 수립,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내부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통해 학교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총체적인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학교혁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나. 혁신학교의 정의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이다.

2. 혁신학교의 도입과 발전

가, 경기도 혁신학교 도입

혁신학교는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대 핵심공약으로 등장하였다. 2009년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13개 학교를 지정하면서 시작하였다.

혁신학교는 현장중심의 운동을 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교육사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000년대 이후 남한산초, 조현초, 덕양중 등 작은 학교에서 시작한 자생적인 학교 살리기 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김상곤 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제도화를 통해 경기 교육 정책으로 구현하였다.

혁신학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온 수월성 중심의 학교 다양화 정책과는 달리 학습다양화, 학습 복지, 학생 인권 등 학생중심의 학교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참된 학력을 추구해 왔다.

혁신학교는 교육 주체들의 준비된 역량과 내부로부터 변화 동력을 형성한 선도적인학교에서부터 성공적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학교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학교혁신의 일반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혁신학교 발전 과정

2009년 최초로 13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혁신학교 6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다. 6대 중점과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시스템 구축,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 대외협력참여확대, 권한위임 체제 구축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 확산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를 43개 학교로 확대하고 혁신학교의 확산을 위해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였다.

2011년 혁신학교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예비 지정교를 신설·운영하였다. 또한 혁신학교의 질 관리를 위해 혁신학교 2년차 운영 학교에 대하여 중간 평가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신설·운영하여 혁신학교 교원의 역량을 높였다. 2011년에는 혁신학교가 89교로 늘어났다.

2012년 혁신학교의 개념과 추진 과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학교 기본문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자율경영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의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수정하였다. 혁신학교를 154개로 확대하고 창의지성(혁신)학년제를 신설·운영하였다.

2013년 '혁신학교 시즌 2'를 선포하고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혁신교육이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을 강화하고 혁신유치원을 지정·운영하였으며 혁신학교는 230개교로 확대되었다. 혁신학교 4년차 운영학교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교는 재지정하여 혁신학교 확산을 위한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4년 혁신학교는 327개교로 지정·운영되었다.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혁신학교 지정 시기별로 단계적인 컨설팅과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2009년~2014년 5년간 혁신학교는 양적·질적인 발전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민선 3기 교육감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 에서는 공약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기도 혁신학교 사례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2014년 민선 3기로 당선된 이재정 교육감은 4.16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으로 발전시켜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의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수정하고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윤리적인 생활 실천과 창의적 교수 활동,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그리고 단위 학교 자율경영을 위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혁신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공감학교 제도를 실시하고, 이 중에서 우수교를 발굴하여 혁신학교로 지정하며, 나아가 혁신학교 종합평가 우수교를 모범혁신학교로 지정토록 하였다.

다. 혁신학교 확산

2009년 민선 1기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도입 정책은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6개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2010년 이후 서울형 혁신학교(서울), 혁신학교(전북),무지개학교(전남), 빛고을

혁신학교(광주), 행복더하기학교(강원) 등의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타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었고, 2014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운영을 공약으로 표방한 교육감이 대거(17개 교육청중 14개 교육청) 당선되어 전국적 확산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지방교육 자치 선언과 4.16 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등 학생중심, 현장 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혁신학교 운영 성과와 발전 과제

가 혁신학교 운영 성과

2009년 13개교로 출발한 혁신학교는 해마다 운영교의 증가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도 꾸준히 높은 경쟁률(최고 8.7:1)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의 병폐 극복 노력을 통한 새로운 교육 변화의 주도로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다.(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중14개 시·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추진, 2016년 15개 시·도교육청 추진)

혁신학교의 철학과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라 운영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교육 주체로서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양성되는 혁신 전문가(연 20명)와 혁신 리더(연 80명)를 통해 혁신학교의 내부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기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 선진국의 관심 증가로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교원들의 MOU체결, 기관 방문, 심포지엄 참석 등이 이어지고 있다.

나 발전 과제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81교(15.1%), 중학교 129교(21.3%), 고등학교 46교(10.0%)로 혁신학교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 학교 급별 격차, 일반학교와의 차별지원, 예산 부담 가중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역별 혁신학교 수의 비율은 최고 33.3%, 최저 10.0%로 약 3배의 격차를 보이고있어 지역별 적정 비율을 고려한 지정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인접 초·중·고를 혁신학교 벨트화를 하는 등 혁신교육 지역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학급당 인원수 25명,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등 일반학교와의 행·재정적차별 지원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낮추어 잡고 예산 지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준비교, 혁신학교 클러스터, 거점학교 등의 점진적 확산 방안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 일반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학교의 양적 증가에 따라 선도학교로서의 질 관리 방안과 혁신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대책이 요구된다. 학교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혁신학교 평가 결과는 교육활동 개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도교육청 중심의 혁신학교 선정과 질 관리의 일정 부분을 교육지원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외부 컨설팅 위주의 질 관리 방식을 혁신학교 간 협력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초기 혁신학교를 이끌었던 혁신 리더 교사의 이동 등 추진 주체의 변동으로 인한 혁신 동력의 약화 극복을 위해 혁신교육 실천연구회, 혁신학교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 혁신 리더들을 꾸준히 양성해야 한다. 혁신학교 추진 과제의 적용에 있어 4대 과제 간의 중복 개념, 개념 해석상의 오류로 인한 실천상의 혼란, 특정 학교 사례의 모방주의, 방법론 중심의 이론 적용 등 추진 전략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특정 이론과 방법론 적용으로 혁신학교를 표준화하기보다 학교별 특수성과 문화적상황 속에서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다양화 되도록 해야 한다.

자율경영체제와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실 공동체 형성, 민주시민교육, 윤리성에 관한 실천 내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관행 문화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 중심의 학교조직을 학습조직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행사화, 프로그램성 사업 방식, 실적주의식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2장 혁신학교 기본 방향

1.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

혁신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미래를 중심에 놓고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학교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즉, 경쟁에서 협력으로, 수월성에서 공동체성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의 체질 전환이 요구된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 공공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교육의 양극화와 학교의 서열화,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교육의 성과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향유하고자 한다. 혁신학교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학생중심 교육을 위한 윤리적인 생활의 실천과 창의적교수 활동,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그리고 단위 학교 자율경영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현하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서 소통·협력하는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교실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시와 감독, 관리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교사들의 수범적인 실천과 학생자치

에 의한 생활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별적 연수 활동보다 협력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실 개방과 협력 그리고 학교 단위의 공동연구와 실행을 통해 학습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민주성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민주성은 기존 학교교육의 비교육적인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교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일차적 주체인 교사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견수렴 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구성원들의 창의적 구상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변화와 혁신의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주체로서 학교운영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역동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나. 윤리성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윤리성은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교실을 바람직한 생활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시와 통제, 경쟁과 변별에 의한 강압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교사의 윤리적 생활실천과 일상적인 관계의 질적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자율 규범을 학교헌장이나 윤리강령, 자치규범 등으로 제정하여 공동체 의식과 공적인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학교는 타율적 가치와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나누어지기보다 다름이 존중되고 나눔이 소중히 여겨지는 자율과 책임의 생활공동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전문성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사 전문성은 교사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의 성장과 학교의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주의, 교과주의에 갇혀있는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신뢰와 개방, 공유와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학습조직화가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개별 연수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장학 등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구성원의 공동 연구와 실행과정으로 학교의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공동의 연구와 실행을 통한 수업 개발, 일상적인 수업 나눔과 성찰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교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라. 창의성

학교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다양화·특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사, 사업, 실적,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정상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며 학습자의 선택과 협력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창의적인 운영으로 참된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 간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에 바탕에 둔 관계 중심적인 수업, 다양한 학습경험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변별보다 피드백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주어진 답을 찾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보다 깊고 넓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

혁신학교는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아래에 제시된 예와 같은 실천적인 교육원리, 학교 현장 등을 학교 특성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한다.

○○학교운영 원리(예시)

학교는 학생들이 앎과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학생은 행복한 학교의 삶속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역량을 경험하고 익혀야 합니다. 학교는 배움, 나눔, 그리고 성장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학교 구성원은 교육 공동체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 원리로 운영해야 합니다.

1. 학교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교육 공동체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기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2. 학교 구성원은 서로 믿고 존중하며, 학교 공동체를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3.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4. 학생들은 학교 안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5. 학교는 학교 밖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6.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7.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협력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는 학생중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8.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알맞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부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9. 학교교육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능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 원리와 기능을 익히며 사고를 확장시켜 성취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적

절하며 깊이 있게'조직·편성·운영해야 합니다.

11. 교재는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미래에도 꾸려갈 수 있게 해야 하며, 학습 자료는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2. 학교 행정과 예산은 학생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우선해서 쓰여야 합니다.

3. 혁신학교 운영의 특성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다양화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한 학교 혁신의 모델 학교이다. 혁신학교는 철학과 운영 원리, 중점추진과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향을 추구하나 지역, 구성원의 참여,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므로 정형화된 특정 운영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자율성이 존중된다.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혹은 좀 더 강조하여 운영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다.

- 혁신학교는 4대 추진과제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공통 과제를 추진하며 학교별 우선 과제 추진, 단계적 과제 추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됨
-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기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적 차별성이 부각됨
- 학교 급별, 학교 규모,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 특성화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되고 특성화의 강점을 지닌 영역이 나타나게 됨

3.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근대의 경기			
학습 목표	1. 근대시기 경기도의 근대학교 설립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을 말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경기도에 세워진 근대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었을까요?
전 개	1. 경기도의 근대학교 (15분)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학교가 세워집니다. 우리 경기도에 세워진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는 지 살펴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여성교육에 앞장선 경기교육 (15분)	근대 교육에서는 그동안 전통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설립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학교가 세워지는지 살펴본다.	
	3. 대한민국의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경기 혁신교육(10분)	혁신 교육의 아이콘인 경기 혁신학교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근대 경기 지역에 세워진 학교를 정리한다. -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정리한다.	
	함께 해봅시다(30분)	혁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업의 내용을 파악한다. - 아울러 혁신학교의 가치와 내가 만들어 가는 학교를 생각해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에 적용해 본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4.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학교는 어디일까요?

나. 당시에 배운 과목과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을 비교해 볼까요?

근대 학교의 교과목	현재 학교의 교과목

다. 근대 교과목과 현재 교과목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함께 해 봅시다]

가.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은?

나.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외에 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다. 여러분이 학교를 세운다면 어떤 학교를 세우고 싶은가요?

5.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6. 교사 참고자료

삼일여학당은 삼일학당과 마찬가지로 당시 수원군 북부면 보시동의 북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2월 17일에 남자 3명과 여자 4명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4월 24일에는 19명이 되었다. 이즈음에 이미 남자 15명을 대상으로 선교 목적의 부속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여학생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여학당은 이보다 늦은 식에 시작된 듯 하다. 처음에 선교사들은 학교를 '매일 낮에만 다닌다'는 의미로 'Day School'이라 불렀는데, 북감리교회의 부속학교를 '수원남자매일하교', '수원여자매일학교'라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가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하영 등 한국인은 삼일학당·삼일여학당이라 불렀다.

삼일여학당이 개교한 것은 1902년 6월경으로 나타난다. 여학당의 후신인 수원매향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한 밀러(L, A, Miller)의 회고에 따르면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턴(Marry Fletcher Scranton, 1834~1909) 여사가 초가


1902년 설립된 삼일여학당은 수원을 대표하는 근대교육기관이었다. 기독교 전래와 함께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다.

집에서 어린 소녀 3명을 모아 가르친 것이 학교의 시작이었다.

스크랜턴은 1885년 미감리회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와 24년간 선교 활동과 의료봉사에 힘썼으며, 오늘날 이화여고·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는 선교 초기에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힘쓰다가 페인, 로드와일러, 프레이 등 여선교사들이 들어오자, 1894년 이후 서울 이남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사업에 열중하였다. 수원·용인·과천·시흥을 순회하면서 여성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본격적인 선교를 준비하는 등 미감리교 연선교회의 실질적인 대모(代母) 역할을 하고 있었다.

1898년에는 스크랜턴의 뒤를 이어 스웨어러(W. C. Sweaer, 한국명 徐元補)가 서울 이남 지역 선교사업에 투입되었다. 1899년 보고서에는 수원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1901년 12월에는 북문 안에 초가집을 구입하여 선교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스크랜턴이 수원을 방문하여 소녀 3명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을 삼일여학당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1903년 미감리교 여선교회는 수원 지역의 여성 선교와 여학교 활성화를 위해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경숙(이경숙, 1851~1930)을 파송하였다. 이경숙은 스크랜턴의 수양딸이자 이화학당 한국인 최초의 교사로서 스크랜턴을 도와 전도사업에 힘을 쏟고 있었다. 이경숙이 부임할 당시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여학생도 2명 밖에 없었는데, 1년 만에 교유 70명에 여학생은 20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1904년 미감리회 한국선교부에서 수원·이천 지역에 전담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 수원 선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경부선이 개통하여 서울과 철도로 이어지면서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고, 종로교회도 교인수 160명에 부녀자가 60~7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실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스크랜턴은 교사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한 끝에 장안동 95번지의 초가집과 부지를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2월 북문 근처에 있던 교회가 종로로 이사할 때 남자 학당은 교회를 따라 옮긴 반면, 여자학당은 장안동 새 부지로 독립하게 되었다.

> 수원부 내에 여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교사는 김매례 씨이고 학도는 48명, 학과는 국문, 한문, 영어, 산술, 체조인데, 교사의 열심 권학과 학도의 일진월보함을 찬상한다. (황성신문 1906년 9월 1일)

여기서 '여학교를 설립하였'다는 표현은 북수동의 남녀학당 체제에서 비로소 여자학당이 독립·이전하여 새로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문에 여학당 설립 기사가 게재되고, 이어 수원군수가 학당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일여학당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삼일여학당이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여학교로 인정받게 되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졌다.

학당 운영에 필요한 선교비와 운영비는 미감리회 여선교회에서 부담하였는데, 1907년에는 밀러가 부임하여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한 미감리회 여선교회장인 스크랜턴의 지원에 힘입어 수원 시내 중심가에 남녀학당과 교회 건물, 선교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넓은 땅도 구입하였다. 이곳은 현재 매향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이다. 이처럼 삼일여학교는 점차 수원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편 1909년 일제는「보통학교령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조선의 사립학교 교육을 더욱 억압하는 동시에 일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보통학교의 설립 목적은 '학도의 신체 발육에 유의하고 도덕교육과 국민교육을 베풀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예(技藝)를 주는 것'으로 하였고, 수업연한은 4년에 매년 200일 이상 수업하도록 하였다. 설립 주체에 따라 관립, 공립, 사립으로 나뉘었으며, 공립, 사립 학교의 설치와 폐지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 삼일여학교는 1909년 4월 28일 학부의 인가를 받은 후 정식 학교의 면모를 갖추고자 교가도 제정하였다. 교과목으로는 국문·한문·영어·산술·체조·성경·음악·재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0년 3월 23일 삼일여학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졸업생은 다섯 명으로 차우르다, 나혜석, 홍보배, 박충애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나혜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신여성(新女性)으로서 여권 신장과 남녀평등을 주장한 선각자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1921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조선미술전람회와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상하기도 하였다.

7. 참고문헌

경기도사, 근대교육

경기도교육청, '경기혁신학교', 2010~2018 자료

수원시사,『수원시사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14, 수원시사편차위원회,

김형목, 근대 학교의 태동, 민중, 세상에 눈뜨다(중부일보 2017. 7. 1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180380

김형목, 박문협회, 경기지역 민권운동과 계몽운동을 주도하다(중부일보 2018. 7. 1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268116

김영호, 교육통해 민족계몽·독립군 양성... 애국운동 치열한 삶(경기일보 2015. 7. 2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829

4단원



평화와 혁신을 이끄는 경기도

13차시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14차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15차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16차시
미래산업의 중심, 경기도



13차시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1. 4.19 혁명과 경기도[1)]

이승만은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부터 권력을 강화하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와 함께 이승만은 극단적인 냉전의식의 소유자로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반공주의 강화에 힘을 쏟았다. 반공주의는 전쟁을 통해 강고한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 피난과 강제노역 등 전쟁의 고통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피해, 부역자의 대량 산출도 반공주의를 강화시켰지만, 전쟁기에 각처에서 일어난 대규모 주민 집단학살은 반공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특히 위력이 컸다. 반공주의 강화에 경찰은 첨병의 역할을 맡았다.

이승만 권력과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데 반공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휴전반대운동과 같은 북진통일운동은 신비의 묘약 같았다. 북진통일운동은 전시체제와 같은 위기 분위기를 조성해 카리스마적 영도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뭉칠 것을 요구했고, 단정운동을 펼친 이승만을 통일의 사도로 비치게 했다. 반일운동 또한 이승만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1950년대에 계속되었던 반공·반일운동은 동원국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승만은 1952년 발췌개헌에 이어 1954년 4사 5입 개헌을 강행해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권력 강화는 도시민의 비판에 직면했다. 몹시 어려운 생활에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 4사 5입 개헌을 목도한 유권자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졌고, 그것은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신익희 후보와 조봉암 후보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었다. 서울에서 이승만 표는 사거한 신익희 추모 표보다 훨씬 적었다. 국부로 행세했던 이승만은 이 선거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또 부통령에 야당의 장면이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은 초상집 같았다. 그리하여 1958년 5월 2일 총선에서 경찰이 더욱 폭력적으로 나오는 등 그 이전의 어떠한 선거보다도 심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야당 의원들이 크게 진출하고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자 이승만과 자유당은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1960년에 치러질 선거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연말에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러한 대책의 한 부분이었다. 1959년 4월에는 『경향신문』이 폐간 처분을 받았다. 이승만은1959년 3월 최인규를 내무부장관에 임명했고, 국무위원 내부에 '6인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이어서 이승만은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를 조기에 지명토록 했고, 조기 선거를 강행했다. 조기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1960년 2월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사하자 조기 선거로 인해 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어 이승만은 단독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4할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등의 부정선거 계획을 세워 각지에서 예행연습까지 했다. 이와 같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정선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장·차관 자유당 간부는 물론이고, 하급 공무원이나 경찰도 저항하지 않았다.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 이승만은 85세로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었다. 부통령 후보 이기붕은 선거 기간에 한 번도 유세를 하지 못한 병든 환자였다. 그런데도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권력을 쥔 자들은 그것을 영속시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해서 두 사람을 정부통령에 당선시키려 했다.

이승만 정권은 후기로 갈수록 부정부패·비리와 경찰관공리의 횡포가 심했다.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은 남겨놓았지만, 경찰국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찰을 도구로 하여 억압 통치를 자행했다. 그런데 학생이건 지식인이건 일반 시민이건 1959년까지 항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성세대의 경우 해방 이후 특히 전쟁기에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와 연결된 것이지만, 극단적인 반공주의 냉전의식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는 점도 있었다. 학생, 노동자, 주민들은 끊임없이 반공·반일데모에 동원되었다. 가치관의 혼란과 퇴행적 분위기로 사회 전체가 활기를 잃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것도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고, 이미 익숙해진 데모로 이승만 정권에 저항했다.

학생시위는 1960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지만, 3월 15일 선거일까지 큰 시위는 없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심한 부정선거로 이승만과 이기붕이 압도적 득표로 정부통령에 당선되었는데도, 3·15마산시위(제1차 마산시위)를 제외하면 거의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된 제2차 마산시위가 없었더라면, 이승만 정권 붕괴는 늦추어졌을 것이다. 4월 18일의 고려대생 데모에 이어, 4월 19일 서울과 광주, 부산 등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에 집결했으며, 이어서 중앙청 쪽으로 몰려갔고, 경무대로 진출했다. 오후에 서울 중요 거리는 인파로 뒤덮였다. 오후 1시 40분경 경무대 어귀에서 경찰의 발사로 21명이 사망하는 등 이날 서울에서 104명이 사망했다. 부산에서도 13명이, 광주에서도 6명이 사망했다. 사태는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날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4월 25일 대학교수단 데모는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중대한계기로 작용하였다. 다음날 새벽부터 데모가 더욱 치열해져 이승만은 하야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것이다.

3·4월 시위는 학생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정의감을지닌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규모가 큰 대학생 시위는 4월 18일부터 있었다. 침묵을 지키던 지식인들이 늦기는 했지만 4월 25일에 시위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들 시위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해서 비조직적이었고 지도부가 따로 있지 않았다. 시위구호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처음에는 학원의 자유 수호가 주로 등장했고, 부정선거 규탄이 뒤를 이었으며, 4월 19일 오후에 부분적으로 나온 "이승만정권 물러가라"는 외침이 4월 25~26일에는 주된 구호로 등장했다.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돌베개, 2008.

시위의 확산에는 언론이 영향을 미쳤다. 4월 19일 이후 미국은 이승만에 대해 변화를 요구했고, 군이 중립을 지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4월혁명은 민권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간 훼손되었던 민주주의, 인권이 다시 궤도에 올랐고, 반공주의·냉전의식은 균열되었다. 학생 지식인언론인, 종교인 등은 1950년대와 달라졌다. 그들은 5·16쿠데타, 유신쿠데타, 12·12쿠데타 등을 제외하고는 정권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시위 등의 방식으로 항의했고, 권력의 퇴진을 요구했다. 4월혁명은 민주화운동을 수십 년간 추동했다. 4월혁명은 정신혁명이었다. 젊은이나 지식인 및 문화인들은 낡은 것, 썩은 것, 사대주의 등을 몰아내는 새로운 정신을 진작시켜나갔다. 4월혁명을 계기로 사회가 여러 면에서 그이전의 모습과 달라져 갔다.

2. 6월 민주항쟁과 경기도

3.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의 힘

4.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경기도의 민주화 운동			
학습 목표	1.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기도 사람들의 모습을 시대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6분) : 다음 영상을 보고 6월 민주항쟁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해보기		
전 개	1. 4.19 혁명과 경기도 (15분)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 당시 경기도민의 활동을 파악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6월 민주항쟁과 경기도(15분)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노력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었음을 파악한다.	
	3. 촛불 혁명과 경기도 (15분)	경기도민이 참여한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세계에 알렸음을 이해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민주화 운동과 사회 변화 연결하기 -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 이야기	
	함께 해봅시다(30분)	- 내가 대통령이라면(대통령 연 설문 작성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조선후기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경기도민의 노력을 알아보고, 현재 경기도의 경제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5.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다음 동영상을 보고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영상(청소년용)
> (https://www.youtube.com/watch?v=SjfGcl772hc)

1-1.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청년시절 아빠와 촛불 집회에 참여한 자녀가 주장한 내용을 각각 적어 봅시다.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젊은 날 아빠가 외쳤던 구호	독재 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
	최루탄을 추방하자. 한열이를 살려내라
촛불 집회에 참여한 딸이 외쳤던 구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탄핵 박근혜

1-2. 다음 동영상을 보고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를 적어봅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q0MX5wQtBA) 박근혜 탄핵 심판 뉴스 영상

2. 다음은 새로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이다. 이 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 대통령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리해 봅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생각 더하기]

모둠원들과 협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봅시다.

1. 6월 민주항쟁의 전개과정을 요약하여 4컷의 만화로 표현해보세요.

2. 내가 대통령이라면 6월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어떠한 연설을 하겠습니까?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참고하여 다음 단어(10가지)들을 꼭 사용하여 6월 민주항쟁 기념사를 작성해봅시다.

[제시 단어]
민주주의, 독재, 저항, 촛불혁명, 박종철, 이한열, 대통령 직선제, 미래, 청소년, 희망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중략)…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대한민국 대통령 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6. 활동 준비물

교재, 필기도구 등

7. 교사 참고자료

가. 이승만(1875. 3. 26(음력)~1965. 7.1 9.)

한국의 정치가·독립운동가, 초대 대통령. 독립협회, 한성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광복 후 우익 민주진영 지도자로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선 후, 4·19 혁명으로 사임했다.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우남(雩南), 초명은 승룡(承龍)이다. 1875년(조선 고종 12) 3월 26일(양력 4월 18일) 황해도 평산(平山)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위의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여 사실상 장남으로 지냈다. 3세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주, 한문을 배우다가 1894년 배재학당(倍材學堂)에 입학, 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그 대가로 가계를 도우며 이듬해 졸업하였다.

일본인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에 대한 복수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미국인 여의사의 도움으로 관헌의 눈을 피하는 데 성공하여 위기를 모면, 이 무렵 개화사상에 심취, 그리스도교에 입교하였다. 서재필(徐載弼)의 지도하에 설립된 협성회(協成會)·독립협회(獨立協會) 등의 간부로 활약하였는데, 특히 협성회 기관지 《협성회보(協成會報)》의 주필이 되어 날카로운 필봉으로 정부 공격에 앞장섰다.

1898년 정부전복을 획책하였다는 혐의로 독립협회 간부들과 함께 투옥되었는데, 동지 한 사람과 탈옥을 꾀하다가 붙들려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 1904년 민영환(閔泳煥)의 주선으로 7년 만에 석방되었다. 그 해 겨울 미국에 건너가 미국정부에 일본의 한국침략저지를 호소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머물면서 조지워싱턴대학교·하버드대학교 등에서 수학, 1910년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자 귀국,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YMCA)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지만, 미국인 선교사의 주선으로 석방되어 1912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감리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1914년 박용만(朴容萬)의 초청으로 하와이로 가 잡지 《한국태평양》을 창간, 한국이 독립하려면 서구(西歐) 열강 특히 미국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외교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펴며 교포사회에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주도권 싸움으로 국민회(國民會)를 분열시키고 따로 좌파세력을 규합, 동지회(同志會)를 결성함으로써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던 박용만 등과 대립하였다.

1917년 안창호(安昌浩) 등과 협의하여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1919년 3·1운동 후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漢城)임시정부와 상하이[上海]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에서 각각 최고책임자인 집정관 총재(執政官總裁)와 국무총리(國務總理)로 추대되자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되어 스스로 대통령으로 행세, 점차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무장투쟁을 주장하는 임시정부 내부의 무단파(武斷派)로부터 불신을 받아 1921년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불신임 결의가 있었다.

그 후 워싱턴군비축소회의를 비롯하여 미국정부 및 국제연맹 등과의 외교교섭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 무렵 하와이와 워싱턴 등지의 재미교포 사회에서는 그를 따르는 우남파(雩南派)와 안창호를 지지하는 도산파(島山派)의 대립양상이 노골화되어 해외에서의 독립운동노선에 분열이 나타났다.

1934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와 결혼한 후 1945년 광복이 되자 그 해 10월 귀국, 우익 민주진영의 최고지도자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 총재, 민주의원 의장 등을 지내며 좌익세력과 투쟁,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발표, 그 해 한국의 독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미국에 건너가 미국정부의 대한(對韓)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무투표 당선, 이어 국회의장에 피선되어,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제정·공포하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 그 해 7월 24일 취임하였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국내의 공산주의운동을 분쇄하였으며, 철저한 배일(排日)정책으로 일본에 대하여 강경자세를 견지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공산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2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세력이 우세한 국회에서 자신의 대통령재선이 어렵게 되자, 자유당(自由黨)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 반대파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여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 개정하고 대통령에 재당선되었다.

1953년 미국의 전쟁처리방법에 반대, 계속 휴전을 반대하다가 휴전성립 직전에 반공(反共)포로의 석방을 단행,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1954년 자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종신대통령제 개헌안을 발의, 국회에서 1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는데, 사사오입(四捨五入)의 해석논리를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번복, 통과시킴으로써 1956년 대통령에 3선되었다. 1958년 12월 차기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경제시책의 빈곤으로 인한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여당과 정부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대통령에 4선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사임, 하와이에 망명해 있는 동안 사망하였다. 장례는 고국에서 가족장으로 조촐히 집행되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저서에 《독립정신》, 《일본내막기》(영문) 등이 있다.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승만 [李承晩] (두산백과)

나. 박정희

한국의 군인, 정치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였다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중위가 되었다. 해방후 한국군 소장이 되어 5·16군사정변을 주도하였다. 1963년 제5대 대통령이 되어 경제개발을 단행하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7년 재선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개헌을 통과시켰다.

1972년 국회 및 정당을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저격으로 서거하였다.

1917년 경상북도 선산(善山)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박성빈(朴成彬)과 모친 백남의(白南義) 사이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26년 구미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32년 졸업하였고 그해 4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하였다. 사범학교 졸업후 경상북도 문경에 소재한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부임하여 1940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의 무단장시[牡丹江市]에 소재한 제6군관구 사령부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新京 : 지금의 長春)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 1차에서 낙방하였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 합격하게 되었다.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4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7기로 졸업하였으며,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하였으며 팔로군을 공격하는 작전에 부관으로 참가하였다.

일본이 패망하자 베이징을 거쳐 천진항에서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귀국후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조선국방경비대 육군 소위가 되었다. 그 당시 1946년 9월 대구에서 좌익에 의한 시위가 일어났는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가 시위를 주도하였다. 10월 1일 대구시민들과 경찰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박상희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형의 영향을 받았던 박정희는 군부에 비밀리에 조직된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47년 육군소령이 되어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었다. 1948년 10월 국방군 내 좌익계열의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고 일으킨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나자 육군 정보사령부 작전참모로 배속되었다. 그해 박정희는 당시 국군 내부 남로당원을 색출하자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만주군 선배들의 구명운동과 군부 내 남로당원 존재를 실토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다.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군에서 파면되었다.

군에서 파면되었지만 육군본부에서 비공식 무급 문관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령으로 군에 복귀하였다. 1953년 11월 준장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육군포병학교에서 고등군사교육을 받았다. 1954년 제2군단 포병 사령관, 1955년 제5사단 사단장, 1957년 제6군단 부군단장과 제7사단 사단장을 거쳐 1958년 3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으며, 1959년 6관구 사령관이 되었다. 1960년에 군수기지 사령관, 제1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제2군 부사령관으로 전보되었다.

1961년 5월 16일 제2군 부사령관으로 재임중에 5·16군사정변을 주도하여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고, 1962년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하였으며,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어 민주공화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그해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1967년 재선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1969년 3선개헌을 통과시켰다. 제3공화국 재임동안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파병문제'를 강행하였다. 1972년 국회 및 정당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유신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전국민적 전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였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성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런 가운데서 내치(內治)의 어려움을 통일문제로 돌파하고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민족통일의 3대원칙으로 규정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73년 6·23선언이라 불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할슈타인원칙의 폐기)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면에서는 북한의 비협조와 당시의 국제정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4년 8월에는 영부인 육영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문세광(文世光)에게 저격당했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는 결국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을 야기시켰으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安家) 만찬석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저격으로 서거(逝去)하였다.

저서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민족의 저력》, 《민족중흥의 길》, 《국가와 혁명과 나》, 《지도자의 길》, 《연설문집》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정희 [朴正熙] (두산백과)

다. 전두환

군인, 정치가.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기간 중 군부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다. 1951년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1969년 육군본부 수석부관을 지냈다.

1970년 백마부대 제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지냈다.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낸 후 1979년 초 국군보안사령관이 되었다. 그해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자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하고, 신군부가 12·12군사정변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 중장으로 진급하고, 이어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되었다.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그해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이 되었다. 이어 8월 5일 대장으로 진급하고, 22일 예편하였으며,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어 2월 개정된 새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임기간 중 군부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수용하였다. 물러난 뒤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문제로 책임추궁을 당하다가 1988년 11월부터 1990년 말까지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했다. 1996년 12·12 및 5·18사건, 비자금사건과 관련되어 사법처리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두환 [全斗煥] (두산백과)

라. 박근혜(1952. 2. 2 ~)

한국의 제18대 대통령. 5대~9대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의 딸로서 제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1952년 경상북도 대구시 삼덕동(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에서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사이의 첫딸로 태어났다. 성심여자중학교를 거쳐 1970년 성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여 1974년 이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해에 프랑스의 그르노블대학으로 유학하였다가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어머니 육영수가 문세광(文世光)의 저격으로 사망하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청와대에서 어머니 대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구국봉사단(후에 새마음봉사단으로 개칭)을 조직한 최태민(崔太敏)과 함께 국민정신 개조운동인 새마음운동을 전개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서거하자 청와대를 떠났으며, 이후 한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육영수가 1969년에 설립한 육영재단 이사장(1982~1990)에 이어 정수장학회(正修奬學會) 이사장(1995~2005)을 지냈다.

1997년 한나라당(지금의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회창을 지원하는 유세를 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듬해 4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5대 국회의원이 된 뒤 제18대 총선까지 달성군에서 내리 4선을 하였고, 제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5선 의원이 되었다. 1998년 10월부터 한나라당 부총재로 일하다가 2002년 2월 이회창 총재와의 불화로 탈당한 뒤 4월에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여 당 대표로 취임하였으며, 5월에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였다.

2002년 11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는 형식으로 복당하였으며,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2006년 6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제17대 대선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였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여파로 홍준표 당대표가 사퇴하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2년 2월 당 명칭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하는 등 쇄신을 주도하며 그해 4월의 제19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가 넘는 의석(152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이끌었다.

2012년 7월에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8월에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득표율 51.55%(1577만 3128표)로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부녀(父女) 대통령, 첫 미혼 대통령이 되었다. 재임중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2월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일환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집권 4년째인 2016년 중반부터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이 관련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불거져 국민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12월 9일에 가결됨으로써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중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되었다.

저서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1993),《내 마음의 여정》(1995),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1998),《나의 어머니 육영수》(1999),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2007)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근혜 [朴槿惠] (두산백과)

마. 문재인 대통령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

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10 국민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6101035001#csidxa1d2e114fd90abba9061a051ccbbab4

바. 문재인 대통령 6월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6·10 민주항쟁 서른한 돌을 맞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주의의 함성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시 듣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날의 함성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6월의 민주주의는 국민들 각자의 생활에 뿌리 내려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을 제대로 찾는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성별이나 장애로 인해 받는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생명체와 공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정치적 자유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6월 민주항쟁도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의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항쟁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앞장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총과 방패에 꽃을 달았습니다. 여고생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철제문 사이로 건네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음료와 생필품을 보내왔습니다. 회사원들은 군중을 향해 꽃과 휴지를 던져 응원했습니다. 언론출판인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지침을 폭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을 끝내고 나와 철야시위와 밤샘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학생, 시민, 노동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나누며 자신의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4·19로부터 이어온 각 분야의 운동이 하나로 모였고, 각자가 간직하고 키워온 민주주의를 가지고 촛불혁명의 광장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었던 한반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입니다. 이제, 6·10 민주항쟁에서 시작해 촛불혁명으로 이어져온 국민주권 시대는 평화의 한반도에서 다양한 얼굴의 민주주의로 실현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정부도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사. 남영동 대공분실

[요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에 위치한 과거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대공 수사 기관으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에 위치한 과거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대공 수사 기관이다. 특히 이곳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1987년 당시 경찰은 박종철에게 폭행과 전기고문·물고문 등을 가했고, 결국 그해 1월 14일 박종철은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서 사망했다.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의 외관은 검·붉은색 벽돌로 이루어져 있고, 5층에는 취조와 고문이 이뤄졌던 15개 조사실이 있다. 조사실 내부는 3평 남짓한 규모로 침대와 책상, 변기, 욕조가 배치돼 있으며,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창문이 작게 설계돼 있다. 특히 건물 뒤편의 폭이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따라 5층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구조로, 당시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정문이 아닌 이 출입구를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 경찰청 인권센터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8년부터는 4층과 5층에 박종철 기념전시실을 개관하여 일반인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남영동 대공분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아. 박종철고문치사사건[朴鍾哲拷問致死事件]

정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개설

전두환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폭로되어 1987년 6월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 배경

전두환정권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은 1980년대 중·후반에 더해가고 있었다. 경찰은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 후배인 박종철을 불법으로 체포했다.

경과

경찰은 박종철에게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했다. 박종철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같은 달 15일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발표했다.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박종철군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검의(剖檢醫)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발생 5일 만인 19일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수사경관 조한경과 강진규 등 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내무부장관 김종호와 치안본부장 강민창의 전격 해임과 고문근절 대책 수립 등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결과

1987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된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했다.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등 대공간부 3명이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였고, 고문가담 경관이 2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및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은폐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의와 평가

박종철 고문치사와 은폐 조작사건은 전두환정권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정권 규탄 시위를 촉발했다. 이 사건은 1987년 6월항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여 민주화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참고문헌

『87-88년 인권보고서』(대한변호사협회 편, 1989)

「고문경찰관 12년만의 회한 토로」(『동아일보』, 2000.1.9)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안상수, 『동아일보』, 1995)

「박종철 고문의 진상을 밝히다」(이부영,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 두리, 1992)

[네이버 지식백과] 박종철고문치사사건 [朴鍾哲拷問致死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7. 참고문헌

[도서 및 논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돌베개.2008.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역사』, 경기도.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이승만」, 『두산백과』.

「박정희」, 『두산백과』.

「전두환」, 『두산백과』.

「박근혜」, 『두산백과』.

「남영동 대공분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한종 외, 『한국사 사전 2』 - 역사 사건·문화와 사상, 「장시」, 2015, 책과함께어린이

[사이트]

[동영상]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영상(청소년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https://www.youtube.com/watch?v=SjfGcI772hc)

박근혜 탄핵 심판 뉴스 영상(KBS 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lq0MX5wQtBA)

[신문기사]

14차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1. 광주 대단지 사건

가. 1971년의 개, 돼지 광주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10일 오전 11시40분, 서울시 성남출장소(현 성남시청) 뒷산 공터. 궐기대회에 운집한 5만 군중이 술렁거렸다. 11시에 주민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한 서울시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외쳤다. '서울시장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외침은 다른 메아리로 돌아왔다. '또 속았다, 내려가자!'

흥분한 군중은 너나 할 것 없이 150m 아래 서울시 대단지 사업소로 몰려갔다. 내려가던 일부 군중은 서울시 소속의 지프를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며 개울 바닥에 처박았다. 사업소로 몰려간 군중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다. 요즘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면 중부면에서 발생한 이날 소요는 사회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줬다.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 봉기였으니까.

서슬 퍼렇던 3공 시절,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광주대단지 난동'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법정에서도 난동이라고 불렀다. 과연 광주대단지 사건은 난동이었을까.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난동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사건의 근본 원인은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의 부산물인 철거민.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저곡가 정책은 대규모 이농과 도시 빈민 문제를 낳았다.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직전인 1960년 서울 인구는 약 245만명. 1970년에는 554만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46%에 불과하던 시절, 무주택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건물에 살았다. 해방 직후부터 생긴 서울시 무허가주택은 1960년 5만 5,887채에서 1969년에는 26만 8,805채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도시 미관과 위생을 위해 무허가주택, 속칭 판자촌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자고 나면 판자촌이 생겼다. 철거반을 동원해 허름한 판자촌을 부수면 또 다시 판자촌이 들어섰다.

철거와 잠입, 추방과 재진입의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 서울시는 대책 없는 철거만으로는 판자촌 정리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세 가지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무허가 주택 양성화와 서민 아파트 건립, 신도시 개발 중에서 첫째 대안은 일찌감치 접었다. 판자집은 대량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허술했다. 결국 두 가지만 남은 가운데 서민아파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이마저 물 건너갔다. 적지 않게 들던 예산이 부담이던 차에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2] 가 일어난 탓이다.

서울시는 신도시 건설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갔다. 무엇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이른바 '경영 사업' 방식이 특장점으로 꼽혔다. 경영 사업 방식이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싸게 사서 입주민들에게 비싸게 팔아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방식. 택지와 기반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먼저 입주부터 시키는 방식이었다. 집을 짓는데 상식인 '선 개발, 후 입주'가 아니라 '선 입주, 후 개발' 방식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의문을 표시하자 김현욱 서울시장은 '사람들이란 원래 10만명만 모아 놓으면 저희들끼리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며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서울시는 토지가격이 싸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 350만 평을 골랐다. 서울시는 1969년부터 청계천과 용산, 영등포 일대의 판자촌 주민 2만 1,372가구를 강제 이주시켰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크지 않았다. 토지 분양과 일자리 제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의 인구는 13만 5,214명. 인구로만 보면 순식간에 웬만한 도시 하나가 생긴 셈이지만 생활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토지 정리도 채 끝나지 않는 마당에 도로와 공공 상하수도 보급도 20%를 밑돌았다. 약속했던 일자리도 제공되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악취 속 허허벌판에 그냥 내버려졌다. 서울과 오가는 교통편도 하루에 버스 6편 뿐이었다.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에 살 때는 날품을 팔아서라도 그날 그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당장 끼니 해결조차 어려웠다. 인근 닭장의 사료를 훔쳐 가족들이 죽을 끓여 먹고 쓰레기 통을 뒤지는 사람도 많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투기꾼들이 판쳤다는 사실. 먹고 살기 어려워진 철거민들은 20평짜리 토지 분양권을 팔고 서울의 무허가촌으로 되돌아갔다. 일부 철거민이 떠난 자리에는 내 집을 싼 값으로 지으려는 일반 수요자(전입자)들이 몰려들었다. 마침 1971년은 선거의 해. 4월 27일 7대 대통령 선거와 5월 25일 8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졌다.

공화당 소속 차지철 후보는 토지 무상 불하와 세금 면제, 대형 공장 유치 등으로 광주대단지를 지상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밀었다. 감언이설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도 투기 열풍을 거들었다. 어제는 공업단지 기공식, 오늘은 상수도 통수식, 내일은 도로 준공식이 열리는 식이었다. 중심가 일부는 종로와 맞먹는 평당 20만원에 이르렀다는 신문 기사까지 나왔다.

과열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얼어붙었다. 서울시는 분양권 소지자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서둘렀다. 각종 건설공사로 재정난에 빠져 있던 서울시는 평당 약 2,000원으로 책정한 택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투자가 전면 중단될

2) 1970년 4월 8일, 준공 4개월 밖에 안된 마포구 창천동의 와우아파트가 무너진 사건. 입주 예정 30가구 가운데 먼저 들어온 15가구 주민 41명이 중경상을 입고 33명이 깔려 죽었다. 군림하는 관청의 '불도저식 행정과 부실공사' 탓이다. 사고 발생 나흘 전, 금이 갔다는 주민들의 신고도 무시됐다. 와우아파트는 설계와 시공·감리까지 부실과 총체적 부패 그 자체였다. 쌀 한 가마니에 5,220원 하던 시절, 시공비가 평당 1만원에도 못 미쳤다. 당초 공사비는 평당 2만원 꼴이었지만 경험 없는 업체가 계약을 따내 커미션만 챙기고 시공은 무허가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시공비가 새나갈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공사비는 부실시공을 불렀다. 기둥 하나에 70개씩 들어가야 할 철근은 불과 5개만 쓰였다. 건설현장의 금기사항인 한겨울의 콘트리트 시공은 배합마저 엉망이었다. 시멘트 대신 모래가 대부분인데다 한 지게에 30~40원씩 줘야 하는 물을 아낀다고 제대로 섞지도 않았다. 자재와 자금 부족에도 와우지구 아파트단지(15개동)가 착공 6개월 만에 완공됐다는 '실적'은 부실시공을 기획하고 자재를 빼돌린 공무원들에게 돌아갔으나 국제적 망신을 샀다. 붕괴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서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열렸기 때문. '한국의 발전상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유치한 국제대회에서 치부만 드러낸 꼴이 됐다.

위기를 맞고 있던 상황. 더욱이 서울시는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전입자들에게는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씩 토지 가격을 매겼다. 계약과 동시에 땅값을 완불하라는 조항까지 곁들었다.

서울시장 명의의 토지대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게 7월 13~14일. 고지서에는 7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까지 붙어 있었다. 호구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분노와 실의에 빠진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불하가격 시정 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7월 17일 한 교회에 모인 100여 명 유지들은 단지를 11개 구역으로 나눠 대표 1명씩을 선출해 이틀 뒤 다시 만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약속한 7월 19일 모인 인원은 11명이 아니라 2,000명이 넘었다. 그만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이다. 대책위는 4개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① 철거민·전입자 할 것 없이 단지 내 모든 대지 가격을 평당 2,000원 이하로 할 것 ② 대지 불하대금을 10년 분할상환토록 할 것 ③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할 것 ④ 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구호대책을 세울 것.

대책위는 23일 오후 주민합동회의를 열어 요구조건을 추인받아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달하며 월말까지 긍정적 회신이 없을 경우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 28일까지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않았다. 대책위는 당국의 반응이 없자 투쟁위 체제로 전환하며 집집마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담은 포스터와 삐라를 뿌렸다. '백원에 뺏은 땅, 만원에 폭리 말라', '살인적 불하가격 결사 반대!'

불하가격은 정말 살인적이었고 서울시는 폭리를 취했을까. 그랬다. 서울시가 경기도 광주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불한 토지 가격은 평당 평균 250원을 넘지 않았다. 지주들은 지주들대로 뿔났다. 헐 값에 사들인데다 돈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요구하는 지주에게 서울시는 가치와 환금성이 떨어지는 산비탈 부근의 땅을 대신 내주는 횡포를 부렸다.

원래부터 살던 주민에서 철거민, 전입자 등 모든 주민이 격앙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건물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발부했다. 당초 면제하기로 약속됐던 취득세 고지서는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시와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던 투쟁위원회는 요구사항에 대한 당국의 회신 대신 날라든 세금 납부 고지서에 조롱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결국 긴급 소집된 투쟁위는 8월 10일 주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현지 공무원들은 서울시 본청에 '현지에서 해결 불가능한 긴급 사태 발생'이라는 급전을 보냈다. 서울시는 최종완 부시장을 급히 내려보냈다. 8월 9일 밤 8시 넘어 열린 투쟁위와 최 부시장과 면담을 평행선을 달렸다. 최 부시장은 요구를 듣다 '누가 당신더러 이 곳에 와서 살라고 했소? 여기서 살지 않으면 될 것 아니요"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밤 11시를 넘도록 계속된 담판은 결렬되고 말았다. 합의 사항은 오직 하나. '내일(10일) 오전 11시까지 양택식 서울시장이 와서 직접 교섭한다'는 것 뿐이었다.

부시장이 떠난 뒤 마이크를 단 투쟁위 자동차가 대단지를 돌면서 소식을 알렸다. '시장이 내일 11시에 오기로 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이윽고 8월 10일 아침, 부슬비가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투쟁위가 예상했던 1만 명보다 훨씬 많은 5만 명이 이른 시간부터 모여 시장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넘어도 양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3] 결국 흥분할 대로 흥분한 군중들은 출장소로 몰려갔다.

성난 군중들은 이곳 저곳으로 몰려다니며 공공건물과 기물을 부쉈다. 차량 22대도 불탔다. 일부 군중들은 '청와대로 가겠다'며 버스를 탈취해 단지 외곽으로 떠났다. 공무원 92명은 도주하고 성남지서 경찰관 30여명도 사라졌다. 경찰들이 증원돼 최루탄을 쏘며 저지했으나 군중이 워낙 많았다. 대치는 여섯 시간 동안 이어졌다. 오후 5시2 0분께, 서울시가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군중은 흩어졌다.

단 여섯 시간 만에 끝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한국 사회에 무수한 영향을 남겼다. 정권은 최초의 민중 봉기를 심각하게 여겼다. 기밀이 해제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당시 박 대통령은 주동자를 색출해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적극적으로 시위에 가담한 22명이 재판 받았으나 전직 장관급 공무원을 지낸 목사 등 투쟁위의 주요 인사들은 다치지 않았다. 대신 성남지역에는 어느 곳보다 많은 경찰이 상주하며 주민들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광주대단지 사건 3년 뒤에 성남시 승신여중에서 국어교사로 부임했던 소설가 윤흥길은 1977년 이 사건과 경찰의 감시를 소재로 삼아 베스트셀러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지었다.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수습책에 나선 정부는 대단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전하고 광주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시켰다. 공장 유치와 학교 유치, 상하수도 같은 각종 생활 시설도 뒤늦게 들어섰다. 오늘날 성남시의 모습이 이때 형성됐다. 짧은 시간의 봉기였지만 그 전후에 담긴 고통은 상상을 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런 괴담도 돌았다. '남편은 식량을 구하러 떠난 가운데 열흘을 굶은 임산부가 출산 후에 정신분열 증세에 빠져 신생아를 삶았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였으나 성남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았던 뇌리 속에는 고통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다.

운동권에도 이 사건은 영향을 미쳤다. 제정구와 손학규, 김문수 등 서울대 출신 운동권들이 광주대단지 사건을 계기로 도시빈민 문제에 뛰어들었다. 온누리교회 김진홍 목사도 비슷한 경우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중추였던 경기동부연합도 광주대단지 사건과 맥이 닿는다. 고립과 허기 속에 어린 눈으로 광주대단지 사건을 지켜보고 성남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받으며 청소년기를 지낸 뒤 대학 운동권에서 만난 성남 출신들은 경기동부연합으로 뭉쳤다.

광주대단지 사건 발생 9년 뒤 또 다른 광주에서는 비극이 일어났다.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일까. 전라남도 광주의 집단기억은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의 기억으로 남았다. 경기도 광주의 집단기억은 왜곡되고 매도 당하며 흩어질 판이다.[4] 단지 철거민이라는 이유로, 못 산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민들을 고립시켰던 광주대단지 사건의 시제는 과거형일까. 세월은 고약하다. 분당이 성남과 다르고 싶고 남을 차별하는 의식이 개개인으로 분화, 변질되고 있으니까. 45년 전 광주가 묻는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직자가 이젠 사라졌나. 담 하나를 두고 임대

3)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도 있다. 양택식 시장이 약속보다 10분 앞서 현장에 도착했으며 많은 군중이 흥분할 것을 우려한 투쟁위가 양 시장을 제 3의 장소로 옮겨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 협상이 타결되어가던 도중에 군중들의 '난동이 시작돼 시장을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손정목 당시 서울시 기획관리관, '도시 50년사' 중 '광주대단지 사건')

4)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조명하려는 성남시 의회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애초 방침과 달리 실태 파악 후 피해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아파트에 살면 학급 배정까지 갈리는 사회, 아이들까지 계층을 나누는 우리는 건강한가.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나. 현재 진행형인 광주대단지 사건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면복권조차 이뤄지지 않은 22명의 행방을 찾았다.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규명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은 시장은 "강제 이주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남시의 역사이고 뿌리"라며 "최소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이라도 할 수 있게 연락해 달라"고 했다.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성남시 제공]

광주대단지 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로 분리) 일대에 조성한 광주대단지에 강제로 이주당한 철거민 10만여 명 중 수만 명이 1971년 8월 10일 생존권 대책을 요구하며 벌인 집단 저항이었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는 곳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토지대금 일시 납부와 세금 징수를 독촉받자 성남출장소를 습격해 일시 무정부 상태가 됐다.

당시 사건으로 주민 22명이 구속됐고 미성년자 1명과 무죄 확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20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폭동' 또는 '난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강제 이주사업 영향으로 성남시 본시가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2년 뒤 광주대단지는 성남시로 분리돼 지금의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성남시 제공]

시는 광주대단지 사건은 기록마다 '폭동', '난동' 등으로 제각기 달리 표현하고 있는 데다 사건 성격이나 의미도 규정짓지 못한 채 묻혀 있어 재조명을 위해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번번이 부결시킨 지원 조례 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당시 형사처분한 사안을 지자체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은 국가 사무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건을 부결시켰지만, 다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 안에서 실태 파악과 이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을 담은 조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대단지'로 조성된 1970년대 성남시 모습[성남시 제공]

다. 광복 후 최초 '도시빈민투쟁'



시민 22명 구속 … '폭동' 오명 市, 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은수미 성남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22명에 대한 행방을 찾았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구속된 시민 22명을 찾아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계획이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면복권조차 이뤄지지 않은 22명의 시민 여러분, 성남시장실 혹은 성남시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으로 연락주세요"라며 "이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이 언급한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부 잘못된 정책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68년 서울시가 내놓은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놓은 정착지 조성을 통한 '이주 정책'이 원인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이주 정책지로,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로 분리) 일대를 10만 5000여 가구(이주민 50만)가 살 수 있는 신도시로 조성했다. 이곳이 광주대단지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마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수도, 전기, 도로, 화장실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시설은 물론 생계수단조차 없었다. 집도 없어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그렇지만 살 곳을 찾던 각 지역 빈민의 유입이 급증했고 1971년 8월경의 거주인구는 15~17만 명까지 늘어났다. 결국 또 하나의 빈민촌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토지 투기바람이 분다는 명목으로 분양 증 전매 금지와 배정된 토지 매입 정책을 내놨다. 토지대금은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금액의 40배에서 800배 수준인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고, 게다가 토지 취득세로 1만원, 있지도 않은 주택에 대한 등기세로 1만원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1971년 7월 17일 주민들은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8월 10일 성남출장소, 파출소 등을 파괴했다. 광주대단지는 일시 무정부상태였다. 8월 12일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방송 담화를 통해 광주대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함께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함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봉기주동자로 지목된 주민 22명이 구속돼 형사 처벌을 받았고 '폭동' 또는 '난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 이미지는 여전했다.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4층에서 열린 '8.10광주대단지 사건 47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지체된 기억과 은폐된 로컬리티'를 발표한 임미리 한신대 사회학과 박사에 따르면 1982년 첫 발간된 '성남시지'부터 최근 2014년 '성남시사'에 이르기까지 성남시는 2014년을 제외하고 2004년까지 발간된 시사의 관련 내용은 처음 것을 그대로 베끼면서 '폭동' 또는 '난동'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했다. 이때문에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은 시장은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광주대단지 사건의 발생을 '폭동' 또는 '난동'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민중 생존권 투쟁'으로 봤다. 은 시장은 "성남시의 삶과 미래를 꿈꾼 이 주시민여러분 덕분에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며 "성남을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복지도시,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우정과 연대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도 매번 실패한 조례안을 다시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013년 9월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제198회) ▲2016년 5월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제218회) ▲2016년 11월 광주대단지사건 실태파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조례안(제224회) ▲2017년 12월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역사재조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제234회) 등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피해자 현황 조사 또는 현황이 없다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광주대단지 사건은 성남이라는 도시의 뿌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면서, 성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아 위원회를 통한 진실 규명은 어렵지만, 조례 재상정 등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라. 1970년대 도시철거민의 생존권 투쟁… 도시빈민운동의 시발점

1971년 8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군 성남출장소엔 5만여명의 주민이 몰려 들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11시에 주민대표와 양택식(梁鐸植) 당시 서울시장이 면담하기로 예정된 시간에 앞서 그들은 '배가 고파

못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웅성거렸다. 양 시장은 약속시간에 오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약속시간보다 30분이 지나 양 시장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분노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출장소를 불태우고 차량 20대를 불태웠다. 전투경찰 700명이 투입되었지만, 저지하지 못했다. 첫날은 경찰과 5시간 대치했다. 주민들은 폭도화되었다. 광주대단지를 초토화시킨 후 주변을 지나가던 승용차, 택시, 버스들을 가로막아 멈춰세운 뒤 탑승객들을 모조리 끌어내고 탈취했다. 그들은 그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시위는 사흘 동안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내무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에 보내 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아울러 주민대표들에게 정식 사과하고 이주민들을 달랬다. 8월 12일 양택식 서울 시장은 담화를 통해 광주대단지(성남출장소)를 성남시로 승격시키고, 주민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시위는 3일만에 진정되었다. 성남시는 그 후 1973년 시로 승격되었다.

이 사건을 광주(廣州)대단지사건이라 부른다.



1960년대엔 경제개발과 함께 농촌 사람들이 무작정 상경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서울에서 노동이라도 하는 게 나은 시절이었다. 도시가 급격히 팽창했다. 1960년 28%이던 도시인구 비율이 1970년에 41%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울 인구는 1955년 157만명에서 1960년 244만명, 1966년 379만 명, 1970년대 들어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자 서울 여기저기에 무허가 판자촌이 빠르게 늘어났다. 농촌을 떠나 서울로 온 사람들은 달동네에 살았다. 나뭇조각, 베니어합판으로 지은 판잣집이 낙산, 인왕산, 남산 기슭, 청계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서울시는 단속과 철거를 계속하면서 도심 인근의 판자촌 주민들을 서울 외곽의 새로운 정착지에 집단으로 이주시켰다. 처음엔 미아리에 집단 정착촌이 생겼고, 1970년에 서울 외곽에 20곳의 정착지를 마련했다.

정부는 무허가주택을 현지 개량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어 이주시킨다는 계획으로, 당시 행정구역으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35만 평에 10만 명이 살 대단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서울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곳에 성남출장소를 설치했다. 이때 10만 명이 넘는 빈민층 사람들이 살 집을 준다는 말만 믿고 이사를 갔다. 주로 청계천과 서울역, 용산, 영등포 일대에 살던 빈민들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기도 했다.

서울시는 철거 이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철거이주민의 분양권이 불법 전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간에서 투기꾼과 업체들이 몰려 철거 이주민 우선 분양권은 외지인에게 넘어갔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이주한 대단지에 살아갈 기초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주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곳에는 공장도 없었고 상가 단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버스와 교통편이 준비되지 않아 농촌 버스만이 몇 대 다니고 있었다. 교통수단이 없어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왕래가 어려웠다. 빈 터에 무작정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도시설이나 화장실조차 제도로 갖춰지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줄 생각도 않았고, 서울에선 사람들이 대책없이 떠나야 했다.

이 사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양산된 도시 빈곤들이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폭력화한 집단 시위였다. 당시 재야민주화세력과 연계되지도 않은 자연발생적 일종의 봉기였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빈민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도시빈민운동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도시빈민 운동은 조직화되었다. 성남, 용인 일대의 사회운동세력이 힘을 결집하기 시작했다.



2.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가. 반올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들이 집단 백혈병에 걸리자 진상을 규명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본래 명칭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인데, 이를 줄여 반올림이라고 부른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당시 23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부친이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급여지급도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발족됐다.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삼성전자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황유미 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2년 9월,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관련 대화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됐다. 반올림은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비공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해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첫 본협상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가족 위임장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혀, 반올림 출범 7년 만에 공식사과와 보상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2014년 9월 반올림 유족 및 피해자 대표 6명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발족시키고 11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발족되면서, 협상은 조정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8년 7월 24일에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가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조정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조정위는 8~9월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9월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중재안에는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전자의 사과, 반올림의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실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논란은 2007년 3월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황 씨가 사망하자 그의 부친은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급여지급도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발족되면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반올림에서는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삼성의 사과와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2010년 미국의 산업환경 관련 회사인 인바이런에 용역을 맡겼고, 1년 뒤 인바이런은 「백혈병 발병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산업재해 판정이 이어져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양측의 대화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건 2012년 9월로,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관련 대화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됐다. 반올림은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양측 간 비공개 협상으로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 후 그해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첫 본협상이 진행됐지만, 피해자 가족 위임장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협상은 시작과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2월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돼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4월 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담은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혀, 반올림 출범 7년 만에 공식사과와 보상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14년 9월 반올림 유족 및 피해자 대표 6명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발족시키고, 11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발족되면서, 협상은 조정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정위는 2015년 7월 삼성전자가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조정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이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가대위는 반대, 반올림은 찬성하는 등 상호 이견을 보이면서 조정위를 통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가대위가 신속한 보상 등을 이유로 삼성 측과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9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보상위)'를 발족시키면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보상 접수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게 됐다.

다. UN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해결 환영… 올바른 방향"

UN(국제연합)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중재안 수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UN 인권고등판무관실 바쉬쿠트 툰작 특별보고관은 27일(현지시간) 향후 직업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삼성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과의 11년간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조정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중재안을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파격적인 중재방식에 합의했다. 반올림은 농성을 해제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질병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툰작 특별보고관은 "삼성전자의 결정이 조금 더 일찍 나왔다면 좋았겠지만 (중재안 수용은) 글로벌기업으로서 삼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피해자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근로자 보호 기준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전자기업들도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툰작 특별보고관은 오는 9월 UN 인권위원회에서 정부와 고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 수용하게 되는 중재안은 9월 말~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최종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지원보상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의 농성 해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실행 등이 담긴다. 특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의 경우 반도체 공정의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 전자산업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방안 등을 수립해 삼성전자와 정부에 제안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07년 11월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피해에 대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약칭 반올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황유미가 사망한 이후 유사한 피해를 당한 반도체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반올림은 2014년 현재까지 삼성의 사과와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1) 활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독 암 발병이 높다는 시민단체의 일방적 지적이 있어왔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출처 필요] 그러던 중, 2007년 반도체 노동자였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이를 계기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올림이 결성되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백혈병의 산업 재해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벌였고, 2009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 계속하여 산업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하여 계속 항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여러 방법으로 개입하였다.

2013년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황유미가 사망한 지 6년 만에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 대표는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가 맡았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측이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적인 사유'로만 치부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근황

삼성전자는 피해를 입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직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년 5월 14일 그 동안의 입장에서 전향하여 산업 재해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발표하였다. 반올림이 결성된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반올림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며 향후 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반올림이 요구하는 직접 교섭에 대해 제3의 기구를 통한 교섭을 주장하여, 삼성전자의 사과에도 반올림과 삼성전자 사이의 교섭에는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황상기는 CBS와 인터뷰에서 "지금 언론에다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반올림하고는 어떤 대화도 안 했잖아요. 반올림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해야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아니면 언론용이었는지. 반올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그 사과를 지금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3) 사회적 반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산업 재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피해자 황유미와 아버지 황상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제작되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대형 상영관에서 스크린을 내주지 않아 삼성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막연히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흥행성이 별로 없어보여 상업적 판단으로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마. 10년 만에… 삼성전자·반올림 '반도체 백혈병' 갈등 끝낸다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매듭을 짓게 됐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양측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최종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모두 조정위 제안 무조건 수용 피해자 보상 등 내용은 9월께 발표
2007년 20대 생산직 숨지며 촉발 이재용 '신뢰 회복' 의지 작용한 듯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발송했다. 답변 마감일인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올림도 수용 의사를 조정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2차 조정안에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4년 12월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반올림 등의 합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2015년 7월 1차 조정안을 발표했었다. 조정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각각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차 조정안은 발표된 직후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조정안 발표 두 달 후 삼성전자가 자체 보상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130여 명의 보상이 이뤄졌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자체 보상을 거부하며 2015년 10월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000일여간 천막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2차 조정안을 빠르면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종 조정안이 나오는 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반올림 피해자 보상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2007년 3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2세)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2003년 10월 입사한 황 씨는 입사 2년여 만인 2005년 6월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유족은 직업병을 주장했다. 이후 2007년 11월 13개 단체로 이뤄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2008년 3월 반올림, 2014년 9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간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연관성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줄곧 두 사안이 무관함을 주장해왔다.

삼성전자가 아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2차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데는 이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 데 대한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반도체 공정 공개 논쟁으로도 번졌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기밀 누출'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받아들여진 상태다.

조정위원회도 강수를 뒀다. 한쪽이라도 2차 조정안을 거부하면 더는 활동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2차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양쪽이 모두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계에서는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지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석방 후 '삼성의 신뢰 회복'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에게 '10년 묵은 난제'인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그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최종안이 마련되면 사회적 갈등이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 셋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중재합의서에 서명한 뒤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반올림 대표한 황상기 씨가 발언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바. 반올림은?

1) 반올림이 만들어지기 까지



2007년 11월 20일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발족 당시 공식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피해자는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의 유족뿐이었습니다. 황유미 씨의 유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다른 백혈병 피해 노동자 여섯 명의 존재를 알아내긴 하였으나,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동료 노동자들과의 접촉이 모두 끊어져 상세한 작업력이나 정확한 이름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단 한 명의 산재 인정 투쟁을 계기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사례는 아마도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조합조차 없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황유미 씨의 사망에 대한 유족보상 청구를 접수한 지 다섯 달 뒤,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보건운동단체, 인권단체 등 이십여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황유미 씨 한 명의 직업병 인정 투쟁이나 백혈병이라는 소재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향하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피해 당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우리 유미는 백혈병으로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결코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황유미 씨의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IBM 공장, 영국의 내셔널 반도체 공장, 타이완의 RCA 공장 등에서 암으로 죽어간 젊은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전자산업은 그 탄생 직후부터 직업병 피해 뿐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환경오염 등 수많은 문제들을 세계 곳곳에서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과 경험을 배경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산재 은폐에 맞선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 규명 투쟁 뿐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투쟁 조직과 연대, 그리고 직업병과 환경오염이라는 반도체 산업 세계화에 대한 폭로와 저항을 활동 목표이자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부터는 백혈병 뿐 아니라 다른 직업병 피해들을 아우르고 삼성 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전자산업체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하 반올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 반올림 활동 목표

가) 산업재해 진상규명과 보상 쟁취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입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등을 겪고 유산과 불임도 일상다반사라는 얘기는 반올림이 지금껏 활동을 하며 접한 '일반적인' 제보였습니다. 특이하지도 않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그 괴물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순 없었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뇌종양, 흑색종, 육아종,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등 심각한 질환만이 사회화되는 것을 넘어서,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유산, 근골격계질환, 불임, 탈모 등등 그 모든 건강피해들이 집단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임을 알리고 산업재해로 보상받고, 일터의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해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외침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업병 피해노동자가 1명인지 '50명을 넘었는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이어도 그 병이 '삼성반도체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발병했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야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어도 발병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직업병이라는 의심'을 한 겹 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질환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신속하게 치료하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의 증거' 유사한 일터에서 유사한 작업조건과 환경에 노출되어, 집단적으로 사망하고 투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업성 피해 제보는 삼성전자(반도체, lcd 등)와 삼성전기에서 150여명을 달하며 그 중에 50여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고 병들어야, '직업병'으로 인정받을지 우리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소름끼치는 현실입니다.

나) 무노조경영으로 신음하는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 건강권 등 '노동기본권'쟁취

누군가 말합니다. "금호타이어에는 자잘한 질병은 있어도 죽거나 중증의 질환에 걸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에는 자잘한 질병은 없지만, 죽거나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한국타이어에는 '자잘한 질병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폐되는 것이고 은폐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죠.

삼성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집단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어떠한 창구도 기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은 오전 오후 4시간을 일하는 동안 화장실을 못갑니다. 공장의 출입구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 샤워'를 하고 '방진복' 갈아입는 유일한 통로를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공장 밖'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작업복을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하는 행위를 2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4시간 동안 화장실을 참기위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도 없는, 인간이 아닌 생산 기계로 생각하는 삼성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 할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그 노동조건과 환경은 바뀌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을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반올림은 '무노조 신화'가 곧 '노동자 살인 기업'과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알리는 활동과 함께, 삼성에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이 함께하며 노동기본권이 쟁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폭로

반올림의 투쟁은 지난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계기가 됐던 '원진레이온 투쟁'과 '문송면 군 수은중독 투쟁'을 닮았습니다.

1966년에 조업을 시작해서, 2010년 현재 1,000여명의 이황화중독 노동자를 있게 한 원진레이온. 이 설비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집단적인 신경독성을 일으켜 일본으로 이전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에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 설비는 1993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 제조기'가 수 천명의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해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이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학업을 잇고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자 협성계공에 입사하여 2달 만에 수은중독으로 1988년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 군. 삼성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학업을 포기하고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3때부터 취업을 나간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아,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근골격계지환을 겪고 유산과 불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백혈병 등 혈액암, 뇌종양, 희귀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암에 걸려 투병하거나 죽습니다.

자본의 이윤창출과 신자유주의 구조 하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은 다각도로 파괴되고 있고 그 역사는 되풀이되다 못해, 더 치밀하고 강도 높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어느 개인과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하게 보일 뿐입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규정한 '교대근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방진복과 마스크도, 4조3교대이지만 잔업을 포함해서 12시간 맞교대하는 것도, 공장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4시간 동안 생리적 욕구를 짓밟히는 것도, 생활비가 없어서 '원인 제공자'인 삼성의 돈으로 치료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족의 억울한 투병생활과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 해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 모두. 특정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이 시대의 공통된 얘기이자, 우리가 투쟁해야할 대상인 것입니다. 반올림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상의 한 단면이며, 그 피해자들이 투쟁의 목소리를 외치는 지금. 절실한 연대와 공동투쟁이 필요합니다.

라) 아시아, 전자산업 노동자, 국제 연대 활동

IT산업이 먼저 성행했던 미국이나 영국에서 1980년대에 발병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 그리고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발생한 이후, 아시아로 넘어온 설비들이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지금, 반올림의 활동은 국내의 전자산업과 함께, 아시아에서, 전자산업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와 환경오염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합니다. 자본의 이윤창출과 신자유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삼성만의 문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임을 폭로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 말입니다.

3) 반올림의 활동영역

① 연대 (Solidarity)
반도체 자본과 맞서 싸우는 이들과의 연대
삼성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연대
해외 반도체 산업의 피해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
② 피해자 지원/상담 (Help)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 노동자 상담과 법적 대응 지원
산업재해 인정 투쟁
③ 실천 (Action)
노동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직접행동
정부와 기업의 산재 은폐에 맞선 행동
④ 연구 (Research)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해외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 논문, 문헌 수집 및 번역
⑤ 홍보 (Public Relations)
사회 이슈화를 위한 각종 언론 홍보 및 선전

4) 참여단체(공동대책위 발족 시 참여단체로 현재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비정규노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경기도당, 사회주의노동자당 경기준비모임,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SF), 진보신당 경기도당,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부산지역 삼성 직업병 대책위원회 / 충남지역 삼성 백혈병 대책위원회 도 함께 합니다.)

3. 경기도의 슬픔이 대한민국을 바꾸다, 대한민국이 껴안은 경기도의 슬픔

4·16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좌현부터 침몰이 시작됐으나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세월호 사건, 관련자 수사는?

참사 발생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고 원인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一家)에 대한 경영 비리 수사 등이 진행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조타수의 상고심에서 '조타기의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이 결론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유 회장의 도피로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7월 말 유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그해 8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밖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는 세월호와 별도의 혐의(횡령)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00여 명을 내버려 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1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면서도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현장 구조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였다.

세월호 수색과 인양, 사고 원인 규명

●세월호 인양 결정과 지연(2015)

세월호에 대한 수색 작업은 2014년 11월 11일 종료되면서 사망자는 295명, 미수습자는 9명으로 남았다. 유족들은 수색 중단 직후부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으나 공식 인양 결정은 세월호 침몰 1년 만에야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4월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7월 인양업체로 중국의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2016년 7월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양 작업은 기술, 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세월호 특조위의 출범과 활동 종료(2015~2016)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응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조위는 활동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선조위 출범 및 활동 종료(2017~2018)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다. 그리고 그해 3월 세월호 인양이 시작됐으며, 선조위는 세월호 인양을 감독하는 것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다. 이후 4월 11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완료되면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습·수색 체제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4명의 유해가 추가로 수습됐다. 그리고 선조위의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은 조직 정비 등을 마친 2017년 7월부터 진행됐다.

이후 선조위는 2018년 8월 6일 1년 4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등 3명은 내인설을 주장했다. 내인설은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복원성 훼손, 화물 과적, 급격한 우회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영빈 제1소위원장,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등 3명은 외력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안' 의견을 냈다. 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으로, 열린 안을 제시한 위원들은 내인설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조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 2018년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에 인계한다. 이에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은 2기 특조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2기 특조위는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2018년 3월 출범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세월호 출항 예정시각이었던 2014년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했다. 또 세월호는 안전점검표에 차량 150대·화물 657톤을 실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 실린 화물은 차량 180대·화물 1,157톤으로 무리한 화물을 적재했다. 이와 같은 과적 화물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력을 잃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했다.

● 진도 VTS 관제 허술, 골든타임 허비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골든타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했다.

●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함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서는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이 발생 시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맡아야 하고, 승무원은 각자 역할을 맡아 탑승객 구조를 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장을 비롯한 선원 대부분은 침몰 직전까지 탑승객에게 객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배 밖으로 나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제일 먼저 구조됐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 허둥댄 정부, 초동 대처 실패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후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세우고 범 부처 총괄업무를 시작했으나, 곧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넘겼다. 하지만 중대본은 사고 현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공지로 공분을 일으켰다.

여기에 해수부·교육부·해양경찰청 등이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사고 관련 대책본부만 10여 개에 달했다. 총리실은 중구난방이 된 대책본부를 통합해 정홍원 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수립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장관이 다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맡게 되는 등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구조 작업은 더뎌졌다.

이처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직후 초동 대처부터 허둥댔던 정부의 무능과 혼선 등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이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노출되면서 정부 책임론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 뒤늦은 구조 작업 돌입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또 세월호는 사고 초기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지만 3분의 2 이상이 해상에 떠있는 상태를 상당 시간 유지하고 있어 이 시기 구조장비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선체 부양을 위한 리프트백 투입은 4월 18일에야 이뤄졌고, 야간구조작업을 위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침몰 나흘째, 잠수부들의 이동을 돕는 대형바지선은 침몰 5일째인 4월 20일에야 뒤늦게 투입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영어 : Sinking of MV Sewol)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4]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5]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6]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7],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8]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9] 3년 동안 인양을 미뤄오다가 2017년 3월 10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고 12일 후인 2017년 3월 22일부터 인양을 시작했다.[10][11][12][13] 2017년 3월 28일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선출안이 의결되었다

청해진 해운

인천시 중구에 본사를 둔 청해진해운은 1999년 2월에 창립한 연안여객선사로, 4척의 여객선으로 인천-제주, 인천-백령, 여수-거문도의 3개 항로를 운항하였었다. 2003년에는 마루에이 페리에서 대형 카페리 오하마나호를 들여와 운용하였고, 2013년 3월에는 세월호를 들여왔다.[16]

2009년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때 여객선 운용 시한이 진수일로부터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청해진해운은 일본에서는 운용시한 약 18년이 된 세월호(1994년 건조)를 사들여와 선령 20년의 오하마나호(1989년 건조)와 함께 운항할 수 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을 완화하면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절감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에 대하여 논평했다.[17]

이후, 청해진해운은 2012년 10월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100억원의 차임급을 받았다. 이중 상당한 돈이 세월호 증축에 사용되었고, 이후 톤수 239톤의 증가·탑승 가능정원 116명이 늘어났다. 선박 설비 안전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증축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명정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기울어지며 침몰한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한 개조·증축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18]

청해진해운은 여객선을 임의대로 노선에 추가 투입해 출항시킨 뒤, 관계 당국에 통보하여 과징금 30만원을 물기도 하였다.[18]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출항 전 운항관리자에게 차량 150대, 화물 675톤을 실었다고 보고했으나, 사고 이후에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18]

인천~제주 항로를 독점해 온 청해진해운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2014년 5월 인천~제주 운항 면허가 취소되었다.[19]

선원

대한민국의 내항선 선박직(선장·항해사·조타수·기관사 등) 대부분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도 월 270만 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 이에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니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기대하기가 애초에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고, 실제 선원에 대한 교육 관리도 열악하였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선원 교육비용으로 54만 1천원을 썼다.[18][20]

세월호

세월호는 1994년 6월 일본 나가사키의 하야시카네 조선(林兼造船)[내용주 1] 에서 건조한 여객·화물 겸용선(RoPax, 로로선)[21]이다. 일본 마루에이 페리 사에서 '페리 나미노우에'(フェリーなみのうえ)라는 이름으로[22][내용주 2] 18년 이상 가고시마~오키나와 나하 간을 운항하다가 2012년 9월 퇴역하였으며 청해진해운이 2012년 10월에 중고로 도입하여 선미쪽에 증축·개조 작업을 거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였다.[23][24][25] 세월호의 이름은 "세상(世)을 초월(越)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26]

세월호는 총 배수량 6,835톤에 전장 145m, 선폭 22m이고, 21노트의 속도로 최대 264마일을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 정원 921명에 차량 220대를 실을 수 있으며, 적재 한도는 3,794톤으로 되어 있다.[27][28]

세월호의 내부는 5층으로, 갑판 아래에 위치한 1층과 2층에는 화물칸, 갑판 위의 3층과 4층에는 승객을 위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고, 5층에는 조타실과 승무원실, VIP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23]

인천-제주 항로

인천-제주 항로는 1995년 5월에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인천~제주 항로를 처음으로 운항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전신격인 ㈜세모의 '세모고속페리'호였다. 세모고속페리호는 최대 500명의 승객과 차량 100여 대를 싣고 편도 16시간으로 인천항과 제주항 사이를 주 3회 왕복하였다.[29][30] 2001년에는 청해진 해운이 춘양호를 추가로 투입하여 세모 고속페리 1호와 함께 최대 6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편도 13시간으로 1일 1회 운행하였다.[31] 2003년 3월에는 6,322톤급의 대형 카페리 오하마나호가, 2013년 2월에는 6,852톤급의 세월호가 두 선박을 대체하였다.[32][33]

인천~제주 항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휴항되었으며, 2014년 5월 청해진 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면허 취소로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34][35]

사고 해역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맹골수도가 위치한 곳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이다. 이 곳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세다(최대 6노트). 섬 주변에는 암초가 많지만 항로로 이용되는 수로 자체는 깊이 30m 이상으로 암초 등 항해 장애물이 없다.[36]

사고 및 구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자 476명(잠정) 중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실종되었다.

사고 발생 전날 (2014년 4월 15일)

안개 때문에 출발이 2시간 30분 지연된 세월호는 오후 9시에 476명(잠정)의 인원과 짐을 싣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32] 세월호에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이 탑승하였다고 알려졌다.[37][38] 세월호에는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이 실렸음이 사고 후에 밝혀졌는데,[18] 이로부터 인천항을 출발할 당시의 차량과 화물, 승객의 체중을 모두 더하면 적재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기도 한다.[28]사고 발생일(4월 16일)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 자료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는 오전 8시 30분경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를 최고 속도로 진입하였고, 항로를 바꾼 후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8시 49분경에 병풍도 부근에서 다시 급격히 항로를 바꾸어 급선회하였다. 항로는 'J'자를 그리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39][40] 오전 8시 52분 32초 (KST),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최초 신고자인 학생이 던진 첫마디는 "살려주세요"였고, 이후 그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알렸다. 당시 신고전화를 받은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내용을 듣고 목포해경을 연결했다 (54분 07초). 그런데 목포은 최초 신고자에게 제일 먼저 경도와 위도를 말하라며, 배의 위치를 물었다. 당황한 최초 신고자가 '네?'를 연발하자 119관계자는 그가 탑승객임을 알렸다. 하지만 해경은 반복해서 GPS를 거론하는 등, 위치를 물었다. 그로부터 1분 30초 뒤 해경 측은 선박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최초 신고자는 "세월호"라고 답하였다(이러한 시간 지연에 대하여, 후일 박진수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선

박 이름부터 묻는 것은 기본임을 지적하고 "구조를 하려면 순서를 누가,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우리는 육하원칙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세월호는 최초 신고보다 3분 후, 사고 해역과 가까운 진도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관제센터(VTS)에 교신하여 배가 침몰 중임을 알렸다(8시 55분). 그리고 다시 이 제주관제센터(VTS)는 목포해경이 아닌 제주해경에 연락하였고(8시 56분), 8시 58분에 비로소 목포해경이 사고를 접수하였다(이 사고접수도 세월호 승무원들이 아닌 학생의 신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추후 상황을 파악한 진도관제센터(VTS)가 9시 6분에 세월호와 교신하여, 세월호를 호출하여 직접관제를 시작하였다.[41][42][43] 9시 17분의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에서 세월호 선원은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44]

항해 경로 Position on chart 진도관제센터와 교신 내용에 따르면, 9시 7분에 2,755톤급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가 진도관제센터와 교신 후 세월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둘라에이스호는 세월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접근하였고, 9시 29분에는 세월호 구조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둘라에이스를 확인하였다. 세월호는 좌현에 대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둘라에이스호는 밀물 때여서 계속 밀리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44] 사고 접수 후, 해양경찰은 출동 및 구조에 나섰다. 9시 25분 서해해경청 소속 헬기 511호와 해경 123정이 잇따라 도착했다. 하지만 출동한 해경은 세월호와 교신조차 하지 않았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다. 123정은 10시13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태운 채 현장을 떠났다.[45]

해경은 헬기 1대와 경비정 20척을 현장에 투입하여 헬기로 승객 6명을 구조하였고, 100여 명은 경비정에 옮겨 태워 인근의 진도 나 목포시 등지로 이송하였다.[46] 대한민국 해군도 구조작업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유도탄고속함 1척과 고속정 6척, 해상초계가 가능한 링스헬기 1대 등을 투입했다.[47][48] 민간 어선 선장 박영섭(56)은 16일 새벽 조업을 마치고 귀항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선장은 오전 9시 3분경 수협목포어업통신국이 송신한 긴급구조 요청 신호를 받고, 병풍도 북쪽 1.5마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바로 뱃머리를 병풍도 쪽으로 돌렸다. 오전 10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박 선장은 해경과 구조작업에 참여해 승객 27명을 구조하였다.[49] 조도면 청년회원 김형오(47) 역시, 이장단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1.1t급 소형어선을 몰고 구조작업에 동참하여, 총 25명을 구조하였다. 그 외에도 메시지를 받고 10여분 만에 출항준비를 마친 조도면의 어선이 60여척, 어민은 150여명에 달했으며 전속력으로 도착까지 20여분이 소요되었다고 전해져 초동구조에 민간 어선들이 큰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졌다.[50] 오전 9시 19분부터 YTN 을 시작으로 각 언론에서 세월호의 침몰 소식을 긴급 타진하기 시작했고, 오전 10시부터 정부는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를 구성하여 가동에 들어갔다.[51]

사고 당일 구조된 세월호 탑승자는 승무원 23명, 단원고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71명으로 모두 172명이었다.[38]

수색 및 인양

수색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2014년 11월 11일까지 총 209일간 계속되었다.[52] 바다

밑 수색은 거센 조류와 탁한 시야, 낮은 수온으로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작업 일정이 길어지면서 피로의 누적과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습 방법

해상 및 공중

16일 사고 발생 초기에는 침몰된 세월호 부근에서 선박을 통한 해상구조와 헬기를 통한 공중 수색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초동구조에 민간 어선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48][273]

잠수요원

잠수요원들은 우선 수면에서 선체까지 가이드라인(유도선)을 연결한다. 이 선은 빠른 유속과 가시거리가 10~20cm에 불과한 사고 현장에서 잠수요원들이 안전하게 선체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길이다. 물속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짚어가며 움직여야 한다. 또한, 빠른 유속 때문에 유도선을 연결하더라도 선끼리 꼬일 수 있고(꼬이면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잠수요원의 마스크까지 벗겨질 수 있다. 꼬인 선을 정리해가며 선체로 진입이 가능한 선실과 화물칸 입구, 조타실 등에 도달한다. 그리고 선을 그곳에 매어 놓으면, 그때부터 선체진입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진입 입구를 확보하고, 다시 자신의 몸의 생명줄을 이은 뒤 선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한다. 선체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므로 방향을 잃게 되면 선체 내에 고립되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선체로 진입 후에는 휴대 조명 장비로 매우 혼란스러운 선체 내부를 일일이 눈으로 수색해야 한다. 그러나 수심에서의 작업시간은 최대 30분에 불과하여, 잠수요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 따라서 고도로 훈련된 일부 잠수요원만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274]

또, 잠수요원들이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소통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스쿠버 다이빙 방식이며, 둘은 공기호스가 연결된 다이빙 헬멧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머구리 방식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머구리 방식은 탁 트인 수중에서 수중 작업을 위한 용도이며, 세월호의 선체를 굽이굽이 들어가서 작업하려면 생명선이 꼬이거나 절단될 위험이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스쿠버 다이빙 방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만 작업할 수 있다. 수심 30 미터에서 수면으로 올라오는데, 잠수병의 문제로 천천히 부상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급부상을 브라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잠수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지속해서 머구리 방식을 주장했다. 머구리 방식은 그만큼 잠수병 확률도 높지만, 머구리들이 다이빙 헬멧을 쓰고 서해 40미터 해저 바닥을 3시간 동안이나 걸어다니면서 키조개를 캘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작업 한계는 20~30분이 아닌 3시간이다. 결국, 정부는 투입에 반대하다가 투입을 허가했는데, 머구리들이 투입후 선체 내부 진입에 최초 성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기 시작해 22일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방식이 머구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275][276]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7월 11일 예정된 미국 수중재호흡기 잠수팀의 검증잠수가 작업현장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미국 잠수팀이 철수하기로 했다고 다음날인 12일에 밝혔다. 수중재호흡기(Rebreather) 잠수는 잠수사가 내쉰 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 잠수시간을 최대 6시간까지 늘리는 잠수방식으로 대책본부는 검증작업을 거친 후 세월호 수색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사고해역 검증 잠수현장에서 미국 잠수팀이 갑자기 "침몰지점 해상에 정박한 바지 탓에 잠수사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바지가 없는 상태에서만 잠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고대책본부는 "'나이트록스' 잠수방식을 주력 잠수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중재호흡기 잠수를 보조 수단으로 병행할 예정인 현 상황에서 바지를 철수해 달라는 미국 잠수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수중재호흡기 투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246]

나이트록스는 잠수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산소 농도를 높인 기체를 말하며, 이 기체를 쓰는 잠수 방식이 나이트록스 잠수다. 잠수사들이 들이마시는 기체만 달라진 거라서 외관상 달라 보이는 건 없다. 하지만 기존의 '표면 공기 공급 방식'이 산소 농도가 21%인 일반 공기를 썼던 반면, 나이트록스 잠수사들은 산소 농도가 28%까지 올라간 기체를 공급받는다. 이 기체를 마시면서 잠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2배인 최대 60분까지 잠수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색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정밀 수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자칫 나이트록스 방식을 잘못 쓰게 되면 산소 중독으로 인한 잠수병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 시기를 늦춰왔었다.

공기주입 및 리프트백 설치

공기주입은 선체 내에 공기호스를 주입하여, 혹시 모를 선내 생존자들의 생존시간을 늘리는 역할과 부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체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중력에 상응하는 부력이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는 부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일종의 부력주머니인 리프트백과 공기주입을 정부는 추진하였다.[277]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알파잠수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논평했다. 공기주입은 사람이 있을 만한 곳에 해야 함에도, 제일 상갑판인 조타실에 공기주입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타실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공기가 주입되어 다른 쪽으로 공기가 퍼져 에어포켓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오히려 공기주입은 일단 조사 후, 식당 등 사람이 살아 있을 확률이 있는 곳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8일 진행된 정부의 리프트백 설치 양상이 단지 배가 거기 있다고 표시하는 어떤 풍선처럼 돼 있을 뿐, 어떤 부력을 작용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278]

선체 절단

5월 1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붕괴 위험이 확인된 곳은 5층 선수 승무원 객실 통로와 중앙 특실 통로, 4층 선수 좌현 8인실 통로와 선미 30인실 통로 등 4곳이다.[142] 이런 상황으로 잠수 수색이 불가능한 구역이 생기자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족들은 애초 실종자 유실 위험 때문에 주저했으나 정부가 선체 부근과 외곽에 3차에 걸쳐 유실 방지를 위한 에어백과 그물, 안강망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한 명의 유실도 없이 시행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절단은 4층 선미 우현부터 우선 추진하며, 절단 방법은 1차적으로 산소 아크 절단법을 사용하고 2차 대안으로 초고온 절단봉이 제시됐다.[279]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30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2시 10분께 4층 선미 창문 3곳의 절단 작업을 시작, 현재 창문 하단 가로 4.8m를 절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된 '수색구조지원 장비기술 연구 전담반(TF)'회의에서는 4층 선미 절단 진행 상황 점검과 전날 오후 가족들이 건의한 4층 선수 구역 절단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80]

조류 및 가시거리

선박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방법은 잠수요원 투입이었다. 잠수요원은 선박인근 및 선박내부를 수색했다. 그러나 맹골수도의 특성상 조류가 빠르고, 가시거리가 10~20cm 밖에 되지 않아 잠수요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281]

기상

기상 역시 사고 수습을 더디게 했다. 심지어 17일 오후에는 기상상황이 나빠져 구조가 중단되기도 하였다.[282]

저체온증

박준범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0도~15도 사이의 물에 사람이 한두 시간 정도 있게 되면 이미 의식을 잃어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한두 시간이 지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고요"라고 언급하였다. 위급한 상황에는 심장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과 심방 및 심실세동, 심하면 심장정지까지 올 수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 인체는 근육을 통해 열을 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육양이 낮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 저체온증상태가 되면 구조과정에서도 작은 충격으로 심한 부정맥이 오거나 출혈이 생기기 쉬워 주의를 요한다.[283]

에어포켓

사고 초기 일부 전문가들이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던 것은 에어포켓이다. 정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명예교수는 배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이유를 "컵을 물속에 엎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았고, 다행히 선수 부분은 손상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갇혀 있는 거죠. 소위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에어포켓에 공기가 8㎥ 가량 있다고 가정하면, 마지노선은 최대 72시간으로 계산된다[284]. 한편, 가라앉지 않은 부분에 의해 추산되는 선내 공기량은 500~1000㎥였다. 대서양에서

는 선박전복 사고 후, 선원이 에어포켓에서 60시간을 버티다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기에, 에어포켓에 의한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많았다.[285][286] 정부는 에어포켓에 희망을 걸고 세월호에 공기를 주입하기도 했다.[287] 그러나 결국 에어포켓에 의한 생존자가 나오지 않았고, 에어포켓 관련 보도와 정부의 대응이 결과론적으로는 유가족들에게 '희망고문'이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288]

격실

격실이란 사고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시켜 만든 공간으로 대부분의 선박은 이 격실들을 갖추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는 "지금 상황은 천안함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며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으려면 수밀격실이 돼야 하는데 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급격히 뒤집히는 대 혼돈 속에서 문을 닫는 조치가 취해져 있을지 비관적이다"고 말했다. 격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을 닫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격실에 에어포켓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48시간을 버틸 수 있다.[289]

1·2차 수색 관련

사고 발생 3개월이 다 돼가도록 정부가 주먹구구식 수색 계획을 내놓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을 샀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6월 30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오전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밀 수색 및 7월 수색 계획 설명회가 예정됐으나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수색 계획이나 잠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부실한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설명회를 중단하고 수색 계획 재수립을 요구했으며,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이 어디인지, 무슨 근거로 추정하는지도 없고 2층 화물칸 진입 통로 수색 여부, 잠수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 등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잠수사 교대 투입, 휴식 보장을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현재 이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리브리더(수중재호흡기) 등 시속 1.8노트 이상의 유속에서도 장시간 잠수가 가능한 새로운 잠수기법과 30m 수심에서 25분, 40m 수심에서 10분 정도인 현행 잠수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도입이나 장마 등 기상 여건 대비책 등 가족 및 수색구조 TF 전문가들이 검토를 요청한 사안들이 빠져 있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대책본부 측은 이에 대해 "실종자 잔류 추정 구역은 예약 현황,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라며 "해당 구역을 수색했음에도 찾지 못한 실종자의 경우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렵다"고 해명, 당장 개선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2층 화물칸은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차량과 화물로 인해 잠수사 투입을 통한 수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이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색평가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가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 중 5명 내외를 선정해 자문 활동을 요청할 계획이다.[223]

구조팀은 지난 6월 6일부터 1차 정밀 수색을 진행하고 6월 20일을 1차 수색 종료 시점으로 발표했으나 두 차례 연기하였고, 6월 30일에 수색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실종자 가족들의 반대로 취소됐다.[225]

지원 헬기 추락 사고

이 부분의 본문은 광주광역시 소방헬기 추락 사고입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2014년 7월 17일에 춘천으로 복귀하던 강원도 특수구조단 소속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순직하였다.

사고 원인 및 책임자 수사

이 부분의 본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사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다. 해경은 4월 17일 긴급 브리핑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등 선박직 승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침몰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임을 알렸다.[290] 이후 4월 19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도 무리한 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그러나 다른 여러 원인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조타기의 결함, 과적 화물의 느슨한 고정, 암초 충돌이다.[291] 이후 5월 13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문제,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문제,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덜 채우는 대신 그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실은 문제, 물살이 유난히 빠른 맹골수도에서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까지 한 상황문제 등이다.[292]

가설들

다음은 침몰에 대한 가설들이다.

암초충돌설

사고 발생 초기에는 언론이 안개에 의한 암초 미발견으로 인한, 충돌가능성을 집중 조명하였다. 생존자 중 일부가 들었다는 '쿵' 소리와 당시 기상상황이 안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었다. 백점기 부산대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장은 배의 좌초로 인한 사고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293][294] 하지만 이 주장은 해당 해역에 암초가 없으며, '쿵' 소리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에 따라, 유력한 사고원인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295][296][297]

구조결함설

세월호와 같은 로로선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자주 지적되던 선박이다(로로선 사고 목록 참조).[298] 2009년 11월 일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하여, 마루에이 페리사가 운행하던 아리아

케호가 침몰했다.[299] 이 선박은 과거 세월호가 나미노우에호로 활약하던 시절 운행한 해운사가 동일했고 선박 디자인과 배수량이 유사한 로로선이다.[300] 2009년 아리아케호 사고 직후, 마루에이 페리는 동일 선박인 나미노우에호를 2012년 퇴역시켰다. 그것을 청해진해운에서 싸게 수입하여 1년간 개조하였으며, 2013년 3월 이름을 세월호로 개명하고 운행을 시작하였는데 1년 1개월 만에 좌초된 것이다.[301] 한 해상전문가는 "선체가 그렇게 빨리 기운다는 것은 선박 복원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는 선박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302]

구조변경설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김길수 교수는 사고의 원인이 구조변경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수입된 뒤,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을 증설하였다. 3~5층에 객실이 증설되었고 승선정원은 181명 추가된 921명으로 많아졌으며, 선박 무게도 239t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게중심이 원래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배를 급격히 돌린다고 전복이 되지는 않는다" 며 "구조 변경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다면 내·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가 뒤집힌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등록 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 관계자는 "객실 증설은 합법적인 공사, 점검 결과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등록 검사를 정상 통과했다" 고 밝혔다.[303] 한편, 객실만 증축한 게 아니라, 배 앞쪽 램프웨이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구를 줄이면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고, 배 전체 무게가 가벼워져 그만큼 객실 증축에 유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쪽에만 있던 램프웨이를 없애면서 오른쪽이 너무 가벼워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304]

변침설(항로변경설)

변침(變針) 이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항로를 변경한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급격한 변침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가 좌로 기울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임긍수 목포해양대 해양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세월호 여객선 참사 원인이 암초가 아닌 급선회에 따른 외방경사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그는 유속이 빠른 해역에서 선박이 회전하게 되면 선체가 5~10도 가량 기울게 되고 그 영향으로 선체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나 화물이 한쪽방향으로 쏠려 선박과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발생한 '꽝' 소리는 결박된 화물들이 풀리면서 선박에 부딪혀 발생한 소리로 보고 있다.[295][296] 이 설은 17일 해경이 긴급 브리핑에서 잠정 결론으로 발표한 견해이기도 하다.[305] 그러나 세월호에 실려있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선체가 10초만에 52도까지 급격하게 기울고 난 뒤에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변침이나 화물쏠림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선체가 기우는게 확인되었다.[306] 또한, 2014년 국내 선박해양연구소의 모형항주실험을 통해, 2014년 당시 검찰이 주장했던 세월호 급변침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4년간 은폐되었다가 2018년 3월이 되어서야 연구사실이 밝혀졌으며,[307] 2018년 1월,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수백번 실행했으나, 어떤 경우의 수를 두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항적을 그리지 않았다.[308]

내부폭발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와 임교수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변침은 침몰의 1차적 사고 원인이 아니다. 배가 이미 기운 상태에서 변침을 시도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는 "조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타 장치를 작동해 봐야 무용지물이다"면서 "내부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컨테이너에도 무엇이 실렸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초설에 대해서는 해양 조사원들이 해도에 항로에 있는 암초들을 기입해둘 뿐 아니라 승무원들도 그 항로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며 암초에 의한 좌초가능성을 일축하였다.[309]

과적 및 선체결함설

이 견해는 2014년 4월 19일자 오전 10시경 부산일보와 그날 오후에 종편 방송사 JTBC에서 제기한 것이다. 부산일보 4월 19일자 보도 상,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세월호는 4월 15일 출항 전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조합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세월호는 화물 1천157t, 차량 180대를 싣고 있었기에 이는 화물은 무려 500t, 차량은 30대를 초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곧 화물 500t 차량 30대 초과한 상태에서 밧줄로 제대로 묶지도 않았기에 선박 하중조절 실패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견해이다.[310]

한편 세월호에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기관사는 먼저 선박이 회전을 할 때 균형을 잡아주는 선박 양 측면의 스태빌라이저가 결함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스태빌라이저는 선박 측면에 날개 모양의 형태로, 선체의 안과 밖을 반복적으로 왕복한다. 급회전 시 이 스태빌라이저가 작동하지 않으면 배가 기울어져 버린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화물의 과적재이다. 이에 대해 청해진해운 측은 과적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JTBC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세월호의 전체 중량은 6,825톤인데, 이것은 선박 자체, 화물, 승객, 연료 등의 무게를 모두 더한 수치다(만재배수톤수). 이 무게를 넘어서게 되면 과적이 돼 출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세월호 배 자체의 무게는 3,031톤, 선사 측이 밝힌 화물과 승객 무게는 3,638톤이다. 모두 더하면 6,825톤을 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배의 연료와 평형수 등의 무게가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연료로 쓰인 벙커C유와 내부 발전용인 경유를 환산한 무게는 약 160톤으로 이를 더하면, 6,825톤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윤종희 한국해양대 교수는 "모든 것을 실은 상태에서 거기 화물도 있고, 연료·물·선용품 음식 등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도 다 포함돼요."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평형수 문제 역시 선박의 동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는 침몰되기 한 시간 전인 7시 40분경부터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이른바 평형수 탱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평형수 탱크는 선박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데, 좌우 3

개씩 모두 6개의 물탱크로 이루어져 있다. 평형수는 해수를 담아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춰준다. 그런데, 최근까지 세월호에서 일했던 전직 선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물이 한쪽으로 실리는 경향이 있어요. 한 번 물을 딱 맞춰 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즉,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JTBC는 평형수 시설이 2월에 수리를 하고, 안전점검까지 받아 통과했지만 그 이후에도 선원들은 전혀 고쳐진 바가 없다고 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스태빌라이저 역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했고. 적재된 컨테이너 역시 쇠줄이 아닌 밧줄로 묶여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311][312] 그러나 네티즌 '자로'의 다큐멘터리 '세월X'에 의하면 당시 세월호는 과적을 한 것이 사실이나 참사 당시보다 적게 실은 날이 단 4번 뿐이었고, 3배 이상 과적하여 운항한 날도 있어 이 가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느슨한 결박설

세월호 전 항해사 김모씨는 4월 21일자 JTBC 뉴스 9 손석희 앵커와의 대화에서 스태빌라이저나 평형수, 변침 등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침몰한 세월호는 결박을 제대로 안했을 것"이라 했다.[313] 또, 인천항 선박의 화물 결박을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인천항운노조는 컨테이너 결박에 꼭 필요한 라싱바와 브릿지피팅 같은 전문 장비가 세월호에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밝혔다.[314

책임론

승객들을 선박에 두고 1차 탈출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세월호 사고의 공학적·물리적 분석에 따른 직접원인보다 근본원인을 지적한다. 선박이라는 한 집단의 범위 내에서는,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항해와 승객 구조임무 책임을 지닌 리더인데, 그들의 리더십 부재가 세월호의 침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몇 가지 근거로,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약 2시간) 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시기적절한 유효 조치가 없었다는 점, 오히려 방송 지시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이 생존율이 높았다는 점, 선장 이준석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뒤로 하고 1차 탈출했다는 점을 든다. 따라서 이 분석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문제가 리더들의 판단착오와 책임감 부재로 인재(人災)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구원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해진 해운 직원 대부분이 구원파 신도들이다.[316][317][318] 한편,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사고 직전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319]

2014년 4월 17일 오후 9시에 인천항에서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대표가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320]

대한민국 사회

세월호와 대한민국 사회를 유비추론한 사회 전반의 책임론이 대두된다. 조선일보 이종현 기자는 "침몰하는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라며, 세월호의 핵심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하는 모습을 위기에 처하면 몰래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 국회의원 같은 한국 사회지도층의 모습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과 해군을 믿지 못하고 민간 잠수부 투입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 해경이 민간 잠수부 투입을 막고 조롱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더 힘을 얻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정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잃은 결과라 지적했다.[321]

여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구조된 생존자들 대부분은 병원들로 이송되었다. 생존자를 진찰한 의사는 "이송된 환자들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한동안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면서 "정신 검진과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이외에도 주변인이나 구조인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고 당일 5명으로 구성된 심리치료팀을 생존자들이 입원한 안산 구로병원에 보내 심리 지원을 시작했으며, 17일에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소방방재청, 경기도 등과 함께 '중앙재해 심리지원단'을 꾸려 진도 사고 현장에 내려 보냈다.[322]

자살

4월 18일 오후 4시 5분 경, 수학여행 인솔자로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강민규 교감이 전남 진도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323] 교감의 지갑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며 시신은 화장한 뒤 사고 해역에 뿌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다.[324] 자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남겨두고 구조된 것에 대해 주위에 "나만 혼자 빠져나온 것 같아 괴롭다"고 호소했으며, 그런 가운데 여객선 침몰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단원고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왜 당신만 살아 돌아왔느냐"는 등 강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25] 강민규 교감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 후 1987년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윤리 과목을 가르쳤다. 2012년 3월 교감으로 승진하였으며, 2014년 3월 1일자로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하였다.[출처 필요]

5월 30일 오전 4시 57분께 화랑유원지 내 주차장에서 A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A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편지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세월호로 숨진 학생들을 추모한다. 어른이어서 미안하다. 지갑에 든 돈(70여만원)을 유족들을 위한 성금으로 써달라. 시신은 기증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326]

7월 5일 전남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께 진도군 군내면 신기리 무조리선착장 앞 해상에서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의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어민이 발견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지난 달인 6월 26일 오후 9시 26분께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교에서 투신했다. 김모 경위는 참사 이후 투신 전까지 팽목항

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지원업무를 해 왔으며 업무 피로와 승진 등의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327]

자살 기도

4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참고인 신분이었던 세월호 기관사 손모(58)가 자살을 기도했으나 동료와 모텔 직원의 신고로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328]

5월 9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대 안산병원 관계자는 "A씨는 약물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행히 환자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329] 11일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40분께 정부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기실 인근에서 서모씨가 자살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서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이던 중 유가족 대기실 뒤편에서 허리띠를 풀어 목을 메 자살을 시도하려는 서씨를 발견했다. 서씨는 가족과 함께 귀가 조치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330]

구조인력 인명피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4월 27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색 지점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잠수병 증상을 호소하는 대원들도 늘고 있어 잠수사 1명당 1일 투입횟수를 최소화하고 휴식을 안배하며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31]

5월 1일, 오전 1시 15분께 민간 잠수사 김모(40)씨가 경상남도 사천시의 삼천포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전남 진도 해역에서 세월호 수중 수색작업을 마치고 나서 바지선 위 감압챔버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응급조치를 받고 의식은 회복했지만 극심한 두통 등 잠수병 증세가 심각해 삼천포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곧바로 고압산소치료센터에서 수심 40~50m 정도의 환경인 6대기압으로 김씨를 4시간 50분 동안 치료했다. 치료를 받은 김씨는 두통이 완화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으나 골반 통증 등을 호소해 잠수병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다.[332] 이 같은 일은 2일, 14일, 17일에도 여러번 발생하였다.[155]

5월 6일,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이모씨(잠수사)는 새벽 6시께 유속이 약해지는 정조시간에 맞춰 사고해역에서 선체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5분만에 교신이 끊겨 다른 잠수부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7시 10분께 환자가 이송돼 왔는데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모씨는 마린 인더스트리 측이 임시로 고용한 잠수사로, 희생자 수습작업에는 이날 처음으로 투입됐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131][333]

5월 7일 오후 8시 20분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대기 중인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에서 해양경찰청 인천 항공대 소속 정모 경사가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졌다. 정 경사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인천에서 24시간 근무를 한 뒤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 수색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사는 이날 오후 8시 20분 교대 근무를 마친 뒤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혈압 수치도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135] 그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4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2주일 정도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7]

이처럼 잠수사들의 인명피해가 빈발하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5월 19일 "바지선에 기존 물리치료사 3명 외에 7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며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침술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의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334]

5월 21일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전남 진도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 중이던 이모 경장이 허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161]

5월 30일 선체 절단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 1명이 숨졌다. 잠수사 이씨는 4층 선미 외판 절개를 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입수했다. 이어 2시 20분께 이씨가 작업을 하던 부근에서 충격음이 들렸고 이씨는 얼굴 등에 피를 흘린 채 다른 잠수사에 의해 20여 분만이 2시 40분께 구조됐다.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씨는 인근에 있던 헬기에 의해 목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숨졌다.[175]

해경은 6월 17일 낮 12시 40분께 사고해역 인근에서 수색지원 중이던 해경대원 진모씨가 3000톤급 해경 3011함에서 1512함 소속 단정으로 이동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며 단정 의자에 옆구리를 부딪혔다고 밝혔다. 진씨는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 3개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202]

경남 사천시에 있는 삼천포서울병원은 세월호 구조 수색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13명이 잠수병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과 11일 언딘 소속 김모(31)씨 등 11명과 해경 소속 백모(39)씨 등 3명이 피로 누적과 두통, 전신 통증을 호소해 이 중 13명이 입원했다. 특히 김씨는 급성 경추 디스크 증상으로 수술했다.[335]

구조인력·장비 조정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다음달부터는 세월호 수색 잠수사와 해군함정 등 인력과 장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9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해군 관계자 등이 지난 21일 수중탐색 협조회의에서 오는 7월 15일까지를 목표로 수중탐색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연장 여부는 유가족 반응과 탐색결과를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수색에 지친 해군 잠수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 잠수사 수를 7월 1일부터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15일 이후에는 현재 기준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내부 방안이 제시됐다. 이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일부터 해군 SSU 잠수사가 현재 109명에서 70여 명으로, UDT 잠수사가 현재 89명에서 60여명으로, 총 198명에서 160여명으로 줄어든다. 7월 15일부터는 현재의 절반가량인 100여명의 잠수사가 현장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계획에는 또 물살이 거센 대조기, 중조기

에는 잠수사들을 전원 철수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대조기, 중조기에도 조류의 흐름을 지켜보며 현장 바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장비지원도 줄어들 전망인데, 우선 독도함은 정비와 훈련 참가를 이유로 다음달 15일께에는 진도 해역을 떠나 진해 지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또 실종자 감소로 현장구조지휘본부 역할이 감소했다며 지휘본부 인원도 현재 28명에서 18명으로 줄여 해군 3함대 사령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구조팀은 1차 정밀수색이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에는 해군, 해경, 민간이 각각 맡았던 수색 구역을 교대해 다시 정밀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336]

스미싱

세월호 침몰 사고 뉴스를 전하는 내용으로 위장한 스미싱이 발생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8일 세월호 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추가로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스미싱 문자와 연결된 악성 애플리케이션 유포지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337]

각 교육청 조치

경기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예정된 소재 각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을 보류하였다고 밝혔다.[338]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내 모든 초, 중고등학교에 현재 계획 중인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즉각 취소하라고 지시했다.[339] 그리고 18일, 공식 보도 자료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청소년 단체 활동 학생 안전사고 예방안내'(2014. 4. 16.) 공문에 4월 21일 실시 예정인 관내 학교 6개교(초 5, 고 1)의 제주행 수학여행을 취소 및 보류하였다고 하였다.[340]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이 답보되지 않은 행사는 학교 구성원의 사전협의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중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던 서대전고등학교와 서일여자고등학교 가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341]

기름 유출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세월호는 벙커C유 120㎘, 경유 50㎘가 적재된 상태로 침몰하였다. 이에 대한 여파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까지는 세월호 주변 100m 반경에 엷은 유막이 형성됐지만 하루 만에 훨씬 짙은 기름띠로 변했다.[342]

세월호의 의인들

세월호 승무원 박○○(23)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며 탈출을 도우며, 배에 끝까지 남아 있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생존자인 학생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가 기울면서 3층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는데, 승무원 누나가 뛰어내리라고 해 바다로 뛰어 내려 목숨을 구했다.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구명조끼가 모자라 승무원 누나가 학생들에게 조끼를 양보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누나는 왜 조끼를 입지 않느냐."고 묻자 "너희들 다 구하고 나도 따라 가겠다."라고 답하였다고 전했다. 덕분에 그와 함께 있었던 학생들은 모두 구조되었다고 전해진다.[343] 그 외에도 선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다가 실종된 선원은 더 있었다. 세월호 사무장 양○○(46)은 아내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수협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이 등록금으로 써."라고 말했다. "아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양 사무장은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길게 통화 못해. 끊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344] 또,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28)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28)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345][346]

단원고등학교 2학년 6반 담임교사 남○○(36)은 16일 오전 10시쯤, 선실 비상구 근처에 있어 탈출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는 등 대피를 돕다 사망하였다.[347] 2학년 5반 담임교사 이○○(33)은 난간에 매달려 있는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실종되었고, 체육교사 고○○(43)도 제자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탈출을 돕다가 본인은 나오지 못했다.[348] 최○○ 교사도 사고 상황 속에서 SNS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구출하였다. 이후 그녀는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교사 김○○ 역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349] 구조된 후 자살한 교감 강○○(52)은 앞장서 출입구를 열고 올라가 "너희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힘이 들더라도 여기로 올라와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대학생 일행의 탈출을 도왔고, 먼저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빨리 나와라. 이쪽으로 와라."고 외치며 끝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나중에야 배에서 빠져나왔다.[350]

단원고등학교 학생 정○○(18)은 아수라장이 된 선실에서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주고, 물이찬 선실에 갇힌 친구들을 구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끝내 사망하였다.[351] 단원고등학교 학생 양○○ 역시 침몰 직후 갑판으로 나와 구조될 수 있었으나 선실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다시 물이 차오르는 선실로 들어갔고 끝내 나오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352]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 배가 기울자 여학생 방을 찾아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대피하라고 알리고 여학생을 직접 끌고 올라오는 등 20여명을 구해냈다.[353] 단원고등학교 학생 박○○ 역시 울고 있던 어린 아이를 급히 업고 구명보트에 뛰어올라 둘 다 생환할 수 있었다. 박군은 "나도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부모를 찾으며 울고 있는 아이를 두고 먼저 나올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354][347]

배관 설비사 김○○(59)은 제주도에 있는 건축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중 사고를 겪었다. 그는 배가 기울어지던 30여분 동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 선박 1층에 있던 학생 20여 명을 6~7m 가량의 위층 난간으로 올려주었고 그 자신을 포함하여 이들은 모두 생환하였다. 그는, 그 사이에 1층에는 물이 가득 차는 바람에 더 많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355] 화물 운전기사 김○○(50)은 사고 당시 여객선 3층 화물운송 기사 전용 객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배가 기울자 일반 객실이 몰린 4층으로 이동해 호스와 밧줄을 던져 10여 명의 사람들을 구하고 생환하였다. 특히, 그가 구한 이들 가운데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가다가 사고를 당한 어린이 권지연(6, 여)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356]

의사자 지정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였다.[345]

인천광역시는 5월 23일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며, 유족의 동의를 얻은 뒤 목격자 진술, 필요 서류 등을 갖춰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췄다"며 "복지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민적 여론이나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의사자 인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사무장은 세월호 고위 승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배를 지키다가 끝내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다.[357]

사고 초기부터 이들 '살신성인' 교사들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누리꾼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사자' 신청은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 유가족들은 '순직' 처리를 통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숨졌다'는 점을 입증해 의사자로 등록하기 보다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희생당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용이해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모든 교사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희생되거나 실종된 교원 12명 중 기간제 교사인 2명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사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 한편 유가족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단원고 교사와 학생들을 전원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의견이 나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58]

그날, 바다

김지영 감독, 김어준 제작의 다큐멘터리 영화. 프로젝트 부(Project 不)에서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20억 3천만원의 시민 후원을 통해 3년간 제작되었다. 2018년 4월 12일 개봉되어 54만명이 관람하였다. 세월호 항적 분석, 생존자 진술, 적재 차량 CCTV 분석자료 등의 교차검증되는 사실을 근거로 가설을 제시하였다.

세월X

일반인 신분인 네티즌 '자로'는 세월호 참사를 직접 수사하여 세월호에 대한 의문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세월X'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공개하였다. 세월X는 8시간 49분 짜리 필리버스터 다큐멘터리로, 현재 정부에서 공개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반박하였다. 또한, 자로는 세월X를 통해 모든 과학적 증거를 이용해 세월호는 외력에 의해 침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교수-학습 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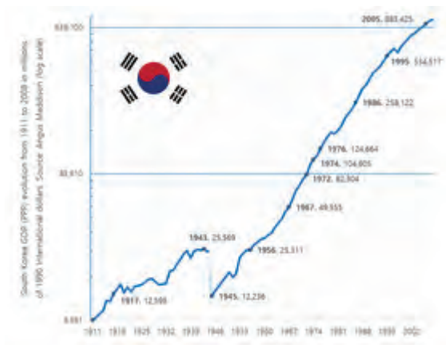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학습 목표	1.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는 인성을 기른다. 2. 고통 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5분) :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본다.		
전 개	1. 광주 대단지 사건 (15분)	현재의 성남시는 큰 도시이지만,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서울의 철거민들이 살던 곳이었다. 성남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15분)	경기도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며, 반올림의 활동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른다.	
	3. 세월호 참사(10분)	2016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진실을 감추려는 권력을 무너뜨린 촛불혁명까지 과정을 살펴본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 이웃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함께 해봅시다(30분)	경기도에서 일어난 수 많은 사건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지 생각해 봅시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함께 잘 살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생각해 보는 수업이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5.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다음 자료를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위의 두 그래프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에만 해도 아시아 최빈국 중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전태일(全泰壹, 1948년 9월 28일~1970년 11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이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가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가 함께 해고되었다. 이후 한미사의 재단보조로 있다가 재단사가 사장과의 갈등으로 해고되자, 그가 재단사가 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년 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1969년 6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하고,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던 중 다시 왕성사의 재단사로 청계천으로 돌아와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년 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로 분신 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11월 27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 운동이 재확산되었다.

[생각더하기]

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에게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알려 줄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과정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



내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



6. 교사 참고자료

〈 반올림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들이 집단 백혈병에 걸리자 진상을 규명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본래 명칭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인데, 이를 줄여 반올림이라고 부른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당시 23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자그의 부친이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급여지급도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발족됐다.

반올림은 삼성 반도체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삼성전자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황유미 씨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2년 9월,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관련 대화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됐다. 반올림은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비공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해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첫 본협상이 진행됐으나 피해자 가족 위임장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다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혀, 반올림 출범 7년 만에 공식사과와 보상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2014년 9월 반올림 유족 및 피해자 대표 6명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발족시키고 11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발족되면서, 협상은 조정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8년 7월 24일에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조정위가 중재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조정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조정위는 8~9월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9월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중재안에는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전자의 사과, 반올림의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실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7. 참고문헌

[참고자료]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연합뉴스

권홍우의 경제소사(8월 10일) 1971년의 개, 돼지 광주대단지 사건

반올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708&cid=43667&categoryId=43667

[도서]

박일환, 반올림,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2010, 삶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16특위,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9교과서』, 2016

[영상자료]

영화, '그날', 2018, 오일권 감독

영화, '다이빙벨', 2014, 이상호, 안해룡 감독

영화, '나쁜나라', 2015, 감독 김진열

15차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1.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의 노력

가. 시화호

1)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시작

시화지구 매립공사는 1975년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촌공사)의 서남해안 간척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1977년 6월 대통령의 반월 신도시(현, 안산시) 건설현상 순시 때에도 거론됨.(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 5)

80년대부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이 크게 위축되자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중장비의 활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1985년 8월 30일 경제기획원장관이 대통령에게 서남해안 간척계획 중 시화지구 개발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됨.(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 5)

1987년 6월 10일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고 방조제 이후 6년 6개월의 공사 끝에 1994년 1월 24일 시화지구 2호 방조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시화담수호가 탄생함.

2)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목적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대단위 국토확장과 도시개발을 통하여 고용증대는 물론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내 신규 공업용지, 농업용지 및 용수 확보 등 다목적을 가진 사업임.

시화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생성된 시화호는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후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가능한 담수호가 조성되리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주변 도시로부터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시화호의 환경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음.

3) 시화지구 개발 개요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1, 2단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현재의 시화공단과 배후주거지단지, 그리고 시화방조제를 시행하였고, 2007년 8월 1단계 확장사업인 시화MTV사업 기공식을 가졌으며, 시화호 남측간석지(송산그린시티)는 2단계 사업으로 도시개발 및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함.(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 5)

가. 시화호 20년 무엇을 남겼나?

1987년 방조제 공사가 착수되고 1994년 시화호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물을 가둔지 2년 만에 시화호는 '죽음의 호소'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 현장이 되었다. 그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 총 5301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2006년 평균 COD는 4.7pmm(3등급)에 머물러 2등급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앞으로 7187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질개선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화호가 생긴 지 20년. 시화호 북쪽 280만 평 간석지에 시화 멀티테크노밸리가 2007년 8월에 착공될 예정이고, 남쪽 간석지(3000만 평)에는 대규모 농지가 조성중이다. '송산그린시티' 같은 도시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방조제 건설을 밀어 붙였던 과거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시화호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시화호가 최악의 수질오염을 일으킨 국책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다. 친환경적 개발이란 이름으로 시화호에 또 다른 방조제를 설치하고 있다. 시화호의 또 다른 재앙이 멀지 않은 장래에 또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재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계획의 실패와 실패의 반복

시화호는 방조제를 막아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시작됐다. 1994년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료 전까지 시흥, 안산시 등 유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지연됐다. 미처리 오폐수가 시화호로 그대로 유입됐다. 시화호 수질은 급격히 악화됐다. 더군다나 착공 당시와 비교할 때 유역 내 인구가 5배 늘었고, 공장 가동숫자는 2.5배, 가축 사육 역시 4배로 급증했다. 반면 오폐수 처리율은 50퍼센트에 그쳤다. 저층배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중금속에 오염된 물들이 수문 아래 고여 빠져 나가지 못했다.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않고 시작된 담수화는 필연적으로 죽은 호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시화호 수질악화의 주원인으로 주변지역개발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변지역개발 계획이 부적절했거나 아니면 환경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화호 문제는 '계획의 부재' 내지 '계획의 부적절'이 빚어진 결과인 셈이다.

그 후 해수유통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시화호는 부분적으로 되살아났다. 2000년 이후 4~5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 악화를 초래했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선 시화호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한 일종의 환경용량관리가 같은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부재로 시화호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획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실패 준비

지난해 정부는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이하 시화종합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시화호와 주변 지역을 아우르면서, 6개 국책기관이 참여했다. 시화호 관련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시화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시화호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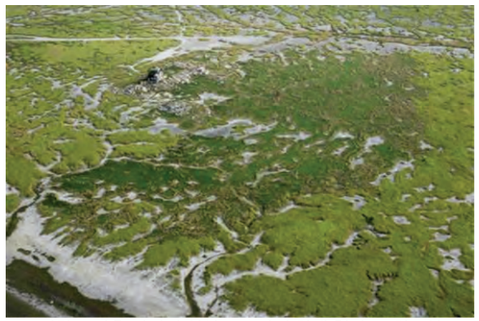
북측 간석지공단 앞 수십만 마리의 도요새 ⓒ 최종인

해수유통 이후 시화호 환경은 자연천이를 통해 일정하게 회복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사가 약화됐다. 그러면서 시화호 호안의 광대한 간석지들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역사회의 동의 절차를 위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협의회)는 개발계획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운영됐다. 때문에 시화종합계획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 간 대립이 일어났다.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과 생태환경 복원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시화 MTV 사업이 대표적이었다. 시화 MTV 사업은 시화호 북측간석지를 매립해 친환경적인 공단을 건설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화공단 환경개선 기금(4500억원)으로 충당한다는 명분으로 1996년부터 추진돼 왔다. 결국 시화 MTV 사업의 반환경성을 주장한 일부 지역시민단체들이 2006년 시화협의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① 새로운 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필요성이 있다면, 기존 유휴공단부지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고 함). ② 280만 평의 용지 중 상업용지와 자원시설용지가 22.5퍼센트로 너무 과도해 반환경적이다. ③ 수변과 인접해 비점오염원 부하가 직접 수체로 유입돼 수질 악화는 물론, 대기오염까지 악화시킬 것이다. ④ 280만 평 매립을 위해 대부도 등의 아름다운 산들을 파괴할 것이다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화협의회를 통해 동의를 구했다는 이유로 MTV 사업은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이다.

시화종합계획은 시화지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지구를 국토 공간상에서 하나의 '개발공간'으로 간주하고 환경을 담보로 하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 이는 주변지역 전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예. 개발억제를 우선하면서 지역의 생태순환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관리) 시화호의 환경복원을 도모해야 한다는 접근과는 상반된다.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간주되는 시대다. 하지만 시화종합계획은 여전히 개발중심의 구 패러다임에 갇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실패를 준비하고 있다. 시화호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은 까닭은 계획의 실패와 실패의 반복에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갯벌에 죽은 조개들이 하얗게 깔렸다 ⓒ 최종인



시화호 남측 간석지 위성류 군락지 화재 현장 ⓒ 최종인

토목관료적 개발주의와 반계획주의의 합작품

시화호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개발독재 시절의 다른 대형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논의나 검토를 생략했다. 토목국가를 떠받치는 토목관료들(건설부, 농업진흥공사, 수자원공사 등)에 의해 독점적으로(토목적 방식으로) 추진돼왔다. 때문에 계획합리성은 물론 환경성은 근본적으로 결여됐다. 온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계획의 기본원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개발독재하의 '토목관료적 개발주의', 즉 반계획주의가 지금과 같은 시화호의 문제를 낳은 근본 까닭이 되었다. 또한 시화호의 문제는 주변지역의 과도한 개발로부터 발생한 '환경의 과부하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개발지로서 주변지를 적절히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적정 계획의 부재, 계획의 실패가 시화호를 낳은 또 하나의 원인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의 부재와 실패가, 심지어 '계획의 시대'인 오늘날에서 와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6년 감사원은 시화호 특별감사를 통해 '80년대 전반에 걸친 환경의식 결여가 시화호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연을 알길 우습게 알고 자연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대책 없이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조하고 개발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수질오염'이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시화호 관리대책이나 새로운 대책과 계획을 강구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자. 우리는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곧 또 다른 자연의 역습을 자초할 것이다.

시화호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먼저 시화호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더 철저한 생태주의적 관점의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여전히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 개발주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런 만큼 시화호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생태적 원인과 해결가능성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문제는 생태계의 눈높이로 돌아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호의존하면서 순환하는 틀 속에서 해석되고 처방되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단 기존의 모든 개발계획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시화지구와 관련된 개발중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돌아가야 할 시화지구의 위상은 서해안에서 생태적 다양성이 가장 풍부했던 경기만의 본래 모습이다. 셋째, 이러한 위상 설정을 전제로 시화지역을 종전의 반월특별지역에서 시화특별환경관리지역(지구)으로 바꿔 지정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법에 의거해 '시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계획의 최대 역점은 시화호의 생태환경복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화호 일대가 안정된 자연 생태계를 스스로 회복해갈 때까지 인위적인 개발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환경복원을 위한 종합적이면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든 시화호만 다루는 계획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시화호와 인근 유역권 전체를 '하나의 생태시스템'으로 묶어 도시개발, 주거지개발, 도로건설, 공단조성, 레저지구 조성, 대기질 관리, 생물종 보호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형도. 시화호 내 가장 큰 섬으로 생태공원으로 계획되었지만 2005년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 상당 부분 훼손됐다 ⓒ 최종인

시화지역에 대한 이러한 제안들은 시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 해남지역의 간척지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이용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준거모델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협치기구가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돼야 한다. 이때 협치기구는 '개발주의 영향력'이 차단될 때 비로소 '생태적 소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연천 살리기 운동

우리나라의 하천은 특히 도시지역의 하천은 칼로 그은 듯한 물길, 바짝 들여쌓은 제방, 운동기구들만 나열된 둔치, 제방 위를 달리는 차량들, 거무튀튀한 저수로와 콘크리트가 자아내는 어둠침침한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오랫동안의 중앙집권과 군사문화의 탓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성이 사라진 탓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의 하천형태를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신뢰해 왔던 탓이다. 인간을 위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활용하고, 사람들이 잠시라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하천을 조작하고 개조하는 것을 인간의 위대한 승리이며,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생명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경관이 파괴되고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천은 그렇게 수십 년간 뚜껑 없는 하수구와 홍수의 배수로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하천은 생태적으로 자신들이 품고 살아야 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교류와 문화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도시계획에서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 없는 폐허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악취 나는 하천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복개되어 주차장으로 도로로 전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려진 땅이더라도 도심의 유일한 공유지인 하천은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공간이었으며,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90년대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특히, 몇 차례의 수돗물파동을 거치면서 '하천을 살리자는 주장'은 당위적 차원이었고 비현실적인 주장이었지만 사회의 관심을 끌었으며, 막연한 책임감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들을 연출하였다. 하천살리기는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태동되었다.

초기의 활동들은 하천수질에 대해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주관했던 90년대 초의 '1사1하천운동'과 언론들이 앞장섰던 SOS(Save Our Stream)와 Green Family 같은 종류의 하천정화사업이나 캠페인들이 주류를 이뤘다. 이 때 많은 기업들은 하천변에 팻말을 꼽고 청소에 나섰으며, 행정관청들은 '국토 청결의 날'이라며 업무시간을 쪼개 하천으로 나왔다. 군인들이 하천에 들어가 비닐을 줍고, 환경단체들도 잠수복을 입고 강물에 들어가 쓰레기를 꺼내는 것이 당시의 광경이었다. 이들 운동이 실제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의미가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하천은 국민의 관심 속으로 들어 올 수 있었으며, 하수처리와 관련한 엄청난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운동들은 이후에도 조금 시들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천살리기'라고 할 시점은 90년대 중반부터다. YMCA가 하천탐사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수원천 복개에 맞서 수원환경센터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청주환경연합 등이 무심천 하상도로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양재천 자연하천 사업'을 발주하면서 '하천의 생태'에 대한 관심과 '친자연형 하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하천 살리기 운동은 전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번져가게 된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단체들이 '하천의 복원'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환경부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명목으로 하천정비에 상당한 규모의 자원을 투자하면서 하천살리기 운동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양재천 복원사업이 생태복원의 모델로 소개되고, 지역 단체들이 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역공동체 복원과 연결하거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운동의 성격과 목적들은 점차 다양화하고 풍부해졌다. 또한 건교부와 행자부 등에서도 하천관련 사업 앞에 '친자연형'이라는 수식을 붙이면서, '친자연형 하천'은 모든 하천을 대신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는 하천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친자연형 하천'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들 사업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하는 과제를 새롭게 가져왔다.

그 중에서 시민단체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한정하여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운동들이 타지역의 성과를 학습하면서 이들 순서를 축약하거나 건너뛰는 등 다양한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1) 하천 정화 활동
2) 생태 답사(생태 조사)
3) 시민 교육(특히 어린이 체험교육)
4) 식생복원 주장
5)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공원 계획 추진
6) 주민축제(접근성 확보와 문화적 의미 부여, 생활 문화적 해석 출현)
7) 하천관련 조직 또는 네트워크의 결성
8) 도시계획이나 지역비전과 연결

1. 운동의 성과

기존의 환경운동이 반핵이나 수돗물 등의 분야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주민운동과 결합하여)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하천살리기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내용과 형식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운동의 주체, 내용, 방향 등에서 환경운동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1) 환경운동 주체와 내용의 확산

하천살리기 운동은 수원이나 청주처럼 행정기관과 대립하여 출발한 경우도 있고,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단계도 있다.

하지만 운동의 성향이 긍정적이고 다양한 수준의 운동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하천살리기는 운동의 주체를 확산하고 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답사 프로그램으로 적당했기 때문에, 그 동안 함께하기 쉽지 않았던 가족단위의 시민들, 아이들, 학교의 관심과 참여를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 진영에서

도 수질·대기·폐기물을 전공했던 공학자들 외에 생태학자들이 새롭게 환경운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재정을 지원하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기업들과의 교류가 늘어났다.

하천살리기 운동은 국민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과거 운동의 형태와 달리 (아직 활동가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시민들이나 행정기관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나아가 하천을 새롭게 구상하는 단계에서 운동은 단체들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으며, 지방의제 21의 추진 등과 맞물리며 행정기관과의 협력과 파트너쉽의 형성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결국 하천살리기 운동은 그 성격의 독특함 때문에 운동주체의 확산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하천 정책의 변화

이상의 운동사적 의미와 함께 정부의 하천정책에도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과 단체들이 보여준 물에 대한 본능적인 회귀의지가 행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자연형 하천'과 '친자연형 하천 공법'이 일반화되고, 건교부가 정책이념으로 이수, 치수와 함께 '친수(親水)'가 도입하거나 행자부의 '친자연형 소하천 관리지침'이 시행되는 것은 운동의 효과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즉, 하천정비 사업들에서 콘크리트 옹벽의 비율이 줄어들고, 하천부지에 교목의 식재가 가능토록 하천법 시행령이 개선되는 것들은 하천살리기 운동이 끼친 영향이다.

3) 환경의식의 향상

시민들은 도시와 지역에 하천이 있다는 것과 이들이 발휘하는 순기능과 지역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천이 인공의 시설로 대체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아가 하천 살리기 운동은 지역의 발전전략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천과 환경을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게 해 주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환경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하천을 지역의 자산으로 의식하게 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즉, 다양성, 순환성, 안전성의 개념이 반영된 생태도시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 매개가 되었다.

생태하천 복원이란?

-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가능한 원래의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시키는 것생물서식처, 종횡적 연결성, 유지유량 등을 포함하는 생태계 구조와 기능 회복 자연적 치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천의 생태적 복원과 치수안정성을 달성)

[생태하천 복원의 유형]



원형복원 (Restoration)

교란된 생태계를 가능한 원래 상태에 가까운 자연조건과 생태 기능을 갖도록 회복시키는 것



유사복원 (Rehabilitation)

훼손된 생태계를 생태기능이 유지되도록 안정시키는 것



대체복원 (Reclamation)

생태계를 목적에 맞게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의 개념]

물리적, 화학적 총체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총체성이 유지되는 수체



하천사업의 변화

- 과거 : 이·치수 중심의 하천정비로 하천 본연의 모습 상실
- 현재 : 이·치수, 친수기능 위주에서 수생태계 복원위주로 전환되는 과도기
- 향후 : 맑은 물과 건강한 수생태계 확보, 이를 기반으로 한 생태친수문화 정착



생태하천 복원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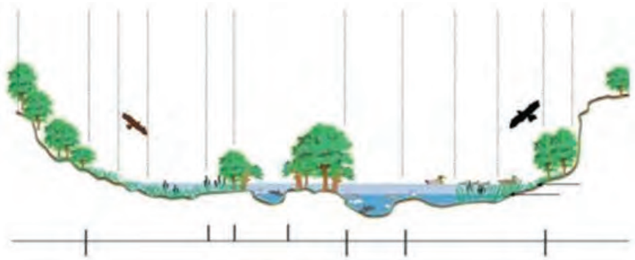
- 생물종과 생태계 복원 중심
  - 생물종과 생태계 중심의 하천사업 정착생태계 조사 → 깃대종 중심의 계획수립 → 설계,시공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생태계 훼손지역 파악 →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피드백 관리)과거 및 현재 하천의 동·식물 분포현황 및 고유종, 희귀종, 법적보호종의 서식 현황 등 하천 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생물종 보전·복원 중심의 하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 하천복원의 지표가 될 수 있는'깃대종'을 선정하고 깃대종을 보전·복원하기 위한 목표 및 복원방법 강구
  -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어떤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서 이 종을 보전·복원함으로써 다른 생물의 서식지도 함께 보전·회복이 가능한 종



• 생태계의 종적·횡적 연결성 확보

- 횡적 생태네트워크

하천구역 내에 제한적으로 추진되던 하천복원사업을 하천에서 주변의 자연환경까지 연계한 횡적 생태네트워크 구축개념으로 전환



〈횡적 생태 네트워크 구성도〉

- 종적 생태네트워크

하천내 일정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하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연계한 종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 건강한 물순환 체계구축

- 깨끗한 물공급 : 하상여과,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 자연형하천정화시설 적극 도입

- 수질오염유발원인 제거 : 하천 주변 및 수중의 쓰레기, 장마철 부유쓰레기 등 수거사업 추진

- 풍부한 물공급 :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저류 및 활용, 지하수 함양(涵養) 방안 강구



〈도심 물순환 체계〉

• 기후변화대비

- 고온수, 갈수기 유량감소 대비 : 녹지대를 조성하여 수원함양과 투수층 증대를 도모하고, 하천주변지역의 습지, 둠벙, 저수지 등을 조성하여 하천 생태유지용수 확보

- 이상홍수로 인한 피해 대비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시 이상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 수행, 생태하천공사 수행 시 공사시기 조절을 통한 예상피해 최소화

• 도심 건천·복개하천 복원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된 도심 복개하천 철거 : 사라진 도심지역의 옛물길과 실개천도 함께 찾아내어 복원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도록 수질개선 및 다양한 물공급 방안을 적극 도입



〈대전천 복원 사례〉

• 협의체 중심의 하천사업 추진

- '생태하천복원협의체'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지자체 담당공무원, 주민네트워크, 전문가 그룹 등으로 구성지자체는 환경, 토목 등 관련분야 담당공무원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참여 (예 : 생태하천 복원팀) 협의체는 구성원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도모



〈생태하천 복원 협의체 구성도〉

• 하천 고유의 특징, 역사, 문화를 찾아내는 하천사업

- 하천의 역사, 문화, 스토리 등을 적극 발굴, 하천고유의 정체성(identity)을 부여, 기록유지

역사, 문화, 생태계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하천 특성, 역사, 문화를 고려한 생태하천 복원〉

• 주민참여,학습의 장으로서의 하천관리

- 1사 1하천 운동 등 주민참여 운동을 통한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에 주민참여 유도
- 하천아카데미, River Parkway 등의 교육활동
- 하천 특성에 맞는 하천 생태지도 제작 및 배포 : 생물서식현황·역사·문화 등 주민이나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자료로도 활용 가능토록 제작



〈양주시의 생태지도 제작사례〉



〈1사1하천 운동의 7개 실천프로그램〉

[출처 : 국토환경정보센터]

다. 환경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디엠지

비무장 지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이가 155마일(248km)에 달하며 폭은 4km로 면적은 992㎢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휴전이후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자연 보전 상태로 이어져 왔다. 비무장 지대는 산악지대와 평야지대로 가로지르며 그사이에 계곡과 분지 그리고 여러개의 강이 포함되어 있으며 산악지대 생태계, 내륙습지, 그리고 담수 및 해안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는 생물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국제적 보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및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나 두루미류의 서식처 및 이동경로가 됨으로써 생물종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민간인 통제구역을 포함한 DMZ에는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2900종 이상의 식물 가운데 1/3이, 70여종의 포유류 가운데 1/2이, 320종의 조류 가운데 1/5이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비무장 지대는 크게 동해안 지역, 중동부 산악지역, 중서부 내륙지역, 서부해안 및 도서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후뿐만 아니라 산맥, 하천 해양이 존재하는 지형적 차이를 반영하며, 생태계 및 생물상의 특징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비무장 지대 넓은 습지



임진강 줄기



비무장 지대의 철새



쌈바귀 갯방풍 해란초



산양 사향노루 쇠가마우지

◎ DMZ의 자연 환경

DMZ는 전쟁의 폐허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변신했습니다.

DMZ 인접지역에는 식생우수지역,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자연경관지 등다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지역이 존재하며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2,930여 종이 서식·분포합니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분포하는 동식물의 30%에 해당하며 두루미, 저어새, 수달, 산양 등 보호가 절실한 멸종위기종 82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한강하구중립지역은 주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6년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DMZ는 한반도의 동서생태축으로 변신했습니다.

DMZ는 한반도의 허리 248km가 동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생태계, 즉 동서생태축으로서 남북생태축인 백두대간과 함께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입니다. 동서생태축은 크게 다음의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첫째 중동부 산악지역입니다. 백두대간부터 한북정맥까지의 북한강 유역으로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로봉 일대는 원시림에 가까운 생태계를 유지하며, 대암산 정상부에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용늪)이 있습니다. 둘째 중서부 내륙지역입니다. 한탄강 유역 화산지대인 철원평야와 연천을 포함하며 임진강이 있고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겨울을 지냅니다 . 셋째 서부지역입니다. 한강 및 임진강 하구를 포함해 대규모 습지와 갯벌이 발달한 기수지역으로 한강하구는 남한에 남은 마지막 자연하구입니다. 이를 볼 때 DMZ 일원의 서식처 및 토지 피복은 산악지형인 동부지역부터 하구와 갯벌의 평탄지형인 서부지역에 걸쳐 동고서저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MZ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추가령구조곡, 한탄강·임진강을 따라 형성된 주상절리, 적벽 등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경관도 아름다워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한반도전체동식물의	멸종위기종 82종	2006년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 지정
		

◎ DMZ는 어떻게 남과 북의 경계가 되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식을 선언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잠시 해방의 기쁨을 맛봤을 뿐 더 복잡한 위기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945년 12월에 열린 미·영·소 3국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는 문제에 관해 협의합니다. 이로 인

해 신탁통치 찬성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어 혼란에 빠졌던 한반도는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은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북한은 남한을 해방시켜 통일을 성취한다는 명분으로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일으킵니다. 민족 간에 총부리를 겨눈 채 밀고 밀리던 전쟁은 1951년 6월 30일 유엔군 총사령관 매슈 리지웨이가 공산군 측에 정전회담을 제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회담 결렬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대표와 북한·중국 대표 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남과 북 사이에 DMZ가 만들어져 끝내 통일이 아닌 분단의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DMZ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역사

1960년대에 들어와 DMZ는 점차 중무장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북한은 북쪽 DMZ 안에 광범위한 요새진지를 구축하고 무장공비를 남파하는(1968년 1월 21일 일어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1·21사태') 무력 도발을 감행했으며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정전감시기구(중립국감독위원회※) 무력화마저시도해, 자국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감독관들을 1993년 이후 차례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판문점에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전협정 체결 상대국 중 유엔군은 스위스·스웨덴감독관을, 북한·중국은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감독관을 파견했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노력



비무장지대인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들은 냉전·탈냉전 시기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시도돼왔고 여전히 의미 있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 제안으로는 1971년 6월 12일의 'DMZ의 평화적이용' 최초 제안(군사정전위원회), 1988년의 'DMZ 내 평화시 건설' 제안(노태우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제안들은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1991년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남북 최초 합의(남북기본합의서)' 도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성사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의 첫 제품 생산 등이 그 결실입니다.



DMZ의 새로운 가치와 달라진 위상

DMZ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지역이자 통일의 꿈을 품은 한반도 역사박물관입니다.(DMZ 서쪽 끝인 한강 하류와 그 주변 지역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한반도 역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DMZ가 지닌 역사성은 물론이고 이 땅이 품은 자연 역시 이제는 어느 한쪽도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역사와 현재 역사, 그리고 천혜의 자연이 공존하는 DMZ를 평화로 통일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			
학습 목표	1. 경기도의 환경 운동에 대해 안다. 2. 분단의 아픔인 디엠지를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살린다.			

<table>
<tr><th colspan="5">학 습 활 동</th></tr>
<tr><td>도 입</td><td colspan="4">생각 열기(5분) :</td></tr>
<tr><td rowspan="3">전 개</td><td>1. 시화호(15분)</td><td>시화호 환경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주는 피해를 알고 환경 생태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td><td rowspan="3">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td></tr>
<tr><td>2. 자연천 살리기 운동(15분)</td><td>하천의 중요성을 알고 보존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살펴본다. 미래의 하천에 대해 알아본다.</td></tr>
<tr><td>3. 환경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살아나는 디엠지(15분)</td><td>6.25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비무장지대가 주는 평화와 생태의 의미를 이해한다.</td></tr>
<tr><td rowspan="2">정리 및 학생활동</td><td>생각 나누기(20분)</td><td colspan="2">DMZ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2018년 크리스마스씰을 통해 알아본다.</td></tr>
<tr><td>함께 해봅시다(20분)</td><td colspan="2">통일 이후의 비무장지대 DMZ에 대해 상상하고, 이를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펼칠 수 있게 한다.</td></tr>
<tr><td rowspan="2">지도상의 유의점</td><td>수업의 주안점</td><td colspan="3">-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통해 자긍심을 키운다.
- 평화와 생태 공존에 대해 생각한다.</td></tr>
<tr><td>수업의 흐름</td><td colspan="3">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td></tr>
</table>

3.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다음은 비무장지대의 멸종위기 동물을 모델로 했던 2018년 크리스마스 씰입니다. 아래 빈칸에 그 이름을 써보세요.



두루미	산양	담비	반달가슴곰	흰꼬리수리
수달	삵	하늘다람쥐	사향노루	긴점박이올빼미

2. 통일이 되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세요.



〈자신의 생각 쓰기〉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4. 참고 문헌

[참고 도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시화호 정책사례, 2007

환경부,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만들기, 2011

[참고 홈페이지]

에코뷰&함께사는길 (http://ecoview.or.kr/)

국토환경정보센터 (http://www.neins.go.kr/)

한국환경공단 (https://www.keco.or.kr/group/group03/main/index.do)

경기도 DMZ (https://dmz.gg.go.kr/)

국제문화비즈니스클럽 (http://tourdmz.com/rb/?r=kor&c=1/8)

16차시

미래산업의 중심, 경기도

1. 미래산업

가. 4차산업혁명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도 일컬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第4次産業革命]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나. 인공지능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오랜 침체기를 거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어 디프러닝이 구현되는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이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아마도 2016년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건의 리스트에는 반드시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과 인공지능이 포함될 것이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분야로 떠올랐다. 덕분에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단숨에 이루어졌다.

인간의 지능을 가진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컴퓨테이션(계산)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굴곡진 시간을 거쳐 왔다. 1930~1940년대부터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기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튜링테스트가 개발되고, 수리논리학이나 컴퓨테이션, 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 정보 이론 등 인간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1956년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어 1970년대까지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영국의 AI연구소는 해체되고, 미국의 연구재단은 AI 연구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다 1980년대 신경망(neural net) 이론으로 인공지능이 재발견되었다. 신경망 이론은 인간의 사고를 두뇌 작용의 산물로 보고 이 두뇌 구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방법이 없었다. 다시 침체기를 맞았다가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으로 다시 부활했다.

검색 엔진 등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계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neural networks) 구조로 이루어진 디프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으로 발전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1997년 5월에는 IBM의 슈퍼컴퓨터 디프블루(Deep Blue)가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당시 체스 세계챔피언이었던 게리 카스파로프(Gary Kasparov)를 물리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IBM의 왓슨(Watson)이 미국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 〈제퍼디(Jeopardy!)〉 퀴즈쇼에서 두 명의 참가자들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는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에 따라 IBM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관심도 다시 크게 높아졌다.

기존의 컴퓨터는 인간의 연산능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도 인간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왔다. 더욱이 이는 인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인간이 관여했다. 그런데 컴퓨터가 인간의 관여 없이 스스로 학습해 결정하는 인공지능 능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지능은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으로 알려져 왔다. 물론 동물의 다른 종도 약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해 지능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만이 가진 것으로 알았던 지능을 컴퓨터가 스스로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다. 이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기계학습은 기계가 수학적 최적화 및 통계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도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신호와 패턴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적합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에 주력한다. 이런 기계학습 방법론에 기댄 인공지능 연구 흐름은 특히 2012년 6월 구글과 앤드루 응(Andrew Ng)이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디프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컴퓨터가 1000만 개의 유튜브 동영상 속에서 고양이 이미지를 74.8%의 정확도로 식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커다란 도약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디프러닝은 신경망 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해 가능해졌다(조용수, 2015).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자 디프러닝이 구현된 것이다.

이렇게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자 인공지능은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기계에게 이미지와 소리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심화학습 기법이 영상인식, 음성인식,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모두 미래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바이두, 알리바바, 삼성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적용 분야가 의료기술 향상, 유전자 분석, 신약 개발, 금융거래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구글은 2001년 이후 AI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영국 AI 기업 '디프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를 6억 달러(6600억 원)에 인수했다. 디프마인드는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다. 구글은 또한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하는데 앞장서 왔다. 로봇 분야에서도 앞서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이메일을 읽고 이용자의 모든 동작을 파악하며, 묻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알아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원하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알려 주는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 도우미를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 일환으로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Assistant)', 사물인터넷(IoT) 허브 '구글 홈', AI 모바일 메신저 앱 '알로(Allo)'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IBM은 '디프블루'와 '왓슨'을 개발해 인공지능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며,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IBM은 각 산업 전반에 접목해 거대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왓슨의 데이터 검색 능력과 자연언어 이용 능력을 활용해 개발자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IBM은 특히 왓슨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데 발군의 실력을 보여 주고 있다. 왓슨은 암 환자 치료에 암 환자의 데이터와 각종 의료 데이터를 동원해 암 발견과 최적의 치료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유명한 의사보다 왓슨이 더 정확하게 수행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왓슨 IoT 기술을 적용한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발표했다. 이 버스는 차량 외부에 장착된 센서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AI가 운전한다. 또 승객과의 일상 대화가 가능해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면 목적지와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운행한다. 이렇게 IBM은 왓슨을 실제 생활에 접목해 커다란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Cortana)'를, 이용자가 가장 먼저 의존하는 디지털 개인 비서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코타나는 자연언어 인식과 기계학습 기능을 갖추고, 검색 엔진 빙(Bing)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검색을 넘어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진화하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컴퓨팅 시대가 되어 '대화'가 인간과 사물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플랫폼과의 대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애플은 음성인식 정보검색 서비스인 '시리(Siri)'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I 시리를 외부의 앱과 연동해 서비스 확장성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서만 작동되던 시리를 PC와 노트북PC 운영체제(OS)인 맥 OS에도 포함한다고 한다.

뒤늦게 2013년에 AI연구소를 설립하고, AI 채팅플랫폼인 '챗봇(Chatbot)'을 공개했다. 10억 이용자를 기반으로 AI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편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AI 산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두는 구글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두는 구글의 인공지능 분야를 이끌었던 앤드루 응을 영입해 인공지능 연구소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바이두의 인공지능 연구소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지능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바이두의 비즈니스 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만들어 선도하겠다는 공통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기술을 공개해 더 많은 개발자 우군을 확보, 인공지능 생태계 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MS는 AI 코타나와 스카이프(Skype) 번역 음성 인식 기술 등을 오픈소스하고, 구글은 텐서플로(TensorFlow)를 오픈소스했다. 텐서플로는 머신러닝과 디프러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페이스북도 AI 기술을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빅서(Big Sur)를 공개했다. 빅서는 머신러닝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서버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였다. 중국의 바이두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바이두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개발한 AI 기술인 WARP-CTC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머신러닝 기술에 적용됐다.

이런 환경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와 쇼핑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취향을 읽어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부터 글이나 자료 작성, 자율 주행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016년 여름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보도에 '헬리오그래프(Heliograf)'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기사를 쓴다고 밝혔다.

알파고의 성공 역시 스타트업인 '디프마인드'의 작품이다. 디프마인드는 인간의 창의성이 작동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루어야 하는 바둑 게임을 통해 인공지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바둑의 세계 최고가 된 알파고는 〈스타크래프트(Starcraft)〉 게임에도 도전하며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알파고는 바둑 게임용 인공지능이지만 그 이면에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과 반복 학습을 통해 지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 등이 핵심 기술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기술은 다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다.

금융 업무도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다. '챗봇'은 AI 기술의 하나로 인간 방식의 대화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과거 챗봇은 단순 패턴매칭 방식을 사용해 사전에 정의된 키워드만 인식해 입력된 응답을 출력하는 방식이었다. 트윗봇(twittbot)이나 언론사에서 단신기사 작성에 활용 중인 기사봇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챗봇은 더욱 진화해 자연스러운 언어로 질문이나 명령을 하면 맥락을 파악해 응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화가 축적될수록 스스로 학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방대한 양의 금융거래 정보, 경제

지표 등과 같은 전문 정보를 알아서 학습하고 학습된 지식을 스스로 강화해 사람을 대신한 투자 자문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최근 개인 간(P2P) 금융 업체인 '8퍼센트'라는 스타트업이 챗봇 '에이다(Aida)'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전자신문, 2016.7.10). 예컨대 "소득은 3000만 원, 현재 근무 기간은 2년입니다. 1000만 원을 빌리고 싶은데 금리와 대출한도가 얼마일까요"라고 물으면 에이다는 대답과 함께 P2P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URL 링크를 안내한다. 이용자들은 웹사이트 접속 또는 전화를 걸지 않고도 메신저에서 대화하듯이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에이다에는 알파고에 적용되었던 디프러닝(deep learning)이 활용되었다.

특히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과 결합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데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예컨대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들이 왓슨과 같은 지능형 의료 플랫폼에 연결되면 단순한 건강 정보의 수집이나 모니터링을 넘어서 질병의 진단과 처방에 이르는 의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상용화된 AI는 대부분 서비스 영역에 그치고 있다. AI를 활용한 대규모 사업이 실현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AI가 아직은 오류를 내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최근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자율 주행 기능이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AI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글 등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도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일반도로 진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의 개발과 발전에 미국이 앞서 있지만, 중국이 대단한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된다. 중국은 인터넷에 이어서 인공지능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인간과 기기 간 상호작용,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자율자동차, 군사·민간용 로봇 등을 개발하는 차이나브레인(China Brain) 프로젝트를 13차 5개년계획(2016~2020)에 포함했다(김병운, 2016).

이제 마치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경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 자체가 바뀐다. 모든 산업 부문에도 인공지능이 연결되어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것이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고용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충격을 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2016.10.20., 커뮤니케이션북스)

다. 드론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됐다. 이뿐 아니다.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다. 처음엔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됐다. '드론'이란 영어단어는 원래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초창기 드론은 공군의 미사일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는데,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가 확장됐다.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많은 언론이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국은 2004년부터 드론을 공격에 활용했다. 2010년에는 122번 넘게 파키스탄과 예멘에 드론으로 폭격을 가했다. 비영리 뉴스제공 기관인 조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은 "미국의 드론 공격이 2~3천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라고 보도했다. 드론 공격으로 어린이 등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자, 드론 공격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후 드론으로 무차별한 폭격을 가하는 것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줄이기도 했다.

현재 드론은 군사용 뿐 아니라 기업, 미디어, 개인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시장에 나온 제품 가운데 90%는 군사용이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이 드론 기술력을 높이는 데 더 힘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2014년 12월 드론을 위한 공항을 따로 구축하기로 했고, 3300만 달러(약 366억 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새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아마존은 2013년 12월 '프라임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했다. 아마존은 재고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에어는 택배직원이 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는 유통 서비스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대거 고용했다. 아마존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법적인 규제가 풀리는대로 드론 배달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러한 스타트업에 눈독을 들이는 중이다. 구글은 드론 제조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2014년 4월 인수했다.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직원 20여 명을 둔 작은 회사인데, 페이스북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구글에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빼앗기자 다른 드론 업체인 어센타를 인수했다. 페이스북은 약 2천만 달러(약 208억 원)를 어센타 인수 금액으로 지불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을 내세워 인터넷 사업을 확장할 심산이다. 구글은 열기구를 이용해 전세계에 무선인터넷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열기구에 더해 드론으로 무선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도'인터넷닷오아르지' 프로젝트로 저개발 국가에 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1만 1천여대의 드론을 띄워서 중계기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글로벌 기업 외에 드론에 큰 관심을 가지는 다른 기업도 많다. 신문·방송 업계나 영화제작사가 대표 사례다. 이들은 드론을 촬영용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는 이른바'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현장 촬영, 탐사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을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피〉는 2014년 탄자니아에서 사자 생태를 촬영하는 데 드론을 도입했고, 〈CNN〉도 터키 시위 현장, 필리핀 태풍 하이얀 취재 등에 드론을 활용했다. 국내 방송사들도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 촬영에 이미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HD급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최근 많이 생산되고 있다.

배달 업계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영국 도미노피자는 2014년 6월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미노피자는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몇 년 안에 드론을 실제 배달 서비스에 쓸 예정이다. DHL은 '파슬콥터'라는 드론을 만들어 2014년 9월부터 육지에서 12km 떨어진 독일의 한 섬에 의약품과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엔 개인을 겨냥한 드론도 나오고 있다. 주로 RC마니아나 키덜트족을 공략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드론도 나왔다. 앞으로 일반 소비자를 공략한 드론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이 드론 연구 개발에 적극적이다. 방위산업체나 중소기업, 택배업체들도 최근 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아직 드론을 사용하는 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아직은 기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는 상태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 지역도 비슷하다.

드론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미리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독일 DHL은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 비행 구간도 따로 만들고 속도도 시간당 40마일로 제한해서 운행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 틸그룹은 향후 드론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 114억 달러 규모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성장을 보이는 드론 제작업체가 DJI다. 중국에 본사를 둔 DJI는 2011년 매출이 420만 달러였는데, 2013년엔 1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90명이었던 직원 수도 2014년 2800여 명으로 늘어났다. DJI는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저가형 드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담은 고가용 제품도 선보였다.

2015년 열린 국제 소비자 가전쇼(CES)도 드론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사였다. 2014년만해도 CES 현장에서 드론은 아직 생소한 제품이었지만, 2015년에는 드론을 위한 전시장이 6500㎡ 규모로 구축될 정도였다. 드론의 고공비행은 당분간 의심할 여지 없어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드론 - 군사용에서 키덜트 제품까지 (용어로 보는 IT)

라. 자율주행자동차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영화 전체가 마치 미래 기술의 전시장처럼 보일 정도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영화 중반, 톰 크루즈가 연기한 주인공 존 앤더튼이 누명을 쓰고 추격자들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다. 추격자를 따돌리느라 운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존 앤더튼 대신 자동차 스스로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 말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리는 미래 도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으로 그려진다.

전세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경쟁이 뜨겁다. 지금까지 자동차 기술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주도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만큼은 정보기술 업체에서 더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검색엔진으로 출발한 IT기업 구글과 그래픽기술 전문업체 엔비디아가 대표 사례다. 이들은 주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센서와 높은 성능을 내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도움을 받아 기술업체다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도 이에 질세라 자동차의 심장을 배터리로 바꾸고, 기술업체가 이룩한 각종 스마트 기능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중이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모바일 기기와 자동차를 엮으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묘사한 세계는 2054년. 앞으로 40여년 뒤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일상에 파고들 수 있을까. 기술업계에서는 2020년을 자율주행 자동차 역사의 시작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경쟁에서 가장 앞선 업체는 단연 구글이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자동차업체 차량에 카메라와 GPS, 각종 센서를 장착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초기 버전은 유명하다.

구글은 2014년 12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시제품을 가리켜 "실제 제품에 가까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지난 6년 동안의 연구가 녹아든 차량이라는 뜻이다. 이전 연구용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교해 자동차 위에 탑재한 센서 장비가 소형화됐고, 실제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각종 편의 기능이 추가됐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지붕에 탑재된 센서 장비는 '라이더(LiDAR)'라고 부른다. 원격 레이저 시스템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구글 기술의 핵심이다. 음파 장비와 3D 카메라, 레이더 장비도 포함돼 있다. 라이더는 마치 사람처럼 사물과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센서의 역할은 모두 다르다. 감지할 수 있는 거리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레이저 장비는 사물과 충돌해 반사되는 원리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한다. 360도 모두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1초에 160만번이나 정보를 읽는다. 또, 전방을 주시하기 위해 탑재된 3D 카메라는 차량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탑재된 기술이다. 3D 카메라는 카메라 하나로 사물을 촬영하는 것과 비교해 거리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사람의 눈이 2개의 눈으로 거리를 감지하는것과 같은 원리다. 3D 카메라는 30m 거리까지 탐지하도록 설계됐다.

이밖에 GPS와 구글지도 등 다양한 장비와 기술이 탑재돼 있다. 각종 첨단 센서 장비를 목적과 기능에 맞게 활용해 자동차가 감지할 수 없는 사각을 줄이는 것이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핵심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CES) 2015'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스마트카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단순한 스마트카를 뛰어넘어 기존 자동차 업계가 다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초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내놓은 기술이 가장 인상적이다. BMW는 전기차 'i3'에 자동주차 기술을 탑재했다. BMW의 자동주차 기술에는 충돌 회피 기술이 적용됐다. 차량에 장착된 4개의 레이저 스캐너가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자동차가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스마트워치와 연동하는 자율주행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운전자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멀리서 자동차를 부르면, i3 자동차가 미끄러지듯 달려온다. 장애물이 있어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대를 조작해 피할 수 있다. 자동차가 운전자 가까이 오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여는 등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카가 유기적으로 연동한다.

구글처럼 아직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차량이 밖에 서 있는 운전자를 향해 50여m 거리를 스스로 달려오는 기술이 i3를 통해 시연됐을 뿐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앞으로 BMW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벤츠도 CES 2015에 참여해 자율주행 자동차 'F015'를 소개했다. 자동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운전대는 대시보드 속으로 밀려들어가 운전석이 뒷좌석과 마주 보게 되는 모양으로 바뀐다. 실제 주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차량은 아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는 자동차 안에서도 편히 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벤츠의 기술개발 철학이 F015 속에 녹아 있다. 벤츠는 F015에 적용한 기술을 활용해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는 독일 자동차업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스웨덴의 볼보는 자석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실험 중이다. 도로에 자석을 설치하고, 자동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자동차에는 자기장 센서가 탑재돼 있어 도로와 한몸처럼 달릴 수 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묘사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가장 근접한 방식이다.

볼보는 지난 2014년 진행한 시험 주행에서 100m 길이의 도로를 만들었다. 도로 아래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제작한 자석을 심었다. 자석이 도로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차선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험 결과 차량의 차선 이탈 오차가 10cm 미만이었다는 게 볼보의 설명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만큼, 새로운 법률도 필수다. 특히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한편,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하나씩 손보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처럼 면허가 필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합법적으로 미국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고, 처음으로 시험면허를 획득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의 일이다. 구글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로 미국 네바다주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네바다주에서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운행할 때는 반드시 사람 2명이 함께 탑승해야 한다. 차량 내부에 설치한 모니터로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을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바다주 다음에는 플로리다주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좀 더 극적인 법안 마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2012년 10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에 직접 방문해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표준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이후 미시간주까지 2013년 12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험을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4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날 수 있다.

영국 교통부도 지난 2014년 여름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허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개 이상의 도시를 선정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험 무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시와 주행 실험에 지원할 예산도 174억 원 규모로 투입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주행이 시작됐다. 런던 그리니치와 밀턴 케인스, 코번트리 등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이 우선 허락됐다. 그리니치 지정구역에서는 보행자 감지 기능이 적용된 무인 셔틀도 운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가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덕분이다. 관계부처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을 위한 특구와 전용 구역을 확보할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율주행 자동차 – 스스로 움직이는 미래의 자동차 (용어로 보는 IT)

2.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가.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보도자료

1.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17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상주인구 기준)는 83만 4천 명(고용률 68.1%),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3만 4천명(고용률 64.1%)임

* '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은 61.3%

□ (외국인 임금) 전년대비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중은(46.5% → 57.3%) 10.8%p 상승하고, 『2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중(53.5% → 42.7%)은 10.8%p 하락

2. 체류실태

□ (국적) '17년 5월 기준, 국내에 체류(상주인구 기준)하는 외국인(40.0%)과 귀화허가자(38.7%) 모두 『한국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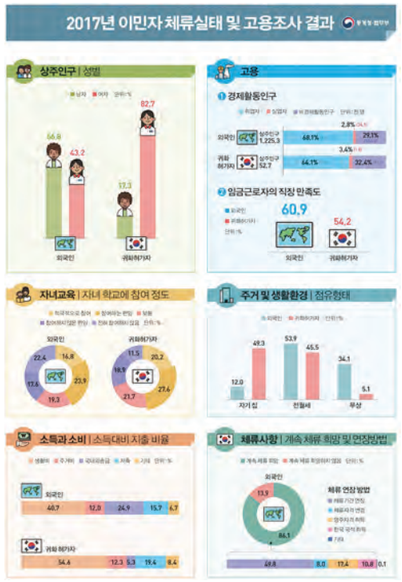
국』이 가장 많음
ㅁ (총소득)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이 외국인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2.2%)이 가장 많고 귀화허가자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5.3%)이 가장 많음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ㅁ (국적) '17년 5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14.5%)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13.2%), 『인도네시아』(11.4%), 『네팔』(10.6%), 『필리핀』(9.7%) 순으로 많음
ㅁ (한국 선택 이유)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73.1%)가 가장 많고 『작업환경이 좋아서』(10.4%) 순으로 많음

4. 유학생(D-2, D-4-7, 9)

ㅁ (국적) '17년 5월 기준, 유학생(D-2, D-4-1, 7)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48.5%)이 가장 많고, 『베트남』(18.2%) 순으로 많음
ㅁ (학교 만족도)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유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46.0%)이 가장 높고 ,『약간 만족』(39.0%), 『보통』(12.8%) 순으로 높음



3. 개성공단

가. 개성공단의 건설

경기도 개성시 봉동리 일대 9만 3000㎡ 면적에 조성된 공업단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22일 남쪽의 현대아산(주)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다.

2003년 6월30일 착공해 2004년 6월 9만 3000㎡ 면적의 시범단지조성이 완료됐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처음으로 반출되었으며 2007년에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기도 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뒤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8일부터 9월15일까지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 압박 카드 일환이다. 이로써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성공단은 2003년 12월 15일 첫 제품을 생산한지 11년 2개월여 만에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2016년 2월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 가동중이었다. 개성공단 조성부터 가동중지를 결정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총 6천 160억 원이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한 총액은 1조 190억 원(공공투자 4577억 원, 민간투자 5613억 원)이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4년 4억 7000만달러, 2015년 1~11월 5억 1500만 달러다.

[개성공단 관련 일지]

▲2003년 6월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년 12월 = 본격 가동
▲2008년 3월 = 북한, 통일부 장관 "북핵 진전 없으면 공단 확대 어렵다"는 말에 남측 당국자 철수 조치
▲2008년 12월 = 북한, 공단 상주 인원 880명으로 제한
▲2009년 3월 = 북한,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세 차례 통행 제한
▲2009년 5월 = 정부, 북한 제2차 핵실험으로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 허용
▲2010년 11월 = 정부,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 허용
▲2013년 4월 = 북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 철수
▲2013년 9월 = 가동 중단 166일 만에 재가동
▲2014년 11월 = 북한, 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으로 임금 인상 갈등 촉발

▲2015년 8월 = 남북, 공단 최저 임금 5% 인상에 합의

▲2016년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1월 7일 = 정부,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생산관련 인원'만 출입 허용

▲2016년1월 12일= 정부, '필요 최소 인원'만 출입 허용

▲2016년 2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년 2월 8일= 정부, 개성공단 출입인원 500명으로 제한

▲2016년 2월 10일=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발표

[네이버 지식백과] 개성공단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4. 교수-학습 과정안

과목	자유학년제 활동		담당 교사	○○○ (인)
학급	1학년 ○반	수업 일시	2018년 10 월 ○○ 일 (○요일) (5~6) 교시	
단 원 명	미래산업의 중심, 경기도			
학습 목표	1. 경기도의 미래발전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학 습 활 동			
도 입	생각 열기(10분) :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낚시터에 가서 드론으로 낚시하는 모습을 통해 미래 산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전 개	1. 경기도민이 만드는 미래산업(15분)	4차산업혁명과 경기도의 미래산업에 대해 이해한다.	남녀 혼합으로 4명을 1모둠으로 구성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2.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이주노동자 (15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있는 경기도의 상황을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자세를 가진다.	
	3. 개성공단 건설(15분)	남북한 경제교류의 상징이자 남북한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던 개성공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운영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탐구한다.	
정리 및 학생활동	생각 나누기(15분)	경기도의 첨단산업과 통일 이후 발전모습을 탐구한다.	
	함께 해봅시다(20분)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 올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 탐구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의 주안점	경기도의 미래산업 발달과 통일이나 평화의 정착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흐름	① 생각열기를 통해 동기 유발을 한다. ② 교재를 통해 활동을 파악한다. ③ '생각나누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④ '함께 해봅시다'를 활용하여 확장된 사고활동을 한다.

5. 학생 활동지

[생각 나누기]

1.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첨단산업은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 줍니다.

경기도는 어떤 첨단산업이 발달하게 될까요?

경기도의 첨단산업	첨단산업이 바꾸어 놓을 미래 경기도의 모습

2. 남북한이 평화가 정착된다면 교류를 통해 많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한이 인도와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육로로 관광 및 물자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남북 교류를 통해 어떤 산업이 발달하게 될까요?

[함께 해 봅시다]

1.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간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에게 보다 많은 여가를 제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까요? 한 가지 입장을 골라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세요

가. 인공지능의 발달은

나. 그 이유는

2.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었지만,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 여러차례 공장가동이 멈춤으로써 안정적이지못한 사업운영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개성공단을 가동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어떤 약속을 하여야 할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약속'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1.

2.

3.

6. 교사 참고자료

가.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양 정상은 이 선언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하였다.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네이버 지식백과] 4·27 판문점 선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나. 9월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남북 정상은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네이버 지식백과] 9월 평양공동선언(2018)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7. 참고문헌

경기도, 『육백년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14